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56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 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정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북귀섭리와 여자의 갈 길	9
총 청산 선언(영계 축복가정의 지상 재림 선포)	51
절대신앙·사랑·복종으로 조국광복을 이루자	75
축복 중심가정의 갈 길	88
평화세계와 하나님 왕권	105
평화대사, 가정당과 교육	114
평화대사는 하늘나라의 전권대사	120
통일교회와 일화 축구단	148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	150
일족을 축복하라	186
통일교회 사람들이 가야 할 길	192
참된 나를 중심한 가정·국가·세계	227
제4차 아담 정착시대와 교차결혼	236
남녀 평화대사 임명과 그 사명	259
4대 환원식과 하나님 왕권 수립	263
하나님의 뜻으로 본 평화로 가는 길	268
나라 찾기 위한 교육을 하라	281
참된 나를 찾자	297
하나님의 최고 무기	303

복귀섭리와 여자의 갈 길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님! 오늘은 2001년 10월 7일 새 달을 맞이하여 처음 맞는 안식일이 되웁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역사를 중심삼고 승리를 찬양하는 달이웁니다. 하늘의 탕감의 노정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많은 수난 고비 고비를 넘고 넘어 해방적 은사의 뜻을 받들 수 있고 은사의 축복이 머물기를 바라던 날로서 통일가의 가정 가정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10월 이 달은 하늘의 전체 복귀섭리에 있어서 총탕감해원성사하며 해방적인 천주사적인 은사를 허락하신 시기였사오니, 이 10월 달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자량과 아버지의 소망권 내에 희망의 달이 되고, 역사의 전환 시기에서 하늘의 승리의 깃발을 온 천주에 높이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중심삼은 통일적인 시대가 눈앞에 있사오니, 여기에 있는 하늘을 흠모하며, 하늘을 조국의 근본으로 느끼며, 고향 땅으로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적인 터전에 있어서 하늘을 모시고 충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유의 지상천국으로 전진하게

2001년 10월 7일(日), 일성 설악콘도(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지상 재림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후손들 축복받은 가정과 일체가 되시어서 상하전후좌우 일체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중심삼고 악의 부모로 말미암아 이뤄진 모든 반대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은 자동적으로 반대되어서 물리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축복가정들이 똘똘 뭉쳐 하나의 핵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와 지상 세계에 아버지를 모시는 보좌를 중심삼고 주변의 모든 환경 여건이 새로이 정비되어, 영광과 승리의 재창조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해방적 터전이 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히 통일교회를 믿다가 간 모든 자녀들이 영계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성인 성도 전체를 다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참부모의 사랑의 주류적인 사상, 하늘땅을 부모님 대신 천지부모로 모실 수 있는,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혈통의 주체로서 일체이상권으로 화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을 중심삼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를 중심삼은 나라에 있어서 보좌를 모신 모든 만유의 존재, 지상 천상천국에 있는 축복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이 달에 이루어지는 미국에 있어서의 준비하는 대회도 그렇고, 모든 전부가 아버지의 경륜 가운데 승리에 승리, 전진에 전진을 다 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원성사를 하시는 아버지 일대에 깨끗이 정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 있는 모든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의 승리의 꽃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쳐 하늘을 높이고 또 높일 수 있는 축복가정,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천사세계와 축복가정들이 일체가 되시어서 자유해방권으로 전진할 수 있고, 지상·천상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전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달 전체와

이 해 전체를 맡아 승리로써 가꾸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그래, 14일 지상 천상 통일? 「해방식이요.」 그 해방식 때 한 내용을 읽지. 그것 읽었나? 「책에 있을 겁니다. 주요의식 책에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야? 「속초 식구들입니다.」 속초! 있어? 「예. 이북출감 50주년 기념 및 영계 해방식입니다. (윤정로 원장)」 그래. 이제 7일이면 그 날이 또 오겠구만. 「예.」 그 날은 어디 가서... 우리 코디악 가? 코디악 들러? 자!

모자협조시대를 지나 부자협조시대 기준에서 환태평양시대가 와

「10월 달이 해방의 달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10월 4일이 이남 출감 기념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신 날을 기념하시고, 10월 14일이 이북 출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해방받은 날이 10월 달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늘 ‘9월 달을 잘 넘기고 10월 달 해방의 달이 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해방의 달입니다.」 해방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일년에. 그렇지요? 추수하고 모든 전부를 결실을 하고 그런다구요.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Ⅳ》 가운데 ‘이북 출감 50주년 기념 및 영계 해방식’ 훈독)

끝이야? 「예.」 그 다음에 모자협조시대, 부자협조시대, 그거 있나?

「예. 있습니다.」 어디? 「그 책 뒤에 있을 겁니다.」 그거 읽어 봐요.

부자협조시대에서 이제 해양권, 환태평양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라를 찾고 대륙을 찾고 동생을 찾아 가지고 최후에 판을 가르는 거예요. 모자협조시대에 타락한 어머니들이 고생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들과 아들이 하나되어 복귀되었기 때문에 천하에 있어서 부자라구요. 어머니는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아버지 대신 세워 가지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들딸을 나이 많은 어머니가 나라를 위하는 데 섬기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협조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도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해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부자협조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부자협조시대에는 아버지는 사탄에 승리한 기반에 서 가지고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디든지 지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택할 수 있고,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자협조시대라는 거예요. 모자협조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한 모자만이 있어요. 어머니만이 탕감을 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딸이 하나됐으면 아버지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해도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딸을 크게 길러 놓으면 계대를 이을 수 있는 핏줄, 사랑과 아기 씨가 연결되어 하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만 되게 되면 여기서 대를 물려 가지고 여자는 자동적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참 재미있어요. 서양도 결혼하면 성이 없어지지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해와국가는 결혼하면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족보에 여자들은 올라가지 못한다구요. 그것 알아요? 부자협조시대에는 어머니 때문에 망쳤던 세계가 어머니가 암만 잘못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하나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보충해 가지고 얼마든지 결여된 어머니 기반을 이어 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결되는 거예요. 영계 육계가 합했으면 지상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섭리사가 모자협조시대가 지나가고 부자협조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태평양시대, 아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북미 대륙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어느것이 주체냐 하면 이것이 커요. 여기서부터 다 갈라져 나간 거예요. 보게 되면 남북미는 아시아 땅에서 딱 갈라져 나온 거라구요. 갈라졌으니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서 하나 만드느냐? 하와이를 중심삼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시켜 가지고 미국을 흡수하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하나되는 날에는 미국이 서양으로 떨어져 내려갔던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시아로 하나되는 거예요.

예수가 동양에서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이 비로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양문명이 태평양문명권 시대를 거쳐 아시아에 돌아와 가지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이 거기에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자협조시대를 지나서 부자협조시대의 기준을 중심삼고 환태평양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시아와 남북미가 하나돼야

섬나라는 지금까지 비참했어요. 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개척했어요. 나라에 죄를 지어 가지고 벌을 받겠으니 도망가서 피하던 사람이 일군 나라가 섬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세계도 해방할 때가 왔기 때문에, 성인과 살인마를 축복한 하늘

은 무엇보다도 섬나라를 품고 섬과 육지가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수평선 통일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다도 하나님의 소유, 해와도 하나님의 소유요, 남자 육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중해 문명권은 여자와 남자가 딱 사랑관계를 맺는 거와 같아요. 질과 남자 성기가 합한 것이 지중해와 마찬가지로예요. 이것이 돌아와 가지고 태평양을 일주해서 육지의 생식기와 같은 것이 한반도고, 여기에 정남과 같은 것이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참 재미있는 것이, 지귀도가 있어요, 지귀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게. 태평양도 북으로부터 가라후토(からふと; 사할린)를 중심삼아 가지고 제주도를 통해서 남태평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제주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정남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섭리적 의의가 다 있다구요.

그래서 남북을 중심삼고, 한반도를 중심삼고...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이것이 네 개 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일본은 태평양을 업고 있어요. 태평양을 업고 있는 여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로예요. 한반도는 남자 생식기로 지구성을 업고 있어 가지고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에 있어서 지중해 문명권, 이탈리아 문명이 천년 역사에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중심삼고 일본이 하나되면 영원한 역사시대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예수가 몸뚱이를 동양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 접붙여 가지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과 남북미가 하나되어야 돼요.

남북미는 기독교문화, 신부문화권이에요. 신부문화권이에요. 아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까지는 신랑이에요. 이것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로 잘렸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왜? 사탄이 다 잘라 놓았어요. 이것을 잘라 놓고, 태평양도 동서로 갈라놓고, 다 갈라놓았다

구요. 거기에는 원수들이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해양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국경선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중국이 사탄세계의 해외국가와 같은데 하늘 편의 천사장 경계선을 지배했어요. 기독교문화권, 구교 신교를 완전히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신론주의가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유엔이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은 유엔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요? 이제 유엔이 필요 없더라도... 지금까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싸움터의 유엔은 필요 없어요.

세계평화대사의 역할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뭐냐? 광정환이 잘 알라구. 평화대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로마의 원로원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관이에요. 원로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평화세계, 이 땅에 하늘나라의 통일천하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권을 수립하고 하늘나라의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주요 역할을 할 것이 평화대사예요. 평화대사는 사탄세계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소화해 가지고 하나로 몰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계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국가까지 다 빼앗겼으니 이제는 국가 자체로 무력을 중심삼고 싸우던 것은 다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칼 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칼도 필요 없어요. 송곳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송곳. 알겠어요? (웃음) 아니에요. 파이프를 송곳으로 해 가지고 찌르면 그만이라구요. 여기 서서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심장만 뚫으면 서 가지고 눈 껌벅껌벅하면서 앉아 죽어요.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송곳을 가지고 심장만 찌르면…」 뭐 칼까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요즘 서양에서는 포크가 있고 스테이크 먹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잘 들어요? 그것은 뭐 고급 무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든지 수십 개를 끼워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번에 좋은 시범 케이스 다 이거예요. 잘났다는 녀석은 다 칼침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하지만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가지 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대표가 그 일을 하니, 종교는 초국가적 개인 개인을 묶어 가지고 댔으니,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세계적 종교에 있어서 분파적인 교파, 교파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는 종교를 활용해 가지고 붙어살겠다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앞동네 뒷동네가 하나 안 되게 되면 원수가 되어서 몸 마음이 싸우는 것같이 싸우는 거라고요. 몸 마음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부부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싸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중단 세계화한 것이 현재 미국의 워싱턴하고 뉴욕을 들이 갈겨 버렸어요. 무엇 가지고? 원자탄이에요? 무엇 가지고? 피스톨(권총)이에요? 칼을 가지고, 칼. 칼은 너무나 좋지. 송곳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원수끼리 결혼하면 평화의 세계가 돼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선생님은 심각하다구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거예요. 수습하는 것은 간단하다구요.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그 원수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하고 바꿔쳐야 돼요. 빈 라덴인지 뭔지 딸끼리 여편네 바꿔쳤지? 「예.」 이야! 그것도 넷째 번 색시로 삼았더구만.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큰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이 나라를 다 빼앗겼으니, 전부 졌으니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죽자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도 용서해 주고 사랑해 가지고 품으니, 칼싸움을 하다가 끝이 안 나게 돼도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싸우고 살겠어요?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지식이 있으면 뭘 하고, 정치해서 뭘 해요? 불안해 가지고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말이에요. 집 밖에 못 나가 가지고 앉아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방안이 없는 거예요. 원수 원수끼리 결혼할 수 있는 방안이면 천하가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축복가정들 여러분 아들딸 중심삼고 좋은 색시, 신랑 얻겠다고 누구 누구 가정하고 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돼요, 거꾸로. 머리 머리를 맞추어야 될 텐데 머리하고 다리하고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부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늘 나라나 하늘 뜻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이제 격리시대가 와

이제부터 격리시대가 와야 된다고요. 에이즈 같은 환자 격리시대, 가정파탄을 한 가정 격리시대가 오는 거라고요. 호주 같은 나라는 영국에 있어서 감옥살이하던 사람들 격리 대륙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와 같이 해 가지고 북극 남극에 격리하는 것입니다.

북극 남극은 다 비어 있어요. 거기에는 백곰도 살고 펭귄들이 살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그런 입장에서 3년, 4년 살아 남으면, 벌 거벗기고 쫓아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아 남으면 형기에 따라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죄가 엄청나다는 거지요. 자기 부모니 무엇이니 나라를 잃어 가지고 거기에서 곶을 잡아먹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자리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친척들이 가 가지고 탄환을 주는 거예요. 총이라도 하나 갖다 났으면 말이에요. 엽총이라든가 총은 있는데 탄환이 없으면 그걸 자기가 만들겠어요? 자기 어머니, 사촌들이 몰래 감옥에 가서 그것을 구해 주겠다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런 놀음을 해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을 협조 안 할 수 없고, 아들이라면 부모를 협조 안 할 수 없고, 형제를 협조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연을 그리워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나라, 집을 찾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이 간절해져야 와 가지고 상륙하더라도 그 나라에 본 될 수 있고 옛날에 파괴시키던 행동이 없어져서 평화로 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격리시대가 와요, 격리시대.

우리 통일교회 교인도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축복받아 가지고 타락한 녀석들 그 아들딸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쓸어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휘발유를 치고 불살라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참부모의 핏줄을 더럽히면 용서가 없어

지금 임자네들이 요전에도 위안축복을 안 해주느냐고 하지만, 위안축복이 문제예요? 때에 전념하는 것이 문제지요. 설용수는 이렇게 보니까 눈이 벌겍게 되어 있더라구요. ‘간절히 간절히 비나이다!’ 야, 세

상에 내가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해 주고 지옥 갈 사람까지 해방해 주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해주었는데, 위안축복을 하겠다고 죽겠다 살겠다 그런 사람을 그래 가지고 신문사 사장으로 만들어 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졌으면 책임하기 바빠 가지고 잊어버리고 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한번 받았으면 죽든 살든 붙들고 하나님같이 살고, 여편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대신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빌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여자가 갈 길이 막혀 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안 되면 큰일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두고 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영계에 가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구요. 그 아들딸은 사탄의 아들딸보다 더 미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밋지만 참부모 앞에도 미운 거예요. 참부모의 핏줄을 더럽혔어요. 알겠어요? 아담 해와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줄과 참부모의 핏줄과 관계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핏줄과 참부모의 핏줄을 더럽힌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옥보다 더한, 거꾸로 무저갱(無底坑)에 처넣어야 돼요. 무저갱이란 것이 있지요? 밑창이 없는 갭이에요. 금광의 갭도와 마찬가지로 무한히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갱에 떨어지면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어 가지고 사탄세계의 고통받는 원성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려 주려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게 되면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아요. 딱 갈라 가지고 천리 만리 들리지 않는 세계로 분할해 버린다구요. 선생님의 권한이 그렇게 있다구요. 있나 없나 두고 보라구요.

선생님이 왕권 수립하고 기도해 가지고 달라졌지요? 이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7일이니까 4일 전 뭐라구요? 개천절을 중심삼고 영계의 지금까지 조상들, 축복받은 가정들 지상 재림식을 해야 된 다구요. 이번에 내가 청평에 들어가 가지고는 영계가 준비가 안 됐으

니 설명을 해 가지고 명령을 따라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모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의 대모님이 기독교의 성신과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실체예요. 3시대입니다. 거기에 또 대형님이 있어서 상대해 주고 영계의 모든 것을 수습하고, 홍진 군을 중심삼아 가지고 소생 장성권에 막혔던 것을 다 허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적 수련을 청평에 가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갈라진 것이 한 곳이지요? 영·육계가 연결된 곳입니다. 다 그래서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구요.

갈라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생명·혈통을 중심삼고 연결해야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 말씀을 읽고 가리면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복잡한 그걸 어떻게 가겠노?’ 하겠지만, 그걸 듣고 알고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 주기 위해서… 사탄세계의 더럽혀지고 막힌 것이 참대 마디와 같이 된 거예요. 그 참대에 마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복귀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대가 마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마디를 따라 혈통을 통해 사탄세계를 이뤄 놓은 것을 풀어 놓아야 돼요. 풀어 놓아 가지고 마디가 없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디를 만들기 전 씨까지도, 씨의 자리에 거꾸로 몰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돼요. 세상에! 마디 있는 참대를 마디 없게 만들어 가지고 씨 자리에 몰아 넣어요? 씨가 되게끔 그것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 중생이 그거예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했지요?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했는데, 딱 그와 같은 거라구요.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어요? 거지로 돌아다니다가 부잣집 생일날 잔치에 갔으니 아침 점심 저녁까지 얻어먹는 거예요. 거지가 아들하고 딸 같은 사람으로 왔으니, 그 부잣집 부모가 딸 손자 아들 같은 것이 왔으니 아들딸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줘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쯤 먹여 주니까, 그 세계가 자기 세계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구요.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부자가 갖출 수 있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라져야 돼요. 그렇지요?

아미존강의 물줄기에 들어왔으면 아무리 무엇이 가더라도 그 물줄기를 타고 대해(大海)로 들어가요. 출발을 잘못하면 동서사방으로 갈라지는 거라구요. 열두 지파 지류가 장손을 중심삼고 연결돼요. 열두 지파가 한 나라 한 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대해로서 통일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두 방향이 뭐예요? 수백 방향으로 국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과 핏줄을 중심삼고 연결해야 됩니다. 강줄기와 마찬가지로요. 딱 마찬가지로요.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하나님과 아담 완성의 핏줄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하나의 큰 나무가 되더라도, 나무 가운데 가지, 가지 가운데 잎사귀나... 세포번식이 있지요? 잎사귀의 한 세포에는 그 나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상 지상의 왕권 수립을 위해 희생해 나온 흥진 군

이제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안 나가요. 축복 다 해줬으니 그냥 가지를 얹어요. 나라를 세우고 법을 세워 가지고 법에 걸리면 재까닥 재까

탁 즉결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전부를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요. 선생님하고 홍진 군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책임지고 전부 정리하려고 그러지요? 메시아가 뭐예요? 아들을 키워 가지고 왕 만들기 위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진 군이 지상과 천상의 왕권을 위해서 전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고 예수는 아들로 와 가지고 지상 섭리를 했지만, 재림시대는 하나님의 왕권 승리의 패권을 중심삼고 영계도 미완성한 것을 전부 해방시키려니 홍진 군이 가 가지고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하나님이 보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 부모님은 재림주와 같이 영계의 구세주로 보낸 것이 홍진 군이에요. 거꾸로 된 것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갔으니 아버지 위에 설 수 없으니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 타락할 때에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이 끝날에 있어서는 부자지관계로 이것은 숙명적인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은 숙명적이 아니예요. 부자지관계가 안 돼요. 원수같이 갈아치우는 거지요. 다르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상에 있어서 부모님이 완성해 가지고 영계에 예수님, 재림 메시아를 보낸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재림주가 지상에 축복하려고 오지요? 영계에 참부모 혈족이 가 가지고 영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홍진 군이 축복해 주지요? 반대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지천(地天)이 되어 있던 것이 천지(天地)로 바로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라구요. 알겠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축복가정 아들딸을 중심삼고 혜진이까지도 축복 다 해주지 않았어요? 희진이도 영계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줘 가지고 지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성인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지상에서 형제지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식이예요. 수난사, 선생님의 50주년 출옥 기념일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탄의 자연 감옥을 해방해 주는 거라고요.

통일교회에 인연됐던 사람들을 헌법 발표 전에 용서해 주고 싶어

자, 그것을 읽어 보자! 잘 들으라고요. 찾았어? 「예. 찾았습니다.」 김효율은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응. 책에 나왔으니 그렇지, 언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태평양시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동문이 배후에서 워싱턴 타임스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일본 나라 일본 대사관하고 해 가지고 한국 대사관하고 미국 외무부 장관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언론계가 해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들이 다 제멋대로 놀고 있는데 제멋대로 놀게 해서 안 돼요. 컨트롤해야 된다고요. 광정환이 그런 것을 다 알고 가서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 대신….

선생님 친구 가운데 꼭 씨가 있는 것 알아? 「잘 모릅니다.」 「거 있잖아요? (어머님)」 「친척은 아니고…」 친구! 「예. 꼭노식입니다.」 노필이야, 노필. 「그 전에 한번 만났더랬습니다. 작년에 만났던가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감옥에 같이 들어갔더랬어. 감옥도 같이 간 사람이라고. 그 결혼도 내가 다 해준 거예요. 축복 대신 다 그런 건데, 그것이 앞으로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넘기려고 해도…: 그 녀석 미국 갔다와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니 찾아오겠다는 얘기는 없어. 가서 한번 만나면 좋겠어. 「예.」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있어서 인연되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재교육해 가지고, 왕권 헌법을 발표하기 전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에요. 국가 헌법을 제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말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악마까지도 해방시켜 주고 결혼시켜 준 선생님이 통일교회의 원수 된 사람들까지도 풀어 놓을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전에 우리 심청이 공연할 때, 혼숙이에요, 혼숙이. 혼숙이 중심삼고 영계의 흥진 군을 중심삼고 영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참석시켜 가지고 선물도 나눠 준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자기들은 그걸 지금 모르지요?

선생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옥을 바라보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독교 신자 이상, 어떤 종교 이상 정성을 들인 그 마음을 밝아 치울 수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잘라서 나무에 접붙여 줄 수 있기 바라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볼 때에 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비통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끝나고 왕권시대로 돌아가야

자, 환태평양시대 알겠어요? 「예.」 요전에 그것 교육하고 왔지? 「예.」 전부 다 아직 안 끝났지? 「두 나라 남았습니다.」 두 나라? 그 나라는 하늘나라에 자동적으로 서로 입적하겠다고 그래야 된다구. 「예.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 미국만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1만2천쌍 축복하려던 것을 명년 봄에 14만4천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삼고 축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려면 미국 대통령 부시 2대, 3대가 연결돼요. 이래 놓으면 하늘나라의 왕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시 행정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동문! 「예.」 그 3대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몰라. 그

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석해야 돼. 제리 파웰하고 부시 아버지하고 말이야. 친구지? 옛날에 대통령 할 때에 제리 파웰이 전적으로 밀어서 대통령 해먹지 않았어?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의 3대를 거쳐 가지고 왕권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같은 4년제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부시 시대는 말이에요, 4년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붐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4년제로 어떻게 국가가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개척할 수 있어요? 꿈같은 얘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년제로 해야 됩니다. 8년제로 남자가 하면 여자 8년 해서 16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딸이 16년 해서 32년 하는 거라고요. 사팔이 삼십이($4 \times 8 = 32$)예요. 이가 32개예요. 그것 알아요? 이게 세상을 소화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왕권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하라고요. 이번에 여자를 중심삼고 여자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때예요. 대통령의 어머니가 누가 되느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같이 명령해야 돼요. 그 딸 사위가, 아담 해와 같은 사위 집안이 생겨야 돼요. 아들딸을 중심삼고 축복 중심가정이라고 했지만, 딸 중심삼고 축복 중심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야 이것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대통령이 될 것이야?’ 하겠지만, 여자 대통령, 여자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자들이 선전하는 데 절반 이상만 되더라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초국가적 연합적인 국가 형태를 만들어야

똑똑히 알라구, 이 녀석아! 광정환이, 똑똑히 알라구. 주동문이 똑똑

히 알고! 워싱턴 타임스가 했으면 내가 결혼식 한 이후에 차고 나가 가지고 밀어 제끼려고 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이 날아가더라구요. 흑인들을 중심삼고 판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흑인이지요? 좋은 때를 놓쳐 버렸어요. 한국의 외무장관이 거기에 의장이 되게 되어 있잖아? 곽정환이 친구라고 그랬나, 잘 안다고 그랬나? 「그 사람은 친구는 아닙니다.」 잘 안다고 했지? 「그냥 알고 지냅니다.」

프로그램이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사를 탕감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유엔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 그 기록을 잘 생각하라구. 「예.」 초국가적 연합적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섬나라들을 사서라도 말이에요, 남미를 잡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팔더라도 만들겠다고 총생축헌납물로써 하늘 나라를 사 가지고라도 사탄세계가 천년 만년 자기 땅이라고 하지 못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미국이 코디악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자기 땅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받았는데. 통일교회 교인들이 우리 한국 땅을 전부 사야 돼요. 미국이니 자기 땅을 팔아 가지고 비싸든 뭇이든 몽땅 사는 거예요.

남북을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예요. 북한 땅, 김정일은 먹고 물러가라 이거예요. 너도 먹고 물러가라 이거예요. 잔치하고 출발하게 될 때는 지지미니 뭇이니 해 놓고 ‘췌!’ 하고, 아세라 목상 앞에 주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예서를 대해서 ‘너도 먹고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게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예요. 준 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줬다고 해서 받은 사람의 것 되는 것이 아니예요. 3분의 2쪽이에요, 저기는 3분의 1이고. 사탄세계의 주인이 되게 될 때는 3분의 1은 사탄세계고 3분의 2는 하늘 편 아니예요? 반대 되는 거지요. 저쪽이 3분이 1이 되고 이쪽은 3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줬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주더라도 3분의 2의 주인은 나예요. 그것을 못 먹어요.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빼앗겨 가지고 3 자체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섭리상에 얽혀 있는 최 씨와 박 씨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계되어 있던, 박 씨가 그런 놀음을 했으면 박 씨가 전부 다 거지가 되니 전부 다 빼앗는 거지. 그런 거예요. 박 씨 할머니 하나 중심삼고 인연 맺어 가지고 북귀역사를 위해 하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룰 때까지 문제가 돼요. 최 씨! 박 씨 다음에는 최 씨예요. 한국에 와서는 최성모 가정이에요. 이득삼이 아냐? 그것 아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효진이 결혼도 최 씨로 해줬어요. 선생님도 성진이 어머니가 최 씨이고, 성진 어머니의 어머니가 한 씨예요. 한 씨하고 최 씨하고 박 씨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 씨들이 말로가 좋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길을 가 가지고 이 박사 시대에 통일교회 선생님을 감옥에 처넣는 놀음을 했어요.

일이 그렇게 된 것을 다 풀어 나가야 돼요. 최순영이 지금 걸려 있지? 그 여편네가 기독교의 열성분자예요. 통일교회의 득삼 씨와 3모녀예요. 참 재미있어요. 어머니와 큰딸, 작은딸, 동생이에요. 요 넷이 통일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맏아들이 반대한 거라고요. 딱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최 씨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최 사장도 보라고요. 최봉춘 선교사로부터 최창립, 최 씨들이 그래요. 최 선생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 놔야 돼요. 다리 놓아 놔야 돼요.

주인 되기 힘들어요. 최성모가 잘했으면 통일교회 경제가 부강하고, 박 씨가 잘했으면 박홍식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문제에서.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한 씨예요. 최 씨하고 한 씨, 박 씨가 문제예요.

박구배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 세상 같으면 벌써 이별한 지 오래 됐지. 그 한 무리를 해방해 주려니까 지상의 후손이 잘했다는 조건을 남겨야 돼요. 박판남이도 박가예요. 박 무엇인가? 축구도 박판남, 이북도 박상권, 남미도 박구배예요. 거기에서 선생님 가정에 있어서 운 전수로 제일 가깝게 지내 가지고 어디 가든지 선생님을 모신다고 자랑하는 박동하도 있어요. (웃음)

박 대통령 시절에도 박 씨들이지? 그 비서실장이 누구던가? 「경호실 장요.」 경호실장 박종규입니다. 박종규하고 박보희하고 형제가 되라고 했는데 배짱이 없어요, 박보희가. 거기에 가서 살고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것을 못 해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번 통일원 장관이 박 똬이던가? 「전 통일원 장관이 박재규입니다.」 그게 박종규의 동생이라구요. 「예.」 전부 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을 박준규 국회의원인 3대 해먹었지? 「예.」 노태우 때부터 3대 해먹었나, 2대 해먹었나? 「예, 3대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3대 해먹지 않았어? 박준규 친구가 곽정환이지. 세계일보 허가 내준 것이 그 국회의장 아니야? 노태우 때 말이야, 박준규 통해 가지고 노정권 시대에 신문 허가 난 것 아니야? 신문 허가 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곽정환이 책임 못 하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이. 거기에 박지원, 그 다음에 누구? 박주선! 대통령의 제일 측근자가 박 씨예요. 참 묘한 거예요. 그것을 통일교회 사람들이 안고 추지를 못했어요.

가까이했으면 안고 출 줄 알아야

그러니까 가까이했다가는 안고 추지 못하면 반대 받아요. 원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나? 전에도 광정환을 잡아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세상에! 날강도예요, 날강도.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지, 벌써 감옥에 갔을 거라. 광정환을 내가 불러 가지고 ‘이 녀석, 어디 해봐라.’ 한 거예요. 워싱턴의 보이지 않는 쌍칼잡이가 <워싱턴 타임스>예요. 쌍칼잡이 알겠어요? 날이 앞뒤에 있어요.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 타임스>를 무서워하나? 「크게 신경 씁니다.」 아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웃음) 세상에! 언제든지 자기 입장 편리하게 얘기해. ‘물론입니다.’ 하면 하늘이 볼 때에 ‘이 녀석 쓸만하다.’ 할 텐데, 뭐 신경 씁니다? (웃음) 자리를 봐 가면서 대거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친구들과 놀던 것하고 나라의 패권자를 중심삼고 대하는 수직과 수평이 달라. 언제든지 그래, 물어 보면. 점수가 전부 빵점이야. 신경? 말 참 잘했다! 신경 씁니다? (웃음) 자기로서는 그 이상 답변이 없지. 신문사 사장을 해먹기 때문에 그만한 답변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나 따라다니지 마요. 혼독회 하기가 힘들지요? (웃음) 매일 같이 혼독회 하는데 혼독회가 바람 혼독회가 되면 안 된다구요. 울고 불고해야 혼독회인데 말이에요, 한국에 있어서 누가 죽으면 빈소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눈으로 왔다갔다하고 생각을 하면서 소리만 내듯이 그렇게 해서는 큰일나요. ‘다 아는 것을 또 하는구만.’ 이러면서... (웃음) 왜 웃어요? 내가 들어 보면 알아요, 몇 도라는 것을. 종을 치면 땡 땡 하는 소리를 선생님은 안다구요, 몇 도짜리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윤 선생님, 나한테 선생님이라는 말 들었으면 저나라에 가서 ‘아이

고, 선생님이 나보고 윤 선생님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줄개새끼들아, 내 말 들어라!’ 할래? 사실이 그래. 내가 윤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 저 나라의 기록에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녹음되고 있습니다.」 (웃음) 글쎄! 여기에서 녹음한 것보다 근본이 영계라구. 선생님 앞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욕도 먹고 매맞고도 울지 않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매를 맞아야지. 우리 후손이 맞을 것을 내가 대신 맞는다.’ 이러면 복 받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먹는 성식의 의미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나보고 약속한 대로 절대 안 이루어 줬어요, 반대로 했지. 그래야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좋아하지. ‘저 축복가정 전부 다 이루지 못하고 감옥 갔다. 감옥 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나오거든. 몇 차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사탄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죽을 사지에서, 칠성판에서... 칠성판 알아요, 칠성판? 뭘 칠성판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그것 모르지요? 칠성판이 뭐예요? 시신을 놓는 판이에요. 시신의 오금을 묶기 위한 마디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꼬부라지지 않게 칠성판에다 하는 거예요. 살이 없어도 뼈가 곱게 누이게 판때기(칠성판)에 놓았다가 그걸 그냥 그대로 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갖다가 묻는 거예요. 칠성판에서 살아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뭘 좀 먹어야지요. 먹으라구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혼독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혼독회 기다리는 사람 앞에 놓고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요. (웃음) 혼독회 할 때에는 먹기가 힘들지요? 나도 모르겠지만 나 하는 일이, 영계에서 나 하는 대로 다 되어 있는 것만은, 나도 모르지만 그것만은 알아요. 그거 얼마

나 신기하고 얼마나 멋지겠나! 땅에서 한마디한 것이 주르륵 영계서부터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맛 다 보았으니까 이제는... 오늘 주일날 아침의 이것이 성식이예요, 홀리 푸드(holly food). 이걸 먹음으로써, 일주일 동안 죄지어가지고 영양소가 안 되는 모든 것을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섭리역사로 본 여자의 복귀노정

아까 선생님이 레아의 남편이라고 그랬나, 라헬의 남편이라고 그랬나? 아 물어 보잖아? 과거의 레아는 라헬의 재산을 도적질했지만, 이제 복귀시대의 레아는 모든 복 받은 것을 동생에게 넘겨주는데 그 레아의 소유까지도 붙여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야 돼요.

어머님이 처음에 어디 가든지 여자들이 선생님 뒤통무니를 따라 다니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생각해 봐요. 선생님은 옛날의 해와로 보게 되면 약혼했다가 자기가 파혼한 남편이에요. 이것이 복귀시대에 있어서 동생의 남편 대신 동생이, 아벨이 언니가 되어서 언니의 남편을...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 어머님은 여자들 앞의 동생에서 왕의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할머니의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어머니의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의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딸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6대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다 몰랐지요. 그런 것을 선생님이 알고 다 조정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쓸쩍 넘어가 가지고 넘겨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많은데 그걸 다 잘 모르지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했다가 쫓겨난 남편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편을 지상세계에서 하늘의 품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기 때문에 다시 땅 위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참부 모라구요.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왕이예요, 왕.

사탄세계의 여왕이 행차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탄세계의 할머니, 사탄세계의 어머니, 사탄세계의 처, 사탄세계의 만딸, 전부 여자들이 바람잡이가 돼요, 바람잡이.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예요. 여자들도 자기 아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야 돼요. 후대예요, 후대. 자기 급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보게 되면 하늘 편 아벨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귀의 혜택권 내에 역사는 그렇게 교차적인 역사를 엮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반대 받아 전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형님이 돼야 될 것이 동생이 됐지요? 안 그래요? 왕권을 빼앗겼고, 할머니권을 빼앗겼고, 어머니권을 빼앗겼고, 아내권을 빼앗겼고, 만딸의 권을 빼앗겼어요. 그것을 사탄세계에서 찾아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빼앗겼느냐 하면, 천사장과 아담 때문에 빼앗겼어요. 그러니 아담은 천사장 세계를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관성 전도를 한 것을 사탄세계에서 찾아와야 된다고요.

찾아오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모든 여자가 일렬로 서 가지고 교체, 왕의 자리, 할머니 자리, 어머니 자리, 아내의 자리, 딸의 자리의 연령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의 비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뤄 줘 가지고, 여자들이 ‘쫓아냈던 남편을 맞아들이자.’ 해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못해도 수십 국가의 연합적인 국가 형태의 종단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의 구교 신교를 중심한 섭리의 과정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 역사의 기록을 가진 것이 영국이에요. 미국은 따라가자는 거지요. 해외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나라를 점령하고 교회를 점령하고 다 그런데, 나라를 돈을 중심삼고 선교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양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오대양 육대주에 해 지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의 판도를 가진 거예요. 아시아권 사탄세계의 왕국들을 힘을 가지고, 해적단 괴물이 되어 가지고 점령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해적단을 전부 때려잡기 위한 영국의 패권주의자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삼고 16세기에 해양권 발동을 해 가지고 전부 점령한 거예요. 미국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싸운 거예요, 남미와 북미가.

하늘이 섭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땅들도, 동부와 서부로 갈라진 땅도 사 놓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그것 산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교 신자들과 천주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라파에 있는 모든 구교의 핵심요원 신교가 미국의 신천지를 흡수해 버렸어요, 제일 정수(精髓)를. 이래 가지고 짧은 2백년 내에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2백년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퓨리탄(Puritans; 청교도)을 중심삼고.

그래 가지고 그 대륙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을 학살한 거예요. 병나서 죽었어? 학살했지. 하나님이 인디언을 학살한 것을 용서한 것은 뭐냐? 인디언이 몇억이 됐든지 그 학살한 몇십 배의 인류를 살려 주기 위한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남기고 인디언을 제거하더라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천하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구라파 대신, 그 이상의 북미 대륙이에요. 한 나

라지요, 한 나라. 구라파는 수십 개의 나라가 합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북미를 중심삼고 신교가 이렇게 되니까 구교가 따라서 신교한테 지지 않겠다고 해서 남미에 와 가지고, 형제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해야 될 텐데, 케네디 대통령이 구교라구요, 구교. 그래 가지고 구라파 위주의 정책까지 나와 가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서, 남북미가 합해 가지고 아시아 정책을 위해야 할 텐데 구라파 위주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 바꿔치기 하는 놀음을 선생님이 섭리상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이래 가지고 지금 아시아 연안의 제국이 남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둘 됐으니 남북미연합운동인 카우사 운동으로부터 30년 역사가 연결됐어요. 예수님의 30세와 같은 그런 역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내가 남미에 가자마자 신학자들 회의를 한 거예요, 구교 신교의 신학자들 중심삼고. 그래 가지고 제1차 회의를 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자고 하는 것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것 하다가는 안 돼요. 조건만 세워야지, 돈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 치다꺼리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랬다가는 통일교회 기반을 닦을 수 없으니까, 통일교회 기반을 닦으면서... 거기에 상대적 국가, 국가의 어느 누가 벌거벗고 죽기 전에는, 사탄이 자원해 가지고 바치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왜 땅을 사는지, 박구배도 걱정했지? 「예.» 듣건데, 선생님은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구만. 그것 알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유엔과의 비준을 맞추어 가지고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번 대회 때에 입적, 유엔의 소유권으로 봉헌해야 돼요. 알겠나, 광정환? 「예.»

이번에 발표할 때 선생님이 총생축헌납이라는 말을 유엔 도상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만큼, 문 총재가 전번 회의 때에 발표했으니 만큼 이러한 땅을 유엔에 해 가지고, 이것은 못사는 사람, 유엔이 지원 하고 싶은, 굶주리고 못사는 사람, 교육받지 못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구휼할 수 있는 땅으로서 봉헌한다는 이것을 선포해도 괜찮아. 알겠 어? 「예.」 알겠나? 「예.」

그래서 초종교·초국가왕고(WANGO; 세계엔지오연합)를 중심삼 은 소유권으로서 유엔에 봉헌한다는 조건을 딱 발표하면, <워싱턴 타 임스>는 이걸 신문기사로 내 가지고, 이 기사와 더불어 앞으로 이 땅 을 남북미를 연합시켜 가지고 전세계를 지도하는 구교 신교 종교권연 합의 기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인들의 후원과 종교인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고, 굶 어죽는 사람을 살려 주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발표해 버리 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문 하나 내야 된다고요.

그래, 정치 풍토가 암만 하더라도 ‘이 땅은 통일교회 땅이 아닙니다. 유엔의 땅입니다.’ 해서 문서를 딱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들이 문제삼을 때는 우리 유엔의 이 소유권을 중심삼고 초종교 초국가 초엔지오(NGO)가 연합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삼아 가지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세를 취하게 되면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하고 유 피 아이(UPI) 통신을 통해서 말이에요.

언론 제국을 만들자

이제 유 피 아이 신문을 만드니 부락 부락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 들은 유 피 아이 신문을 안 볼 수 없어요. 신문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 로 초종교권에서 모금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라도 좋아요. 전 부 다 해 가지고 평화대사를 돕기 위해 초종교권들이 그 기금을 조성

해서 한 곳에 납금시키는데, 그것은 워싱턴 타임스 관리권 내로 들어가야 돼요. 이래 놓으면 일반 신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문 하나 밖에 안 남아요.

이래 놓아야 이 악당들, 거지떼거리들, 신문사를 통해 선전해 가지고 돈벌겠다는 사람, 정치 기반을 닦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정당한 기사를 내주는 데는 통일교회 밖에 없다, 워싱턴 타임스와 유 피 아이(UPI)밖에 없다고 소문을 내야 된다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이 무서워하는 것이, 저 단체는 돈 받고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모든 사실을, 역사적 전후 좌우 기준에서 치우치지 않는, 헌법 기준에까지도 치우치지 않는 기준으로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다 믿고 의지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그런 언론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언론 왕국을, 언론 제국을 만들어야 돼요. 언론 제국에서는 3권 분립했던 그것을, 그 꿈무늬가 전부 뒤로 안 끌려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준비 공작이 다 끝났어요.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 광정환! 지시해. 명령이야. 주동문, 알겠어요? 우리 방송국 있지? 방송국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종교권의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를 소개하는 내용을 발효하는 거야. 자기 교주가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는 따라가겠다는 발표로부터 전부 짜라구. 알겠어? 광정환! 「예.」 주동문! 「예.」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래 가지고 세계가 좋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돼.

세계 사람들이, 지성세계의 언론인들이 영계를 알아야 돼요. 이래 놓으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통일교회의 그게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반드시 감정하려니까, 그래서 요전에 120명의 메시지, 김영순보고 지시한 것 알지? 그것 다시

얘기해 줬나? 알았어? 「예.」 나는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 한 굵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구. 그거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맡아 가지고 처리했는데, 그것 다 가르쳐 줬어? 「예.」

교과를 중심삼고 그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영계의 사실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실체 역사성을 중심삼은 상대적 기준을 문서를 통한 증거적 조건을 중심삼고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게끔 일방통행으로 들이 꺾데기를 씌워 버리는 거예요. 커버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욕을 먹더라도 왕권을 중심삼고 영계의 성인들을 소개하는 거지요. 그래, <세계일보>에서 소개했지요? 이번에 내가 개천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인가? 어머니에 대한 것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평을 못 들었나? 보고를 안 해주네. 「아직 접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재미로 해야 돼. 세상이 지금 놀라 자빠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 부정할 수 없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는데 부정할 수 없으니 따라와야지.

부모님 가정은 3대부터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한 시간 넘었나, 벌써? 「넘었습니다.」 (웃음) 세상에! 나도 지금 나이가 많아도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뭐 못 참는 모양이지? 으- 하면 벌써 삭- 했대. 그래서 뭐 옷이 안팎으로 배니까 그것 창피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시간만 되면 어떤 자세로라도 옆으로 가든, 뭐 대통령 앞으로 가다가 오줌을 흘리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약속을 했다가. 허락했다구. 알겠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어머니가 그런다고 앉았다 일어섰다 들락날락하

면 다리를 꺾어 놓으려고 그래요. 오줌 싸기 전에는 못 가요. (웃음) 그렇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어머니가 이러니 ‘저 문 총재는 가르치기는 절대 하나되어 가지고 꿈쩍 못하게 하면서 자기 여편네는 해방해 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석에서 빈번히 세계가 알 수 있게끔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왼손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래서 공석에서 설명해 줬으니 다 있어요. ‘어머니는 한 시간만 되게 되면 어디 출장소에 갔다 와야 된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 그걸 평할 수 있는 여자가 있거들랑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아기를 열셋을 낳았어요. 선생님의 아들딸들이 잘생겼어요. 여자들도 보게 된다면 보통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아들딸은 절대 국제결혼 못 한다구요. 핏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자시대에는 말이에요, 핏줄이 달라져도 돼요. 사방으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3대에서 사탄세계가 나왔으니 3대에서 퍼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계를 순식간에 소화해 버려요. 축복가정들 전부 교차결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하고….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이 교구장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하고 맞서야 된다고요. 결혼 상대가 왕, 도지사,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왜? 다들 똑똑하다구요. 어디 가도 말 잘하는 통일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지요? 윤 서방도 그래? 「예.」 ‘예’야? 도수를 지나치게 말하게 되면 사기꾼이 돼.

우리 김형태를 내가 거짓말도 하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선교사의 핏말을 가진 상 받은 대표니까 선교사들을 살려 주려고 기반 닦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희망이어야 할 텐데 점점점 암초에 부딪혀요.

그러한 선배들 후배들을 위해서 정성들이는 것보다도 자기 계획적인 것, 자기를 중심삼고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협조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역사를 가만 보면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 놀음을 잘 하더라구. 공석에서 충고입니다. 자기 욕심이 앞서면 일족이 망해요, 일족이.

이제 내가 이것만 먹고 끝내자구. 목이 마르니까, 한참 말을 했으니까 물 한 잔 먹고 시작하자구요. 이거 미숫가루인가? 「예.」 자! 잘 들어요. 무슨 시대? 「부자협조시대!」 그것 요전에 일본에서 1천764명이 왔을 때에 일본의 해와국가 사명을 중심삼고 세밀히 얘기했어요. 그것 참고하라구요. 충고해야 된다고요. 노골적으로 세밀히 얘기해 줬어요. 자, 읽어 봐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과 아들을 귀하게 여겨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아들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지 않고는 어머니의 본래의 자리를 못 찾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 망쳐 놓았던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2차대전 이후에 여권해방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왕같이 모신다고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구요. 여자는 여자의 갈 길이 있어요. 달라요. 알겠어요? 「예.」 이놈의 여자들!

미국 여자들은 ‘아이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우세하다.’ 그랬는데,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는 서릿발을 맞았어요. ‘이런데도 여자가 처음이야?’ 여권을 중심삼고 여권 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남권 제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 대신 아들을 아버지 이상 여왕같이 모시고,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는 그 여자의 품에서 하늘나라의 인맥, 하늘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아들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자들? 「예.」

강원도 여자들이 잘생겼나? 여기 이름 뭐인가? 월남인가? 「영동지방입니다.」 영동? 영동 여자들이 영서 여자들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원래 ‘미인은 영동’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미인의 ‘미’ 자가 ‘미급하다’의 ‘미’ 자 아니야? 「아름다울 미(美)’ 자입니다.」 (웃음) 영동 여자들이 아름다울 게 뭐야?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비린내나 피우고 어부의 아내가 많은 영동 여자들 아니야? 농사지을 것도 없잖아? 풀뿌리를 팔아 가지고 공짜 산삼이나 캐는, 홍길동같이 일확천금을 한다고 바위 틈을 뒤흔치고 산을 뒤흔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꽃을 심고 나무를 심자

이제는 좋은 때예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 산이 많은 여기 강원도가 제일 나무 부자예요. 그래, 우리 박구배는 한국에 나무가 모자라서 큰일난다고 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동지방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여기 여자들은 룯색을 짙어지고 다니지요, 여자들이? 변소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소변이 마려울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이 주방에서 쓰는 식칼 있지요? 식칼을 대장간에 가게 되면 안팎 식칼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3분의 2쯤 해 가지고 뭉툭하게 해놓고 칼 좌우편을 해 가지고 삽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손으로 해보이시면서) 이렇게 우겨 넣으면 대변에...

이걸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오줌 쌀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걸음걸이 걷는 것을 보면 알아요. 궁둥이를 젖고 이렇게 가게 되면 ‘똥 싸러 가지 않으면 오줌 싸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남자들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게 해 놓고 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오줌을 숙 싸 가지고 짹짹 묻고는 말이에요, 꽃씨를 하나씩 심어요, 꽃씨. 그것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거 멋지겠어요! 자기가 오줌 싸고 꽃씨를 심은 것이 가을이 되어 거기에서 무슨 꽃이 안 피겠어요? 코스모

스 꽃, 무슨 꽃, 무슨 꽃, 장미꽃까지 심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장미 꽃 줄기를 잘라다가 꽃아 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미에 가 가지고…. 이제 제일 문제가 나무예요. 사막 지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막지대는 문제없어요. 지금 때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것이 문제없어요. 우리 배, 현재 52 척짜리 여섯 사람이 타는 그 배에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담수를 안 싣고 나갔으면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먹기 위한 그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양이라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바닷물을 얼마든지 담수로, 강과 같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녹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녹지대를 만들 수 있어요. 사막이 점점 점점 늘어나지요? 나무를 자꾸 자르니까 홍수가 나니 점점 늘어나는데, 반대로 우리는 심어 가지고 사막을 녹지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제일 잘살 수 있는 이런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론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적으로 기온을 덥게 해 가지고 사방으로 수증기를 모이게 해서 비도 오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을 해야 인류가 몇천년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3백년 후에는…. 해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7년이 지난 지금은 말이에요, 곤충이 죽고 새가 죽고 그래요. 판타날도 요전에 물이 말랐을 때 가오리니 뱀이니 빠구니 둥둥 떠 가지고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랬나?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돼요. 그거 왜? 산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보존을 안 하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룩색을 지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꽃씨를 심는 거예요. 꽃도 푸른 지대에서 산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꽃 같은 것도 질소를 먹어 가지고 산소를 내놓아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꽃을 심어

푸른 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자들이 룯색을 짙어지고 다니던데, 룯색을 매니까, 궁둥이가 큰 데 조그만 이걸 짙어 놓으니까 어울려요. 허리띠가 가느니까 보게 되면 궁둥이 때문에 점점 짙어 갔을 것 같은데 룯색을 지면 그게 어울리더라구요. 이래 가지고 꽃씨로부터, 그 다음에 나무 씨를 넣어 갖고 다니면서 심는 거예요. 나무도 씨 있지요? 짙어지고 다녀 가지고 파서 그 다음에 오줌이나 똥을 싸서….

오줌이나 똥은 양변기를 쓰지 말자 이거예요, 도심지라도. 그 대신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50미터 그 간격은 전부 푸른 지대를 만들어요. 가운데쯤에 남자 여자의 경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편네가 룯색을 지게 되면 거기에 칼이 있고 씨가 있으니 오줌 쌀 때 나가 가지고 땅을 파서 싸고, 똥 쌀 때도 파서 싸고 심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10년 후에는 푸른 지대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춥고 더운 데 관계없이 식물이나 동물을 가꾸고 기를 수 있어

그래, 지금 얼마나 이 공기가…: 그래 가지고 산중 같은 데 기후가 차든지 하면, 열대지방의 식물까지도 가져다가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전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게 꽃 같은 거 심어 놓은 화분 있잖아요? 나무가 심어진 화분이 추운 데 있으면, 전지를 중심삼고 스위치만 넣으면 온도 몇 도를 중심삼고 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3년만 되면 그 씨를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양 지대의 고기로부터 모든 식물을 옮겨올 수 있게끔 북양 지대, 남양 지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기로.

파라과이 같은 곳은 전력이 40퍼센트가 남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배에 공급 받아 가지고 그 높음을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송전선을 중심삼고 변전소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 냉동시설을 해 가지고 북양에서 나는 고기를 양식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구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전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면, 온도를 중심삼고 남방 고기로 만들자 하면 그 온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1년 2년 해서 그 온도가 체질에 화하게 되면 그만한 늪을, 못을 크게 해 놓고 한 몇 도 떨어지면 조금 더 옮겨 가지고 더 큰 데서는 몇 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춘하추동 온도에 맞게끔, 13도 이하까지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얼마든지 북쪽 남쪽 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박구배, 그런 생각 안 하지? 「못 해봤습니다.」 그거 알아두라구. 꿈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 두라구. 그것 가능한 얘기야. 「예.」

바나나 같은 것도 여기서 배양할 수 있지요? 온실에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 안 하나? 바나나 같은 것도 땅을 중심삼아 가지고 온실 같은 것을 밤에만 딱 덮어놓으면 말이에요, 온실 같은 것을 비닐로 해 가지고 씌워 놓으면 낮에 햇빛이 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방어할 수 있으면, 그 온도만 보존하면 문제가 없다구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방에서 나는 과일 같은 것을 길러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방에 덥다고 걱정하지 말라구요. 한대지방같이 할 수 있어요. 냉동하고 그렇잖아요? 냉장고가 있지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해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돈을 한 20억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탄강에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팔아먹

자는 계획을 했어요. 미국에 그걸 특허를 내 가지고 14억에 발전소를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정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손대 가지고 개발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문 사장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다구요.

그것은 물이 한 자만 흐르는 곳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 어디든지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산골짜기 물은 언제든지 흐를 수 있는 거라구요. 계곡 계곡을 전부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 넣어 가지고 고지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면 어디든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송전선을 통하려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 지역 한계선을 극복해 가지고 어디든지 자가 발전해 가지고 소용, 필요한 전력을 보급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런 것을 다 알아요, 그 분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의 애틀랜틱 비디오 센터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샀던 거예요. 요즘에 와 가지고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주동문이 좋아하잖아요? 그것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나?

마음이 예쁜 사람이 미인

자, 알겠어요? 여자들, 알겠어요? 「예.」 여자는 여자의 책임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듣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선생님 말 안 듣게 되면 천국 못 가요. 걸려요. 걸린다구요. 걸레, 걸레가 뭘 하는 걸레예요? 마루 닦는 것이 걸레예요. 그렇게 돼요.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마음이 예쁜 사람이 최고의 미인이예요, 얼굴이 미인인 사람보다. 영계에 가게 되면 마음이 예쁜 사람은 얼굴 예쁜 사람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몰라

요. 만나서도 누구인지 몰라요.

‘아, 이런 미인이 어디 있던가?’ 하고 보면, 웃으면서 ‘아이고, 나를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굴 보기를 처음 보는데?’ 하면 ‘그렇지만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하,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모양은, 그 윤곽은 같지만 두리두리한 아줌마 같은 그 얼굴이 꽃이 피었는지 향기까지 풍기는 미인으로서는, 그것을 뿌리로 해 가지고 싹- 미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또 그 나뭇의 놓고 못 살 수 있는 미인이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나? 놔 놓고 못 살 수 있는 미인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남편은 생각대로, 마음대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굴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요. 알겠어요? 「예.」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싫다고 하던 남자든지 여자든지, 싫다고 해 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눈이 곧아져 가지고 울던 여자들도, 밥을 못 먹고 죽겠다고 하던 여자들도 남자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6개월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가 미남자 중의 미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랑이 다 미남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한 3년만 살아 보라고요. 다른 남자를 갖다가 대면 비린내가 나고 말이에요. 싫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 남자 여자의 그 기관이 참 보화통이에요. 이럴 수가! 내가 흑인들도 일본 여자하고 많이 결혼도 시켰는데, 모여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 흑인하고 결혼했는데 일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니?’ 하고 물어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흑인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빛깔이 검은 것이... 여자들은 말이에요, 사랑사랑 해 가지고 조그마한 보자기를 쌀 때는 밝은 데에서 안 싸요. 그늘진 데에서 싸는 거예요.

딱 그렇다나? 사랑도 그렇게 하니까 맛이 뭐 몇 가지 맛이라고 그래요. 시고 달고 뭐 어땡고…. 오미자가 아니고 칠미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꿈에도 자기 남편이 흑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밤을 지켜 줄 수 있는 주인이요, 낮에는 밝은 세상에 밝은 표제가 안 되니 시커머니까 얼른 상대가 되어 ‘저것 내 남편!’ 해서 중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도 해줬지만, ‘야, 나도 요술 바가지를 몰랐더랬는데 그 축복을 잘 해줬구만! 국제결혼 더더욱 장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사위 며느리로 오색인종을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손자시대에는 말이에요. 손자는 여러분의 손자가 아니에요. 아들딸을 국제결혼시키고, 많은 국가와 민족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도 민족적인 그 일족의 열두 지파, 열두 나라 사람들이 3, 4대권 내에 살다가 천상세계에 가게 되면 열두 나라가 한 집같이 대번에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얼마나 복이에요? 말은 안 배워도 다 통해요. 일주일이면 통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온다구요. 얼마나 편리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웃음) 또 앉누만. 나보다…. 다리가 부은 모양이지?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이 여자들 얘기가 오래 나올 것 같아요. (윤정로 원장)」 (웃음) 여자들 내용이 오래 나와? 「여자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글쎄, 여자들 말씀이 오래 나온다는 것은 선생님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지. (웃음)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남자보다 여자를 조금 낫다고 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자 얘기가 오래 나온다는 말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결론이 아니야? 그런 실례의 말을 할 수 있어? 책임자가 그래 가지고는 장

사 못 해.

자, 이제부터 신호탄 갔으니까 틀림없이 해요. 잘 들으라고요. 여자들이 안 듣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아침 준비하려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 장군님들이여? 「예..」 잘 들으라고요. 자!

『모자협조시대 선언. 2000년 11월 11일...』

「부자협조시대 선언입니다..」 「아, 부자협조시대 선언!」 (웃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가 전환되는 말이라구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부자협조시대 선언’ 말씀 훈독에 이어 윤정로 원장 기도)

외롭고 고독할 때는 고향이 그리워져

오늘 누구 생일인 사람 없나? 생일잔치 하면 좋겠구만. 「김형태 회장은 양양군수를 데리고 간다고 내려갔습니다..」 데리고 간다고? 양양은 싸우는 게 양양 아니예요? (웃음) 여자들이 왕왕 하지 않고 양양양양 하지 않아? 남자들은 왕왕왕왕 하고. 한남동의 양양 하면 누굴 말하나요? 「양연실입니다..」 양창식 동생이라구요.

바람이 부나? 바람 안 부는 것 같구만. 좀 부나? 「조용합니다..」 가서 방어를 잡으면, 두 마리만 잡으면 실컷 먹을 거라. 방어가 크지요? 어제 고성군수가 그제까지 방어가 안 잡혔는데 어제 잡혔다는 얘기 하더구만. 바람 안 불어? 「예. 지나가는 바람은 없어도 산이 다 바람뿐입니다..」 (웃음)

(뺨꾸기 소리가 들려 오자) 어디 산에서 울러 오노? (웃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팔도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몰려 온 사람들 아니예요? 강원도 사람 몇 사람인가 한번 손 들어 봐요, 강원도 사람.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경기도는 한 사

람밖에 없네.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안도는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일본 부인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응. 일본 부인들이야? 강원도에 시집와 가지고….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태국하고 필리핀도 있어요?」 「안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 여성들은 앞으로 복 받는 거예요. 많이 시집을 보낸 나라도 복 받고. 그래, 복을 나눠 주려고 해도 다 싫어하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고생하지요, 강원도 산골에서? 내가 언제 한번 고생한 사람들을 데리고 비행기에도 태우고 좋은 데…: 사람은 많이 못 태우지만 여객기보다 비싸요. 여객기보다 비싼가, 여객기만한가? 주동문! 「여객기 나름이지요. 그러니까 보잉 747보다는 싸고요, 757보다는 비쌌습니다.」 거기에 여덟 사람, 아홉 사람 타냐? 열 사람? 「열한 명 탑니다.」 열한 명! 그것 아주 뭐, 날 때는 시속 6백 마일까지 날더라구. 「예, 그렇습니다.」 바쁘면 6백 마일 이상으로도 날 수 있는 거야. 「마하 0.8입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보다 빠르지.

그래, 수고한 일본 아줌마들을, 세계 어디 갈 때는 고생 많이 한 사람, 노망해 가지고 똥 싸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셔서 효녀상을 탄 사람들을 한번 구경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본 어머니들이 한국 사람들 앞에, 한국 후손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많더라도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여기서 대학 나온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뭐 해? 「남편은 뭐 하는가 일어나서 한번 소개해 봐요.」 「주체는 승화했습니다.」 승화했어? 언제? 「2년 전입니다.」 너는 몇 살인가? 「지금 서른일곱입니다.」 아기는? 「아기는 하나인데, 돌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누가 하나? 자기가 벌어대냐? 「아직 제가 벌지 못하고 예금해 놓은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시집에서는 뭘 해요? (곽정환 회장)」 「아무것도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축복받았나? 「36만쌍

때 같이 받았습시다.」

그 다음! 남편이 뭘 해? 「정화조 회사에 다닙니다.」 그래, 남편이 좋아해? 매 안 맞아 봤나? 「가끔씩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매 안 맞아 봤어? 「예. 물론 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웃음) 「마음이 너무 착합니다.」 다음은? 「일성콘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 여기에 네 남편 어디 있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그럼 네 집이 여기로구나. 네 집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구. 「예.」 「또 신랑 뭐 해요?」 「스포츠 센터,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뭐 해요?」 「건축업 합니다.」 선생님을 여기서 처음 만났나? 「아닙니다. 작년에도 경배식 하러 왔습시다.」

내가 이제 외국에서 시집 온 아줌마들을 자주 만나려고 그런다구요. 통일교회에 잘못 들어왔다! (웃음)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나도 타향살이를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에는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에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 보고 싶어요. 그리워지는 거지요. 살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상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구요.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 살던 모든 것, 그 길에서 다 회상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고 못한 것,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반성해 가지고 자기 입장이 어땠다는 것을 가서 죽 보고하게 되면 그 심정적 유대가 깊어지는 거예요.

너도 고향 떠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자기가 자라던 고향이 그리울 때가 많지? 「행복합니다.」 행복은 뭐? 너 혼자, 과부가 되었는데도 행복해? (웃음) 자, 앉으라구요.

「속초 교역장 부인 어디 있어요? 예. 아버님, 지난번에 승화한 김남걸 속초 교역장 부인인데, 쉰셋이었는데 직장암 때문에 승화해 가지고 제주도 수련회 때요, 아버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 원전에 갔

지? 「예. 그 부인입니다.」 그래? 가만 있어.

어머니 어디 갔나? 엄마요! 우리 일본 아줌마들 내가 선물은 뭐 줄 것이 없으니까,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구만. 몇 사람이야? 다섯 명? 「아기가 있어서 밖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야? 자, 2백 달러 씩! 돈을 많이 가지고 올 텐데, 이것밖에 없구나! 몇 사람 있어? (돈을 나눠 주심)

자, 이제 밥 먹고 슬슬 해보자. (경배) *

총 청산 선언 (영계 축복가정의 지상 재림 선포)

수련생들은 어디서 왔어? 일본에서 왔나, 한국에서 왔나? 「일본, 한국, 서양, 이렇게 왔습니다. 입적 수련생들입니다. (훈모님)」 여기에 전부 모이라고 할 걸 그랬지? 「아버지가 내려가시면 되지요. (어머님)」 내려가? 「그런데 아버지가 어제 기도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어디에 모여 있을 것 아니에요? 훈독회 시간이니까.」 「각 나라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어제 밤에 와서 다들 놀랐겠구만. 오늘 우리 가잖아? 몇 시야? 저녁 여섯 시야? 「네 시입니다.」 떠나기를 여기에서 떠나야지. 「공항 출발은 네 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시에 나가야 되겠네. 「예. 늦어도 두 시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을 못 들르겠네. 자!

영계 축복가정의 지상 재림을 명령해야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환태평양시대 선언’부터 ‘하나님 왕권 즉위식’까지 훈독)

자, 방에 있는 사람 번호 해봐요. (번호를 함) 시작할 때부터 지금

2001년 10월 8일(月), 천주청평수련원 천성왕립궁전 3층.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까지 남은 사람은 남고, 그 가외는 다 나가라구요. 「혼독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만 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십시오.」 나가라구요. 사진사! 「있었습니다.」 처음 있었나?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번호 해봐요. (번호를 함) 「24명입니다.」 아까 출발할 때 24명이었는데 두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요.

오늘의 혼독회는 의의가 크다고요. 이번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청평을 들려야 하기 때문에 들렀다고요. 이번에 원래는 어머니하고 10월 3일 개천절에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영계의 축복받은 모든 축복가정들은 지상재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의 축복받은 형제가 같이 서고 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형제가 되는 것도 탕감복귀시대 역사에 이렇게 반대로 돌아와 가지고 가인이 형 됐던 것을 반대로 뒤집어 박아야 돼요. 이렇게 돌던 것을 반대로 이렇게 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살던 것이 바로 돌 때는 가정적 형제가 되어 가지고 왕권을 중심삼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축복받은 지상 사람들도 3대권을 중심삼은 여덟 식구가 되어야 돼요. 3대를 중심삼고 그 아들딸까지 하면 8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로서 지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의 나라와 내 나라와 더불어 그것이 세계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요, 전체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은 천사장급 핏줄을 받았던, 그릇된 핏줄을 받았던 것을 접붙여서 지상에 와 가지고 장자권이 복귀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상과 천상세계에서 천사장이 장자 되던 것이 아담권을 중심삼고 지상에 장(長)의 자리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이 장자권 되고 접붙인 것은 동생의 자리에 서서 둘이 하나되어 가지고, 쌍둥이가 되어 가지고 가정적 가인 아벨이 갈라진 것인데 가정적 가인 아벨을 통일시

키러니 불가피하게 영적 세계 전부의 재림을 명령해야 된다구요.

국가 환원시대가 왔다

영계는 세 살 이상 된 모든 영인들을 축복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삼일식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삼일식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계에 있어서 영계에 간 사람들이 완성의 조건을 갖는 그 기준에 들어와서 비로소 돌감람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지고 비로소... 축복받은 가정들이 아담가정을 중심삼은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혈통적인 인연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 중심가정이라고 하지요? 「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방대한 내용을 엮어서 바로잡아 가지고 그런 결론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반대하던 그 길 앞에 반대되어 가지고 전부 다 환영하는, ‘옳소이다!’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정리해 주고, 참부모의 마음으로 ‘전부 다 옳습니다. 남아진 축복가정은 온 우주의 중심가정만입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려니까 불가피하게 영계와 육계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와 반대로 지상에서는 여러분이 몸 마음이 갈라졌어요. 이것이 하나되기 전에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되어야 되고, 아들딸이 하나되어 가지고 그 일족권이 가정들은 종족을 위해 투입해 희생하고, 종족은 민족을 위해 투입해 희생할 수 있는 국가 기준 형태를 갖추어야 할 때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국가 환원시대가 왔다구요.

이미 하나님 왕권 즉위식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하나님 조국 정착 대회를 해 가지고 지금 쪽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왕권시대로부터 미국에서 장자권... 기독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기독교와 사탄세계가 반

대했기 때문에 가인이었던 것을 아벨권으로 세우는 거예요. 통일교회가, 아벨권이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앞장섰다고요. 그러면 미국 자체가, 기독교 자체 국가들이 차자의 자리에서 지상에서 순응할 수 있는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연결됨과 동시에 천상세계가 지상세계에 재림해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세계의 가인 아벨이 복귀되는 것은 개인의 몸 마음이 하나되고, 그 다음은 부부가 하나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되고, 일족이 하나되어 국가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한 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반을 통한 시대에 넘어갈 때이니만큼 영계의 재림시대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왕권과 더불어 재림주 정착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탕감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 주면 이 모든 왕권 즉위식이 끝나 가지고 장자권 차자권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형님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대하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장자권을 중심삼고 다 했는데, 사탄세계의 지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해 가지고 때려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처가 취할 뜻은 품고 품고 품고 어느쪽을 이렇게 파고서 돌아서야 된다고요.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살던 것이 하늘을 중심삼고 바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바른쪽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은 사람들, 동생이 못사니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해방된 자리에서 싸움의 탕감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이 살던 집이라도 갖고 살면서 다시 해방된 새 세계에 우리를 옮겨 달라!’ 그래 가지고 사탄세계에서 지었던 것을 전부 다 청산해 버려야 된다고요. 집이든 땅이든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설을 위하여 뜰에 나가고 건국하는, 집을 짓는 이런 입장이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형님들이 지은 터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돕는 입장에서 형님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편리할 수 있게 준비해 다오.’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왕터와 새로운 세계를 지어 가지고 이동할 때 이런 동기로…. 그래서 하나되어서 건국을 했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래야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요.

10월 8일을 택해서 선포하는 의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돌아온 것은 뭐냐? 1월 13일을 중심삼고 보면, 9월 13일까지가 사탄 수로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9수예요. 9수는 사탄 수예요. 사탄 수 9월에서 13일을 빼면 17일이 남지요? 「예.」 17일에다가 8일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이 8일이예요. 그러면 며칠이예요? 「25일입니다.」 17일에 8일을 더하면 25일간이예요. 이십오라는 것은 1백을 중심삼고 4분의 1이예요. 이것이 10월을 중심삼고 8일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25일이 아니고 24일이예요. 어제 7일에 여기에 왔거든. 8일까지 연장했는데 24일과 마찬가지로. 24수에 해당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도 24인이 모여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10월 8일 이 날에 있어서는 영계 전체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중생식·부활식·영생식을 하지 못한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부모를 따라서 지상에 전체가 재림하니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왕권 정착시대를 준비할 때에 들어간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3일에 하려던 것을 8일 오늘로 연장한 거예요. 그래, 10월

8일이에요. 10수는 해방 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8수라는 것이 10수를 묶으면 18수가 돼요. 18수도 6수의 해방을 말하고, 8수는 4수의 완성 수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비되는, 끝을 맺을 수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천상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재림을 선언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자, 이제 일어서라고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섭리사의 모든 전부, 가인 아벨의 투쟁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슬펐던 지옥 천상세계의 막혔던 담을 전부 다 해방해 가지고 하나님 왕권 수립을 위한 만국통일 형제지권을 갖추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사탄이 아무리 요동하더라도...

하나님 왕권 즉위는 끝났으니 국가 왕권을 찾아야

주동문, 두고 보라구. 「예.」 배포를 가져야 돼. 신문사를 세운 것은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만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책임진 사람이 그 책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 선생님이 명령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하나되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세상만사 자기들이 암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쪽닥거리고 다 까 버리고 말아. 하늘이 다 처리해 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만만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홀로도 자신만만해서 역사를 밀고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선생님 대신 왕권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 왕권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은 국가 왕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왕권, 나라예요. 여러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를 넘어 가지고 천주예요. 그 자리까지 연결시키려니 불가피하게, 사탄이 나라에서 칸막이를 해서 세계와 천주까지도 미완성했기 때문에 미완성까지도 완성한 행동을 해 가지고 유린해 나온 것을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찾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못 하면 여러분을 다 몰아내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지방에 가 가지고 여러분의 나가는 땅을 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러가고 축복가정들이 인수하는 이런 놀음을 하는 거예요. 입적시대가 됐으니 그런 놀음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입적하더라도 내용과 외용이 하나되어야 돼요.

입적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나라가 하늘 앞에 입적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입적되어야 되고, 장관이 입적되어야 되고, 국장까지 입적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 기준을 넘어가요. 그렇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책임을 졌더라도 ‘아이구, 국가 메시아의 책임이 있으니 나라의 조국광복은 불가능하다.’ 하겠지만, 천만에! 김 씨면 김 씨 전체가 국가 메시아의 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사돈의 팔촌, 형제 가운데 사촌까지 육촌까지 강제로 때려서라도 신학교를 들여보내서 그 나라를 구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영계를 정비하고 지상 나라를 정비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메시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자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를 수습함과 더불어 국가를 수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김 씨면 김 씨 문중에서 대학을 나오고 무엇을 나왔더라도 신학대학원을 안 나오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될 수 있는, 지식적 기준이 평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일교회 식구들은 대학원을 나오더라도 신학교를 안 나오면 안 돼요. 앞으로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도 신학교를 가게 되어 있다구요. 국진이도 대학원을 안 나왔으니 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대학을 나와야 어느 수준으로 세상도 알고 종교권을 알기 때문에 몸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

로부터 종족민족국가 기반을 중심삼은 수백 국가로 확대된 자리에서 하나의 국가 기준을 찾아오는 종교 이상권을 사탄이 막기 위해서 사방에 첩첩 성을 쌓고, 개인적 성, 가정적 성, 국가적 성을 쌓고, 이것이 발전 못 하게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생사권을 걸고 사망의 세계로, 지옥으로 영육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하던 천사세계는 이미 굴복하여 가지고 해방적 천국으로서 방향을 갖출 수 있는 시대를 맞았사옵니다.

그런 나머지 기간을 통해 참부모가 지상에 있어서 1997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상천상세계의 정비할 것을 정비해 가지고 개인·가정의 고개를 넘고,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심정적 하나님의 동위권을 갖추어 가지고 지상에 다시 내려와 탕감할 모든 것을 실체권에 세워 가지고 열매를 갖춘 씨와 같은 것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싹을 중심삼고 아담을 창조하던 본연의 심정권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적 해방권 축복가정들을 이 땅 위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꼭 차게 된 모든 전부가 지상의 형제지우애를 중심삼고 지상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부모를 가정에 모셔서, 종적 횡적을 중심삼고 연장한 사방을 구형으로 확대시킨 천주 대완성권 지상천국 판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상권까지 합하여 가지고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에 임하였습니다.

이 청평 지역은 왕권 수립과 동시에 재축복, 축복과 더불어 모든 전부를 탕감하는 노정을 지금까지 해 나온 모든 것을 이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평면적인 도상에서 일체화한 재림권 완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바라옵니다.

영계에 있는 축복받은 모든 조상들은 천사장 핏줄을 받은 조상과 같이 때문에 이들이 다시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재림해 가지고 이 땅 위에 아담권 축복받은 가정들과 교파들과 하나되어 이것을 접붙이는 일체권에서 장자권 복귀, 차자권 복귀가 완결되어 가지고 부모님

을 모시고 천지부모를 모셔 가지고 그 휘하에서 치리를 받고 그 휘하에서 생활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족들이 참사랑·참생명의 혈족으로 공고히 결합된 이것은 영원 불변, 영원 불멸의 터전 위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확정짓기 위해서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을 중심삼고 하나님 왕권 해방과 더불어 지상에 와서 형제지우애를 중심삼은 아담가정 지상권을 천상의 축복받은 조상들이 모셔 보호하고 사탄세계의 것을 상속받고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인 아벨권 전체가 통일적인 하나의 기준에서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커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핏줄을 중심삼고 민족적인 한, 동서의 분립적인 한, 남북의 빈부의 차, 이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된 통일적 하나의 천주사적인 가정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혈족의 식구로 사랑하기에 서로서로 위하고 위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위할 수 있는 사랑 일념화 일체화, 천주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주인의 자리가 아담 중심가정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가 복귀와 천주 복귀의 틀을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120국가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이것을 복귀해 가지고, 180국가 전체를 넘어 사두(司頭)적 시대를 맞이하여 사두들이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역사적인 모든 전체 가치 있는 내용을 합한 이상의 가치로서 하늘을 시봉할 수 있는 대우주 가족시대로 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월 8일을 기하여 이 청평에서 왕권 즉위식과 더불어 재축복 입적식과 더불어 해방적 천상천하의 통일적 가정 안착 지상재림으로부터 형제지우애를 중심삼고 천년 만년 불변한 효자의 가정으로서 하늘 땅을 중심삼고 승리의 결합을 가져와 가지고 영원한 천상세계에 직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성사될 수 있게끔 홍진 군을 중심삼은 성인 현철 일체 전부가 교파들을 중심삼고 분별적인 입장에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조직 편성해서, 지상·천상의 한 방향으로써 참부모의 가르침에 가정적 이상으로 규합되어서 하나로 전진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통고 하오니, 영계 육계가 실천궁행해 주기를 천지부모의 합심 일념을 가지고 축복하오니, 성사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 부탁하오니 이것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기쁨의 날로서 지상·천상의 해방의 획을 긋는 날로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 선포,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자, 앉으라구요. 어머니는 바빠서 출장소에 갔어요. 동해까지 돌아 들어오면서 오늘 다 끝마쳤어요. 영계도, 지상도, 하나님도 선생님에게 소원하는 것이 없지요. 다 이루어 졌으니만큼 이제 인간들의 책임이 남았어요. 어떻게 나라를 엮어 가지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가정 일체화가 될 수 있는 세계관도 국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정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들이맞추는 거예요.

영계의 축복가정이 지상 축복가정과 형제지인연을 맺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사장권 가정이 이 때에 축복가정이 돼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상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형제지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과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지옥과 낙원을 해방해서 하나님 왕권 수립을 하려니 불가피하기 때문입니

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나 가지고, 오늘을 기해서 흥진 군도 그렇고 전부 다 지상에 재림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상세계가 할 일도, 지상세계가 할 일도 뭐냐? 흥진 군이 할 것이 없어요. 부모님의 지시를 받아 하던 것인데, 이제는 일체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갈 길을 닦아야 돼요. 나라 찾는 데 협조하는 거라구요. 알겠지요? 「예.」

하나님 앞에 세계는 이미 찾았으니, 예수님 앞의 120국가에 120문도로서 국가의 왕으로 파송해서 기독교 120개 국가를 중심삼아 가지고 우리는 120가정을 축복한 거라구요. 4천3백년의 한국을 중심삼고 430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다 맞추어 놓은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 하늘나라 왕권 수립을 했으니 국가 왕권을 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접붙이면 된다구요. 동서남북으로 180도 붙여놓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서 형제지우애로써 비로소 하늘 부모와 땅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자기 가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방된 축복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섭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즉결처분시대로 들어가요. 미국도 이제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 동생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세계는 평화의 세계로 넘어가요. 그럴 수 있는 가르침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죽다 말고 남아지게 되면 찾아 들어오는 거라구요. 우리는 서둘러서 미국을 버려 가지고 약소국가서부터 섬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찾게 해주면 미국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엔이 되면 미국도 유엔의 한 나라예요. 알겠어요?

현재 약소국가는 전부 선생님 앞에... 남미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들어온 모든 국가들을 중심삼고 연합조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묶기 위한 불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는 죽어요. 시 아이 에이(CIA; 미국 중앙정보국)가 때려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연장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할 때가 왔다구요. 사람들을 길러서 축복받은 가정들이 나라를 편성하고 그래서 세계의 하나의 지파로서 가입해야 될 때가 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 가입하는 반열의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를 빨리 만들어서 나라와 더불어 총생축헌납을 한 나라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나라보다도 작은 나라들이 복받아요. 섬나라가 복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섬나라 14개국, 16개국을 중심삼고 60개국을 하나 만드는 놀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 차원으로 들어가요. 섬나라 중에는 선생님 앞에 몽땅 바칠 나라가 많다구요. 그것을 알아요?

고향에 조상들이 재림해 왕권 중심한 삶의 전통을 만들어야

그래, 부자협조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해양권 내에서 어머니 대신 배 안에 들어가서 묶어 주어서 네 나라만 되면, 동서사방으로서 초민족적인 초우주적인 내용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섬나라들이 국경선을 중심삼고 민족이 달라서 싸우던 것인데, 이런 섬나라들이 어떻게 돼서 하나됐느냐 이거예요. 그것 수수께끼 아니예요? 그것은 세계적 화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말래도 발표하지 말래도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안 하면 우리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비해야 할 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까지 습관적인 타락성의 핏줄로 말미암은 인연을 완전히 정비하고 부정해 버려야 돼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도

자기 조상들을 재림시켜 가지고 왕권을 중심삼은 삶의 전통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박구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형님들을 데려다가 수련시켜 가지고 돕게 하고 그래야 돼. 박 씨들을 규합할 수 있는 좋은 판도야. 그러니 일족을 규합해서 통일교회에 박 씨들이 모여 가지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게 되면, 박 씨 선산이 있지? 선산에 일년에 한 번씩 제사하잖아? 「예.」 그 날을 중심삼고 대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박 씨의 국가적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가정을 누가 많이 전도하고 실적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을 중심삼고 총회에 의해서 메시아로 세우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박 씨의 왕이에요. 박혁거세 이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헌납해야 돼요. 일족이 나라에 바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열두 나라를 규합하려면 열두 족속과 열두 민족이 하나되어야 돼요. 이러면 나라가 생긴다고요. 종족 열두 지파가 하나되어서 민족을 넘어서야만 국가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한 일족만 가지고 안 돼요. 열두 종족이 합해야만 민족권을 넘어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2세를 중심삼고 흥진 군과 현진 군 가정에 맡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세 여러분은 나라 찾기 위한 놀음을 도와줘야 돼요.

현진 군에게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든가 초국가적으로 대학교 학생의 연합운동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전에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를 한 거예요. 1천6백 명씩 준비해서 이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교차결혼만 하게 되면,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교차결혼만 하게 되면 ‘야,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세계가 다 연결된다고요. 그것이 눈앞에 왔어요.

선생님이 축복 안 해준다고 하니까 세계 축복가정의 애들이 지금 똥해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모여라!’ 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지만 세계 국가를 넘어서 한다는 거예요. 세계 축복가정의 왕이 선생님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한 운동을 하면 지금의 자기 나라를 넘고, 중국, 소련, 미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축복을 해주면 안팎의 모든 것이 하나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두 시에 떠나야 된다고? 「두 시 전에 나가야 됩니다.」 밥 주겠냐? 그냥 돌아갈까?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훈모님, 알겠냐? 「예.」 누구나 다 들으면 그것을 알 테니까... 「예.」

축복 중심가정으로서 재림 협조하는 조상과 하나돼 나라를 찾아야

재림하는 데는 어디로 재림하느냐? 옛날에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재림할 것 아니에요? 1대조 2대조, 영계의 조상들이 합해 가지고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라가 있더라도 이동해서 살지만, 알록달록 하지만, 거기에서 쪽 일족만 보더라도 그 땅을 중심삼고 살던 사람들이 김 씨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씨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 조상들이 합해 가지고 연합적 총 민족 집약한 입장에서 여러분 축복가정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초시대 초종족권의 시대에서 연합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중 삼중으로 이 땅 위에는 완전히 조상들이 와 가지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땅을 분깃 한 것을 전부 다 인수받는 거예요.

누구 때에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 된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점령하던 것을 원수가 바쳐야 된다고요. 땅도, 재산도, 역사의 인연도 연결시켜 놓고 청산해 가지고 쪽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음을 하다 보니

이 밀창은 전부 다 하나되는 거예요. 하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축복 중심가정이예요. 여러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중심가정이 안 되어 가고는 안 돼요. 한국 나라를 중심삼고 그런 놀음을 하면 한국 나라에 와서 죽은 외국 사람들도 거기에 재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재림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오색인종이 미국 같은 나라에 전부 다 모이지요. 이래 가지고 하나되어 국가를 봉헌해야 된다고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총생축헌납을 하는데, 그 땅에서 태어난 조상으로부터 연결되고 인연된 모든 혈족들이 합해 가지고 김 씨면 김 씨 문중의 자기 고향 땅이 연결된 것을 봉헌함과 동시에, 국가와 세계 대표의 이름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족을 강제로라도 동원해 통반격파를 하라

여러분 국가 메시아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0문도와 마찬가지로요. 열두 지파, 72장로, 120문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동원 기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돈 해주고 뭘 해 달라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조상이에요. 동원해서 이런 가운데 서서, 영계에서 와 있는 조상들을 중심삼고 일체일념이 되어서 자기가 김 씨면 김 씨의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 뭐야?’ 하는 거예요. 조상들 아니예요? 최고 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 얼룩덜룩한 사람의 조상이니만큼 최고의 하늘 편 조상으로서 하는 명령 일하에 동원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열두 지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쪽 지령을 해 가지고 분파 배치를 해야 된다고요.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는 것을 알지요? 면에서부터 가려 가지고 면에서 한다면 그 다음은 군으로 올라가서 군에서 하는 거예요. 면은 작지만 군은 크니까 그것을 새로이 편성해 가지고 열두 지파를 분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면에 속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면은 군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를 중심삼고 열두 지파를 편성한 그 갈래에 면과 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래 가지고 나라 중심삼고 총괄적인 면으로 지켜 가지고 그 지역권 내에 있는 나라의 가정과 지역을 완전히 영인들이 사탄이 지배하던 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줄이 연결되면 사탄 핏줄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플러스인데 가짜 플러스는 빼익 어두운 데로 사라져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해서 통반격파하는 거예요. 면을 중심삼고, 반·라·면이에요. 3단계를 중심삼고, 그 다음은 면·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도·나라·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에 9수를 넘어서 하늘에 입적하는 거예요. 똑똑히 알라고요. 알겠어요? 그것을 지시하라고요. 「예.」

이래서 12수, 동서남북의 열두 지파예요. 아곱의 열두 아들, 모세의 열두 지파, 예수의 열두 사도예요. 선생님도 열두 사도예요. 사탄 수 완성인 4·4수는 십육, 160가정, 180가정이에요. 안팎으로 4수예요. 중심이라는 것은 4수를 중심삼고 통하고 확대되는 거예요. 사탄 수의 범위인 18수 16수를 연합해 가지고 탕감해야 된다고요. 어디가 중심이나 하면 4수가 중심이지만, 세계를 잇기 위해서는, 세계와 잇는 데는 18수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중심 대신 세계를 잇기 위해서는 18수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맞

취야 된다구요.

어떻게 편성되어 조직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환태평양시대로서 동서남북으로 갈라 가지고 나라를 분배해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래요. 열두 지파 편성으로부터 분배해 가지고 120개 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1만2천, 수천만 인류가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가지가 종족의 자리에 서 가지고 크고 크고 해서 잎이 무성해져서 그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의 가치는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준화 동등 가치로서 열매를 하늘창고에 거두어들이면,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천년 자랐으면 천년 자랄 수 있는 조상들이나 영계나 지상이나 관계되어 있는 인연된 자들은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열매의 가치가 천년 자랐으면 천년 주인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지상에서 사는 한 그 열매를 따먹고 살지요? 그래서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이런 사상을 얹으로 말미암아 총생축헌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통일이 안 될 수 없어요.

심신일체·심신일념·심신일점이 돼야

이제는 통일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만 가르쳐 주면 말이에요. 조상들이 자기 출생지에 재림하는데 수천 대예요. 사람이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전부 재림하는 것 아니에요? 점령당해서 원수가 들어왔으면 그 땅에 재림해 가지고 형제지인연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인연으로 동생을 존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통일권이 벌어져 가지고 통일천하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생축헌납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총생축헌납시대가 오는데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반역자예요. 반역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 해와로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장물이라구요. 장물 구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장물을 내다 팔게 되면 법에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걸리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눈이니 몸뚱이니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의 몸뚱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눈이 선생님 눈의 연장, 코가 선생님 코의 연장, 입이, 오관이, 몸뚱이가 선생님 몸뚱이의 연장이 안 되면 탈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일체지요? 일체이상이지요?

심신일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심일체!」 심신일념이 되어야 돼요. 생각이 되어야 돼요. 일체가 됐으면 생각이 하나되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심신일념이 심신일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의 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심신일체·심신일념·심신일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 천지 창조로부터 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 갈 곳을 다 보고 이럴 때가 온다고요. 그 세계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합니다.」 안 원한다는 사람은 안 원해도 괜찮아요. 거꾸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면 얼마만큼 멀어져요? 각도가 정면에서 선생님과 90각도가 되어야 할 텐데 각도가 15도가 됐느냐, 몇 도가 됐느냐? 45도를 넘기 전에는 빛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알겠어요? 45도를 넘어서면 하늘이 같이하는 것을 알지요. 그때가 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알고... 주동문! 「예.」 주동문도 마찬가지로. 「예.」 아들딸도 한 곳에 몰아넣어 가지고 2세들에게 맡겨 가지고 홍진 군과 현진 군과 합해 가지고 <워싱턴 타임스>를 부모님의 아들딸하고 플러

스 마이너스로 하나될 수 있게끔 교육해 줘야 돼요. 그것 만년 해먹겠나? 안 그래? 「예.」 컴퓨터고 무엇이고... 신학교에 가야 돼요.

하늘이 원치 않는 사람은 정리돼

앞으로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책임자가 못 돼요. 몸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탄세계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하늘세계에도 당당한 거예요. 초국가권에 가도 당당하고, 초종교권에 가도 당당하고, 세계 유엔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수습할 수 있어야 유엔이 되고, 그 수습할 수 있는 대사를 교육할 것이 평화대사예요.

아까 대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대사의 왕으로서 일방통행으로 우주를 천운으로 수습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한 모든 것을 선생님이 이루기 위해서 평화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화대사 다음에는 뭐예요? 평화통일이예요. 평화대사는 어디 가서든지 찌그러진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야당 여당을 교육하고, 세계의 높은 나라, 중심 나라도 균형을 취해 주는 거예요. 대사들이 어디든지 각 분야에 수평이 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선생님을 중심삼고 축복받은 주류가정들과 90각도 맞추어야 돼요.

춘하추동 봄에서 여름 복중이 되면 해가 제일 높은 데에 있지요? 높은 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져요. 정오정착(正午定着)이라는 여기서 한 말이 생각나요, 정오정착? 「예.」 하늘나라의 왕권을 개인에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딱 연결시켜 가지고, 내 손을 펴는데 세계가 좌우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도는데,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적 수평, 국가적 수평, 세계적 수평이 되어 가지고 영계와 하나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되어 가지고 도니까 구형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드시 종적으로 커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운동하면 자꾸 커야 돼요. 그래서 구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하는 것은 돌아요. 해도 뜨고 달도 뜨는 것이 왜 그러냐? 축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전부 부딪쳐요. 위로 부딪치고, 전부 부딪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자기 중심삼고 꿈꾸는 녀석들은 다 벼락을 맞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내가 원치 않고 하늘의 헌법이 원치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 용서시대가 아니예요. 법적 즉결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구요.

주동문! 「예.」 미국도 그 바람에... 평준화되어야 되는데 평준화 안 되니까 거기에 무엇을 들고 나가 보라는 거예요. 부시가 어물어물 하면서 공격 안 하면 안 할수록 부시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한테 부탁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동문이 그 준비하기에 상충이 안 되는 거예요. 유엔부터 그 놀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엔이 저렇게 안 돼요. 평화대사를 중심삼고 다시 유엔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곽정환한테 원고 쓰라고 했는데, 원고 만들 것을 다 얘기해 줬는데 만드는 것이 뭐 힘들다고 끔끔대고 있어? 원래는 임자들 전부 다 쓰라고 그랬지? 주동문은 그것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습니다.」 왜 안 썼어?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책임지고 있으니 불쌍한 거예요. 병나서 아직까지 몸이 치우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와 유 피 아이 통신이 연합전선을 취하라

자, 알겠어요? 「예.」 내가 기도를 개천절에 하지 않았어요. 개천절하고 왕권 이상은 다르다구요.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8일을 중심삼고

청평을 다녀가는 거예요. 좀더 한국에 있으려고 했는데, 정부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삼고 그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워싱턴 타임스>와 유 피 아이(UPI) 통신사가 연합전선을 취해야 되겠어요. 연합전선을 취하면 최고의 것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연합하게 되어 있다고요. 합해 가지고 어제 얘기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준을 잃지 말고 그 높은 가치를 어느 신문사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평화와 만민 해방 통일을 위해서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경쟁시대는 지나가요. 경쟁할 시대는 지나가요. 최고의 정상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그것을 나눠 주면 속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언론기관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자리잡아 가지고 동서사방으로 책임자들을 빨리 배치해야 돼요. 국가 수상들을 중심삼고 그 나라의 인물들을 언론기관에 다 데려다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대사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국회의 상하의원을 합해서 4배예요. 상하의원 합해서 4배수를 중심삼고 평화대사와 하나님 왕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유엔 대사는 일개 국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와 사상을 넘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 앞에 상대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 대사관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 설정을 72개국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요?

주동문! 「예.」 신문에 내요. 나오면 따라가겠나? 돌아가면 세계일보에 그것을 내라고 해. 「예.」 세계일보가 낸 것을 기사 대신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돼요.

우리 패들이 안팎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저작권을 빼앗겨 버려요. 주동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우리 신문사 기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유 피 아이(UPI) 통신사와 <워싱턴 타임스>가 첨단에 서 있으니, 따라오는 입장에서 영계의 내용을 소개해서 영·육계가 일체화될 수 있는 영향권을 중심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언론계의 책임이라구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 간단하게 보고해주라구. 「예.」 망하든 말든. 버리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원자폭탄이든 무엇이든 다 써먹고, 쓸데없게 된다면 깨쳐 버리고 보습을 만든다는 성경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왔다구요. 그것을 붙들고 심려할 필요 없어요. 세계에 맡겨 버리면 되잖아요? 유엔에 맡겨 버리면 되잖아요? 시험 쳐 가지고 세계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지성인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기독교권 내의 언론들을 수습할 수 있는 모집 운동을 하라고 내가 그랬지? 내가 벌써부터 그러지 않았어? 이번에 그것 해야 돼. 돌아가면 발표해요. 알겠어? 「예.」

발표해서 유 피 아이(UPI) 통신사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은 <워싱턴 타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권 지성인들을 시험 쳐 가지고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권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아이쿠머니나, 이제 종교권이 하나되겠구만!’ 하는 거예요. 자연히 묶어져 하나되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하늘나라의 기관을 만들 준비를 해야

자! 밥 주겠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모님이니 식모님까지 되는구만. (웃음) 영계의 말씀 식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훈모님의 책임이예요. 훈모님이 식모님이니 여기에 오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알겠어? 「예.」 자기보다 잘 먹여 보내야지, 못 먹여 보내면 영계가 참

소하고 자기 후손들이 걸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요. 오는 손님은 내가 먹는 것보다 지금까지 잘 대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들딸은 불평하는 거예요. ‘아들딸은 고생시키면서 우리들을 아버지가 언제 식당에 데려갔나, 무엇을 했나? 번번이 36가정들 떼거리들, 보기 싫은 사람들을 식당에 데려가고 옷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사 줬다는 거예요.

효율이 몇 가지 것을 받았나? 하나?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동문도 신세 졌지? 「예. 많이 졌습니다.」 그것 갚아야 돼!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0달러면 30달러 월급에서 떼 가지고 이제부터는 후손들이 갈 길,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기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는 이 땅에 버리는데 잘 먹어서 뭘 하노? 어제 양양 군수인가? 딱 여자같이 양양하더라구요.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설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신트림이 났으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는 그 반대로 먹어야 될 텐데 무슨 음식을 했는지... 술 먹고 취했으면 뭘 만드나? 무슨 국?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했어? (웃음) 자, 그렇게 알고... (경배)

주동문은 밥을 빨리 먹고 여기 수련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보고라든가 요즘 현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언론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세계에서 선전요원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한 30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효율이랑 다들 가서 동참해도 괜찮아. 「예.」 자! *

절대신앙·사랑·복종으로 조국광복을 이루자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조립 방법? 봤어, 어제? 박구배는 관심 있지? 「예. 관심 있습니다.」 조립을 해서 한번 작동을 해볼 걸 그랬지? 「이렇게 조립을 딱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하늘이 복잡하구만. (웃음)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의 왕초가 돼

임자는 어디에 사나? 「춘천에 삽니다.」 어디? 「춘천, 강원도 춘천요.」 춘천? 어떻게 또 그리 갔나? 누구랑 사나? 「막내하고 살아요.」 막내는 몸을 못 쓰잖아? 「예.」 그 아들하고? 「지금 농장을 하고 있어요.」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 막내는 그렇지 않나? 「막내는 똑똑하지요.」 똑똑하고... 나이가 많으면 다 그런 거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나보다 위던가? 두 살 위인가? 「나이가 몇이세요, 순회사님?」「85세입니다.」 그렇지! 두 살 더 많아. 그럴 거라구.

자, 그거 얘기해 봐요. 「지난번에 아버님께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못 보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

2001년 10월 8일(月),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참부모님 환송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게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건 자기가 만들었나? 「예. 이게 크랭크 샤프트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박사 이름이 붙었구만.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위에를, 이 바퀴가 이 위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 때 두 번을 튀게 됩니다. 두 번 돌 때 네 번 튀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 돌 때 한 번 튀게 됩니다. 실린더가 여섯 개, 세 쌍입니다. 처음에는 세 개만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4수에다 3수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 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거 조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걸 찍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식구가 돌리는 바람에 아주 내가… 어떤 식구가 옆에 있다가 보고는 엔진에다 붙여 가지고 특허를 내 버렸어요.」 누가? 어느 녀석이야? 「식구가 있습니다.」 식구가 어떤 녀석이야? 「지금 통일그룹에 있습니다. 세일중공업에 있던 사람인데, 보고 있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야, 그거 간단하다. 보통 엔진이 변동이 안 되고 밑에 프랭크 샤프트를 떼고 요놈만 붙여 버리면 되겠다.’ 그러더니 특허를 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흘 동안 딱 입이 부르터 가지고 아버님께 직접 뵈어 드려야 할 건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영인체예요. 제 영인체를 보고…」 지금 낮이야. 무슨 밤 얘기를 하노? (웃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 붙여 가지고, 엔진에다가 여기 도면 다 그렸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붙이면 다른 것 하나 변동시키지 않고 밑 부분만 요것으로 바뀌서 하면 엔진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특허 내면 뭐 남을 게 있어? 「특허 안 내고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작을 한꺼번에 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허 내면, 도면 다 내주고 그러면 비밀이 다 새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안에 피스톤이 하나 더 있어서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엔진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 좋겠구만. 그러면 세계 자동차 왕초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지? 박구배는 좀 알지? 좀 아나, 모르나? 「조금 압니다.」 이 사람은 박구배 꽤 아니야? 거기 빅토리아 농장 거기서도 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장도 만들고 그럴 거라구. 우루과이 통일산업도 기계가 전부 다 가면 상당히 좋은 공장을 만들 거라구. 공장을 만들어서 4개국에 통일산업이 실패한 것을 재차 만들려고 했더랬는데...

그래, 엔진을 만들고 새시를 만들어 차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 「그것은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놈을 빼 버리고, 크랭크 샤프트도 빼 버리고 요걸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기어가, 크랭크 샤프트가 한 번 돌 때, 두 번 돌 때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 때 캠이 두 번 돌고 브란자 펌프가 두 번 돌아야 됩니다.」

문 사장, 성균이 있지? 갔나? 너, 엔진에 대해 관심 있나? 엔진에 대해서 좀 알아? 「조금은 압니다.」 형님들 자동차 공장에서 출세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부속 공장 만들어서 낙제하지 않고 학급에 있는 이름이라도 남기고 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예.」

그래! 그것 치워 버려. 도깨비 눈들로 다 바라보는구만. 「봐도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아버님도 문외한이지. 배워서 듣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바라보는 거지.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영계에 가기 전에 옛날에 정성들였던 사람들을 가늠 줘야

현실에도 미국 한번 가 보고 싶지 않아? 「가고 싶습니다.」 데려갈까?

그래, 임자는 살림살이가 괜찮아? 밥 먹고 살기 괜찮아? 「그럭저럭

지냅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사나? 「한 150만원요.» 김중화하고 나취섭이 미국에 가서 산다고 그랬지? 「미국에 있다는 옛날 식구 있지요? 미국에 사시느냐고요, 지금?» 알아, 그것 알아? 찾아갈 수 있어? 「예.» 저번에 왔던 이름이 뭐인가? 딸이 읍박인가? 아들 이름이 읍박이지? 「중화 씨 딸 이름이 읍박이냐고요.» 아들, 아들! 「아들 이름이 읍박이냐고요.» 「아들 이름은 읍박이고 딸은…» 딸들은 시집들 다 가겠네. 「딸은 사위가 죽었어요.» 사위가 죽었어? 자기 외사촌인가 무슨 사촌인가? 뭐야? 「오빠도 죽고요.» 다 죽었어? 「예. 중화 어머니는 혼자 살아요.» 어떻게 사나?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산다고 그러대요.» 나 씨, 나취섭이는? 「잭슨 빌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이도 미국에서 사는구만.

어디, 양창식이는 갔지? 「갔습니다.» 효율이! 효율이 나갔나?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거기 주소 알아? 「가는 데 주소 아느냐고요.» 「예.» 주소를 지금 알 수 있나? 「예. 제가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만 주면 되지. 「알아 가지고 양 회장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응,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올케! 오빠 색시가 올케지. 「올케는 남동생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다 미국 가서 사네. 옛날에 이북에 있던 식구들, 그 가외 식구들은 알아? 「옛날에 이북에서 교회 나왔던 식구들, 지금 말씀하신 식구들 가외 식구들을 아느냐고요,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십니다.» 「나취섭이는 압니다. 나취섭이한테 한번 갔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뭘 했나? 「양로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로원에. 다 죽을 나이들이 되었을 거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되어서 돈을 좀 주고 왔어요.» 얼마씩? 「10만원 정도요. 그거 많은 거예요.»

나도 이제 영계에 가기 전에 옛날에 정성들였던 사람들, 내가 평양에 가서 못 만난 사람들 한번 다 만나 보려고 그래요.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지요. 다들 통일교회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영계의 축복가정에게 재림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밥 주겠나, 안 주겠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 걸려? 「두 시에 출발하시면…」 아, 너무 길지. 요전에 오는 데 30분 걸리던데. 「그때는 차가 잘 빠질 때고요…」 잘 빠질 때 계산하지, 안 빠질 때 계산하나? 「돌아가실 때는 안 빠질 걸 계산하고 가셔야 확실합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 늦을 것을 예상하면 되겠나?

어제 밤에 양평 거쳐서 청평에 들어갔더랬는데 한 48분 걸리더구만. 여기 오는 거리가 비슷한 모양이지? 「그때 길을 조금 돌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산 너머 고개를 넘은 거야. 「체대로 오면 양평에서 30분이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열두 시 다 되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오늘 새벽같이 갔더라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비행장으로 가야 될 텐데. 「아침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혼독회 참석했다가 아버님께서 안 계셔서 경배만 하고 갔습니다.」

그 혼독회, 어디 갔나? 윤정로! 「예.」 이제 나 떠난 다음에 혼독회나 하고 가라구. 오늘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야. 오늘 청평에서 한 기도가 마지막 청산 기도라구. 영계 총동원 재림해 가지고 자기가 출생한 지역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태어난 곳에 재림 협조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유 씨 하면 유 씨가… 어디, 청주에서 태어났나? 「예.」 자기 일대 조상이든가 그 태어난 데 다 와야 돼요. 거기에 유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재림해요. 순차적으로 누가 먼저 와서 살다가 갔느냐, 먼저 산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이래 가지고 죽 재림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한민국 성씨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조상 된 사람을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그 역사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으

로 엮어진다구요. 그래 가지고 협조해 주고 축복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사랑·생명·혈통이 엮어진 것이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 플러스인데 이걸 완전한 플러스이니까 반발해서 석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땅들 점령당했던 것을 전부 복귀하는 거예요.

요전에 누시엘이 굴복한 이후에 자기 줄개새끼들이 반항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권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핏줄은 자동적으로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배치하면. 알겠어요? 영계의 그들은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조상이에요. 본래 출발이 그렇잖아요? 영계가 가인 형님의 자리였는데, 비로소 아담권 지상세계에 본연의 혈통을 통해 축복받았기 때문에 지상이 형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귀되어 가지고 가인의 자리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던 것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 형님의 자리를 대신 이루어 가지고 영계에서 재림한 조상들을 동생의 자리에 접붙여 줘야 돼요. 몸뚱이는 아직까지 참부모의 혈연적 관계가 없으니만큼 지상에서 형님 가정, 동생 가정을 중심삼아 천지부모를 모셔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가정이 같이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 천지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천상천국에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총 청산이에요. 선생님이 할 것은 다 했어요.

그래, 오늘이 10월 8일이에요. 0이라는 것은 8자가 되는 것이고 10월은 천천만년의 귀일수이기 때문에 하늘을 대해서 18수도 되는 동시에 8수도 되는 거예요. 10월이 0자니까 8수가 되므로 재출발수라는 거라구요.

그래, 하나님 왕권식을 보게 된다면 1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가 만 9개월이에요. 사탄 수를 넘어가고 10수를 넘어서요. 그것이 13수인가? 「17하고 8하고 해서 25입니다.」 25인데, 밤 한 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24수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삼 팔이 이십사($3 \times 8 = 24$)예요. 오늘 모인 사람들도 24사람이에요. 남자 20명, 여자 4명으로 원리 수에 맞게 딱 해 가지고 묶어 나감으로, 수리적인 기준에서 전부 청산됐다는 의미에서 이런 영계 육계의 축복가정 통일 선언을 해서 재림할 수 있다구요.

이제는 국가 복귀의 책임을 다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알겠어요? 아무 땅 어디 어디에 자기 몇 대 조가 출생한 곳으로서, 역사시대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후대에 오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왕권 즉위식 이후 국가 복귀를 위한 총책임을 해야 됩니다.

통반격파들 다 했지요? 국가 메시아 했지요? 그런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가지 중의 첫 가지고, 이진 둘째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가운데 두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되어 가지고 한 큰 아담을 완성한 나무와 같이 된 거기서 태어난 아들딸은 아담 씨와 같아요. 이게 아담의 씨예요. 축복 중심가정은 아들딸 열매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천년 묵은 나무에서 따더라도 그 씨는 천년의 모든 사연들을 품고 난 열매이니, 그것은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열매와 마찬가지로요. 이걸 다 해설해 주었다구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인연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론적인 이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쫓아야 돼요, 깃발. 자기 가정이 우리 사람이 산다는 깃발을 드러내 가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알겠

어요? 「예.」

전국의 동반격파, 이렇게 자기 조상들을 불러 가지고 협조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김 씨면 김 씨 전체가 얼마나 많아요?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입니다. (유중관 회장)」 전라북도가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까지 퍼질 수 있는 거라구. 깃발 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원래는 12년 전에, 13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1차, 2차, 3차만 하면 탕감복귀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삼고 4대... 4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노통, 김통, 4대가 나라를 다 망쳐 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박 씨가 책임이 커요.

뜻길을 출발할 때 박 씨 할머니와 박 씨, 최 씨와의 인연

선생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 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부인이라구요. 예수의 부인이 아니예요. 그런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평양에 간 동기가 그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 남편이 한 씨예요. 한 씨이고, 박홍식의 장인이예요. 그 가정을 중심삼고 경제권이니 모든 것을 잡아 쥐려고 했던 것이 틀어졌어요.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최 씨, 최성모 가정을 중심삼고, 득삼 씨를 중심삼고 딸하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반대했다구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이들이 다 망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 갔나? 그래, 최 씨예요. 성진이 어머니가 최 씨예요. 성진 어머니의 어머니가 한 씨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한 씨 된 어머니가 이 뜻을 받들게 된 것도 의의가 있다구요. 또 최 씨들의 끝이 좋지 않아요. 일본 선교사로 간 최봉춘, 그 다음에 최창림, 최 씨들이 그래요. 최원복이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최 씨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효진이는 최 씨 색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사위가 박 씨가 네 사람이 되잖아요? 이들이 충성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탕감복귀는 불가피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박상권이, 박구배, 그 다음에 누구던가? 박동하, 또 있잖아? 박정희도 아주 가까운데 뒤집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되는 임자들이 잘 해야 된다고요. 임자들이 잘 못하면 후대 후손들이 그런 탕감 길을 가야 할 텐데, 선생님이 탕감해 주니 고맙지, 탕감 안 하면 후손들이 별받아요. 영계에 가 가지고 아무리 지상에서 협조해도 직접 천국에 못 들어가요. 탕감의 양을 앞에 놓고 그것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한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1차, 제2차, 제3차 이스라엘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선한 사람들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와 같이 협조해서 나라를 바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해방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다 가르쳐 줬으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나아가라

지금까지처럼 노라리가락으로 믿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탕감 복귀시대가 지나갔어요. 선생님보고 기도할 때가 지났고, 하나님 부를 때가 지나갔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본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니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지요.

그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탕감노정을 다 지켜 나온 선생님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천하고야 선생님이 수고한 모든 과정의 핏줄이 연결되고 생명이 연결된 그 실체와 더불어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성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핏줄을 받았으

면, 선생님이 천주사적 해방을 했으면 여러분은 국가적 해방과 세계적 해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해서 나라를 바쳐야 돼요. 120개 국가예요. 이것이 2012년까지 청산되어야 돼요. 보라구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얼마나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찌면 딱 전쟁하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모이던 시간과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 한 시 40분인가 청평에 도착하신 시간과…」

그래, 선생님이 이런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과거에 감옥 들어간 선생님들 대해서 손을 들면서 ‘부모님, 승리해 가지고 나오소서.’ 하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누어 줘 가지고 아들딸이 있으면 3대를 걸어 통일교회에 들어오라고 지시해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 부모가 선 자리를 연결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선생님이 허락하려고 그런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나? 「옛날 아버님 감옥에서 나오실 때 환영했던 가족 아들딸들을…」 나올 때가 아니고 들어갈 때야, 들어갈 때. 나올 때에 환영했으면 다 만났게. 들어갈 때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던 그들을 중심삼고 3년 동안 감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누어 줘 가지고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의 궤도 위에 1차 2차 3차,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상의 인연을 연결시켜서 아들딸을 중심삼고 3대 축복 혜택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위해서 정성들인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도와줘야 되겠나, 안 도와줘야 되겠나?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반 위에 섰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선조를 동원해 나라를 찾아야

이제는 기도할 때에 선조를 동원해야 됩니다. 고향과 나라, 알겠어요? 고향에서 정성들이게 되면 나라 앞에 정성들이고, 고향 땅을 세웠으면 나라를 위해서 정성들여야 돼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나라 위에 사탄이 없어져서 축복받은 것이 전체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하늘 앞에 국가와 국민과 땅을 중심삼고 총생축헌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소유의 땅이 생기고 백성이 생기고 가정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론적이라구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자기 생각대로 어영부영 살지 말라구요. 영계에 가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에서 대통령을 중심삼고 봉헌 못 하면 장관이라도 교육해야 돼요. 3단계라구요. 대통령, 장관, 국장의 3단계권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입적권 내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위신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불쌍하지만 용케도 고개를 넘었지요. 알겠지요? 「예.」 이제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이제는 당신들 나라 없더라도 나는 나라 기반을 다 닦아 가지고 어디 가서 혼자 살더라도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다 끝났고, 세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주지 않았어요? 성인 성자들 다 축복해주고, 재림식까지 한 거예요. 자기 조국을 광복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영계의 조상들이, 천사장이 축복받은 가인적 축복가정이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지상의 아담가정, 선생님과 관계된 축복가정을 형제지인연을 중심삼고 그 위에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더불어 하나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아담가정에서 가정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갈라져 가지고 천상세계에 모든 경계선이 생겨 두 세계가 된 것이 가정적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 마음이 하나돼야 돼요. 몸 마음 통일,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칼을 쏘고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오지 못해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잘 기억하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상관하지 말라구요. ‘선생님이 어디 가 있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출정하게 해 놓고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서 별장이 있고 세계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곳에 머물 거라구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지 드시지요.」 무엇이? 「진지 잡수시라고요.」 진지? 진지한 말을 하다가 진지 맛이 진지하게 있겠나? (웃음) 내가 이제 이번 대회가 끝난 다음에 남미를 다녀와야 돼요. 어디 갔나? 김윤상이 갔나? 「갔습니다.」

참부모를 대신해 열심히 하라

양준수! 「예.」 여기 콘도미니엄 빌딩들 참고하고 우리 협회에 소속한 건물도 참고하라구.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이번에 자르딘이라든가 아메리카노 호텔을 짓는 이 모든 외형을 지금까지... 이제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를 심으면 자라나는 거기에 황적으로 그 밑창이 이렇게 되면 자르는 거야. 죽죽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서 빌딩 형태도 설계는 그냥 쓰더라도 외곽적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할 거니까, 도면하고 사진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가서 비교해 가지고 해야 할 거라구. 앞으로 누가 설계했다고 해서 설계 그냥 그대로 짓지 않아요. 내가 손대겠다구.

어머니 좀 나오라고 그래. 누구 없나? 야, 어머니 좀 나오라고 그래. 「예.」 용현이는 지금 뭘 하나? 이번에 문 씨들 회의해 가지고 수습해

요. 「예.」 이제 문 씨 혈족이 들어왔지? 청평에 지금까지 박상권이 중 심삼고 소개해 주고 샀던 걸 참견해 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있다.’ 해서 자기 이름으로 넘긴 것도 틀림없이 체크해 놓으라구, 갑을병으로 해 가지고, 알겠나? 「예.」 청평에 지금 우리 왕궁을 지을 때는 거기 앞 동산에 시시한 것이 못 살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평 호수변에 우리 외에 몇 사람 안 됐어요. 전부 다 보니까 별 의별 녀석들이 자리잡고 다 만들어 놓았더구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알겠어? 똑똑히 알아야 돼. 알겠나?

일본에서 올림픽 대회(월드 챔피언십 스포츠남시대회) 하지요? 「17 일입니다.」 내일 모레야? 그리 가야 되겠네. 나도 한번 들르면 좋겠지? 윤세원이는 말ियो, 청평에도 이제 박물관을 짓는다고요. 「예.」 청평에 전시하는 물건하고 학교에 전시하는 물건도 반분할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청평에 초종교신학 대학을 만들어요. 졸업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내에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닦는 거예요. 자, 알겠나? 「예.」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경배)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하던 모든 전체를 여러분 전부에게 인수해 주는 거라고요. 선생님은 세계적 책임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세계를 위해 새로운 초종교 유엔을 설정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들었지, 내용? 세상에 뒤지는 사람은 망해요. 「예.」 자, 밥 먹자! *

축복 중심가정의 갈 길

(김효율 회장의 보고)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예?」 영계의 천사세계의 축복권과 지상의 축복, 아담권 축복까지 장자권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장자권에 있는 천사세계의 축복권이기 때문에 지상의 아담권 축복가정과 하나되어 가지고 두 가정이 땅에 와 가지고 부모님을 모셔서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 기반 위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버지를 모심으로 지상천국에 직행, 천상천국에 직행하기 때문에 모든 전체가 천상과 지상이 일체권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예.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 얘기해 주라구. (김효율 회장 보고 계속)

영계 축복가정의 지상 재림

영계의 축복받은 사람은 천사장권이고 지상은 아담권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상의 가정이 형님이 되어 가지고 영계는 동생의 자리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절대복종해야 돼요. 천사세

2001년 10월 9일(火),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계의 축복가정들이 후손 앞에 절대복종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된 위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그 다음에 아버님을 모셔 가지고 지상의 형제 축복가정들이 부모님을 모신 이런 입장에서 영계의 통일권을 갖춘 대신 그런 가정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가정들이 형님 자리를 복귀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김효율)」

지상의 가정은 아담가정, 아담 자리인데 본연의 축복받은 가정, 형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될 것 아니에요? 천사세계는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접붙여야 돼요. 형님한테 동생의 자리에서 접붙여 가지고 하나돼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성신과 실체 어머니가 하나된 기준을 중심삼고 지상의 형님 가정과 영계의 동생 가정하고 하나된, 형제가 하나된 가정 기반 위에 어머니가 하나돼야 돼요. 영육을 중심삼은 어머니를 중심삼고 형제가 하나된 가정들이 합해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형제가 부모님의 인연을 중심삼고 관계 안 뗫어졌던 것이 뗫어져 가지고 완성의 조건을 갖추어 천사세계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이렇게 돌아가던 것이 지상에 와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천사세계의 축복가정이 비로소 지상의 축복받은 가정을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형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비로소 장자권이 복귀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체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계 전체, 지상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간 모든 조상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해 가지고 재림하는 거예요. 여기 뉴욕이면 뉴욕의 한 사람을 중심삼아 가지고 났지만, 그 계통으로 보면 수많은 민족이 연결돼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곳이 조상 땅이 되어 가지고 전체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김 씨면 김 씨, 효율이면 효율이의 김 씨 조

상을 중심삼고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민족도, 수많은 종씨도 가해 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연합, 종씨 하나를 중심삼고 여러 종씨가 합해 가지고 이 조상을 중심삼은 일체권이 된다는 거예요.

일체권이 돼서 지상에 착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상에 사탄이 점령해 있는 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이 전부 다 붙어 가지고 소유했던 것을, 거짓 핏줄로 말미암아 사탄이 점령했던 것을 참축복받은 혈족에 하나된 것이 전부 다 인계 받는 거예요. 인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비로소 그 사람들이 태어난 조국 땅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조국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국 땅에 태어난 그 땅을 중심삼고 재림해 가지고 국가면 국가 전체가 합해 가지고 나라를 찾게 되면 그것이 조국이 되는 거예요.

고향 땅과 조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사랑·생명·혈통을 중심삼고 영육이 같이 된 모든 형제지권, 형제 가정권을 갖추어 가지고 이 평형선이 이렇게 하나되어서, 여기 평면에서, 지상에서 하나되어 부모를 모셔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영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계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조상이 선민권에 서 가지고 전부 재림해서 평준화 가치를 지녀 가지고 세계 대 전환시대로 넘어가요. 이것이 역사적인 대변화예요.

그래, 사탄세계의 지상 점령한 모든 사탄 잔재, 줄개들이 가 있던 모든 것을 전부 인수받아 가지고 하늘땅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를 중심삼고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갈라졌던 것이 비로소 하나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과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탄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모든 병 주고 약 주고 하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선한 영들이 주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상들을 시위해 놓고 그 환경을 데리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들도 영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킴으로 완성한다

섭리가 끝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헌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헌법을 중심삼고 부처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세주 앞에 기도하고 참부모 앞에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개인완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정이 하나되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른다는 말은 혼동회를 중심삼고 선생님이 57년 동안 말씀한 것을 전부 다 무시했다는 말이라구요. 나라가 성립돼 헌법이 설정되고 모든 각 분야의 부처에 대한 법이 생겼을 때 몰랐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완성이라는 것은 복귀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한 자리에서 법을 지킴으로 완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완성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탕감법이 없어요. 1대, 2대 이상 하늘의 법을 지켜 가지고 완성의 고개를 넘지,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구요. 지켜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부자지관계는 부자지관계의 법이 있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법이 있고 자녀관계는 자녀관계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체크해야 돼요. 혼동회 하면서 체크해야 돼요. 지상에서 모든

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돼요. 영계에 들어가면 전부 그것이 드러나 가지고 표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주류

문제는 하나님과 내 아버지이고 참부모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첫번,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주류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막연하게 부모를 가르쳤지만, 그렇게 핏줄과 생명과 사랑이 하나된 직접적인 핏줄인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참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딸이에요, 참된 아버지의 아들딸.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권이 저나라에 가 가지고 원리의 길에서 재수련 받아 일치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영계가 아니라 지상에 내려와서 일치화시켜야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일치화시키지 않으면 형제 가정이 원수가 되어 싸운 역사적 사실을 복귀할 수 없어요. 형제가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가 지금까지 천사장권, 장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전환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이 장자가 되고 영계는 차자의 자리가 돼요. 형님이 동생을 이끌어 줘야 된다고요. 하나 돼서 절대복종, 절대사랑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옛날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이 아니예요. 개인도 이렇게 사탄세계 전부를 하나님의 아들 참부모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세계 전부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돌려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탄이 주위에서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조들이 주위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탕감 받아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는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삼고 그 지방에서 태어난 모든 선조들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국가 메시아 앞에 손자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형님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알겠어요? 거꿀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대로 거꿀잡이로 뒤집어지는데, 바로 된 그것을 사탄은 관계할 수 없으니 완전히 여기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국가 개념이 없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자녀로서 접붙여 준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 국민이라든가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 한 민족 개념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란 개념이 없어요.

지금 때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미국 식구, 미국 형제, 미국 가정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나라가 돼요, 한 나라. 한 부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 형제요, 미국 식구요, 미국 축복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걸고 미국 사람 하게 되면 벌써 타락권 내에 자기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하면 타락한 세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미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나라 미국!’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탄 편에 속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부정해야 됩니다. 국가를 부정하지 않으면 세계와 우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칸셉이나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전환기에 있어서 어떻게 미국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횡적인 형제권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모두 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독일 사람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한 칸셉은 사탄의 주관을 받았습시다.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스.」 특히 여자들! 먼저 여러분이 그러한 칸셉을 버려야 남편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한 입장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축복 중심가정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도 못 하고 사탄도 못 하고 누구도 못 하지만, 선생님의 특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알아요? 알아요, 믿어요? 「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한다니까 ‘그것 무슨 소리냐?’ 했을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얼마나 변화했다는 것을 요전에 상헌 씨가 영계의 실상에서 보고했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50년 전에 선생님이 말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아니, 50년 동안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렇다! 내 아버지의 사랑과 내 아버지의 생명과 내 아버지의 피와 연결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느끼는 최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 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구요. 그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신 왕권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예요. 이 중앙에서 평화대사, 대사 왕으로 임명한 것이 축복가정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무가 있다고 해서 ‘친구여! 학교 동무!’ 하면 동창생이 되어 가지고도 ‘네가 누구던가?’ 이렇게 몰라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창생이고 형제들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 말씀이지요? (통역자)」 그렇지! 자기하고 관계 안 되어 있잖아?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말이에요... 여기 효율이가 김 씨 문중을 중심삼고 메시아 책임을 하기 위해서 김 씨 문중에서 하게 된다면 김 씨 문중에 박 씨가 있다 이거예요. 박 씨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나 하면, 김 씨 문중은 아벨이고 박 씨 문중은 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김 씨를 축복해 주는 것보다도 박 씨를 먼저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축복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와 마찬가지로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못사는데 자기가 잘살게 되면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데는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게 되면 전부 막아 버리는 거예요.

영계나 육계나 그런 관계예요. 전부 다 같은 관계이니만큼 이 원칙을 지상에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천하가 되고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완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상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완성의 중심이 축복가정의 정착지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중요한 거라구요. 축복 중심가정 아무개의 이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이 축복 중심가정입니다. 그것이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이 소원한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어디에나 한 사람만 남더라도 복귀 천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 일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이제는 그것이 선생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축복 중심가정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더라도 중심가정은 하나님 대신 가야 되고, 메시아 대신, 참부모 대신 가야 돼요.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종교 다 필요 없다구요. 종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의 완성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최초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의 결론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을 8단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모셔야 돼

자, 알겠나, 무슨 말인지? 세상이 달라졌다! 한번 해 보라구요. 「세상이 달라졌다!」 여러분의 어제까지 살던 생활이 180도 돌아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원리가 가르쳐 주는 개인완성,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8단계의 완성의 길을 모든 걸 투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8단계의 길을.

여자들이 복중에 아기 뱌 것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씨로서 어머니 배속에서 임신한 거와 같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흔적이 남아 있는 거라구요. 아기를 배게 되면 아담도 색시 배 안에 있는 아기 소리를 듣고 싶은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보다 더 관심이 많고 복중의 아기가 잘 자라게끔 사랑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배면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창조주가 관심을 갖는 것을 아담 해와가 따라가겠어요? 그래, 복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낳아 가지고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된 그 무릎에서 커 가지고 약혼 단계, 결혼한 후에 축복받아 낳은

손자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표본적 가정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 있어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아들딸이다, 기르면서도 내 아들딸이다, 학교 보내면서도 내 아들딸이다, 약혼식을 할 때도 내 아들딸이다, 결혼식을 할 때도 내 아들딸이다 하고 8단계 사랑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딸의 자리에 섰느냐 하면 못 섰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들딸에 대한 사랑의 주인 노릇을 못 해봤어요. 복중의 주인 노릇을 못 해봤고, 아기의 주인 노릇을 못 해봤고, 8단계의 주인 노릇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린 8단계 아들딸의 주인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모시고 그 아들딸을 하나님에게 바쳐야만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적인 것,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교육받았다는 것, 미국 말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타락한 전통 세계에 물들어 있어요. 저나라에 가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축복받았어도 중간에 머물러요. 머물러 가지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 아들딸들이 ‘엄마 아빠, 왜 요 모양 요 꼴로 나를 낳아 뱉어?’ 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영어고 무엇이고 다 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제일 못사는 자리에서 살려고 태어난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보라구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맨 뒤에 따라와요. 돌아서면 돼요. 이걸 부정하고 돌아서면 대번에 하나님을 만나요. 널, 어드래? 총장? 총장이 뭐야? 장총이야! 돌아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에게 네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 보면, 독일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자꾸 습관화해야 달라진다고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제 주도 수련 때부터 강조한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연.

자연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봄이 되게 되면 이민 가 가지고 말이에요, 봄이 되면 찾아와서 쌍을 이뤄 동지를 틀고 절대 하나되어 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다 키워 가지고는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거와 같이 다시 돌아가서 겨울을 지내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해마다 자기 종족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분야의 천재적인 소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중심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의 우수성

이제 축복받은 가정에서 한국이 해방 후 60년에서 70년이 지나면 천재적인 사람이 많이 나와요. 70년, 80년이 되게 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제예요, 문제. 다 싫어해요. 혁명적이에요, 거짓말 잘 한다고 그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빼앗는다 이거예요. 흑인들도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왜냐? 장사하러 들어왔으면 들어오지, 도적질하나?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국 민족은 연합 못 해요. 개인적이에요. 발전하는 데는 연합적이기보다 개인주의여야 돼요. 그래 가지고 하나되기 위해서, 개인들을 하나 만드는 것은 뭐냐? 선생님 말을 들으면 하나되는 거예요. 외국인까지도 선생님 말을 듣고 하나되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동족의 말을 왜 안 듣겠나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하나 못 된다고 홍보지 말고, 미국 사람들이 선생님 말 듣고 한국 사람보다 하나되게 되면 몇 년 후에는 한국 사람보다 앞선다 이거예요. 한국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참부모를 누가 더 잘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

면 절대 안 진다고 할 것입니다.

보라구요. 소련과 중국, 일본과 미국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7천년 역사를 중심삼고 변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를 유지한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은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해서 중국 천지에 있어서 싸움을 잘 하고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싸우면 백전백승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싫어서 도망 온 거예요.

활을 잘 쏘려면 자세가 발라야 돼요. 자세가 딱 발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대회에서 매번 양궁 챔피언이 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간나들도 한국 사람과 교차결혼 한다니까 ‘우우! 우리 일본 사람이 어떻게...’ 그랬어요. 국제결혼을 하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 소련 같은 먼 데 사람하고 하게 되면 우수한 천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 순식간에 요리해 먹을 텐데, 그것을 이 서양 녀석들은 싫다고 해요.

평화의 세계는 자기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는 안 온다

그래서 철새들이 그러는 거예요. 먼 땅끝 나라에 가 가지고 새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철새들이 그래서 대양을 건너 가지고 그런다구요. 남극에 사는 펭귄이 새끼를 칠 때에는 그 발로 바다에서 백 마일이나 떨어진 데로 가 가지고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까는 데는 얼음이 얼어 있는데, 발등에 하나 낳아 가지고 새끼를 까더라구요. 어이구! 그래 가지고 그것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은 얼음덩이 같지 않은 거예요. 알을 발등에다 낳아 가지고 배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 가지고 품는 거예요. 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야 그 세계에서 살아남아요.

미국 애들은 어디 아프리카에 가면 석 달도 못 돼서 도망갈 것이고 말이에요, 북극에 가 가지고도 도망갈 거라구요. 북극에도 젊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지금 통일교회 문 선생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북극을 점령하고 남극을 점령하고 있어요.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을 좋게 하고 잘 먹여 주니까 모여 오지, 북극처럼 발이 열고 코가 열고 귀가 열고 이래 놓으면 누가 올 거예요? 문제없다는 거예요. 굴을 8백 미터 이상 얼음 아래, 10층 아래를 파서 하게 되면 대리석을 파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발전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해 가지고 땅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지상천상천국을 얼음 가운데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 거라구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나는 거라구요.

평화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사랑 가지고는 안 와요. 미국이 백인 제일주의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깊은 데로 흐르나요, 얇은 데로 흐르나요? 아, 왜 답변을 안 해요? 얇은 데인지 깊은 데인지 왜 답변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깊은 데로 흐릅니다.」 깊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까지, 반석 밑에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약수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데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원해요, 더러운 물을 원해요? 「깨끗한 물이요.」 물이 그래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하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데는 경계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는 때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180도 모든 것을 부정하고 180도 돌아서 가지고 천지의 중심인 참사랑의 부모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핏줄이 내게서, 내 세포에

서 약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천국 가면 천지부모를 따라가야지 자기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
다구요. 아침 햇빛이 나오면 말이에요, 등불 밑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부정당해요. 바깥에 있는 태양 빛을 따라가겠어요, 등불을 따
라가겠어요? 「태양 빛을 따라갑니다.」 알기는 아는구만. 생물은 더 밝
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진이도 그래? 「예.」 ‘예.’ (웃음)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
라도... 어둠은 어둠으로써 빛만 찾아오면 일시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영계의 조상들... 요 1킬로미터 안에서 수많은 조상들
이 왔다 갔지만, 이 조상들이 이제 여기에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영적으로 보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낮은
사람은 종적으로 몇 대가 돼서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다 충성하
고 보다 희생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 조상을 동원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서 어디 간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림한 조상들이 거기에 길
이 막혔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영들이 파수병이 되어서 협조하는 거예
요. 영계의 선한 영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는 목적지가 이런 곳인데
우리 아무개 족속의 메시아가 가니, 너희들 앞에 길을 열어 주면 너희
들은 복 받을 텐데 이래라.’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그
기준에 응할 수 있는 조상들이 동원되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하나님
과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천지의 중심가정으로서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천지의 중심가정으로 행사하는데 내 말 들어라.’ 할 때 영들
이 듣고 ‘저 녀석, 무슨 중심이야? 말만이지. 껌데기다.’ 하고 도리어
쳐 버린다고요.

그래서 ‘참부모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니까 이 세계의 모든 그것을 찬동하는 사람은 협조해라.’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영계권이 자기의 활동권 내에 들어가느니라! 아멘이요.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살아 보라구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선생님이 천주해방을 했다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왕권, 왕권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수 있는 효자충신·성인·성자는 나다! 나는 타락한 아담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완전한 사람이고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그 이상 깨끗하고 멋진 남자나 여자다. 우리 가정은 그들의 천배 백배 이상 중심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안팎에서 싫다고 하더라도 상속하지 않을 수 없는 아들딸의 자리에 있다!’ 아멘 해야 된다고요.

씨 중에 내가 첫째 번 씨다, 수많은 씨 가운데 일등 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요, 경쟁? 축복가정들이 몇억이 되는데 1등이 누구예요? 1등이 전부 1등이예요? 효자 하게 되면 나 혼자 효자가 아니라, 천 사람 만 사람을 길러 가지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효자가 되어 보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성인의 나라를 백개 천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친 성인 왕의 자리의 성인이 되겠다, 성인의 아버지다, 이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처음 듣지요? 얼마든지 욕심을 가지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면 암만 하더라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자들, 한번 해볼래요? 우리 어머니를 좋아해요? 「예스,」 ‘나는 어머니의 십배 백배 이상 하늘 앞에 효녀가 되는, 어머니보다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어머니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벌 주겠어요? 한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경계가 없다구요. 올림픽 대회

에서도 기록을 깨지요? 기록 깨지 말라고 그래요? ‘올림픽 대회에서 기록 깨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 그놈의 올림픽 대회 때려부수어야 돼요. 사탄 편 올림픽이 되는 거라구요.

야야, 이것 맛있다. 말을 못 하게 맛있다. 「아버님께서서는 복숭아하고 다른 과일들을 들고 계십니다. (통역자)」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몇 사람이나 듣고 전부 실천할 것 같아요? 듣고 다 흘려 버리지요. 「아닙니다.」 이것이나 먹고 다 돌아가지. (웃음)

돌아설 때가 와요. 미국에서 잘사는 사람은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을 형으로 삼고 동생으로 삼고 살겠다고 해야 돼요.

백인 여자들이 검은 흑인하고 살다가 아들딸을 흑인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섯 아들딸을 낳았는데 다섯 사람 중에서 흑인 애들이 셋이고 흰둥이가 둘이면 흰둥이만 사랑하겠어요? 어머니는 도리어 흑인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흑인으로 태어났니?’ 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내 어머니가 흑인으로 낳았다고 해서 백인보다 더 사랑한 그 역사를 지녀 가지고 그 아들딸이 일생 동안 백인 이상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 주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지생런! 「예, 아버님.」 사랑 노래나 한번 해봐라. (박수) 이제 우리가 효녀 ‘심청’ 발레를 만들었지만, 춘향전 발레를 만들 거예요. 춘향전에 나오는 훌륭한 남자가 누구인가? 이순신인가? 「이 도령입니다.」 이 도령인가? 「이몽룡입니다.」 글쎄, 춘향전은 여자가 주류이지, 남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데 대표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순신이에요. 그런 것을 발레로 만들 거라구요. 너무 길게 하지 말라구. 맛만 들여야지, 양념장을 짭 해 가지고 해줘야지 양념이 짜든지 맵든지 하면 먹다가 그만 둔다구. 「짧게 하겠습니다.」 (지생런 씨가 판소리 ‘춘향가’ 중 일부를 부름)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님. 다시 하겠어요.」(박수) 누가 다 아냐? 넘어가면 되지, ‘아이구,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있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습니다.」(다시 노래 부름) (노래하는 중에) 이거 노래를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춤을 추고 다 판이 벌어져야 할 텐데, 전부 다 돌석들만 앉아 있으니 뭐 맛이 나나? 그만두자! (웃음)

「일어서 주십시오. (통역자)」 우우우! 한 사람만 해? 세 사람은 해야지, 소생·장성·완성. 자, 장성으로 하라구. 「예. (김효율)」 요전에 그 노래 뭐 있잖아, 잘하는 노래. 「한국 노래 하겠습니까.」 한국 노래 말고 영어로 한번 하지. (김효율 보좌관이 ‘대니 보이’ 노래) 자, 형진 이! 일어서라구. 노래하고 무술 한번 시범하고 들어가자. 중국 사람이 다 됐어. 웃이니 무엇이니 전부 다. (형진님 노래) *

평화세계와 하나님 왕권

다음에, 어제 그 말씀! 「예.」 왕권 즉위식 말씀 뵈지? 원고 다 정리했어? 「예. 한번 읽어 볼까요?」 응, 읽어 보자. (‘하나님과 인류가 찾아가는 평화의 나라와 세계’ 훈독)

『존경하는 의장, 각계를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 각국의 평화대사...』 초종교 초국가를 안 넣었네. 「죄송합니다.」 「초종교초국가연합 지도자, 그 다음에 엔 지 오(NGO; 비정부기구) 지도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어? 응, 그래.

원수끼리 교차결혼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상대인 인간에 대하여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출발은 무한히 위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변성하라는 제2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한히 주고 싶은 참된 아버지, ‘무한히 주고 싶어하는’을 넣으라구. ‘무한히 주고 싶어하는 참된 아버지’. 그래, 읽으라구.

2001년 10월 10일(水),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유엔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질서는 정치주권이 도덕적, 영적 가치와 별개로 작용해서는 공익과 평화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신의 이상에 기초하고 우주공법과 통하는 영적·도덕적 고차원의 지도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고차원 그 위에는 말이예요, 하나님의 절대사랑을 중심삼은 평화의 공식은 최후의 원수 원수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자식끼리 축복 결혼할 수 있는 자리를 넘어서야 완성된다는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수 원수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경을 철폐해서 두 원수 나라가 전체 교차결혼 하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요걸 축복에…」 그럼! 「축복 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에요. 그것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이것이 공식이고, 인류의 입장에서 이 공식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는 그것을 딱 집어넣으면, 누구나 불문하고 원수 원수끼리 자식을 세워서 결혼시켜 가지고 자기들보다 나올 수 있는, 하나될 수 있는 하나님적 사랑을 하는,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평화의 가정 기준까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겠다구요. 자!

『……평화대사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 기필코 평화세계를 창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타를 위하는 삶으로 참사랑을 실천하자고 결의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평화대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평화대사들이 지원하는 유엔의 기구가, 세계 이상적 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새로운 유엔을 창건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됐어. 자!

하나님 왕권 즉위식 말씀

『하나님 왕권 즉위식' 말씀입니다.』 왕권 즉위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했으니 말씀을 읽으면 되겠다구.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지요? 영계의 낙원과 지옥까지 철폐해 가지고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간단히 지나가는 한때의 의식과 선포 말씀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에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 일대의 모험 가운데서 안정과 거기에 소망의 힘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 왕권 수립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해와를 복귀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선민권 국가의 기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 다 깨졌습니다. 모두 깨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그 터전이 전부 다 죽은 것같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7세기에 들어 중동에서 회회교가 나왔습니다.』

회회교가 나왔는데, 그것은 영적 종교권이라구요. 예수님이 영계에 갔기 때문에, 지상에는 실체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상대인 모슬렘과 상대해 가지고 싸워 나오는 거예요. 육적 세계까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반대인 사탄세계의 영적 종교 입장에 딱 서 있다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돌아와 축복받은 민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 민족 가운데서 회회교가 나온 것입니다. 모슬렘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안 나온다 그 말이라구요.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이슬람을 대해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영적 세계의 기반을 닦아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될 수 있게끔 닦아 가지고 이슬람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종교권 초국가권 초엔지오(NGO)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인데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삼고 십자군과 모슬렘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으로 빼앗아서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기독교보다도 모슬렘이 강하잖아요? 17억 잡는데 기독교는 14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우세한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자!

『……기독교가 세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육이 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원수 세계를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연합국과 추축국이 하늘편의 세계에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반을 중심삼고 천주교와 신교가 하나된 자리에 서서 기독교문화권을 대표하여 오시는 재림주를 맞았더라면 그때부터 통일천하의 운세를 받아…』

성신과 합해서 기독교가 이제 구교와 신교가 하나되어 가지고 참여머니를 중심삼고, 참아버지를 중심삼고 실체권이 하나되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화해를 붙이고, 유대교와 오시는 주님, 그 다음엔 주위에 있는 종교와 화해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 화합이 벌어져 주권만 갖추어진다면 그때에 다 끝납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 책 나눠 주라구. 「예.」 나눠 줘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도상에서 2차대전 이후에 세계 국가인 미국이 —미국은 세계 제2차적인 이스라엘권— 제3

차 지상천상의 주권, 패권의 주인으로 오신 주인을 만나 지상통일 천상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면 제3이스라엘 천국 출발과 동시에…」

미국과 유엔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되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부터 세계 정리하고 들어가요. 자!

『제3해방권 지상천상천국의 해방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적 내적 역사관이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역사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뭘 해 왔느냐 하는 그 역사관이 없어요. 이걸 단시일 내에 압축해서 논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말해 나온 거라고요.

『그것이 40년간 돌아왔고 오늘까지 5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40년을 빼면 16년이에요, 16년. 사 사 십육($4 \times 4 = 16$), 해방 후 16년 만에 참부모로서 기도한 거예요. 언제나 16수가 문제예요. 유엔도 16개국, 1차대전도 16개국, 16수가 문제라고요, 사 사 십육. 자!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누가 해줍니까? 애초에 누가 즉위식을 망쳐 놓았습니까? 사탄과 아담이 망쳐 놓았습니다.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되지 못함으로써 사탄이 들어왔고, 이 땅 위에 참부모의 혈통적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핏줄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부정하고 뒤집어놓는 일은 하나님도 못 하고, 사탄도 못 합니다.』

이론적이라고요. 영육에 대한 이론이 맞기 때문에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또 그것을 통일교회가 이루고 있고, 영계의 실상이 그것을 반증하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실상을 빨리 선포해야 돼요. 알겠나, 대가리 큰 책임자들? 양창식! 「예.」 중요한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통적 기원이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빨리 해. 이제부터 3천년시대는 영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과제에

요. 그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들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갈 때 열두 제자 반대한 사람... (눅음이 잠시 중단 됨) 일족 전부 다 죽었다구요.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권을 이겨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적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아버지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들딸을 위해서 먼저...』

다 받아야 할 입장인데 자기들이 생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주저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뭐 아까워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들딸을 위해서 먼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틀림 없다고 할 때에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끝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나눠집니다. 마지막 판에 가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토니, 혼독하는 내용을 알겠어? 이러한 전통적인 섭리관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라구. 알겠어? 「예스, 파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끝날에 서양은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모여 있는 서양 가정들은 오늘의 기념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망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크다는 거지요. 자!

말씀을 함부로 손질하지 말라

『.....‘축복의 중심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는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아담 해와가 가정을

파탄한 것을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내 일족은 물론, 나라까지도 수습해서 하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국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축복받은 가정들이 합하면. 그러면 세계와 영계 해방은 자동적이에요. 사탄이 국가 기준에서 지금까지 해먹었어요. 요 놈을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자!

『.....하늘나라의 헌법 1조가 뭐냐?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 혈통을 깨끗이 보존하라, 순결한 혈통을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축복받은 혈통은 하나님의 혈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어받은 것인만큼 지금까지 타락세계에 젖은 습관적인 행동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미스터 양 하면 양 일대를 두고 말한다고요. 혈대라는 것은 거기에서 스톱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통해서 번식해야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의 계열과 하나 안 되면 핏줄이 연결 안 돼요. 혈대라는 말은 역사적 책임을 저야 한다는 거예요. 미스터 콕이면 콕 씨의 혈통을 중심삼고 대표해 가지고 그 계대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우선 아들딸을 가져야 되고,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해 가지고 전통을 살려 나가야만 혈대의 책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혈대라는 얘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일대에서 모두 조정해야 돼요, 전부가. 그것을 못 하게 되면 역사적인 심판을 받고 미래의 소망적인 지상천국이 지옥으로 화해 버리고 말아요. 막혀 버린다고요.

그냥 그대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혈통과 혈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부부가 됐든, 배우자가 없으면 혼자라도 좋으니 온전한 핏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사람은 눈을 감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힘있게 손을 들어 맹세합시다. 맹세! 오늘 기념의 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부부가 싸우다가도 ‘정월 13일, 13수!’ 하면 가라앉혀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13 하면 제일 나쁜 수입니다. 열두 달 가운데 중

양 수입니다.』

유니언(union;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다 빼 버렸네. 「예. 유니언 내용은 뺐습니다. (양창식)」 그것 왜 뺐어? 누가 뺐어? 의논하더라도 나한테 승낙을 받아야지. 해놓고 보고하는 게 아니야. 유니언 문제가 제일 근본이예요. 공산주의의 발전 기반이 유니언이예요. 사업 분야에서 데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전 기반이예요. 투쟁 개념의 초소가 어디냐 하면, 공장지대 유니언이라구요. 알겠나? 그것을 뺐으니 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구. 어떤 환경에서 얘기했느냐 하는 사실을 알고 빼야지, 아무것도 생각지 않아 가지고 자기의 현재 체제, 문장 체제의 중심, 내용을 중심삼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구. 미래의 역사관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자, 읽으라구. 선생님 말씀을 손질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 즉위식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

『.....오늘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철칙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공인으로서 필히 지켜야 할, 가정에 들어가서든...』

‘들’이라고 하나 집어넣어야겠어. 3대 철칙들이라고, ‘들’ 하나 집어넣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철칙들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공인으로서 필히 지켜야 할, 가정에 들어가서든 나라에 들어가서든 걸리지 않는 지침입니다. 이 날에 가히 기억할 만한 내용인 것을 명심해서 생애의 표적으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박수)

다야? 「예.」 이거 읽으라구. 한번 읽어 보자.

왕권 즉위식은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이 했다는 것, 내

가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예요, 나. 그 제목이 ‘참된 나를 찾자’는 것인데, 읽어 보라구요. 그것이 제주도에서 한 얘기일 거라구요. 그것 생각나? 「예.」 읽어 봐요.

「‘참 나를 찾자’ 이 글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국제연수원에서 거행된 제5회 칠팔절 경배식 말씀입니다.」 (훈독 후 양창식 회장 기도)

우리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구만. 가정이 없으면... 가정 기반에서부터 세계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가만 보면 통일교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돌고 돌아 가지고 그것 위에서 이렇게 다 맞춘 거라구요.

토니는 브리지포트 학교 그만뒀어?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돼, 이제. 「예.」 선생님이 무엇을 시킬지 몰라요. 자기들 꿈꿨던 속 가지고 하지 말고, 알겠나? 「예.」 「지금 정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기다리고 있지요?」 「예.」 자, 기도했기 때문에... (녹음이 중단됨) *

평화대사, 가정당과 교육

(‘하나님과 인류가 찾아가는 평화의 나라와 세계’ 훈독)

앞으로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선포해야 돼

「18분 걸렸습니다.」 평화대사관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요. 「아버님이 한번 읽어 보세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어머님)」 다른 것 훈독회 해요. 내가 밤새껏 읽었는데 뭐... (웃음) 그 다음 훈독회 해요. ‘참된 나를 찾자’ 그것도 원고로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것 수정하라구. 한국에 가 가지고 일대 혁명적인 발표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요.

선포문 둘째 번 것 읽어 봐라.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원초성자·근원성자·승리성자 책정 봉헌식’ 훈독. 박정환 회장 기도)

제주도에서 한 말씀, ‘참된 나를 찾자’ 그 말씀을 간단히 연설문같이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강연하는 내용을 중심삼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에 사도 바울 것까지 집어넣어서 책을 만

2001년 10월 11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들어야 되겠다구요.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나눠 줘야 되겠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 몇 나라나 오겠나? 「1백 나라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곽정환)」 120 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 국가들 앞에 나눠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열 권씩만 나눠 주면 될 거라구요, 출판해 가지고, 열 권씩 120나라면 1천2백 권이고, 열두 권씩이면 1천 440권인데, 이것을 나눠 줘 가지고 주변 국가 앞에 보내 줘서 그 책을 통해서 전세계의 정부 요원들, 나라가 알 수 있게끔 배부해 줘야 되겠다구요.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선포해야 돼요. 「이미 선포는 하였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가정당의 실천노정을 선포해야 되겠다구요. 그래서 황선조에게 여성 평화요원 교육을 빨리 끝내라고 해요. 「예.」 선생님이 이 대회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대회를 할지 모른다고요. 대회를 준비하라고 하라구. 「예.」 각 도를 중심삼고 어머니하고 합해 가지고 표제를 중심삼고 유엔에서 한 얘기를 어머니가 하고, ‘참된 나를 찾자’는 내가 얘기해 가지고 둘이 선포하면서 앞으로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부모가 하나된 거기에 나라 전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해

그렇기 때문에 남자 평화대사는 남자 국회의원들을, 여자 평화대사는 여자 국회의원들을... 이번에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해 가지고 남자는 남자 출마하는 사람, 여자는 여자 출마하는 사람을 적더라도 내세워 가지고 두 패 선거를 중심삼고 주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남자 평화대사는 남자 국회의원, 여자 평화대사는 여자 국회의원을...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초당적으로 결의해 가지고 전국적

인 남성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데 여성 출마 요원들도 배치해야 되겠다구요. 야당 여당에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야당 여당에서 뽑아서 하는데, 그래 가지고 밀어 줘야 되겠다구요.

이래 놓게 되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성 국회의원은 아버지를 대신 하고, 여자 국회의원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정당 양면을 중심삼고 통일당, 통일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남자끼리는 싸워요. 남자 여자가 야당 여당이 되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지상에 있어서는 어머니, 여성이 국회의원 이 되면 이 여성들이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중심삼고 어머니 대신 교육하고, 행정부처의 모든 전체 여성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교육을 주로 해야 돼요. 남자들은 바쁘니까 교육 못 하잖아요? 여성들을 중심삼고 전면적인 교육을 중심삼아 가지고 초당적인 하나의 통일가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이나 세계가 전부 다 그 세계로 가요. 천주 평화통일가정당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조직을 중심삼아 가지고 야당 여당이 싸우지 않고 남자 여자 평화대사들이 통일적인 하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통일당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운동을 지금 선언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아요. 황선조한테 얘기해서 그것 지시해 줘요. 「예.」

국회의원의 4배니만큼 우리는 선거하면 무조건 남자 국회의원 지지하는 사람을 밀어 주는 거예요. 여자를 내세우면 무조건 여자 평화대사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단체 행동하는 단체가 없다구요. 그래서 초당적인 면의 하나의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의원이 벌어지고 조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尙)에다 ‘검을 흑(黑)’ 자를 썼어요. ‘검을 흑’ 자는 마을(里)에 네 점(灬)이에요. 사탄적 사위기대 위에 마을이 있고, 그 위에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탄세계의 패권주의시대예요. 그것

이 발전해 가지고 형제시대로 됐어요. 이것(党)이 형제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집 당(堂)’ 자예요. 집이 되어 가지고 부모주의시대라는 거예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중심삼은 주의시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당에서 교육해야

그러면 남북총선거 때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세계의 국회의원을 합해 가지고 남북총선을 하고, 또 여자를 합해 가지고 총선을 하는 거예요. 두 요원들을 배치해서 4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배 요원을 중심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세워 줘야 된다고요.

3차 이내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합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어 가지고 묶어 놓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교육이에요, 정치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돈을 지불해서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때는 우리에게 녹아나요. 알겠어요? 야당 여당이 싸우겠다고 하면 녹아난다고요. 우리가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당이 되면 남자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되면 여자 국회의원들은 야당이 되고, 여자가 이기게 되면 여자들이 여당이 되고 남자가 야당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울 수 없어요. 가정 파탄할 수 없거든요. 부부가 싸우면 되나?

나라가 싸우지 않고 하나된 거기에 나라 전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다 있는데 종적인 가인 아벨, 횡적인 가인 아벨, 전후의 가인 아벨,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횡적인 가인 아벨 관계이지만, 부자지관계는 종적인 가인 아벨이고, 그 부모를 중심삼고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도 전후의 가인 아벨인데, 다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당 정착이라는 것은 이론적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금력, 인력, 정치력,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완전히 들어가서 방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여자들 1천2백 명을 내가 원리강의를 할 수 있게 훈련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구만. 이번에도 그 체제를 가지고 교육하지? 「예. 어제까지 지도자들 교육을 마쳤습니다. (양창식)」 몇 명이나? 「네 개 교구 공직자들만 한 20명 했습니다. 책임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책임자들이 그대로 우리 식구들하고…」 통일당에서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위로축복은 못 한다

「위로축복에 대해서 공문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위안축복 위로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곽정환)」 언제? 「어제 제가 봤는데 공문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 있잖아? 못 한다는 것 말이야. 안 해준다구. 혼동회 내용에도 나오잖아? 위안축복을 해준다구? 「후보자들 조사를 하고 그런다고…」 미친 녀석들이야! 어디서? 「세계적으로 나간 공문입니다.」 어디에서 나간 거야? 한국에서? 「예.」

「이렇게 아버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위안축복의 상대자는 영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영계의 두 상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창식)」 지상에서 무엇? 「지상에서 위로축복을 두 가정이 하게 되면 영계에서도 깨어진 두 가정의 동의 하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딸이 있는데 어떻게 깨

지나? 아들딸이 없으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

전부 재림하는 거예요. 혼독회 하는 것에 나오잖아요? 안 된다구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빨리 황선조한테 시정하라고 해.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진 가정들은 결혼 다시 안 해줘요. 독신으로 살겠으면 살고 말겠으면 말고. 고의로 깬 녀석들 말이에요. (이후 식사 중에 대화하심) *

평화대사는 하늘나라의 전권대사

너, 어제 그 원고 하는데 빼 놓은 것이 있더구만. 다시 테이블에 있는 것 갖다가 고쳐요, 다 고치게. 「어제 원고요? (정원주)」 응. 나중에 고쳐 놔요. 「표시 또 했다고 그러셔. (어머님)」 「아, 표시 또 하셨다구요?」 응. 중요한 것을 뺐더구만. 대사관을 뺐어. 「대사관요?」 평화대사관. 「평화대사관 안 뺐는데요, 아버님.」 안 뺐다니?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집어넣으라구. 어디 하겠나? 뭘? 「평화대사관이 빠졌지요.」 평화관이라고 하고 ‘대사’를 뺐더라구. 「죄송합니다.」 그것 불필요 없어. 나중에 해요. 어디?

하늘나라의 특권을 대행하는 것이 평화대사

어디? 「천지부모 천주통일 해방권 선포’입니다.」 효율이! 「예.」 가게 야마더러 배 이리 한번 가져오라고 그래, 둘이서. 「지난번에 포기한 그 배 말씀이십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 갈 때는 말이야, 여기서 죽 체크하면서 돌아가게 말이야. 앞으로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브리지포트에서부터 저쪽에 데려가서도 또 하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

2001년 10월 12일(金),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앞으로 관광 유치를 해야 되겠다구.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Ⅳ》 ‘천지부모 천주통일 해방권 선포’ 훈독 후에 ‘삼십절 선포’ 훈독)

『……절대적인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8단계의 소원을 바라고 사랑의 혈연적 관계로 태어난 남자 여자들은 그런 인연을 갖춰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갔다는 거예요. 복중의 아기까지도 상대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방될 게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평화대사를 말하는데 평화대사는 뭐냐?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특사예요. 그 나라를 대표한, 어디 가든지 대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거라구요. 그러면 평화대사는 뭐냐? 하나님 왕권이 수립돼 하늘나라의 전권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평화대사, 하늘나라의 평화를 위한 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 하게 되면 그 가정에 하늘나라가 파송한 부모예요. 평화를 위한 부모이고, 그 다음에 부부도 하늘나라의 특권의 파송을 받은 부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부부 평화대사, 그 다음에 형제 평화대사, 자녀 평화대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대사가 돼요.

하늘나라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정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부모·하늘부부·하늘형제·하늘자녀를 중심삼은 대사의 사명으로 임명해 보낸 것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축소한, 가정에서 축소된 부모·부부·형제·자녀였느니라!

그래, 자녀는 자녀 평화대사, 형제는 형제 평화대사, 부부는 부부 평화대사, 부모는 부모 평화대사, 하늘 전권을 이 땅 위에 이양해 가지고 상대적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어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사라는 것은, 평화대사라는 것은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는 그 평화 가정을 중심삼은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을 짊어진 나라의 평화대사권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평화대사예요.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가정과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 통일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결론이라는 거예요.

평화대사라는 말의 의미

오늘로부터 이 말씀과 더불어 살면 만나다구요. 평화대사 알겠어요? 「예.」 눈이면 눈, 하늘나라의 평화를 책임진 눈으로서 평화대사, 코면 코 평화대사, 입은 입 평화대사, 귀는 귀 대사, 모든 오관은 평화를 위한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영계와 육계와 일체 되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위하는 세계가 지상 천국 세계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서 상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계도 이 나라를 지금까지 창건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참부모의 가르침을 중심삼고 평화대사권을 지상에 이양해 가지고, 모든 영계가 축복받아 지상에 와 가지고 대사권 임명을 받은 동생의 자리에서 형님의 전통을 따라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대사를 그런 관을 가지고 교육해야 된다고요.

대사라는 것은 ‘큰 대(大)’ 자예요. ‘큰 대(大)’ 자는 사람(人)을 통일(一)시키는 거예요. 여기 개인의 작은 사람, 형님 사람, 부부 사람, 부모 사람, 나라 왕, 성인 왕, 전부 다 ‘사람 인(人)’ 자를 크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되는 거예요. 통일, 사람으로 말하면 통일되는 거예요.

요. 알겠어요?

대사(大使)의 ‘사(使)’는 사람(人) 변에 관리라는 리(吏) 자예요. 관리라고 그러지요? 대사, 큰 사람 작은 사람,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나라의 관리가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임명한 대신자로서 땅에 심었으니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히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세계까지 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열두 달이에요, 열두 달. 이것이 뭐냐 하면 계절로는 3단계예요, 3단계.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땅, 바른쪽은 하늘이고 왼쪽은 자기인데, 이게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사위기대를 중심삼은 24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운세에 맞춘 거예요. 열두 달을 중심삼고, 열두 달이지만 나눠 놓으면 24절기가 돼요. 사위기대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상 지상 가정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하늘 가정을 중심삼고, 열두 계절을 통해서 24절기로써 천지방수가 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수리적으로 현상적인 형태로도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3단계예요. 삼 사 십이($3 \times 4 = 12$), 열두 달 이것이 혼자가 아니에요. 상대가 되어 있어요. 24절기로 상대가 돼 있어요. 하나님도 지상 세계 천상세계의 부모, 둘이 합해 가지고 이 천운이 운행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이 벌어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이게 이래야 하나되기도 하고 이래야(손뼉을 치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래야 갈라져 가지고 같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전권을 대표해서, 가정을 두고 보면 가정은 하늘나라의 전권대사 가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부, 살 수 있는 형제, 살 수 있는 자녀, 이런 사회권을 중심삼은 통합적 사랑이상화된 정착지가 지상천상천국이에요.

그러면 평화대사가 뭐라는 것을 알겠어요? 평화(平和)의 ‘평’이라는 것은 이 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부모를 모시고 하늘을 통일하는 거예요. ‘화(和)’ 자는 ‘고루 화(禾)’ 자에 먹는다는 입(口)이에요. 하늘땅이 같이 고루 먹고 사는 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위라고 잘 먹고 아래라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먹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부모와 지상부모가 같이 먹고 살아야 평화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天主)라는 것은 두(二) 사람(人)의 집(宙)이에요. 집 가운데 자유로운 집이에요. ‘주’ 자에 유(由) 자지요? 두 사람, 큰 두 사람의 집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집이 천주다 이거예요.

평화는 그렇고, 통일은 말이에요, ‘실 사(糸)’ 변에 ‘충만할 충(充)’ 자예요. 실로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꿰어서 하나 만드는 것이 통일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요.

그래,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이에요, 가정. 가정연합은 하늘나라의 조국광복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중심삼은 지상에 파송받은 대신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천주평화통일가정이다! 가정들을 통해서 천주평화통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일견(一見)에 다 통한다구요.

72개국 평화대사관 설정

이제 이번에 대회가 끝나거든 대사를 임명할 72개국을 정해야 돼요. 40개국에서 72개국 선정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40개국에서 72개국 세우려고 하잖아? 「예.」 이들을 임명하려면 유엔을 중심 삼아 가지고 분배해서 나갈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유엔이에요, 새로운 유엔. 알겠어? 「예.」 유엔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하늘나라의 전권대사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지상세계의 통일적 유엔을 형성해 가지고 하늘나라와 일체권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나?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야? 12일이지? 10월 12일이에요. 숫자도 딱 맞아요. 오늘 새벽에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다구요. 한국이 이것을 이제 형성해야 돼요. 알겠어요? 천주평화통일당을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평화대사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여자 평화대사는 야당의 자리에 들어가고, 남자 평화대사는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 운동을 하는 통일교회에 소속한 의원들이 국회의 과반수, 3분의 2가 넘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세상, 불신풍조로부터 파괴가 일어나는 세상을 완전히 이제부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늘도 그걸 위해... 미국도 그래요. 평화, 이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제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세계에 백인이 없어져요. 종교전쟁을 통해서 인종전쟁으로 가게 되면 모든 종단권 내는... 백인세계는 8억5만천밖에 안 돼요. 7분의 1이에요. 60억이면 8억은 얼마예요? 60억이면 8분의 1인가? 「7분의 1입니다.」 7분의 1밖에 안 된다구요.

그래, 모든 전부가 지금 백인을 다 싫어해요. 서로가 종교전쟁이 벌어지면 국경이 없이 어디에든지 다 사는 것인데, 백인을 중심삼고 칼침 놓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을 들어야 돼요. 이번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차결혼까지도 공식화할 수 있게 다 발표해 버려야 돼요.

이 대사 임명까지 해 놓으면 세상이 별꺼덕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선 한국에 돌아가서 발표해 가지고 이제 정당들을 타고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자기 잘먹고 잘살겠다고 탄 길을 가던 녀석들은 다 거지새끼가 돼요.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길자, 알겠나? 몇 명 선생 만들었어? 1천2백 명 만들라고 그랬는데 만들었어? 여자 강사들, 몇 명 만들었어? 몇 명이야? 「확실한 숫자는…」 1천2백 명인데, 남자 대사도 1천2백 명이야. 그렇게 되지? 「예.」 여자 대사까지 2천4백 명이니까, 1천2백 명의 여자들이 야당에 들어가서 강사가 되어야 돼요. 원리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평화대사, 평화대사들의 임명이 이런 것이다! 사위기대이상, 삼대상목적을 완성한 사위기대 이상가정 정착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대사들이 가는 길은 밀사의 길

대사가 그렇지요? 특권대사, 오시는 주님 참부모는 하늘나라의 특권 대사에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대로 인정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은 안 돼요. 스파이 공작을 뭐라고 그러냐? 「밀사라고 그러니까.」 밀사의 사명을 해야 돼요. 대사들이 가는 길이 밀사의 길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결론을 지어 가지고 국가 기준을 세워 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황선조보고 준비하라고 해요. 「예.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 가지고 각지의 도를 중심삼고 강연할지도 몰라요. 아들딸까지 동원해 가지고 강연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부터 하실지… (곽정환)」 22일 지나 가지고 내가 곧 갈

거예요. 11월 15일이 자녀의 날이지? 「예.」 그 전에 가 가지고 대회를 시작해서 대회를 끝내고 행사를 할지 몰라. 「행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대회라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명칭요.」 천주 평화통일 대회! 평화통일 대회라고 해요. 천주라는 것은 빼도 괜찮지. 남북통일, 평화통일 대회. 「평화통일 대회요. 예.」 그 천주라는 것은 괄호해서 집어넣어야 돼.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놓아야 대사관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한다 하는 것을 세계 일보에 발표하라고 그래. 「예.」 그 내용을 원고를 써 가지고 나에게 읽어 주고 보내라구. 내가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해야지요. 국가 찾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일반인을 모아서 체육관에서 집회를 합니까, 아니면...」 관공리들, 공적인 대학이라든가 모든 책임자들을 불러모으는 거야. 「그러면 호텔에서 지도자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중 다 모여도 괜찮아. 임자들이 대사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임명했던 그 사람들을 교육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남자 대사, 여자 대사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위기대 가정이상일 열매

그래서 나중에 가정으로 모는 거예요, 가정. 국회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는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어 가지고 아들딸이 여당 야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많은 데 있고 아들이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균형을 취해 가지고 당에 대한 이념을 가정이 의논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다 아니까 말이에요.

어머니관, 아버지관, 아들관, 딸들관, 누구나 마음대로 못 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대로 못 해요.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도 마

찬가지예요. 국민을 대표한 어머니 아버지가 합한 당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것이 형제 아니예요? 형제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黨)이라는 것이 ‘오를 상(尙)’ 아래에 사탄세계예요. 마을(里) 아래 네 점(灬)을 받은 것은 사위기대에 사탄이 완전히 뿌리를 박아 놓은 거예요. 형제 자녀라든가… 「흑 자입니다. ‘검을 흑(黑)’ 자는 그야말로 사탄입니다.」 ‘마을 리(里)’에 네 점을 박았다고요. 「그 위에도 마을 안에다가 둘 더 넣었습니다.」 무엇이? 「흑 자요.」 흑 자니까 마을 리가 아니냐 말이야. 당이 이것 아니야? 마을에 이거 아니야? ‘검을 흑’ 자 아니야? 「예.」 마을이 넷 위에 섰어요. 사랑을 중심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것을 가려 굴러가는 거예요. 마을을 굴러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를 상’ 자 아니예요? 완전히 당이 그 놀음을 했다구요. 사탄 전권시대예요.

그 다음에 형제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민주시대에 두 체제로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시대, 그 다음에 부모시대예요. ‘오를 상’ 자 이게 부모시대예요, 부모. 그렇게 발전해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참 묘하다는 것이지요.

그래, ‘집 당(堂)’ 자예요. 집 당이라는 것은 만물, 어머니 중심삼은 거예요. 흑은 땅을 중심삼고 ‘구슬 옥’까지 점을 쳤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특권이 달린 거예요. ‘임금 왕(王)’ 자에 점을 치면 ‘구슬 옥(玉)’이 되지요? 옥이 되는 거예요. 왕은 변하더라도 옥은 변치 않아요. 이렇게 흑은 변하더라도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땅은, 어머니는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알겠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아요. 알겠지요? 평화대사까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구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눈앞의 직접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 복중시대에서 유치원 가기까지는

쌍둥이와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형제시대예요. 학교에 가고 그래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사춘기에 와서 약혼시대를 거쳐 결혼해 가지고는 아들시대가 되면 중황으로 닳아 가지고 황적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사위기대 이상, 가정 전체이상을 복합체로서 해석할 수 있는 이상권이 지상·천상·천국의 이상이 돼요. 어디로 벗어나갈 데가 없잖아요? 가정이 그런데 나라도 그 조직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세계도 그 조직이고 하늘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어요. 한번 소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나 영원히 같아요. 그것이 클 뿐이지요.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데는 거기서 스톱되어 가지고 큰 것과는 관계없어요. 자기를 투입해야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의 모든 것은, 나뭇잎이나 무엇이나 전부 열매를 위해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뿌리나 모든 전부가 열매를 위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위해 투입한 그 자체들은 영원히 영속해 가지고 역사 발전과 더불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론적이라구요.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거 미리 가르쳐 주면 세상에 악한 놈들이 다 해먹어요. 딱 그런 때가 왔어요. 알겠어요? 세계가 종교권을 중심삼고, 가정권·종족권·민족권 중심삼고 딱 되면... 미국이 지금 제2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반대의 형제들과 하나 못 되어 가지고는 큰일나요. 하나될 수 있으면 완전히 순식간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뉴욕에 나가 보니까 트레이드 센터(무역센터) 그 트윈 빌딩(쌍둥이빌딩)이 없으니까 뉴욕이 얼마나... 등대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예요. 그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늘의 사랑 기둥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얘기해 줘도 괜찮아요. 뉴욕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기둥과 같이 되어야 할 텐데, 경제적 두 기둥이 아니라 참사랑의 불기둥,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의 합한 두 빌딩을, 형제 빌딩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제 죽 돌아봤는데, 안됐더라고요. 그 냄새가 아직까지 있던데 말이에요. 효율이가 냄새 맡고 얘기하던 것처럼 딱 그래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모두가 하늘나라의 대사 임명을 받은 존재

자, 대사관 알겠어요? 「예.」 그래, 하나님 왕권을 수립했으니 대사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대사관 나라, 부모의 나라와 같은 나라 나라가 되어 가지고 형제 나라가 돼야 돼요. 이 땅 위에 하나의 부모의 나라인 동시에 형제의 나라가 되어 가지고 주와 같이 생각하고 각 나라가 가정을 편성해 가지고 천상세계 대신의 그림자와 같이 되어야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정착(正午定着) 하라는 거예요. 정오정착을 내가 청평에서 얘기했지요? 정오정착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지상 천국 통일세계, 완전 해방, 하늘 전체 패권적 주도의 왕권시대로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자, 읽으라구.

구구절, 삼십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경계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시간권 내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쳐 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뭐 알거나 하고 있어요? 멍해 가지고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놀음을 하는 줄 알고 이 젊은 놈들은 다른 생각 해 가지고 자기 잘살겠다고 하겠지만, 자기 잘살겠다는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부부대사가 되어야 돼요, 부부대사. 알겠어요? 유아시대의 대사들이 합해서 형제대사, 형제대사들이 합해서 부부대사, 부부대사가 합해 가지고 부모대사, 부모대사가 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지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중심삼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

실해져요. 하나님이 8단계 사랑의 주인이 못 되지 않았어요? 비로소 그것을 이상적 가정을 중심삼고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표시적으로 결과적으로 묶어서 봉헌할 수 있으니 하늘나라에 존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 3대 제물을 통해서 3시대를 걸고 이런 놀음을 하는 거예요. 만물시대, 자녀시대, 부모시대를 중심삼고 이 놀음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사 알겠어요? 「예.」 모두 대사에요. 하늘나라의 대사에요. 학교 선생은 선생으로, 교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교수라는 거예요. 함부로 없어요.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대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크게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대사에요. 자!

『정성을 다해서 제물과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사람이 하나되어야 주인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12일 날, 10월 12일 박아 놓아요. 「예.」 10수, 12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것이 하나될 수 있는 분야가 아벨적인 것입니다. 그래, 가인 아벨의 소유권을 분배해 가지고 출발한 비운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운의 역사를 때려치워야 돼요. 우리 가정이 방망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 옷가지가 자기 것이 아니예요. 자기 집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소유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더라도 자기 아들딸, 자기 형제에게 주고 자기 아들까지 입게 3단계를 거치게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중심삼고 몇 대를 갈아 입히더구만. 세계적으로 그래야 돼요. 삼촌이 입던 것을 아들딸에게 입히고 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자랑으로 알아야 돼요. 자!

가정적 7년노정

『……이제부터 가정 제단입니다, 가정 제단. 가정 제단을 바쳐야 합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가정 제단이 사탄의 제단이 됐으니 이걸 뒤집어 박아야 돼요. 자기 소유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은…』

가정 제단이 대사관 가정이에요, 하늘나라의 대사관 가정. (녹음이 잠시 중단됨)

교회 책임자들이 식구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그 식구들 앞에 3분의 2는 고생시키고 자기는 3분의 1의 자리에서 편안하겠다고 하면 안 된 다구요. 자기가 선두에 서 가지고 언제나 본을 보여 줘야 돼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

『……칠, 팔, 구, 십 그래서 삼십절입니다. 오늘 이 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가 이 모든 전체 섭리를 대행할 수 있는 아벨적 입장에서, 개인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적 시대에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적이고 국가 중심의 장자권이었습니다. 재림시대까지는 세계 무대를 중심삼고,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부모 완성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는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을 완전히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9절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시대 해 가지고 10절, 10수에 들어가서 3시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시대를 선언한 거예요. 자!

『이제 사탄 경계선은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경계선만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경계선, 이것이 평준화되어 가지고 평면 세계와…』

십일조예요, 십일조. 일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자!

『.....삼십절이 이뤄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성인 현철들이 망해 갔습니다. 그 고개를 못 넘고... 사탄의 경계선을 못 넘었다는 것입니다.』

삼일절은 안 지키나? 이제 명의를 다 시정해야 돼요. 나라 세울 때예요, 지금은. 자!

『하나님의 심정의 경계선을 넘다 보니,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심정의 경계선을 다 돌파하고 나니 천지부모 안식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세계를 전부 정리하고 사탄까지도 용서해서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됐던 것을 머리를 같이 세워서 하나로 일치가 된 것입니다.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경계선과 같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만사가 하나님의 소관의 일로써 결정이 난다는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낸 생활, 역사시대에 모든 도주들이 생활하고, 그 결실체로서 선생님이 와서 생활한 모든 것이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퍼센트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백 퍼센트 되지 않고는 축복가정이 못 되는 거라구요. 이 가정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이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가정적 7년노정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효자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들, 가정의 딸이 아닙니다. 가정의 효자 효녀를 바랐습니다. 가정 효자예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충신입니다. 가정 자체가 충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 자체가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인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 자체가 성자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통 역사요, 그리워하고 바라던 소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때가 왔다구요, 이제. 외적 7년노정 완성권을 넘어서
가지고는 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사랑할 때가 와요. 세
계적인 가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생 동안 70년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정을 사랑할 수 있
는 때에 들어와 가지고 외적 7년, 내적 7년 해 가지고 완성적 해방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새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소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딸들을 이
제부터 7년 동안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머느리들 돼먹지 않은 것들도
전부 다. 내가 하지 았더라도 나라의 법이, 헌법이 세운 것을 누구보다
도 제일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 7년 동안 선생님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들딸들이 문제라구요. 자!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적 효자, 가정적 충신, 가정적 성인…』

선생님이 70년? 그래, 사실 70년이지. 70년을 희생했다는 거지요.
자!

부부가 하나되고 아들딸 교육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돼

『가정적 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상세계에 들
어가서는, 하늘나라의 왕궁법과 하늘나라의 법을 다 알아서 하나님 대
신 황족들을 치리하고 국민들을 사랑으로써 치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속받는 것입니
다. 억만년의 역사를 거치더라도 못 가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유환경을 만들었으니 절대신앙·절대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복
종입니다. 말만 했지, 실제로 해봤어요?

오늘 삼십절이 무엇입니까? 구구절절히 뭐라구요?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찾아 가지고 삼십절을 맞이하여 해방둥이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가 앞서서 본이 되어야 돼요. 훈독회를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가르치고 행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훈독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은 내 생활의 근본 요소였느니라! 그 외에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머느리들도 명령일하에 세계 6대주를 대표해서 순회사가 될 것이고 책임자가 될지 모를 거라구. 남편이 되게 된다면 책임자가 되어야지. 어머니 책임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안 나오면 안 돼요. 종교권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생활권을 지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세계의 대학원을 나오고 내적인 세계의 대학원을 나와야 두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대학원까지 나아가야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진이도 그랬는데, 연아, 신학교 다니나?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응? 「다니고 있대요. (어머님)」 다니고 있어? 남편은? 그래, 둘이 합해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철야기도하는 거와 같이 둘이 속닥거리면서 서로가 하나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아들딸 앞에 해주어야 돼. ‘저 어머니 아버지가 뭘 저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얘기하노?’ 할 정도로 말이야. 그거야. 세상의 돈이고 무엇이고 그것은 썩어서 없어져. 출세고 뭐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밤을 새워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말씀을 찾기 위해 수고한 그 대가,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서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자기 부부가 하나되고 아들딸을 교육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니고 어디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나, 여기 대가리 큰 녀석들? 2세라고 해 가지고 대가리 젓지 말라구. 나라 가운데서 자라야 할 것이 2세들이야.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이 2세인데도 불구하고, 법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남았나? 「거의

끝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중요하구만, 오늘이. 12에다 다 맞추었어요. 영계도 다 맞추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맞추려니 내가 새벽에 자지도 못했대구요. 자!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 천지 물건을 대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봐도 감사하고, 전부 다 ‘나를 위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물이나 동물이나 수 천 가지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못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못난 허물을 덮고 허물을 가리고 보자기를 씌워 가지고 황금관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감사하던 사람은 망할 수 없다는 것이 천리였다는 사실을 알라구요.』

그럼! 망할 수 없다는 거지. 맞는 말이라구요. 그래, 선생님도 그래요. 내가 세상으로 부러울 것이 어디 있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세상이 불쌍해요. 불쌍해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고, 그들을 품어 주고, 그들을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선생님 곁에 가려고 하고 선생님 따라가려고 해요. 천운이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구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살면 여러분이 전부 책임자가 왜 안 되겠나? 교회 발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광정환이 기도하고…. 대회 할 날이 가까이 오는구만. (광정환 회장 기도)

하늘나라 대사 임명을 완수하자

이제는 책임소행으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았구만. 세계평화통일가

정연합, 청년연합, 학생연합이 전부 다 대사예요, 대사. 하늘나라의 지금까지 수고한 왕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뜻을 짧은 우리 생애노정에서 받들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고 황공스러운 사실이나 이거예요. 수천만년을 하나님이 수고하고, 종교가 수천만년 희생하고, 또 기독교가, 또 선생님이 수고한 모든 전부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평화 세계를 위한 것인데, 대사 임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 타락한 인류 조상의 해방권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사라는 것은 왕의 대신자예요. 밥 먹는 것도, 대사의 손은 하나님 대신 손이에요. 오관도 대신, 세포도 대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휼적 심정권이 들어가야 뜻의 공명권이 나를 찾아와요. 거기에는 자기가 있을 수 없어요.

60억 인류가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소명을 가진 책임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생각해 보라구요. 그것은 불가피해요. 이론적으로 그것은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너희들 지금 2세들이, 젊은 사람들이 삼십이 다 넘었지? 몇 살인가? 「서른 다섯입니다.」 서른 다섯이면, 선생님이 서른 다섯 때는 뭐... (웃으심)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자기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상천국이 되기 전까지는 죄인들의 모습이라구요. 하늘이 바라고 있는데, 책임 못 한 소행을 자기 후손들 앞에 넘겨 줘야 할 원한의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밟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왔나? 세 시간씩 무슨 세 시간이야? 차 달려 보니까 유엔 빌딩 앞에서 달리는데 10마일이... 「말로는 그렇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좀 빨리 달리고 있던데요. (김효율)」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무슨 뭐 세 시간... (웃으심) 「코스트 가드(해안경비대)들이 와서 자꾸...」 코스트 가드가 여기 뉴욕 밖으로 나오는데 따라오겠나?

「어제 저녁에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번 했습니다. 에프 비 아이(FBI) 정보가 나왔습니다. 수일 내에 미국에 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보가 자기네들한테 들어와 있다고, 대외 국민은 각성하라고... (김효율)」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 되어야 돼요. 종교 가지고 안 되고, 하늘 대사만이... 지금 평화대사밖에 모르잖아요? 미리 가르쳐 주면 경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통일교회 교인들이 그 특권을 갖고 있는데 다 빼앗겨 버렸지. 자기 중심삼고 하다가 다 빼앗겨 버려요. 무서운 때가 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알아보라구요. 원리의 내용을 알고 뜻을 알아보라구요. 세계 생사지권을 넘고 밤낮 없이 꺽충꺽충 뛰게 돼 있어요. 회회교도 그렇지. 자기가 제일이라고 중심삼고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늘 대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께서 사상밖에는 극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 세계가 저렇게 망했는데요, 아직도 공산사상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현을 못 했다,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참 아버님의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귀한지... (곽정환)」

그래서 통일사상을 알아야 돼요. 「예,」 이론적으로 꼼짝 못하게 몰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고 나가면 된다

「어제 저녁에 부시가 대단히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 국민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식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만, 세계 앞에 알리는 입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탈레반 정부에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빈 라덴하고 그 추종자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더 이상 확전 안 하고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운을 땀습니다.
(김효율 보좌관 보고 계속)」

이제 레버런 문이 발표한 것을 중심삼고 대사관 임명 내용이라든가, 종교 대표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길만이 테러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발표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교육하고 나가면 돼요. 그것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대사 교육하나? 「제가 오늘 오후에 워싱턴에 가고요, 내일 아침부터 총회를 합니다. (곽정환)」 그 내용을 밝혀 주라구.
「예.」 그래서 영계에서 그랬구나.

선생님이 이제 83세 돼서 다 늙었는데 무엇에 써먹겠나? 지팡이 들고 뒷전으로 가야 할 선생님 아니에요? 젊은놈들을 다 내세워야 할 텐데... 대한민국의 책임이 커요.

「내일 교육은 아버님, 시작하면서 아버님의 전체 업적과 내용을 비디오로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초연설을...」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활동하는 내용을 비디오로 나눠 주는 게 좋아. 「예.」 이제 보라구. 다 빼앗겨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아버님의 기반만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개회식에 기도도 기독교인만 하지 않고 유대교인, 소련 대표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계의 실상을 나눠 주라구. 「예.」 「전체적인 아버님의 여태까지 해 놓으신 업적과 기본 비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도 없고 빈틈없이 넣었습니다. (중략)」

현재 접수된 사람은 내일 151명 모여서 하고, 120명부터 150명 사이 그렇게 합니다. 일정은 제가 계속 다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중현 회장하고 양창식 회장하고 주동문 사장을 참석하도록 해서 제가 안 갈 때는 그분들이 언제라도 맞춰 가면서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2천 명을 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정환 회장)」

크리스마스면 너무 늦다. 빨리 해줘. 왜 120명만 해? 「멀리 오면 교통비 문제가 있고 비용이 있고 그래서요, 교통비는 자기들이 다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깝게 가깝게 하는데 동시다발로 합니다. 전부 다 일정을 다 맞게 했습니다, 동시다발로.」

4대 성인들의 영계의 실상을 보고해 줘야 돼. 전달해 줘야 된다고. 흑인들은 앞으로 흑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트 페이스(night face)라고 하고 백인들은 데이트 페이스(date face)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면 실감이 날 거라고. 그리고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예.」

시리아의 그랜드 머프티가... 「예. 거동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교황이 거기에 갔을 때 교황을 맞는 주빈으로서 자기 성전에서 맞고 그랬습니다.」 그랬어? 「예.」

다 영계에 갈 텐데 영계에 가서 어떻게 하겠나? 자기들은 성전이라 해서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좋은 천국에 갈 줄 아는데 국물도 없어요. 「예. 그래도 은사로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은 입장입니다. 상당히 본심이 맑은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아버님을 존경하고요.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브레이크를 거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사람이 자유가 좀 없는 편입니다.」

한국 대회 준비와 관련한 지시

「그러면 아버님, 한국은 언제부터 대회를 시작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라고 그래, 준비. 「체육관 같은 것을 예약하려면 날짜가...」 지금부터 하라고 해, 지금부터. 「월말 경에 첫 대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내가 없는 것이 22일이지? 「예. 여기는 21일까지 아버님 마치고...」 그러니까 22일 이후부

터... 「가능하면 빨리 하라고요.」 빨리, 빨리 해. 「예.」

우리 대회 때 하던 연설문 전부 ‘참된 나’, 나에 대한 것으로, 어머니 하고 내가 둘이서 하면 몇 분씩 안 걸리게 할지 모를 거라구.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현재 중국하고 소련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좋아. 그래 가지고 대사관 설정을 시작하는 거지. 대사관에 있어서 부모를 중심한 남자 대사, 여자 대사, 이 평화대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야당 여당 칸셉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당 야당에 대한 질의를 하면 앞으로 그걸 얘기해주는 게 좋아.

「참 그 사람들은 목을 내걸어 놓고 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엇바꾸어 가면서, 재미나게 지내면서 정치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자꾸 떨어져 내려가지 올라가나? 「한국이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 공적인 자금들을 써 가지고요, 앞으로 한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 몇백만 원씩 짐을 짊어지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나라 살림을 잘못하면 거덜내잖아요? (중략)

그러면서 안에서 죽자 살자 싸움하고 구석 구석 들어먹어 가지고 부정과 부패는 끝이 없고요, 해먹은 것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줄줄이 해먹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 국민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영삼과 김종필은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무얼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웃기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통일교회도 웃기지 않아? 세상에 제일 나쁜 단체로 코너에 몰려 가지고 짓이겨 버리려 했던 것이 통일교회 아니야? 기가 차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선조들 가운데 통일교회를 반대한 사람 무덤들을 다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식 원리강의와 430명 일본 선교사 임무

너 요즘에 목사들 만나 보나? 「예. (사길자)」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레버런 문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알고 싶고 얼마든지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하는 것보다 책을 사서 읽어야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딱 하루만 시간을 주면서 교구장이 원리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총서가 한 13페이지 되거든요, 그것을 죽 읽고 차트 2장을 가니까 딱 골자를 빼는 거예요. ‘아!’ 하고 잘 알겠다고. 그 래 가지고 시간 봐 가지고 아버님 말씀이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중략) 그래서 이제부터 원리연습도 그렇고, 목사들 교육도 반드시 책을 먼저 읽고, 다는 못 읽어도 중요한 데를 읽고 차트에 들어가도록 하니까…」

그래. 교수들도 그렇게 해서 전문 책을 쥐서 공부시키는 거야.

「차트만 해 보니까 요약은 했기 때문에 원리의 깊이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훈독하라고 많이 강조하셔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주체가 아니고 책이 주체인데 이걸 요점을 빨리 인식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대상으로 해야겠 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더니 식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없으면 책 한 권을 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면 길게 짧으면 짧게, 아버님 말씀대로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설 때가 왔어. 다 가르쳐 줬는데 무얼 하겠나? 임자네들도 기반 닦아야 돼. 가서 슬슬 다니면서 욕이나 해야지. ‘이놈의 자식들, 뭘 했나?’ 뉘달을 하고 말이야.

「일본에서 아버님, 430명 선교사들 43개국에 보낸 것 있지 않습니

까? (곽정환)」 응. 「중심 임무를 뭘로 하고 파송해야 할지요. 전에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크릴새우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외판활동이라든지, 아울러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적인 모든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테니까 분과별로 다를 테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나라에 빨리 가서 기반 닦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반 닦아야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닦아야 돼. 앞으로 일본 나라에 가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그 민족 앞에 분이 돼요. 그러려면 현지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 건강에 필요한 것이 크릴새우 같은 거예요. 필수품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니만큼 의류 공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옷이면 옷 같은 것도 하고, 배 짜는 방법 간단한 그런 것부터 해서 자기 살 수 있는 생각을, 현지에서 나는 물건을 갖고 의식주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돼요.

바다를 중심삼고 관광사업 레저산업 기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녹음이 잠시 중단됨) 자기 집에서 다 기르고 배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이 있고 땅이 있고 흙이 있는데 왜 굶어 죽어요? 그건 지도자들이 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해양산업을 이렇게 해 나온 것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두고 보라고요, 얼마나 그 영향이 큰가. 배를 만드는 것이…. 배 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도 그래, 길자도, 저렇게 가르치고는 측 해 가지고 ‘나갑시다.’

하는 거라구. 배들 다 있잖아? 간다고 해 가지고 목사들 데리고 가서 운전까지 하면서 빙 하고 해보라구. 얼마나 영향이 크겠나. 사길자! 「예.」

선생님이 자동차 운전을 일부러 안 배웠어요. 내가 하루 그냥 타면 할 수 있다구요. 내가 성격이 고약해 가지고, 두 사람만 앞에 질러가게 되면 따라가서 잡아 가지고 떨어뜨려 놔야지.... 헌차 가지고 새 차를 따라가려면 사고나는 거예요. (웃으심)

여기도 내가 지금 바다에 나갈 때가 지나갔다고요. 여기 뉴욕으로 오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뉴욕까지 돌아갈 때 열두 시 점심때 돌아 오고 말이에요, 갈 때 누구 하나 미리 연락해 가지고 앞 바다에 무엇이 있으면 만나서 친구들을 만들어 배 나오라고 하고 말이에요, 없으면 우리 배를 태워 주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태워 줘 가지고 안 내 받으면서 답사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뉴욕이 제일 나아요. 뉴욕도 롱 아일랜드 사운드는 대단한 곳이에요. 대서양 함대가 지나는 보스턴에서부터 노포크까지 여기 뉴욕을 거쳐 완전히 고기들이 몇 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프트 배스도 어제 보니까 큰 것, 42인치짜리 잡아 온 것을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 찍지 않고 다 요리했더구만. (웃음)

여기 산다구요. 사방으로 옛날 자기들이 먹던 곳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다구요. 스트라이프트 배스도 종류가 있잖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자기가 알 치고 새끼치고 다 먹던 곳이 달라요. 포인트들이 있다구요. 포인트에 가게 되면 배가 빠르니까 남이 한 시간 간 것을 15분에 빵 가서 한 마리, 빵 가서 한 마리, 한 시간에 서너 마리만 잡으면 관광객들은 말이에요, 십년 매해 온다구요. 포인트를 알아 가지고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게야마가 그런 취미가 있어요. 원래는 알래스카의 이노우에

를 데려다가 둘 딱 시켜서 순회사 만들려고 그래요. 전세계적으로 그 래 가지고 하와이에 가게 되면 하와이에 유명한, 우리 배만 있으면 유명한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 타고 안내하면 누구나 다 타겠다고 하게 돼 있어요. 빠르고 멋지니까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세계의 낚시하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배경을 중심삼고 이것을 종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 기지, 레저산업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려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 우리 자체가 그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나눠 줘 가지고 타고 안내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어서 30년 50년 살면서 고기 잡은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던 것을 우리 배만 태워 주면 말이에요, 아들딸까지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라구요. 제주도 그 할아버지 부부가 비밀로 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제주도에 전부 소문났어요.

그 고기가 방어 종류인데 그 잡는 것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건 혼자 못 잡아요. 혼자 가 가지고 재미보던 것이 공개되니까 그걸 잡는 배가 수십 척 나와요. 옛날에 배 하나도 없이 뚝방에서 낚시하던 것이 지금은 뚝방에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배를 다 사야 된다고요. 이걸 바다에 나갈 수 있거든. 태풍이 불어도 가라앉지 않는 배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태평양 어디, 북태평양 코디악에 가 가지고도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18년이 됐는데도 사고 한 번 안 났다고요. 가라앉지 않거든. 고장나 가지고 사고가 생길 수 있지만 안 죽어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바다가 얼마나... 촌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널판지, 이 2인치 되는 판지 아래는 지옥이에요. 한 발 짝도 잘못 디디면 지옥이니까 참 무섭지요. 바다에 혼자 나가서 밤이

되면 참 무섭다구요. 어디 망망대해에 나가면 산 외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부처끼리 자기 아들 데리고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이것은 가라앉지 않으니까 바다에 대한 욕망, 희망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고기 종류를 잡을 수 있어요. 바다가 무진장의 보고예요, 무진장의 보고.

모든 보화 전체가 바다에 갇추어져 있다

바다가 부자라는 거예요. 뜯어먹을 수 있는 소질이 없으면 못 뜯어 먹지요. 바다 이상 부자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예요. 미국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전체가 바다에 다 갇추어 있는 거예요. 그 바다를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태평양 깊은 바다에 무엇이 없겠노? 태평양을 지금 우리가 정착지로 삼고, 도서국가에 해 가지고 학교를 빨리 만들려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개국의 도서국가에서 데려오게 되면 말이에요, 도서국가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일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만 하게 되면 세계 도서국가연방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식민지 국가라는 것은 순전히 노예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형제 개념을 가지면 영국 같은 코몬웰스(commonwealth; 영연방)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국가, 오대양 육대주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면 통일천하 하고 남는 거라구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태평양상의 군주국가도 코몬웰스에 들어가 가지고 영국 여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대신하는 거야, 일본. 「예.」 섭리적으로 영국 대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식구들로 몇 쌍만 배를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화합할 수 있는 거라구.

「아버님이 하늘 편에 영국이 있다고 하셨는데, 식민국가 중에서도 백성들이 지금도 영국을 좋다고 그래요. 불란서나 다른 나라보다…」

「영국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는 도시 건설, 국가제도 모든 것이 지금도 완전히 질서가 있고요, 불란서나 이런 데 식민지 했던 나라는 제일 혼란이 있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영국은 가서 교육을 했다구요, 교육. 교육을 시켰다구요. 교육시켜 가지고 대등한 자리에 세우려고 했지만, 불란서나 이런 나라는 언제든지 자기 것을 조금 갖다 놓고 장사한 거예요, 장사. 교육도 안 하고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통치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구요.

이제 너희들은 한국어를 빨리 배워. 선생님이 영어를 할 것도 아니고 한국 말을 하니까 한국 말을 모르면 회의 때면 얼마나 답답해요? 젊은놈들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젊었을 때는 금방 배울 수 있다구. 무슨 말이든지 문제없다구. 안 그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

통일교회와 일화 축구단

「아버님, 한국에서 박규남 일화 축구단 사장한테서 축구가 이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만,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효율)」 응. 「전화를 한번 걸어 볼까요?」 그래. 어떻게 이겼다고? 우승했다는 얘기가, 뭘 이겼다는 거야?

세계 전체가 주목하는 일화 축구팀

<전화 통화 시작> 박판남! 효율이한테 통보한 내용이 뭐야? 이겼다고? 응. 2대 0으로? 아직까지 챔피언은 못 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3점 차이가 있나, 2점 차이가 있나? 2점 차이? 2점 차이면 뭐 하루저녁이면 뒤집어지잖아? (웃으심) 이제 그대로 나가면 챔피언이 되겠네. 수고들 했다구.

그래, 그 정신으로 밀어 넘겨. (웃으심) 그래야 남미의 우리 신설 축구팀이 바람이 들어 가지고 공중으로 난다구. 일화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표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판남이니까 진짜 판남이로구만. 박판남이 아니고 북판남이라고 붙여야 되겠어. (웃으심) 열심히 해요.

2001년 10월 13일(土), 이스트 가든.

* 이 말쑥은 아침 훈독회 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축하한다고 다들 격려해 주고 저녁에 중국요리라도 잘 사 먹이라구.
그래, 수고했다구. <전화 통화 끝>

삼성이 제일 라이벌이었는데 2대 0으로 이겼다구요. (박수) 일화를 꺾자고 다른 프로축구팀들이 단결했지만 다 밀어 제긴 거라구요. 두 패로 갈렸는데 저쪽 편 조는 5점 차이로 일화가 있는 이 조는 2점 차이기 때문에.... 1점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마만큼 프로축구는 실력이 대개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패기를 갖고 현장을 밀어 제끼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팀 선수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새로이 결심해 가지고 완전히 밀어 제졌다구요. (웃으심)

사실자, 축구팀 저렇게 만든 것이 통일교회에 손해야, 이익이야? 응? 답변해야지. 「잘 모르지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한국 내에서 프로축구팀 하면 일화팀이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세계 전체가 주목하는 상대라구요.

프로축구팀이 한국에서 이름난다는 것은 뭐냐? 세계의 모든 축구 전문가들과 축구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프로축구 경기를 많이 보고 있다구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세계 첨단에 가 있는 나라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지요. 일년에 돈 우리가 한 50억씩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운동 세계를 사실 여자들은 모르잖아요? (이후 식사하시며 대화하심) *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오늘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오늘은 10월 14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남에서 출옥한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이 날을 51년째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라 법에 일치된 가정, 서로 하나된 부부·부모·자녀가 됐느냐

그 동안에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옥중생활이라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다 왔기 때문에, 그것 안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데 시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남겨 두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세밀히 여러분이 전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 가정의 집 하면 미국을 대표한 집입니다. 그 가정에 사는 부모·부부·형제자매들은 미국의 헌법을 중심삼고 국가의 모든 법 테두리를 상속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미국 국민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족, 친족이 있어 가지고 3대권, 한 7대권을 보더라도

그 7대권 전체가, 가정들이 합해 가지고 7대 자체가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족적 기반이 되어야 미국의 하나의 종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국민 하게 되면 헌법을 중심삼고 모든 법, 모든 환경 여건에 나타난 법을 치리하고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변명해서 지킬 수 있는 주인 자리에 서야 미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 진짜 미국 국민이 되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가정적으로 여러분 가정 전체가 미국 나라의 헌법을 중심삼고 부처 전체의 법을 대표할 수 있는 축소된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자신 없지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하나 못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고 가정의 전통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못 돼 있고, 부부는 부부로서의 전통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못 되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전통이 있는데 하나 못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되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더욱이나 개인주의 사상을 근거로 한 이 자유세계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의 배반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 자체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미국 사회에 위배되고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 될 수 없어요.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정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될 수 없다구요.

부모·부부·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렇지요? 부모가 주인이에요. 자식 된 도리에서는 부모의 말을 얼마만큼 들어야 되느냐? 미국 나라의 헌법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돼요. 헌법보다 더 중요시했다고 해서 미국 법이, 헌법이 지지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벌을

줄 거예요? 어때요? 벌줘요, 어드레요? 미국 헌법보다도 부모님을 더 중요시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법이 찬양하고 받들어 주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렇지요?

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엔 부부가 있어요. 부부면 부부의 도리 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야 할 길, 아내가 가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 때는 그 가정 자체가 규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규탄을 받아야 되고 미국 법 전체의 규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그 패들이 옳은 부부예요, 망할 부부예요? 어디 미국 여자들, 아메리칸 우먼?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남편이 주체예요, 부인이 주체예요? 미국 가정에서는 그것이 결정 안 돼 있어요. 여자들이 ‘우우! 남자가 주체일 게 뭐야? 여자가 주체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 잘난 여자들! 여자하고 남자를 비교해서 나온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아기 낳는 그것 하나밖에 나온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온 것이 있어요? 바느질을 하나, 뭘 하나, 뭘 하나, 전부 남자들한테 지지요. 뭐가 주체예요? (웃음) 왜 웃노? 사실이 그렇지요. 진짜 분석해 보면 여자가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이 돼먹은 제도예요, 안 돼먹은 제도예요? 미국 여자들, 한번 얘기해 봐요.

아기를 났을 때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부러먹어도 돼요. ‘아이고, 뭘 먹고 싶다. 사 오세요.’ 하면 밤중에도 사다 주고 다 그래요. 뭐 그건 다 알고 있다구요. 어디 길을 걷는 것도 남자를 이길 수 있나, 힘으로 해서 남자를 이길 수 있나? 뭣이든 전부 다 져요.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해 가지고 일등 하는 여자가 있어요? 뭐가 일등이예요, 뭐 일등? 그래 가지고 전부 일등이라고 하다 보니 가정도 다 망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엔 자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중앙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싫다! 고부관계,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이구, 싫어! 우리 둘이만 살지.’ 그러잖아요? 미국의 가정제도가 쌍쌍제도지, 가정제도예요?

다 알아듣지요? 일본 사람들은 이어폰으로 다 듣고 그러지? 「예.» 알아듣지? 「예.» 됐어.

우리 통일교회가 나와서 미국에 이런 경고를 하니까 여자들이 ‘레버런 문은 남성 제일주의, 여자를 부정하는 여권 반대하는 께다!’ 하는데, 그럴 게 뭐야? 남자하고 여자 중에 키가 남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남자가 큼니다.» 여자가 크지! (웃음) 작으면서 크다고 하니까 가짜예요. 작은데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팔씨름을 해서 남자를 이길 수 있어요? 밥을 먹는 데서 남자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옷을 입는데도 남자보다 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암만 큰 여자 옷이라도 내가 입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큰 편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입게 되면 이렇게 돼요. (웃음) 팔밖에 안 들어가요.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남녀가, 부부가, 부모가 지켜야 할 법을 지켜서 통일하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만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사회단체를 인정하고, 가정을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부를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는 데는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나라의 국민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가정에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자기 부부나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가 돼 있냐요, 안 돼 있냐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더라도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고 하면, 이건 어린애,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 봐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남아지지 않고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그 말 아니에요? 반드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제도가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있고, 거기에 이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직원이 있어요. 그걸 무시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 통일교회는 뭘 하는 곳이나? 통일교회가 뭘 하는 곳이에요? 통일교회가 뭘 하는 곳이나 하면, 통일하자는 교회지요. 간단해요. 통일교회가 뭘 하자는 교회냐? 그 교회 이름대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이냐 이거예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의 법이 있어요. 남자 법을 지킬 줄 아는 남성이 되고 여자면 여자의 법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돼 가지고 부부면 부부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루뭉수리지요. 이것도 그만이고 저것도 그만이지요.

입이 눈이 있는 데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입이 코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코가 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팔이 눈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다리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망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해요. 질서의 세계와 법의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패는 역사시대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게 뭐예요?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통일교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뒤집어 박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아니면 세상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문 총재가 만든 것 가지고 통일 안 돼요. 문 총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요즘에 뭐 얼마? 2억4천만이 아니고 2억7천만이 된다고 그랬던가, 효율이? 「예. 2억6천만이라고 합니다.」 2억6천만? 많이 불었구만. 2억6천만 되는 이 미국 국민들이 레버런 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 미국 국민들이예요?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예요, 어디 사람들이예요? 미국 사람들이 레버런 문을 좋아했어요, 나빠했어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면 뭐 그만두자구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와서 물어 보면 대답해야 가르쳐 주는 재미가 있지, 대답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 가르쳐 주는 게 재미가 있겠나?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고 손해나게 되면 입을 다무는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예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은 정의하고 통해요. 알겠어요? 솔직은 옳은 것과 통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솔직! 「솔직!」 솔직한 사람 될 거예요, 솔직 반대가 뭐예요? 「거짓!」 거짓이 좋아요, 솔직이 좋아요? 「솔직이 좋습니다.」 솔직이 좋은데, 미국 국민이 레버런 문을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합니다!」 너는 무니(moonie; 통일교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가 됐으니까 그렇지. (웃음) 무니가 됐으니 레버런 문이 좋다고 하지요. 여기에 모인 사람 절반은 무니가 되었으니 ‘레버런 문 좋습니다.’ 이러지, 사회에 나가 보라구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레버런 문을 좋아해요? 「예스.」 (웃음)

누가 예스해요? 전부 다 안 좋아해요. 쫓아 버리려고 했어요. 죄 없는 레버런 문을 대해 가지고 법정 투쟁해 가지고 쫓아 버리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5년 이상 형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레버런 문을 쫓아냈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했거든. 잘못하고 쫓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그런 입장의 조건을 알고 레버런 문은 이 미국 땅에 정주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것 알아요?

일본 식구 손 들어 봐요, 일본 식구. 우와! 내리라구! 진짜 미국 사

람들, 손 들라구요! 이거 몇 명 안 되누만! 이게 무슨 미국 나라야?
(웃음)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나온 통일교회

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미국을 도우라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데려오지 않았어요. 와서 고생해 가지고 철들지 않은 무법천지의 미국 국민한테 본이 되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데려왔어요.

그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르침 받고 있어요? 어때요, 일본 멤버들? 가르쳐 줘야 돼요. 주는 데는 뭘? 가정에 들어가서 아들딸이면 아들딸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도리, 손자면 손자 손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도리, 가정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줘라! 「예스!」 뭐 또 예스야? (웃음) 「아멘!」 (웃음)

그런 면에서 미국 가정이 문제가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하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하나,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눈이 말ियो, 눈이 볼 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래요? 전부 쌍쌍이지요. 쌍쌍이에요.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와도 같이 내려와요. 이 세상은 쌍쌍제도로 돼 있어요. 동물세계나 식물세계나 인간세계나 영계나 쌍쌍제도로 상대적 관계로써 통일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귀도 소리가 이 둘에 들어가지만 화합이 돼 가지고 반을 올려줘야 듣게 돼 있어요. 하나 틀리면 못 들어요. 코도 콧구멍 하나만 감기 걸리면 쨍쨍하지요? 입술이 3밀리미터만 틀어져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벌에 한번 쏘여 가지고 해 보라구요. 얼마나 힘든가? 손도 하나만 제멋대로 하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돼요? 소리가 나요? 아무것도 안

된다구요.

아무리 잘났더라도 무엇을 만드는 데는 받들어 줘야 돼요. 힘이 센 오른손이 있지만 힘세지 않은 왼손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상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왼손잡이라 해도 바른손이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쌍쌍제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삼고? 무엇 중심삼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법을 중심삼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남자 눈하고 여자 눈이 쌍쌍으로 다 같지요? 그러면 남자 눈하고 여자 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보나요, 돌아서 가지고 앞으로 보나요? 앞으로 보게 되면, 좋으면 얘기하고 건드리고 다 이렇잖아요? 좋으면 불안고 이러지요? 그렇지요? 더 기쁜 쌍쌍이 되면 하나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쌍쌍이 되어 있느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마음을 중심삼고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있어요. 쌍쌍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남자 몸 마음이 하나 안 되고 여자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그 네 패가 하나될 수 있어요? 하나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대가 하나돼야 존속하고 발전해

‘아이구, 여자면 여자 중심삼고 몸 마음이 하나된 것에 남자는 따라와라.’ 할 때 하나되나요? 또 남자가 그래 가지고 ‘너 여자는 따라와라.’ 하면 하나되나요? 서로가 다, 저쪽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이쪽도 같이 눈을 뜨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눈을 붙이면? 여자가 눈을 크게 뜨면 남자가 ‘더 크게 뜨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죽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눈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짱을 가지고 여자가 콧대가 세 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남자가

또 그러면 둘이 다 죽기 시작해요. 다 죽기 시작해요. 자기를 중심삼고 강요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다 죽어요. 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 상대적 기준이 되어야만 존속하고 발전합니다. 그 둘이 가야만 혼자 갈 적보다 일을 해도 배가 발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도 가정문제를 중심삼고 몇천년 동안 유대교 기독교를 세워 가지고 교육해 왔는데, 그 기독교 유대교가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안 됐어요. 개인주의화돼 가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향락? 부부의 향락은 좋아요. 남자의 향락, 여자의 향락이에요. 가정의 향락이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고, 자기 부부에 좋고, 아들에게 좋으면 좋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따로따로예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하나 못 되게 된다면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집니다. 하나 안 돼 가지고 아들딸을 못 낳으면 그 부부가 없어지나요, 존속하나요?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서로서로가 자기 둘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들딸을 갖고 나라를 받들면 그 나라는 흥하지만, ‘어머니 편인 아들딸이다.’ 그러면 망해요.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본래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 가지고 길러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 가지고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야지, 어머니 혼자 어떻게 돼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없어져요. 그러니 파탄이 벌어져요.

어머니 있는 아들딸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크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터 이탈돼 버려요.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가만 볼 때 누가 나오냐? 도리의 이치로 볼 때 어머니가 나쁘다 할 때는 그 어머니 품에 있지 않아요.

또 부부끼리 마음대로 자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들딸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나오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뜻의 길을 중심삼고 가만히 보더라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뜻의 길을 충실히 하면 그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통일교회 전체의 울타리권 내에 있는 환경의 전체 법을 중심삼고 볼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낮게 될 때는 아이들도 어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를 훌륭하게 위하려면, 뜻을 중심삼고 훌륭하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아들딸한테 와서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가 끊기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개인주의 패는 망하게 돼 있어

그래, 미국을 중심삼고 보면 미국 자체가 단체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전통을 못 가졌어요. 사회를 소화할 수 있는 전통을 못 가졌다는 말이에요. 미국 자체가 미국 나라 대신 큰 가정과 마찬가지로의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사회단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못 돼 있어요. 단체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권 내에... 가정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한다구요. 일족 하게 되면 일족도 단체에 소속합니다. 하나의 회사와 마찬가지로요. 그 일족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봐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면 종족적 그 권내의 모든 걸 잃어버려요. 거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엔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다 잃어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반면에 완전히 그 법 테두리의 환경에 맞게 된다면 그가 중심자가 되는 거예요, 중심자.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가정에서 앞으로 누가 상속받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기 부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환영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자기 부부의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딸의 환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고, 할머니를 대신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고, 자기 부부를 대신할 수 있고, 자기 아들딸을 대신할 수 있는 중심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환경에 개인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망할 민주세계의 패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알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이 만들어 났어요. 그래 가지고 흥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해요.

마루 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

통일교회는 뭐라고요? 통일교회는 종교단체다! 어디 갔나? 통일교회는 뭐라고요? (판서하심) 종교단체다! 종교단체는 뭐냐? 이 ‘종(宗)’자는 집으로 보면 마루가 되는 거예요. 마루 되는 가르침을 하는 단체다 이거예요.

종교가 뭐냐? 종교단체가 무엇이나? 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옆가래를 걸 수 있는 이 마루예요. 이것이 없으면 왕창 다 넓은 중앙지가 폭발돼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가 뭐라고요? 마루 되는 가르침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전통을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루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경제력

이 마루 가르침이에요? 정치력이 마루 가르침이에요? 뭐예요? 그 다음에 학교의 가르침이에요? 군사력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마음이 좋아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루가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몸 마음이 있는데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몸뚱이예요? 「마음입니다.」 몸뚱이에 사지백체가 있지만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개인에 있어서 마루 되는 것이 무엇이나? 양심이다! 양심 할 때 양은 무슨 양 자예요? ‘어질 량(良)’ 자예요. 어진 마음입니다. 악심은 무엇이나? 악한 마음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편이고 악한 마음은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 두 갈래가 되었느냐? 종교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갈래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마루 될 수 있는 마음이 주체가 아니고 몸뚱이, 상대가 절대 순응해야 될 텐데 마음과 몸이 반대가 돼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싸움을 해 가지고 절대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절대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삼고 떨어져 내려가더니 절대 물본주의, 유물주의까지 떨어져 내려갔어요.

집의 마루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루는 양심이에요. 양심을 중심삼은 가정이 있고, 양심을 중심삼은 사회가 있고, 양심을 중심삼은 나라가 있고, 양심을 중심삼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양심을 중심삼은 세계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양심을 중심삼은 세계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양심을 중심삼은 사회가 연결돼야 하고, 양심을 중심삼은 가정이 연결되어야 되고, 양심을 중심삼은 개인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연결되지, 이것이 갈래갈래 갈라졌으면 영원히 연결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양심을 중심삼고 부모·부부·자녀를 중심삼은 가정의 전통을 대표할 수 있어 가지고 가정의 중심, 가정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자리에 섰느냐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국민 중에? 전부 가짜예요, 가짜, 가짜!

아무리 집채 같은 금덩이가 있더라도 23금이 되고... 하나 차이가 있어요. 진짜라 할 때 이걸 이 땅만하고 이것(24금)은 조각돌만한테 어떤 게 진짜예요? 「24금입니다.」 23금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큰 데도? 미국이 이렇게 큰데도? 24금이 돼 있어요? 10금도 못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백점이 되지만 백점에 하나 일등 해도... 일등 하나 하게 될 때는 하나 이것뿐이지, 이것은 없는 거예요. 무등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 마루 될 수 있는 양심적 최고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미국에 돈 많다고 자랑해? 똥!똥!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권력, 군사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예요.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뭐 여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엇이고, 거기에 박사가 돼 가지고 큰소리하더라도, 다 벌거벗어 놓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가요. 전부 다 지옥 떨어지게 돼 있지요. 큰소리 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참사랑!」 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들 말해 봐요. 「트루 러브!」 트루 러브가 혼자 생겨나요? 인간을 좋아해요, 인간을.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흑인들, 백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 낙제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인, 흑인들을 좋아해요? 못 좋아하면 낙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얼굴, 미인 미남을 좋아해요? 사람 하게 되면 남자 여자예요. 여자가 가진 생식기, 남자가 가진 생식기 둘밖에 없어요. 다 여자 남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벗겨 보라고요, 마찬가지로지. 검은 털 나고, 누런 털 나고 그렇지. 다른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여자들 해보지요, 여자들. 미국 여자들은 미국 여자들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아, 답변해 봐요. 따져 가지고 얘기하지요. 미국 여자들은 ‘여자 사람!’ 할 거라고요.

여자 사람은 뭐예요? 컨케이브(concave; 오목)라는 게 뭐예요? 울타리, 받겠다는 거예요. 받자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컨벡스(convex; 볼록),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게 살보다도 깊은 데 들어가 있지요? 남자는 살보다도 나와 있지요? 여자가 받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웃음)

아, 솔직히 얘기해 봐요. 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둘인데, 사람 하면 남자 여자 둘인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 가운데 여자를 좋아하겠나 남자를 좋아하겠나 문잖아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좋아합니다.」 (웃음) 그래, 서로 얘기하는구만, 남자 여자. 밤을 좋아하느냐, 낮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은 낮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밤 가운데서 필요로 한 것이 낮이에요. 낮을 지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자, 둘밖에 없잖아요? 남자 여자 하게 되면 다른 것이 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더 좋아할 것이냐? 그것을 몰라 가지고 우선을, 선후를 가린다는 것은 바보 멍청이에요.

여기 통일교회 간부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겠어요? 「여자!」
응? 「여자!」 저 봐, 여자래. (웃음) 책임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니 낙제
짱이지. 마이클 켄킨슨은 어드래? 「맨(Man)!」 왜 맨이야? 왜 맨이야?
(웃음) 난 영어에서 배웠어요. 맨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우먼
(woman)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위예요? 「맨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양심의 사실을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
자가 작잖아요? 남자보다 작잖아요? 남자가 높지, 여자가 높아요? 여
자가 돼 봐야 요까지밖에 안 되지요. 이걸 남자가 끌어올려야 여기까
지 올 수 있어요.

인간에게 마루 되는 가르침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

여자 혼자 있어 가지고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는 게 뭐냐? 하나님도 별수 없어요. 사람을 닮았고, 아버지니까 아들
딸을 닮았기 때문에 아들딸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아, 대답해 봐요. 「예.」

아들딸이 좋아하는 게 사랑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겠
나 이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마루 되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 사랑에 대
한 가르침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축이 돼 가지고 운
동을 해서 돌게 된다면 완전히 하나돼요.

아래가 위에 가도 좋고, 위가 아래에 가도 좋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뭐예요? 여편네가 무슨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단어 하나라도 더 알고 뭘 하나만 더 알더라도 남자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준이 안 돼요. 하나될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 만드
느냐 하면, 사랑 외에는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뜨고 있더니 눈을 말이에요, 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이래 가

지고.... 여자들은 사랑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할 때 눈을 떠야 돼요. (웃음) 천지 이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는 눈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랑한다면 점점점점 감아지면서 입은 열린다는 거예요. (웃음)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매번 사랑해 보면 자기는 힘을 주고 눈을 부릅떠야 되지만 여자는 눈감고 명상을 하면서 ‘고마운 사랑인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웃음) 저 뒤, 제일 뒷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들 해보지.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있어서 마루 되는 가르침이 뭐냐 이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됐으면 영원히 붙어 있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붙어 있습니다.» 마루 되는 가르침이 종교인데, 그 마루 가운데 사람의 마루도 남자 여자의 마루인데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이성성상의 주체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이성성상의 정(正)분(分)합(合)이에요. 정(正)에서부터 분(分)이 되어서 합(合)되는 거예요. 나뉘었다가 합하는 거예요. 사랑은 합하기 위한 거예요. 공식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해 가지고 사랑으로 딱 하나되어서 ‘미쳐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없겠나요, 있겠나요?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은 죽고 살고 하는 가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열매로 죽고 살 수 있는 아들딸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딸을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지는 거예요. 살았던 사람이 그게 없으면 죽어지는 거예요. 아들딸을 위해서 자기 부부가 희생하고, 자기들보다 더 좋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욕망 중의 욕망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사랑의 상대 하게 되면 여편네하고 아들딸이에요.

여러분도, 미국 가정이 전부 제멋대로 된 가정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구,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보다 훌륭해라.’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이구, 나보다 여편네가 훌륭해라.’ 하고, 여편네도 ‘아이구, 나보다 아버지가 훌륭해라.’ 이래 가지고, 아버지가 훌륭하니 오케이, 그 다음엔 아들딸이 훌륭하니 오케이, 둘이 훌륭하면 행복한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루 되는 가르침의 종착점이었느니라! 출발과 종착점이 하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것을 준비하다간 말을 내가 못 하겠다!

통일교회는 절대·유일·불변·영원의 가르침을 주는 곳

자, 그러면 참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무엇으로 느껴요? 몸뚱이로 느끼기 전에 마음으로, 양심의 맨 밑바탕에서 느껴져요. 뼈와 골수가 합해 가지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의 맨 뿌리부터 골수와 합하는 거예요. 뼈와 골수와 몸뚱이가 합하면서 진동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처녀 총각들이, 맨 처음에 남자 여자가 무엇을 모르게 될 때는.... 요즘 미국의 여자 남자들은 프리 섹스판이 돼 가지고 누더기 철판 조각같이 구멍이 다 뚫어져서 구정물이 스르륵 새고 다 스르륵 새기 때문에 몰라요. 처녀 총각들이 순결한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몸 마음이 뼈와 더불어 흥분해 가지고 하나될 수 있는 그 경지, 그런 충격적인 사랑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데이트 해 가지고 누더기 판에는 없어요. 순결을 지키고 첫번 사랑, 첫사랑이 싹트는 그 자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는 입장에 서 가지고 부부의 전통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미국에 한 가정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가짜예요. 아무리 가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24금이 못 됐어요. 전부 등외품이에요.

그러면 통일교회는 뭘 하지는 것이냐? 통일교회가 뭐냐? 그 마루 되는 가르침 가운데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마루 집이 어떤 집이냐 이거예요. 왕이 사는 집이에요. 뭐가 중심 집이라구요? 왕 왕! 해봐요, 왕 왕! 「왕 왕!」 왕이 사는 집이에요.

천년 만년 그 나라의 왕도 거기에 살고 싶어하고, 천년 만년 그 나라의 백성도 그게 소원이예요. 그 왕 집과 주체와 대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수평이 되느냐 하는 것이 소원이예요. 미국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통일교회가 나와 가지고 그런 나라에 있어서 23금 짜리는 있는데 24금은 없으니 요것을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말은 들어 보면 멋지지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집니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있는 양반들! 「예스, 파더.」

파더인지 무엇인지, ‘예스, 레버런 문’이지 또 파더가 뭐예요? ‘예스, 레버런 문’ 하던 것이 ‘예스, 파더’ 할 때까지 몇십년 걸렸어요? 파더 해도 그 레벨이 몇천 레벨이 있어요. 여기에 한 천 명이 모였다면 말이에요, 천 레벨이 있어요. 진짜 23금, 23.99999 해도 24가 안 돼요. 영원히 계속돼도 그래요. 이건 하나예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가르침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마루 되는 사랑 가르침, 유일한 사랑 가르침, 불변적인 사랑 가르침, 영원한 사랑 가르침이에요. 그건 아래로 봐도 24금이요, 위로 봐도 24금이요, 동으로 봐도 24금이요, 서로 봐도 24금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볼 때 ‘아이구, 동서 전부가 나 닮았구만. 나와 같구나.’ 그래요. 그래, 내가 움직이면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인들 문 총재,

참부모가 움직이면 따라가나요, 안 가나요? 「따라갑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미국이 텅 빈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느껴? 「예.」 아니, 너 말이야, 미국에. 지금 통역하고 있구만. (웃음)

타락으로 몸 마음이 싸우게 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문제가 크다구요. 통일교회가 뭘 하자는 거예요? 몸 마음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 못 됐느냐? 그게 뭐예요? 왜 하나 못 됐느냐? 하나 못 됐지요? 몸 마음이 싸우지요? 몸 마음이 싸워요. 그거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 무슨 대학 총장이라도, 미국 대통령 더블유 부시라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싸워요? 몰라요.

그것은 합격품이 아니예요. 미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든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왜예요? 고장이 어디서 났어요? 미국 국민이 생겨난 때부터 그게 고장이 생겼나요? 이 싸움은 영원 전부터 있어 왔어요. 인류 조상의 근본서부터 몸 마음이 싸웠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몸 마음이 싸우게 됐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사랑과 거짓 사랑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결론 외에는 답이 없어요. 참사랑 때문에 그랬다면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지요. 참사랑과 거짓 사랑의 틈바구니에 들어가 끼여 가지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까, 그 싸움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내가 태어나게 될 때 태어난 내 자체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타락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타락한 후에도 없었느냐, 있었느냐? 있었어요. 과거·현재·미래에도 하나님은 있었는데 왜 타락시켰어요?

하늘나라의 왕궁에 왕이 왕자 왕녀를 두어 가지고 이들을 길러 가지고 크게 된다면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왕녀 되는 왕의 딸이 종하고 붙은 거예요, 종.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랑의 집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타락이 뭐냐? 뭐 과일 따먹었어? 그 미친놈들 수작하지 말라구! 백두산보다도, 여기 미국에서 제일 큰 산이 뭐라고요? 「마운틴 매킨리!」 응? 「매킨리.」 매킨리? 「매킨리!」 마운틴 매킨리보다도 사과를 더 많이 먹어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핏줄이 달라졌어요, 핏줄.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이 거짓 생명 일체화를 만들어서 아담 해와 몸뚱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이 생겨났어요. 사탄이 하나님 대신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됐고, 결혼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사탄은 3대 후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1대가 하나님이고 2대가 아담이라면 3대를 못 가졌어요. 아들딸이 없어요,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없어요. 돌감람나무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잘라 가지고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 마루 되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참사랑,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생명체,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생명체, 하나님의 혈통,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혈통, 3대 요인이 상대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이것을 다 이룰 것인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하고 사랑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혈통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딴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그릇된 정조 유린으로 말미암아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 핏줄이 달라요, 핏줄, 핏줄! 독일 사람하고 앵글로색슨족은 핏줄이 달라요. 핏줄이 달라져 가지고, 사탄세계의 수백 나라를 누가 만들

어 났느냐? 사탄이 만들어 났어요. 하나님이 단일 나라를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이 복잡다단한 것을 수습할 수 없다. 암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할 도리가 없다. 내가 거기에 공작을 해 가지고 파괴적인 일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다. 천년 만년, 억만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발인 이 세계를 참사랑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야

그래, 하나님의 참사랑이 어떤지 알아요? 아가씨들, 몸 마음이 하나 됐어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미국하고 지금 종교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민족 민족끼리 싸웠지만, 종교전쟁, 종교끼리 싸움은 안 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종교전쟁이 벌어진다면 흑인하고 유색인종이 하나되는 거예요.

레버런 문은 말이에요, 종교연합운동을 했어요.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모슬렘으로부터 불교로부터, 그 다음엔 유교하고 연합운동을 했어요. 종교를 연합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이길 전부 때워 버리고 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완성 자리를 넘어서서 본연의 자리에 접붙여 가지고, 돌감람나무 발을 참감람나무로써 접붙여 가지고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원해요? 「예.」 자, 여자들,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요? 여자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여자가 먼저 타락했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참사랑하고 하나되었겠어요, 거짓 사랑하고 하나되었겠어요? 참사랑하고 하나됐으면 누가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거짓 사랑하고 하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주체, 몸뚱이를 가진 하나님이 생명체

도 참사랑과...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여자의 생명체, 남자의 생명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지요? 딴 것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돈이 움직이지 못해요.

아담 해와가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몸마음이 하나된 생명체에서, 사랑과 생명체가 하나되어야만 하나님의 핏줄이 생겨나요, 핏줄. 핏줄!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예수를 다 숭상하는데, 뭐 예수님이 뜻을 이뤘어요? 예수님이 핏줄을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못 남겼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체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체가 일체 된 데서 핏줄을 이 땅 위에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못 남겼습니다.」 못 남겼기 때문에 뜻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정이 없어요. 아들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이런 실패를 보강하기 위해서 레버런 문이 나왔습니다.

그래, 레버런 문이 필요해요? 「예.」 미국 국민은 레버런 문을 지금까지 30년, 34년간 반대해 나왔지만 말이에요, 반대하더라도 절대 필요한 것이 레버런 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알 때가 왔어요. 레버런 문이 필요한데,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의 길을 접붙여야 됩니다. 사탄하고 타락해 가지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랑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세우고 구세주니 메시아니 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끝에 가 가지고 메시아만이 아니라, 참부모, 혈통 정리를 들고 나와요. 참사랑.참생명.참혈통!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혈통을 중심삼은 그 기원과 갖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걸 거꾸로 돌게 될 때, 여기 와서 잘라 버리고 바로 돌아야 돼요. 새 천지가 벌어질 때가 왔다고요. 세계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잘라 버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다 끝장이 왔다고요. 끝장이 왔어요. 세계

를 누가 수습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들이 모여 가지고 유엔을 만들고 회의해도 그것은 다 끝장났어요. 이제는 문 총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평화통일의 의의

그래서 마루 되는 가르침을 하나님이 역사이래 처음으로 문 총재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뒤집어 박고 뭐라구요?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을 세운 거예요. 천주(天宙)가 뭐예요? 하늘땅이 하나된 것을 말해요. 천주, 이것은 뭐냐? ‘하늘 천(天)’ 자는 둘(二)하고 사람(人)이 합한 거예요. 이걸 여기 갖다 붙이면 ‘천(天)’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집(宙)이라는 것은 안전시대예요. 이것(由)은 뭐냐 하면, 자유, 평화를 말해요. 두 사람의 평화로운 집, 하늘땅을 대신한 두 사람이 영원히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천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개인 하나님 집, 종족 하나님 집, 민족 하나님 집, 국가 하나님 집, 천주 하나님 집이라구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도 왕 노릇 할 수 있고, 종족에도 왕 노릇 할 수 있고, 나라에도 왕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구요.

천주, 뭐예요? 「평화!」 천주가 필요해요. 절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이게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평화가 돼요. 이것이 평화, 남자 플러스 마이너스. 주체와 대상이 수평이 되어야 돼요.

‘평평할 평(平)’ 자는 말이에요... 한자가, 동양사상이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서양사상은 비교도 안 돼요. (판서하시며) 이건 뭐냐 하면, 이 평 자예요. 두 세계예요.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연결시켜 가지고 수평이 되는 거예요. 평 자는 이것이 중심이에요. 중

심 이게 뭐냐 하면, 참사랑·참생명·참핏줄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횡적인 것은 일대예요, 일대.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핏줄은 영원해요. 알겠어요?

‘평(平)’ 자는 그렇고, ‘화(和)’ 자는 뭐냐? 이것(禾)은 ‘벼 화(禾)’ 자예요. 라이스(rice)에 말씀(口)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 육적으로도 먹는 것이요, 말씀으로도 먹는 거예요. 영육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평화세계를 이뤄야 돼요. 수평이 되어야 돼요.

수평, 수평세계 가지고는 세계를 통일 못 해요. 하나 못 만들어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전부 달라요. 이것이 수직을 통해서 하나돼야 합니다. 통일은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수평이에요. 이 수평권 내의 통일이예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8단계예요. 개인·가정·민족·국가… 이게 통일돼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수평 위에 통일권이 없어요. 백인만 가지고 안 돼요. 개인·가정·종족·민족이 전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고, 종족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세계, 하늘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중심존재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핏줄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돼 정착할 수 있는 아담 이상가정이예요. 그것이 축복 중심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그 가외는 전부 부정해야 돼요. 전부 부정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미국 사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국 사람이란 말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은 타락의 혈통을 받아 온 미국 나라를 중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통일교회처럼 ‘미국 식구’ 해야 됩니다. 식구라는 말은 성립되지만, 미국 사람이라 하면 타락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식구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어요.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락권 내에 계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미국 식구, 독일 식구, 영국 식구, 일본 식구, 한국 식구가 돼야 합니다. 접붙여야 돼요.

*미국이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리드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누가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세계의 힘으로 만들었는데, 기독교 세계에는 가정의 기반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정의 전통이 없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파더.」 나이트 페이스(night face)! 화이트면 화이트 페이스 맨, 옐로 페이스면 미들 화이트와 미들 나이트 페이스 맨이에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백인과 흑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황인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런 문이 여기 와서 지금 이 놀음을 하고 있어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싫든 좋든 레버런 문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잘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된 거예요? 톱-건 굿(top-gun good)! 「그레이트!」 그레이 컬러(gray color; 회색)는 싫다구요. 그레이트 컬러(great color)!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트 페이스 맨, 그거 블랙 맨보다는 낫지요? (웃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아침이 온다구요. 이제 희망이 와요, 희망. 「고맙습니다.」 (웃음) 흑인도 고맙고 백인도 고맙고 황인도 고마우면, 천하가 다 ‘고맙습니다.’ 하면 천하가 하나되는 것 아니예요?

평화통일의 종착점은 원수끼리 결혼하는 교차결혼

자, 통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평화는 미국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유엔까지 움직여서도 할 수 없어요. 미국의 전통적 사상 가지고 개인 완성,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passport)를 낼 수 없어요. 알겠어요? 가정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पोर्ट를 못 내요. 국가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पोर्ट를 못 내요. 하늘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

는 패스포트를 못 냅니다. 통일교회는 믿기만 하면 하늘땅이 한 주일 이내에 천국으로 별떡 뒤집어 박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서 2억6천만 명이 상하 의원, 대통령을 중심삼고 금번 의회를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아 하늘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가던 것이 180도 반대로 갈 만큼 ‘공격으로 쳐부쉬라!’ 하던 것이 ‘사랑으로 품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천하를 통일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스,」 지금 미국과 전세계 사람들이 심각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악한 길을 택할 것이냐, 선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악한 길을 택하게 되면 아무런 결실도 못 맺게 될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면 그 터미널 포인트(terminal point; 종착점)가 뭐냐? 원수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형제예요. 모슬렘하고 기독교가 교차결혼 해야 됩니다. 교차결혼해서 축복해 주지 않는 한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싸우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모슬렘의 원수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원수가 모슬렘이라면 영계에 가 가지고 두 나라가 합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평화의 출발점은, 스타트 라인은 원수끼리 교차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악한 세상의 대통령 가정끼리 축복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천주평화통일, 이 종적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개인 완성시대, 가정 완성시대, 종족 완성시대 —이게 세계적이예요.— 국가 완성시대, 천주 완성시대를 이루자는 거예요. 낙원까지도, 지옥까지도 다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만이 아니예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당 야당의 형제주의 당은 없어지고 부모 당, 가정당이 나와야

지금 미국에서는 평화대사 교육을 하는데, 다 끝났나, 하나? 「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 앞으로 야당 여당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형제주의예요. 없어져요. 아버지주의, 어머니주의가 돼요. 아버지가 여당이 되면 야당은 어머니 당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가정당이 되어야 돼요, 가정.

정치사의 모든 역사적 발전단계를 보게 된다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 사탄세계의 야당 여당이에요. (판서하시며) 여당(與黨) 야당인데, 당이 무슨 당 자예요? 그 다음엔? 형제 당(黨), 부모 당(堂)입니다. 여당은 남자라면 말이에요, 야당은 여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어머니 당, 아버지 당 둘이 합하게 되면 통일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당(黨)의 이것은 무한히 발전한다는 상(尙) 자예요. 거기에 마을(里)에다 사 점(乂)을 더했어요. 마을마다 사위기대가 사탄의 피를 받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1차대전 이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땅 가지고, 물건 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질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은 형제시대예요. 이거 형(兄) 자 아니예요? ‘형제 형(兄)’ 자라구요. 형제시대예요. 이걸 부모시대예요. 제 아무리 여당 야당 했더라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여당일 때는 어머니가 야당이 되고, 어머니가 여당이 될 때는 아버지가 야당이 돼요. 당에 있어서 나라 가정 형성의 기틀을 만들고, 세계 가정 형성의 기틀을 만들고, 하늘땅의 가정 형성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통일당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집의 가정의 왕은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나라의 왕도 어머니 아버지, 야당 여당도 어머니 아

버지다 이거예요. 하늘땅의 왕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축복 중심가정 아무개 이름이 뭐예요? 가정의 왕 부모가 되고, 종족의 왕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종족편성을 해야 돼요. 나라의 왕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계의 왕권 나라에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을 제거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가 지금까지 없어요. 하나님이 왕권 수립을 못 했어요. 왕권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1월 며칠이에요? 「13일입니다.」 지금은 몇 월이에요? 10월 13일 다음날인 14일이에요. 10개월 지났어요, 10개월. 10수, 12수, 십진법과 십이진법을 중심삼고 10개월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것이 3일간권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무엇이 돼야 하느냐? 여기서 발전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천주참부모시위연합(天宙참父母侍衛聯合)으로 발전해야 돼요. 뭐라고요? 천주참부모시위, 모시는 거예요. 절대 모시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 나라의 부모, 하늘땅의 부모, 공식은 마찬가지로. 그러려니 나라를 만들려면 가정을 투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투입해 가지고 더 큰 가치의 것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찾으면 세계를 위해 투입하고, 세계는 하늘을 위해서 투입하고, 하나님도 지상천상천국을 위해 하나님 자신까지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을 교육하여 부모 당으로 귀결시켜야

왕권 즉위식 이후 10개월이 지났으니만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던 것이 반드시 뒤로 돌아서니만큼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외롭지만 이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통일교회를 반대할 곳이 없어요. 통일교회 선생님이 혼자 외로이, 전부 원수시켰지만, 이제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을 원수시켰던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사탄 때문에 그랬으니 이제 사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의 몇백 배 이상 훌륭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미국이 선생님과 하나되게 되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뒤집어엮어 보라구요.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인류가 3분의 2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무서운 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종전쟁까지, 종교전쟁부터 인종전쟁으로 백인들은 전부 칼침 맞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미국에 수많은 종단이 다 있잖아요? 종교전쟁이 무서운 것은 인종전쟁으로 종착을 보기 때문에 인류는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뜻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종교권 내의 사람, 참된 종교권 내의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통일교회가 보다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중심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연합이에요. 알겠어요? 「예.」

이번에 선생님이 한국에 가 가지고 하나님 천주 정착대회(하나님 조국 정착대회)를 했으니만큼 이제 남은 것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제 이러한 정당이 없어져야 돼요. 야당 여당이 없어져야 돼요. 부모 당으로서 귀결시킬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이니만큼, 혼동회만 하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누구든지 일시에 다 접붙이게 돼 있다구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장 그래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다 집어치우고 여당이 되거든 아버지 당이 되고, 야당은 어머니 당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싸우

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 여자를 하나 만들고, 국가적 권을 하나 만들고, 하늘땅을 하나 만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권이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당과 아버지 당이 싸우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피살을 뿌릴 수 있는 희생적인 봉사, 희생적인 지도를 하는 정치체제가 되지 않고는 평화의 세계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번 한국에 돌아가면 이걸 발표할 거라구요. 그래서 당 자는 뭐냐? 당 자는 ‘집 당(堂)’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정치 놀음이 아니라 교육이에요, 교육. 마루 되는 교육이에요, 마루 되는 교육. 알겠어요? 교육이에요.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잡동사니로 이루어진 세계 가운데서 마루 되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종족을 완성하고, 민족을 완성하고, 국가, 천주와 하나님 해방까지도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평화의 세계로서 고요히 여명을 통한 아침의 햇빛과 더불어 지상천상천국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문전에 찾아오는 전야제의 입장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최후에 해야 할 것은 평화대사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번에도? 교육에 최후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평화대사입니다, 평화대사. 무슨 대사? 「평화대사!」 남자 평화대사는 아버지 대신이에요. 여자 평화대사는 어머니 대신입니다.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 대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그 나라의 아들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기 위한 그런 정치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한 나라의 형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완결되고, 천상 해방과 지상 해방, 하나님 부모 만민 해방 만만세 세계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 세계가 자동

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

그래서 이번에 6월 20일부터 대회를 하는데 세계초종교초국가, 왕고(WANGO; 세계엔지오연합), 엔 지 오(NGO;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모여요. 여기서 대사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유엔 가지고 안 되겠어요. 유엔은 자기 일개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위한 유엔체제를 다 깎아먹고 피 빨아먹어요. 그것 가지고는 세계를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주의, 초당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집 당(堂)’자, 가르치는 교육 당이에요. 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계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참다익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아니 갈 수 없게끔, 부정할 수 없게끔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전통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끔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의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80퍼센트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론기관을 만들고 <워싱턴 타임스>나 유피 아이(UPi)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엔 세계 방송국까지 다 갖추어 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붙어댈 거예요. 반대하려면 반대해 봐라 이거예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자신을 갖고 전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72개국 대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대사관을 만들어요. 대사를 임명하는데 이 대사관은 왕고(WANGO), 초종교초국가연합이 가정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한 체제가 될 거예요. 교육 장소, 교육의 당이 생겨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유엔의 가입 국가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193개국을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전부 한 곳에 모을 수 있다구요. 그런 내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지의 해방권은 눈앞에 도달했으니, 각성을 한 자체로서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 저녁에 회개하고

준비해 가지고 여명을 지나 아침 햇빛을 맞이해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통일교회 지금 이때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사관을 치리할 수 있는 교육이 그거예요. 대사관이 지금까지 세계에 가 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피 빨아먹고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의 대사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망해 가는 사탄 세계를 구해 주고 사탄세계를 도와주기 위한 만반의 일이 가중돼 가지고 자동적인 평화의 교육기관, 평화의 경제기관, 평화의 은행기관, 평화의 정치기관으로서 화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천국세계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미국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당을 만들지 않으면 망해요. 이건 형제 당이에요. 지금까지 형제끼리 싸우고 그랬어요. 형제 가운데는 열두 형제가 있어요. 이게 형제 당이에요. 이것이 형(兄) 자 아니예요, 형(兄) 자? 이것이 부모 당이 되어야 돼요.

축복가정은 하늘나라의 특명을 받은 조국 건설의 대사관

그러면 여러분 축복가정은 어떤 패냐? 하늘나라의 전권 특명에 의해서 파송받은 하늘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대사관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러냐? 축복 중심가정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사탄의 지배를 받던 이 세계를 요리하고 남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파송한 대사관 집이다 이거예요. 대사관에서 가르쳐야 돼요.

정치관은 이렇고, 종교관은 이렇고, 왕고는 어떻고, 하늘나라는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여자한테 있습니다. 여자가 잃어버렸지요, 여자? 여자가 다 잃어버렸지요? 이 여자들이 이제는 보따리 싸 가지고, 행랑 보따리 싸고 놀고 무슨 버케이션 시즌(vacation season; 휴가)을 갈 때가 지났어요. 완전히 남자들을 교육해야 됩니

다. 남자가 천사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핏줄이 달라요. 이놈의 자식들이 여자들을 유린해 가지고 여자들이 이상 남자를 찾아가는 것을 전부 막아 버리려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탈한 원수예요. 이들을 거꾸로 잡아 가지고, 그래 놓고 가인과 아벨을 수습해야 돼요. 어머니가 가인 아벨을 낳아 뱉지요? 당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국가의 가인 아벨이에요. 그걸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미국 여자들이 넘버원이 된 거예요. 1차대전 이후에 그런 특권 기회를 갖고도 그 준비를 못 했어요. 그냥 그대로 안 된다구요.

그래서 해와가 잃어버렸으니, 해와가 가인 아벨을 통해서 역사적인 싸움을 일으켜 놓았으니 해와가 야당 여당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잘났다는 남자, 반문해라 이거예요. 이론에 못 당해요. 알겠어요? 「예.」 우리 이론에 못 당한다구요. 통일교회 여자들을 무슨 정치가, 철학자라도 못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가도 못 당하게 돼 있어요. 당당한 여자로 가 가지고, 야당 여당의 당수의 집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여자들은 찾아 들어갈 수 있지요, 뒷문으로? 그렇지요? 찾아 들어갈 수 있지요? 남자보다는 좋지요? 있나, 없나?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몇백 명 여성 대사들을 통해 가지고 남성 대사를 울타리 뒤에서 지키고, 천사장 후손이 되는, 현재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도둑놈들이예요. 이것들을 정비해 가지고 부모 이상권을 확대시켜 가지고 국민이 그 전통을 따라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만민평등의 그 세계에 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미국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책임이 커요.

알싸, 모를싸? 「알싸!」 알싸, 모를싸? 「알싸!」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왕권 수립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태양계 같은 것 1천억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영어의 감옥에 갇혀서, 타락 때문에 꼼짝 못 했어요. 이제는 해방이에요. 순식간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이 해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도, 모든 지상도 해방시켜야 돼요. 재림주는 참부모로 와 가지고 감정을 설정하는데, 그 이론적인 발전 공식은 마찬가지로요.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요, 국가를 확대한 것이 세계요, 세계를 확대한 것이 천주요, 천주를 확대한 그것이, 사랑 가정화 일변도로서 화한 세계가 지상천상천국이다, 해방적 우리의 본국이다! 아멘이에요. 알겠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그 세계에 진정히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쌍수를 들어 맹세할지 어다! 「아멘!」

그러면 미국이 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예스!」 백인을 내 아버지 만들고 할아버지 만들어도 우리 흑인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하고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해요. 백인도 그래요. 흑인 아버지, 흑인 할아버지로 만들어도 백인 아버지, 백인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차결혼 할 수 있는 조상의 자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 원수가 없어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늘이 신임하는 가정과 대사관 본부의 사명을 완성하자

미국을 위해 죽게 되면 천국 가느냐 하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원수 원수끼리 둘이 합해 가지고 교차결혼을 할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180도 돌아서는 자리에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시원지, 출발지가 탄생하느니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모슬렘도 형제요, 백인도 형제예요. 같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해방의 자리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일원화시켜야만 하나님이 안정하고 안심하고 비로소 왕의 왕의 자리에서 억천만세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류의 소원이요, 내 개인의 소원이요, 역사의 소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지요? 「예.」 그 세계로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할지어다! 「전진할지어다!」

미국의 산야를 넘어서 세계의 방방곡곡 어디든지 이 물결은 수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통일천하를 완성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거기에 직행하기를 바라면서, 레버런 문은 14일 해방 기념일에 한 전통적 축복의 말로서 대사관 설정과 대사 임명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걸 알라구요. 여러분 가정은 역사이래 하늘나라로부터 처음으로 파송한 대사의 가정이에요, 역사이래 부모 자리를 처음으로, 부부 자리를 처음으로, 형제의 자리를 처음으로, 가정의 자리를 처음으로 임명한 이 순간인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 원칙을 일체화시켜 국가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전부 다 용사의 용사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알았어요? 「예.」

가정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상... 선생님은 싸워 나오는 생애를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83세까지.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은 선생님 이상 활달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탕감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족에 영원한 보물로서, 하늘나라의 다리가 되어 가지고, 기도가 돼 가지고 직행할 수 있는 이 길을 빨리 빨리 각자가 완성해야 할 책임이 남은 걸 알지어다!

그런 곳으로 틀림없이 가겠지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맹세하자! 하늘나라의 대사관 집을 대신한 우리 집이요, 대사들의 어머니 아버지, 부부, 그 자녀 전체가 하늘이 신임할 수 있는 가정과 대사

관 본부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쌍수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박수) (만세삼창) *

일족을 축복하라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핵’ 훈독)

친척집에 찾아가 아들딸을 모아 후려갈겨서라도 축복을 해주라

『.....한국과 더불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회상하기 위한 이런 걸음걸이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소원은 전반전능의 세계로 통일적 행보를 갖추어 아버지의 해방의 세계를 만우주와 더불어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생식기가 천년 만년 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 기관, 불변 기관, 유일 기관, 절대 기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엮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뭘 몰라 가지고 천상세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문제될 줄 지금껏 누구도 생각지 못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2001년 10월 15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다음은 ‘쌍십절 선포’입니다.」

『.....그러면 4억3천만쌍 이상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자기 일족이 다 있잖아요? 축복가정이 한 사람씩 하게 되면 문제없이 4억쌍 미혼남녀 축복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강조하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예비축복 해준 선교국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그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대사가 이것 전부 다 관리해야 된다고요. 체크해야 돼요. 아들 딸 교육문제하고 가정문제예요. 평화대사는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호적권을 분할해 가지고 직계적 책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4차 아담권 해방의 정상적인 기념의 날로서 오늘 넘어서는 것입니다. 3대를 넘어서게 되면 할아버지, 고모로부터 이모로부터 전부 다 집에 찾아가서 아들딸을 모아 가지고 후려갈겨서라도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다 안 했지요? 광정환부터 해야 된다고. 천년 만년 그러면 저 나라에서 가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고요. 이 선포한 내용이 전부 다 표제가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자! (혼독 계속)

일족을 하늘나라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해방 안 돼

「‘쌍십절 선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뭐야? 「다음은 ‘총 천주축복 해방일 선포’입니다.」 그래, 그것 하나만 더 읽자구.

『.....중생·부활·영생입니다. 축복받은 데 있어서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맑혀야 된다고요, 복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축복가정도 싸워 가지고 아직까지 제4차 아담권 내에 못 넘어왔으니만큼 일체 이 캔디를 분배해야 됩니다. 축복가정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족을, 종족적 메시아는 일족을 구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나 발표해야 돼요. 언제나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구요. 세상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념날이 되면 기념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족이 김 씨면 김 씨 전체를 패스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복귀되는 거예요.

이제 다들 자기들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기의 양이니 꺾이니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일족들 중심삼고 분배시켜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해 가지고 하면서 돌아갈 적마다 그들이 모여 가지고 식 같은 것을 주례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요.

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복귀가 안 돼요. 김 씨면 김 씨를 전부 하늘나라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방 안 돼요. 총생축헌납물을 중심삼고 전체의 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쌍십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계인 천상세계나 지상세계의 모든 것을 거짓 부모로 뒤집어 났기 때문에 참부모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헌납 식이에요. 헌납선언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책임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지나가게 된다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책임진 국가에서, 국가 메시아가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국가 메시아권 내에서 찾아진 사람들을 고향에 데려가서 이 일을 협조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계와 가인 아벨 종족과 가정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 천상세계를 맡겨 줘서, 여러분 일족이 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지요? 조상들을 해원해 주지요? 「예.」 그 일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해원한 모든 기준이 앞서야 된다고요.

영계는 성인들을 중심삼고 종교권 내의 책임자들이 전부 다 하나되어 있지만, 전체가 하나 안 되어 있어요. 지상의 여러분이 총생축헌납을 중심삼아 가지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일치된 입장에서 해방적 조건이 성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의 모든 종교권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지상에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지상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자, 마저 마치자구.

선생님이 한 것을 인수받아 실체권을 중심삼고 자체들이 계승해야

『……그야말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입니다. 아담이 장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왕권을 이루어야 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장자권을 일족에서, 교회에서, 민족에서, 국가에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재림주님은 개인 장자권,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장자권을 세워 가지고 장자 부모권, 장자 왕권을 복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제4차 아담권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일족 전체가. 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삼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 캔디를 길가에 가는 사람들에게, 일족에게, 세계적으로 길을 막고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먹여야 됩니다. 자기 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족이 연결된 동네라든가 사·군·국가를 밀어 제껴야 할 책임이 이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 일족이 들고 나서서 국가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도 선교사들 넷이 하나되어 있어요. 4개국을 묶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4개국이 되게 되면 세계가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놀음놀이가 아니예요. 여

러분이 갈 길이에요. 저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이러한 해야 할 것을 못 해놓고 저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돼요, 이게?

지금은 영계 전체가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가라든가 총생축헌납을 다 해 가지고 몽땅 사랑권 내에서 하늘과 하나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과 하나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상에 있는 축복가정들의 책임이라구요. 영계는 일시에 다 통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선전하고 매일같이 행동해 가지고 그 불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큰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데모하라고 했는데, 왜 데모 안 해요? 데모하라고 그랬지요? 양창식! 「예.» 데모를 몇 번 했나? 무슨 뭐 깃발을 날린다고 천하가 통일될 것 같아요? 깃발을 달라면 한 번 달았다가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무슨 뭐 그 한 시간에 한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깃발을 일족에게 사서라도 갖다가 달아 줘야 돼요. 누가 지금 통일교회 깃발을 단다고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도 통반격과 할 때 3억에 해당하는 깃발을 사서 전부 다 배부했지요? 그거 알아요? 「예.» 아나, 모르나? 「압니다.» 그 깃발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책임 못 한 사람을 찾아서 지키라고 했는데 한 녀석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깃발이라도 달고, 깃발을 갖는 것을 환영하게 되면 그걸 중심삼고 명단을 꾸며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요. 관리하게 되면 김 씨면 김 씨 문중을 중심삼고, 종회를 중심삼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복귀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 편으로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것이 그냥 그대로 놀음놀이로 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한 거예요? 인수받아 가지고 자기 실체권을 중심삼고 자체들이 이것을 계승해야 돼요.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신한 거라고요. 자! (훈독 계속)

다야?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엔 ‘천성왕림궁전 봉헌식’입니다.」
그래, 그것까지 해라. (훈독 계속)

곽정환, 간단히 기도하자. (곽정환 회장 기도)

「오늘 유 티 에스(UTS; 통일신학대학원)에서 성직자들 원리교육이 있습니다. (양창식 회장)」 그래? 언제? 지금 밥 먹고 가지. 「열 시부터 하니까 지금 가야 됩니다.」 빨리 밥 먹으면 되겠구만. 「한 시간 반 걸리니까…」 한 시간 15분이면 가. 빨리 가져오라구.

다들 통일교회의 내용을 알고 그렇지만, 숭배하고 가려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다 알 거라고요. 그래서 훈독회를 안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머리가 복잡하겠지요? 왕권 즉위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총결집시켜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이후 식사하시며 대화하심) *

통일교회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지상천국 출발 선포’ 훈독)

2004년까지 7년간에 나라를 찾아야

『……그래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에 잃어버린 축복 가정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찾아올 때는 사탄의 참소조건 없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7년 동안에 하기 위해서는 정부 구조가, 여당 야당이 어머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는 가인 아벨 형태의 중흥의 이것을 중심삼고, 가정당을 중심삼고 교육을 서둘러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7년간입니까? (곽정환 회장)」 7년간 아니예요? 7년간에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생축헌납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앉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 하는 모든 전부도 그걸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생님이 한국 가서 대회 하는 것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당 말이에요. 어휴!

2001년 10월 16일(火),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그래 가지고 초당적인 면에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대사를 통해 가지고 초종교, 초국가, 왕고(WANGO; 세계엔지오연합) 기준을 중심삼고 대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치리의 방향을, 초종교, 초국가, 왕고, 모든 세계적 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언제든지 불러다가 교육할 수 있게끔 각 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요.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국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4차 아담권이 뭐예요? 자기들 중심삼아 가지고 자기 종족 전체, 성씨가 있는 모든 것을 연합해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해야 돼요. 큰 나라일수록 더딘 거라고요. 작은 나라는 빨라요. 그러니까 해양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것이 그거라고요. 네 나라가 문제 아니에요. 선포하게 되면 한꺼번에 60개국 이상의 섬나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섬나라 60개만 들어가면 반도국가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엔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명년부터는 자기의 생활을 중심삼고 십일조가 아니에요. 십의 삼조를 지불할 때가 왔어요.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그러지 않고는 이런 운동이 세계화될 수 없어요. 통일교회 자체 조직에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강조해야 되겠어요. 4년간 정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뒤넘이쳐야 돼요. 욕을 먹든, 깨지든, 뭐하든 말이에요. 자!

평화대사관은 왕의 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집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3개국은 누구의 왕권이나 이겁니다. 3개국은 축복가정을 중심한 장자권·부모권·왕권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정교분립을 극복해야 되고 왕권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발표해야 된다구요.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을 중심삼고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엔이 저러니까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엔을 만들어야 돼요. 초종교, 초국가, 왕고를 중심삼고 유엔의 형태를 만드는데, 그 대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화대사관은 하늘땅을 대신한, 하늘 왕권세계에 있어서 모든 국정을 대신한 책임 부서라구요. 대사관이 뭐예요? 왕의 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집이라구요. 생활 전체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라구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그 날 그때 그 모양으로 그 밥 먹고 살면서 그 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나는 거라구요. 자, 읽으라구.

『그래서 자르딘에서 40일수련을 받은 축복가정을 3개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배치했지요? 배치했잖았어요, 다? 「예.」 배치했으면 배치한 대로 가야지요. 자!

『180가정이 재림시대에 주님이 종족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르딘 40일수련을 받은 종족 메시아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중심삼고 180가정의 7배인 1천260가정씩을 분배받을 겁니다.』

남미에 들어가서 친구국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780명 말이에요. 그 게 다 지나가는 게 아니예요. 그게 출발이라구요. 7개 부처의 120명씩 중심삼아 가지고 33개국에서 전체 교육한 것, 그게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다 해야 된다구요. 공문을 다 그때 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않았어요? 대가리들이 자기 대가리 가지고 세상이 수습될 것 같아? 봄이 오게 되면 나라면 나라에 봄이 전부 다 오는 거라구. 자!

『.....금년도 이제 13일이 남았습니다. 13일 안에 대전환시대가 다

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통일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 와 있는 일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언론도 이 통반격파를 위한 편성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90명씩 들어온 것은 뭐냐? 실천해야 할 현재의 책임소행을 중심삼고 전부 다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환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자!

아들딸이 없으면 순환운동을 영속시킬 수 없어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선포’ 훈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예요? 참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참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참자녀를 대해서 관계가 하나될 때 참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종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자체도 여호와와 집이에요, 여호와와 집! 혈통적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체가 하나되고, 핏줄이 연결돼야 돼요. 사랑과 생명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핏줄이 연결 안 돼요. 이성이 합성체를 이룬 사랑과 생명을 거쳐 가지고 혈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세계와 지상세계에 갈라놓은 것이 여기에서 자라서 다시 만나 가지고, 본연의 자리에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중환에 결착되는 사랑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핏줄과 인간의 핏줄이 하나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하나님 자신이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이상을 위해서 창조세계, 실체세계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과 같은 것을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들게 된 동기는, 창조의 동기는 사랑의 실체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낮다면 제일 낮고, 높다면 제일 높은 거예요. 인간이 낮을 때에는 제일 높은 자리에, 인간이 높은 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운동을 해야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섭리관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 사랑 완성, 가정·종족·민족·국가·천주사적인 모든 사랑의 완성의 궤도를 틀림없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운동만, 회전만 하게 되면 그 국경선, 개인적인 국경선, 국가적인 국경선, 천주, 하늘땅을 돌아서 씨로 돌아오는 거예요, 씨로!

사람이 커 가지고 자기 씨로 돌아가지요? 아들딸이 없으면 안 돼요. 돌아가는 순환운동을 영속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 망해 버리고 없어진다구요. 아들딸이 없으면 없어져요. 순환운동의 모체가 상대적 기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 버려요. 아버지 혼자 가지고, 어머니 없이 핏줄이 연결되어 순환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주인을 완성시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상 천상천국을 완성시켜 놓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실체적 아담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정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부자지관계에서부터 커 가지고 형제지관계, 학교에 가고 그래서 다 자라 가지고 그 다음엔 약혼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약혼과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 둘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더라도, 영적 지도를 안 해도 만물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있다구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위기대의 출발이 돼요. 개인 국경을

님을 수 있고, 가정·종족·민족·국가·천주사까지 님을 수 있는 거
 라구요. 본래에 그러한 가치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딸
 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평면만 가지고 그걸 이어나갈 수 없어요. 아
 담을 조상으로 해 가지고 1대조, 2대조가 되어 3대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4대 만이에요. 하나님, 아담, 아담 해와의
 아들, 이거 4대가 되어야만 정착하는 거예요. 단계로는 넷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랑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더라도. 상대와 무엇 가지고 하나되느냐 하면, 생식기를 중
 심삼고 하나돼요. 일체권이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사랑이 종합할 수
 있는 곳, 생명이 종합할 수 있는 곳, 혈통이 종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결혼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고 깨져 버렸다고요. 깨져 가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뽕뽕 뚫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프리 섹스가 뭐예요? 축구공이면 공에다 수많은 구멍
 을 뚫은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게 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상에!

사탄은 그걸 망쳐 놓으면 하나님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예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이 뭐라고요? 생식기를 중심삼고 그런다고 그랬지요? 「예.」 그 말
 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 천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그걸 선생
 님이 지어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6대 사랑이 어디 가서 정착하느냐

지금 이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대사들... 평화대사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대사예요. 천주를 대신한 어머니의 대사,
 아버지는 하늘땅을 대신한 아버지의 대사예요. 대사는 뭐냐 하면, 하나

님 나라의 모든 본궁의 지령을 중심삼고 지부가 돼 있어요. 상대가 돼 있어요.

선진이 너는 너 혼자만 커피 먹고 그렇게 갔다 오나?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은 미리 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제멋대로야.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혼독회는 하늘땅과 성인 전체가 엄숙히 다 바라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상세계에 전부 다 기록되어 가지고, 듣고 안 한 사람들은 문제되는 거라구요.

그래, 형님이 없으면 동생이 형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여편네가 없으면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서로 상대적 관계로 엮갈려 있어요.

부자지관계 하면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찾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랑이 결착하기 위한 기점, 전부 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부모의 사랑의 결착지, 부부의 사랑의 결착지, 형제의 사랑의 결착지가 가정입니다. 6대 사랑이 정착해야 하나님의 사랑관계가 정착하는 거예요. 그게 사위기대 이상적 정착 가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들딸로부터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지을 때 둘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 해와는 아들딸을 수십 명 낳을 수 있다구요. 수십 쌍이 생겨나기 때문에 종족이 벌어지고, 민족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환만 하게 되면 공식에 들어가서 발전해 가지고 우주, 하늘땅에...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그 원칙적인 전통의 기준이 공식과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심정권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6대 사랑이 정착할 수 있고, 6대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주인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6대 사랑, 아버

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어디 가서 정착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체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가는 길에는 자동적으로 구형에 있어서 중앙을 잡아 가지고 영원히 상하전후좌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가정이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종교니 국가니 무엇이니 그건 다 뺑이예요, 뺑!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삼고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과거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중심의 자리가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남자가 제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여자가 없으면 여자의 사랑을 몰라요. 알 수 있나?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합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사랑과 생명, 여자의 사랑과 생명이 결탁해 가지고야 생식기를 맞춰요. 안 그래요? 거기서 비로소 혈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받는 그릇이예요. 여자는 그릇이예요. 여자가 수많은 아들딸을 낳았더라도 수많은 아들딸 자체는 여자 자체가 아니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전통적 아버지의 핏줄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몸뚱이를 분할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중심삼고 아버지는 뭐냐 하면 뼈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살과 마찬가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아들딸이 존중시 안 하면 뼈를 꺾어 버리는 거예요. 상하관계, 부자지관계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버지가 위 아니예요? 없으면 이것이 주가 되고, 형님이 주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뒤범벅되어 제멋대로 해 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끊어져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핏줄을 이은 아기가 없으면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현재·미래가 연결 안 돼요. 과거·현재·미래의 중심의 자리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는 중심의 자리가 현재예요.

현재는 위를 모시고 아래를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좌우, 오른편은 왼편을 사랑하고 왼편은 오른편을 존중하고, 형님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님을 사랑해야만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공식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가피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가리를 세울 수 없어요. 사랑을 모르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게 여자고 여자는 남자가 절대 필요한데, 그 절대 사랑과 절대 생명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분합(正分合) 되는데, 여기서 정(正)이 시작되어야지요. 정이 시작되어야 분합(分合)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줬던 것을 상대적으로 맞춤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딸도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분합이에요. 아들딸에서부터 또 커 가지고 분(分)해서 합(合)해 가지고, 공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정분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로 지나가는 거예요? 실체권으로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씨가 안 돼요.

훌륭한 씨를 만들어야 돼요. 훌륭한 씨를 만들려니까 태교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본이 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기르는 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이상에 맞게끔 길러야 된다고요. 부모 자체를 위한 입장이

아니예요.

지금 제일 불쌍한 것이 선생님이라구요. 자기 아들딸을 낳았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일족을 사랑하지 못한 입장에 서 있어요. 타락한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없다구요. 아벨이 가인에서부터 찾아오기 전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놀음을 한 사람이 역사시대에 어느 누구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면, 교회하고 선생님이 하나되었으면 이 아래에 있는 전부는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통일교회 선생님의 아들딸을 자기 아들딸보다 더 존중시하고 자기 몸뚱이보다 더 존중시해야 될 텐데, 이놈의 자식들, 교회를 이용하고 선생님을 이용해 가지고 반대로 뜯어먹고 구더기가 되어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침범 받을 수 있는 제물 입장에 선 거라구요. 이게 다 돼먹지 않은 것들이예요. 앞으로 그 모양 가지고 안 된다구요. 이제는 법적 치리시대가 와요. 안 했다가는 감옥에 처넣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분합 논리를 중심삼고 천년 만년 공식을 갖춰야 돼

정분합 논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립되었던, 여자 남자로 나타난 둘이 합하는 거예요. 정(正)에서 분(分)했으니 합(合)해 가지고, 자기에 있어서 합해서 하나될 수 있는 정분합, 재차 창조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1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제2창조주가 아담 해와고, 제3창조주가 누구라구요? 손자 아니예요? 왜? 정분합 논리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몰라 가지고 꾸물대고 구더기 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구요. 하늘땅을 대해서 모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모르지만. 내적 생활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 게 뭐야? 지금도 그렇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가야지 앞서서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다? 「예.」

2004년까지 나라 복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위해서 현재 평화대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평화대사, 어머니 평화대사를 대표한 것이 여당 야당의 당수들이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근본이 말이에요.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어머니를 대표하고, 남자 국가 여자국가, 그것이 가정국가로서 하나되는 것 아니예요? 평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완성 아니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넘어서요. 종교가 가야 할 정착지는 가정이에요. 나라가 출발할 수 있는 기지도 가정이에요. 세계가 전부 다 그래요. 그 공식적인 근본의 원칙에 따라, 정분합 논리를 중심삼고 천년 만년 그 공식을 갖춰야 돼요.

상(上)은 위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하고, 아들(下)은 자식의 책임을 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둘이 하나되어야 돼요. 이 사랑을 뗄 수 없어요. 부모가 여기서 과거의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자기 아들딸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그 이상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사랑의 상대가, 자기 아들딸이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배운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던 이상, 더 사랑하겠다고 해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매일 생활한 것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 하루 보태는 보고를 해야 돼요. 사랑을 중심삼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예요.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지요? 봄바람이 균일된 환경 여건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런 건 비정상적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아무리 환란을 거치더

라도 원칙적 기준인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원칙적 정분합 사랑의 이상권 내에 정착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뭐 줄 알아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세계나 사랑을 중심삼고 사위기대 입장에서 새끼를 못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상에 무슨 독신생활, 무슨 계약결혼? 계약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계약의 아들딸이야? 도둑놈의 새끼들! 이것을 내가 들을 적마다...

내가 이놈의 세상을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리를 알았으면 아담 해와가 타락 안 한 자리에 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떼어버릴 수 없어요. 떼어버리면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없어지니 거기 성약시대가 없어요. 그러니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놀음을 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까지 저 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에 정분합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철저히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혈통보다도 존중하지 않고는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남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아졌잖아 점점 약화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것은, 사랑의 주인 될 수 있는 주인은 자기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새끼가 자기보다 낫길 바라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것, 남아질 돈이라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구요. 전체 앞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딸의 자리에서 말이예요. 하늘나라의 남편의 자리, 하늘나라의 아내의 자리, 또 아들딸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그러는 것이 천리라는 거예요. 그걸 분할시킬 수 없다는 것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씨예요, 씨, 씨!

씨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엔 자식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남편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요? 아내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요? 형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요? 동생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완전한 씨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씨가 안 생겨요. 싸우고 말이에요. 저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은 폐품이에요, 폐품! 폐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가다(型; 본)를 다시 찍을 수 없다고요. 새로운 낙원이 생기고, 새로운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옥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

사탄세계는 영원 불변, 영원 영멸의 지옥이었지만, 이것은 지상의 법에 의해서 형을 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석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계권, 그런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 얼마가 지나면... (녹음이 잠시 중단됨) 심부름하고 치다꺼리 해주고 다 그래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1997년 이후 7년 기간에 하는 것은 완전히 알아야 돼요. 탕감복귀 역사의 총결말을 짓는 기간이라구요.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7년간이에요. 2004년 4월까지예요. 그래야 7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놀음이 얼마나 바빠요? 금년에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작년하고 이제 3년 동안... 그것을 지나가는 말과 같이, 보통 때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사람을 그리는 데 있어서 몸뚱이를 다 망가뜨리더라도 얼굴을 잘 그려야 된다고요. 눈하고 코가 맞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제일 어려운 게 눈이에요. 양창식 하게 되면 얼굴은 넓적하게 해놓고 그 눈만 똑같이 그리면, 코를 금만 그어 놓고 입은 금만 그어도 양창식이에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구요. 눈이 자기 멋대로 될 수 있어요, 재창조하는데? 천리 원칙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되지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리, 남편이 아내를 첫사랑하던 이상의 자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형님이 동생이 태어나면 좋아하지요? 동생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해요? 그 이상 점점 낡으면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가요. 타락한 과정에서 떨어져 내려간다고요.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집안의 울타리에 두어두지 못해요. 태어나서 싸우게 된다면, 털이 생겨나든가 몸이 생겨난 데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이 창조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보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자, 읽으라구. 「예.」

자기 자체가 조화의 창고

『그러니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과 역사의 관계가 무엇이고, 신이 있다면 인간과 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지(知)·정(情)·의(意)를 겸한 진(眞)·선(善)·미(美)의 아버지다, 인격적 신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 신, 인격적 아버지라고요. 인격적 신인 동시에 인격적인 아버지다, 그래야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선·미는 뭐냐 하면, 가치를 두고 말하는 거지요. 자·정·의는 뭐냐?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적 신이에요. 자·정·의의 인격적 신이 그 가치의 진·선·미의 아들딸을 만들었어요.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것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읽으라구.

『.....섭리관적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움직이게 되면 아들 된 인간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아들을 위한 상징적인 형상체도 전부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일체 되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데도 완전이요, 가정적으로 움직이는 데도 완전이요, 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 영원한 세계까지 발전하더라도 완전한 실체로서 움직일 것이었다 이거예요.』

1등 자리가 뭐냐? 하늘을 중심삼고 같으면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된 것이 절반 이상이 되면 2등, 3등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완전 완성한 것으로서 전체가 완전 완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실체권, 하나의 이상적인 판국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된 그 이하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양육하고 인간을 보존시키고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되는 거라구요. 그것이 실체 만물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먹어야 돼요. 다 먹고 살지요? 먹기 위해서 이가 생겼지요? 입에 집어넣으면 깨물지요? 이가 깨무냐? 이가 깨물어요, 뭐가 깨물어요? 생명력이 발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창조력이 다 개입해서 움직이는 거라구요.

눈도 본다고 해서 눈이 깜박거리는데, 자기들이 깜박거리냐? 눈꺼풀이 생각하고 깜박거리려요? 자기 자체가 조화의 창고예요. 사람들의 눈이 수분이 빨리 마르겠으면 빨리 빨리 빨리 깜박거리는 거예요. 눈 깜박거리는 것이 다르다구요. 누선(淚腺)에서 나오는 수분을 적시는 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구요. 자기 생명의 비례를 따라 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자!

불변해야 영원할 수 있어

『……관의 주류가 뭐냐? 생명이예요, 혈통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사랑?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니예요. 그러한 사랑이 연결되는 존재도 자동적으로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사랑에 의해서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유일, 뭐예요? 절대·유일·영원·불변이에요, 불변·영원이예요? 「영원·불변입니다. (곽정환)」 불변·영원이예요. 곽정환은 절대·유일·영원·불변이라고 했지만, 불변이 앞서야 된다고요. 그것 안 된다고요. 절대·유일·불변·영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아야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앞에 놓으면 안 돼요. 불변을 뒤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지?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용했습니다.」 말씀한 것이 절대·유일·불변·영원이 공식적으로 돼 있지, 불변을 앞에 놓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 원문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어요? 「예.」 불변하는 데에서 영원이 있지, 영원이 불변의 먼저가 안 된다고요. 자! (훈독 계속)

일족을 전부 다 축복해야

(‘역사적인 대전환시대 선포 — 천년왕국시대 도래 선포’ 훈독)

『……본연의 가정을 중심삼은 지상·천상의 통일적인 참부모와 하나님께서 하나되어, 천지부모의 심정을 중심삼고 혈육이 된 직계 자녀들

로서 축복해 준 모든 만우주의 식구들이 일체가 되어 지상과 천상 천하에 사랑의 주권을 세우는 왕권복귀의 한계선을 세워, 새천년을 맞이해서는 제4차 아담권 시대와 더불어 만민 공히 자기 가정으로부터 나라 나라가 하늘의 혈통적 인연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모든 전체를 연결시켜 지상·천상천국의 혈통적 일체권을 이룬 참부모와 더불어 천지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랑의 주권시대를 넘어 천지대도의 광명한 천지를 맞을 수 있게 허락하신 특별한 세계적 전환 시점에 섰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게. 이제는 축복도 다 그만둔 모양이던데? 일족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요. 광정환이면 광정환, 양창식이면 양창식 일족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알면서도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면 이제 다 쫓아 버릴지 몰라요. 대사관을 설정하면, 대사관만 만들면 다 쫓아 버릴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사관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뭐 필요하겠나? 안 그래요? 자!

섭리역사관을 두고 창조이상 완성관을 결정지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적인 모든 습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제가 언제야? 4월이지? 「예.」 4월에 14만4천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 두어두면 다 꺼져 버려요. 빨리 지금부터 움직여서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 못 할 텐데, 갈라 가지고 할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전세계적으로 할지 몰라요. 될 수 있는 대로 미국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미국 자체에서 14만4천쌍 축복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부시 행정부, 부시 가정 전체를 내세워야 되겠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

겠어요? 「예.」 이래 놓고는 그야말로 정교일치시대, 유엔과 미국이, 가인 아벨이 하나된 그 자리에 앞으로 참부모연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벌어져요. 그래 가지고 자리잡는다고요.

14만4천 교회를 중심삼고 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이에요. 세계적으로 하게 되면 14만4천 교회만 되겠나? 전세계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 축복받은 목사들의 아들딸들은 자동적으로 14만4천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하면 2배가 되는 거지요. 14만4천이니까 28만8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렇기 때문에 섭리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미 굴복했고, 하나님의 심정권의 모든 전부도 개인적인 심정,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의 심정권이 하나의 지상·천상·천국의 구형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심정권 내에 포괄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觀)이라는 것을 약하면 ‘글월 문(文)’ 자에 ‘볼 견(見)’ 자로 쓰잖아요? 「예.」 다 보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지요. 관(觀) 자는 초두(++)에 뭐예요? 「입 구(口)’가 들입니다.」 「새 추(佳)’ 자입니다.」 ‘입 구’가 들이지요? 「예.」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풀과 사람과 새예요. 다 들어가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고요. 풀 들, 아담 해와, 새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섭리역사관 하게 된다면 전체를 봐야 돼요. 섭리역사 할 때는 시대시대를 말하지만 관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통하는 거예요. 그 관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관, 개인관·가정관·종족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됐어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연결 안 되어 있다구요. 이러니까 민족주의의 싸움이 벌어지고, 국가주의의 싸움이 벌어지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동서양이 분립되고 말이에

요. 통일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섭리역사관을 두고 창조이상 완성관을 결정지어야 돼요. 자!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8단계를 거쳐 가지고 탕감해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갈라졌기 때문에 심정권이 연결 안 됩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사탄세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심정권이 전부 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심정이 연결 안 된 거예요. 복중시대로부터 유아시대로부터 형제시대로부터 사춘기시대로부터 결혼시대로부터 부모시대로부터 조부모시대로 해서 왕권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심정이, 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못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담 해와가 지은 복중의 아기를 사랑했겠나, 그 다음에는 낳아 가지고 무릎에서 기르는 아기를 사랑해 봤겠나, 학교 가는 학생들을 사랑해 봤겠나, 그 다음에는 사춘기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해 봤겠나,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봤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 못 한 거예요. 그 8단계 사랑의 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어야 할 텐데, 그게 못 된 거라구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기를 보게 되면 남자도 이상해지잖아요? 복중의 아기하고 하나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나? 해와의 복중에 아기를 났을 때 하나님이 좋아했겠어요? 가슴을 치고, 한이지요. 그것을 낳아 가지고 젖을 먹이는 것을 볼 때,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딸을 젖 먹였나? 사탄의 아들딸을 젖 먹였어요. 자라는 것도 사탄의 아들딸이 자랐고, 사랑하는 사춘기에 들어가더라도 사탄 아들딸의 사춘기였어요.

8단계의 심정적 기준을 하나님에게 연결지어야 되는데, 사랑의 심정관을 중심삼고 연결돼야 할 텐데, 연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8단계의 심정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딸을 배게 할 때도 8단계의 심정에 일치된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고 같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아들딸을 뱉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의 아들로서 순결 된 아들딸을 배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8단계가 뭔지 알겠어요? 「예.」 심정관을 두고 말해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제멋대로지요, 제멋대로! 자!

참아버지 혈통의 자녀들은 나라라든가 세계를 개척해야

『……사탄세계의 혈통을 연이어 왔지만 이걸 전부 다 잘라 버리고, 없애 버리고 부모님 앞에 있는 이 기준을 중심삼고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전수하는 데는 개인 완성,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완성적 그런 내용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가가 들어갑니다. 하늘땅이 들어가고, 국가가 들어가고, 민족이 들어가고, 종족이 들어가고, 가정이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갑니다.』

이런 탕감복귀의 기준을 생각할 때 사탄의 핏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영어의 몸으로 꿈썩못했어요. 평화의 세계를 꿈으로나 생각했지 실제로 한번 보지 못했다구요. 이제부터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생사지권을 걸고 밟아치우고 대혁명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마디 마디 열두 마디 손가락을 자르면서도 아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술을 해서 붙여 놓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잘라놓을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완성한 하나, 아담을 만들기 위해 세포를 분열시켜 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재창조하

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구요. 손이면 손으로부터 다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몸뚱이로부터 머리로부터 얼굴의 눈으로부터 코로부터 말이예요.

보고 듣고 숨쉬는 생명줄이 여기에 있지요? 이게 둘이에요. 코하고 입이라는 거예요. 물하고 공기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물도 먹고 그 다음에는 밥도 먹지요? 공기까지 세 가지를 먹어요.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숨하고 통하지요? 직통하지요? 눈과 귀는 간접적이예요. 통하려면 다 통하지만 말이예요. 그러나 입이 막히고 코도 막히면, 둘 다 막히면 죽는 것 아니예요? 자, 읽으라구.

『내 축복가정은 천주 가정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몇 천 대가 아니예요. 1대에 그런 일을 성사시키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걸 환히 알고 그런 위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개척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가요. 아담이 잘못했으니 개척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거짓 아버지가 됐으니 참아버지 혈통의 자녀들은 나라라든가 세계를 개척해야 될 것 아니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세계를 찾아오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확청 정비시대

『천년왕국시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시대는 역사적인 열매라구요. 그러니만큼 옛날에 무슨 미국 사람, 무슨 학박사, 무슨 전통적이니 시시콜콜한 것들은 다 부정해야 됩니다. ‘오로지 갖고 있는 건 참부모다.’ 해야 됩니다. 천지부모라구요, 천지부모. 이 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계에 대한 실상을 빨리 하게 해서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원고를 감정해 가지고 발표시키는 거예요. 알겠어? 「예.」 4대 성인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발표하는 거예요. 김영순이 120명에 해당하는 것을 할 거라고요. 그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상에 있는 유교면 유교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삼고 유교 자체가 연구해 가지고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중심삼고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시대에 국가 기준을 못 이뤘거든. 120문도! 이 모든 종파가 120문도와 같은 입장에서 정착해 가지고 가정적 기준을 연결시키면 로마와, 세계와 하나되는 거예요. 로마를 넘어서서 축복가정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기원이 대번에 초종교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넘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나? 그거 서둘러야 돼. 「예.」 그래 가지고 유 피 아이(UPI) 통신도 그렇고, 빨리 정리해야 돼요. 대확청 정비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탄세계의 극복,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사탄세계를 극복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다 끊어 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예.」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이제는 미국 축복가정, 미국 형제라는 거예요. 미국 형제라고요, 형제! 식구, 형제, 축복가정! 미국 형제, 미국 식구, 미국 축복가정! 그러면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족, 통일된 한 집안 개념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하게 되면 세계의 꼭대기에 서 가지고 백인 제일주의를 주장하던 것인데, 그런 주의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하늘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고 활활 헤엄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대사 이름

을 중심삼고 전체를 교육하는 거예요. 나라 팔아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교육해야 돼요. 선생님이 대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빚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걱정환! 「예.」 빚 된다구, 빚!

지금 자기 집이니 땅이니 앞으로 이동할 때는 두어두고 이동해야 돼요. 헌납하지 않으면 그건 사탄세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사탄편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명의이전하고 다 그러라고 그랬지요? 했나, 안 했나? 「예. 했습니다.」 그거 안 하게 된다면, 보따리 싸 가지고 갈 준비 안 하면, 그냥 두어두고 가면 사탄세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조상들의 갈 길이 전부 다 막혀 버려요. 세상을 뭘 모르니까 그렇게 었드려 있지요.

이번에 가면 교회를 중심삼고 통일교회 식구들은 십의 삼조를 하게 해야 돼요. 「예.」 십의 삼조를 해야 돼요. 왜? 자기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이지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가정도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세계도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3단계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30수에 해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로지 참부모로부터! 말씀과 더불어 실체, 말씀 심판을 하고 실체가 하나되어 가지고야 심정 심판을 넘어서 가지고 부활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저나라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겠나? 이 표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그 세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모가지는 들어가 있고 몸뚱이는 사탄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거 해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양창식도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미국에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뭉그러 놓았어. 일본 식구들이 와서 전통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야? 자!

아담을 중심삼고 아담들이 나라를 찾는 것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혼독대회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만 것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 나온 모든 것이 개인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 사탄까지도 해방해 가지고 지옥을 전부 다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독회가 언제부터인가? 1997년 10월 13일에 ‘혼독회’를 써 줬다구요. 혼독회를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가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광정환은 혼독회를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 안 된다고 말이야. 생각나? 「예.」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내가 어머니하고 혼독대회까지 하지 않았어? ‘안 된다.’ 했는데, 안 되기는 왜 안 돼? 자!

『……가정을 끌고 자리 못 잡고 나오면서 이 모든 걸 넘어섰습니다. 전부를 청산해 가지고 털어 버렸기 때문에 털어 버린 그 기준을 중심삼아 하나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선생님이 허락한 지상천상 해방권, 참부모의 뒤를 따라가서 지상천국에도 이를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가정이 정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참부모도 아버지예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예요. 역사시대의 조상들을 전부 다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웃음) 상헌 씨가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흥진 군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재림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모든 주류, 종교권의 주류, 성인들이 일파에게 이것을 빨리 발표해 줘야 된다고요. 알겠어? 「예.」

120명씩 해 가지고 빨리 연결시키면 그 120명권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 기준을 완전히 점령하고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날만 설정하게 되면 천하는 통일되는 거예요. 미국이 참부모의 날을 모셔야지요? 가인 아벨이라구요. 자!

『구원섭리,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는 나 하나를 구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을 씨 대신 심어 놓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이상, 개인에서부터 천주 해방권까지 책임져 가지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아담들이 나라를 찾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까지 권리를 행사해서 종교를 때려잡던 그 기반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족을 연결시켜야 돼요. 축복만 해주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천만대의 역사를 한꺼번에 청산해서 다 맞춰 놓아야 된다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또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했으니 하나님이 가만 안 두어둬요. 가만 안 둔다고요. 천지를 창조하던 하나님이 아담의 뜻이니 타락한 아담을 복귀할 수 있는 구원의 뜻도 없고 사랑의 이상도 표면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적으로 짓던 그런 세계가, 내적인 사실이 실체로 나타나길 바라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구원섭리를 향해서 시작과 끝까지 다 보여 줬다고요. 이제는 시작과 끝만 해 가지고 가운데만 돌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운데를, 가정적 체도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돌려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총생축헌납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 근원이 불확실하지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우리는 확실해

요. 부모님 인격 신을 중심삼고, 진·선·미의 실체를 중심삼고 목적과 같은 결실적 열매를 어떤 가정에서도 거둘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자연적 환경으로서 혈통을 통해서 씨를 심어 가지고 그런 씨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역사관, 섭리관 위에서 그걸 보고 실체적 가정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은 모든 세계는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땅 짜박지를 가질래요? 나라를 가질래요? 자기 무슨 가정을 가질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세계에 하나된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것이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의 소유권이 전부 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핏말이 돼 있다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못 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 당장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못 하면 다 망해 버려요. 선생님이 쓸어 버려도 괜찮아요. 쓸어 버려서 자기들이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천년 만년 걸리지요. 넘어갈 수 있나? 전부 다 내가 기반 닦아 주고 있는 거예요. 배도 만들어 가지고 해양권을 전부 다... 이 놀음도 내가 만들어 줬지 자기들이 만들었나?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이놈의 자식들!

똥 구더기 통에 자기 소유권을 그냥 두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었다가는 이동하게 될 때는 못 가지고 가요.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동할 때는 못 가지고 간다고요. 팔아 가지고 보따리 싸놓고 예금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선생님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할 수 있지만, 땅을 팔든가 자기 집을 팔든가 그 소유권을 중심삼고 이동할 수 있지만,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옮겨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옮

겨가요.

이 사탄세계에 자기 소유권을, 자기 나라권을 남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총생축헌납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대가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일본의 이 간나 자식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보따리 싸 가지고 선생님에게 갖다 바치면 한국 땅의 몇십 배를 살 수 있어요. 남미 땅은 80 억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알겠어요? 남아진 땅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저금통장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불살라야 돼요. 불살라야 된다고요, 그 일을 발표한 그 날서부터! 선생님이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그래요. 자기들이 현금하고 다 그런 것을 한푼도 안 썼어요. 전부 다 나눠 준 거예요. 이제부터 아들딸을 중심삼고 기반 닦아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되면 선생님에게 전부 다 바쳐야 돼요. 선생님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연히 부자가 되지요? 아담세계의 소유권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미국 놈들이 재산을 모아 가지고 세계 일등부자라고 한다구요. 뭐 백만장자 이상이 5백만이 된다고? 50만? 그거 자랑해 보라는 거예요. 담을 까 버리고 거지 떼거리들이 달려들어서 죽여 버리고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잘사나 보라는 거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돼 있다구요.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인종전쟁이 되면 백인들을 두어둘 것 같아요? 칼침을 놔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 백 사람, 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말이예요. 하나님도 사탄 패들은 사탄끼리 정리 하라고 내버려둬요.

문 총재는 돈이 있으면 세계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내가 잘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이남에서도 그래요. 문 총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번에 평화대사를 교육해 보니까 어때? 그렇게 알아? 「그렇습니다. 다 공인됐습니다.」 공인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공인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찾아서 나라를 축복해야만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

자, 얼른 읽자. 두 시간이 됐구나.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혼동회를 해야 자기들이 언제든지 양심에 가책 받아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간이에요. 14년간의 역사를 매번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회개해야 돼요. 이 4년 동안에, 2004년까지 해결 안 하면 큰일나요. 나 책임 못 져요. 얘기한 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천상세계에 가서 법으로 세워져 그렇게 영계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타락시킨 그 세상을 그런 자리에 끌어 접붙였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아담가정의 몇 천만 배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세계를 대표하고, 지상천상천국에 평준화시킬 수 있으니 그 평준화된 지상천상천국의 모든 것이 해방권이라구요.』

아담은 타락해서 그랬지만 타락 안 한 자리에 참부모가 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성취를 전부 탕감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 앞에 가정으로부터 세계를 전부 다 딱딱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참아 나오는 거예요. 참아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하라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나? 평화대사 얘기를 하겠나, 못 하겠나? 「해야지요.」 아 글썄,

선거하라고 해서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때가 있는 건데 말이야. 평화대사를 내세워야 돼. 「예.」

남자 당이 여당이 되고 여자 당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을 바꿔치게 된다면, 그래서 형제당이라구요. 바꿔치는 데는 아들딸과 어머니 아버지가 회의해 가지고 ‘어머니가 옳다.’ 할 때는 아버지도 따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국가를 치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세워 놔 주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지금 대통령 된 아버지가 옳은가, 여자들이 옳은가?’ 해서... 지금은 여자들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여자들. 알겠어요? 여기도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사장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부모만이 아담 자리에 서니 참부모 중심삼은 여자들을 중심삼고 천사장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남겨 놓고 바람피우고 이런 것은 사탄 패들이예요. 전부 다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워 가지고 후루룩 해버려야 된다고요.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접붙여 가지고 남편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접붙여 가지고, 가짜가 어머니 분신 되는 여자를, 어머니 동생을 지금 데리고 산다고 곽정환은 생각해 봤어? 「안 해봤습니다.」

국가기준을 중심삼기 전에는 자기 남편이 주장한 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국가를 찾기 전에는 자기 여편네를 자기 여편네라고 이래라저래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소원한 권한 아니예요? 국가기준이 말이에요. 자기를 잘라 가지고 삼일식(삼일행사) 해 가지고 낳아서 남편의 자리에 세웠는데, 성약시대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지배받아야 돼요. 나라를 찾아 가지고 나라 축복을 해야만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찾아서 남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아담권 실권을

상속해 주겠다는 그 나라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몰랐지요, 지금까지.

여편네를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못 하면서 사랑만을 찾아서 통일교회 가는 길을 허물어 버렸어요. 처녀 총각들 결혼해 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해를 받았어요? 이 놈의 자식들! 안 그래요? 결혼 안 해줄 것을 결혼해 주고 나서 얼마나 피해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피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빨리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결혼해 가지고... 오십이 넘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했으면 나라가 복귀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세계로 가야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굴 구멍을 뚫어놓고 줄을 달아 가지고 굴을 터뜨려야 돼요. 굴 저쪽 편에는 세계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굴을 터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터져 나가야 돼요.

여기에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찾아 가지고 실체 아담권을 이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성인과 성자의 도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에 못 나가 있잖아요? 아담이 축복받았으면 못 나가요?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자리라구요. 그 전까지는, 천사장의 피로 연결돼 가지고 접붙인 패들은 생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들딸을 많이 낳은 것이 화예요, 화! 그걸 벌어먹이겠다고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교회의 뜻을 버리고 취직하겠다는 패들이 많지요? 그런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확실히 해준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김 씨 문중의 전체가, 축복받은 사람이 자기 부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권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타락한 사탄권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탄이 국가를 중심삼고 지금까지 섭리관을 반대해 나왔지요?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한 놀음이라구요. 똑똑히 알라구요.

예수님이 실패했던 나라를 찾아 넘어가야 남편 놀음을 할 수 있어

아담, 해와, 천사장이예요. 끝날에 재림주가 여자를 중심삼고 복귀역사를 해 가지고... 신부 아니예요? 신부가 됐으면 여기 아담이 신랑이예요. 이것 전부 다 아담 것이예요. 천사장 자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선생님의 본처가 있다면 첩과 마찬가지로요. 사탄세계에, 모슬렘에 첩이 많지요? 어때요? 모슬렘 같은 데서 첩이 50명, 백 명이 되어도 문제가 돼요? 전세계의 신부권을 선생님이 길러 가지고 자기들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넘겨 주는 거라구요. 영계의 성인들에게 넘겨 줬지요? 어머니의 동생들이예요. 그 둘이 합해야 돼요. 한 몸과 마찬가지로요.

레아와 라헬을 알지요? 「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시대에는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예요. 다 하나되어야 돼요. 엘리사벳이 동생 마리아를 길러 가지고 하나님, 부모로 모셔야 되고, 왕후로 모셔야 되고, 할머니로 모셔야 되고, 어머니로 모셔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같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장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잘라 가지고 선생님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나왔던 사람들을 선생님이 축복해서 넘겨 주는 거예요. 이 쌍것들! 다 원수들이예요, 원수! 원수에게 넘겨 줬다는 거예요.

그래, 시집가겠다는 사람이 누구 어디 있어요?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시집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구요. 선생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생각하지요. 여자는 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어요? 그거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입니다.」

여자들은 선생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남자가 선생님 외에는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고, 왕도 없고, 다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의 역사, 하늘나라의 법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이랬다저랬다하면 수습이 될 수 있나? 어머니를 중심삼고 축복했으면 어머니를 중심삼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도 어머니를 세워 나와야 돼요. 축복했으면 그걸 중심삼고 시작했으니 거기에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울고불고 정성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십에서부터 12세까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해요. 여자들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나? 자기 부모들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천사장 패들이예요. 세상에! 하늘나라를 도둑질하겠다는 거지요.

자기 좋은 아들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색시를 얻겠다고? 또 딸 가진 사람들이 좋은 사위를 얻겠다고? 그게 자기 것이 아니예요. 어미들까지도 한 패가 되어 가지고 담을 넘어가라고 한 거예요.

통일교회 이놈의 자식들! 축복가정으로서 자기들 방편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겠어요? 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놈의 자식들, 재축복받고 별의별 놀음을 다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해 보라구요.

남자라는 패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자들이 독신생활을 하잖아요? 호모, 레즈비언이 돼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될 수 있는 여자를 해 가지고 본래의 주인을 중심삼고 하늘의 자리를 잡기 위한 접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일식이 뭐예요? 구약시대를 넘어서고 신약시대를 넘어서 완성해서 비로소 남편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패했던 나라를 찾아서 넘어가야 남편 놀음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앞에 못 들어가요. 나라 없는 패예요, 저나라

에 가서. 그것을 똑똑히 알라구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라구요, 똑똑히! 이번에 똑똑히 가르쳐 주라구요. 「예.」

도적질해 먹고, 선생님이 수직으로 나갈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있어요. 내가 갈 길이 바빴다구요. 자, 읽으라구.

하늘나라 대사의 특명을 받았다

『.....개인적 전환시대가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인 전환시대로 왔기 때문에 태어나는 데도 그러려니까 절대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믿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 절대 믿어야 돼요. 축복받고 낳은 아들딸로부터 손자까지 3대가 전부 축복해 가지고 한 사위세대 가정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접붙여지더라도 3대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부부가 돼야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똑똑히 알라구요.

내가 전부 다 얘기해서 가르쳐 줬다구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기만 했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와 더불어 맞춰 봤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난날들을 돌아볼 때 틀림없어요. 일구월심(日久月深) 그것을 바라 나왔으니 그렇게 해야지요. 자!

『.....하나님과 선조들의 도움을 받아 과거는 후손들이 복귀하는 데 도와주지만 후손은 안 돼요. 조상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승리권을 받아 혜택을 넘겨주니만큼 여러분도 세계 앞에 조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8일에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영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서 꼭 다 재림하는 거예요. 데리고 내려온다구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메시아 아들딸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예요.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국가적 메시아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가정적으로 돕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가정적으로 도우니까 나라는 대번에 복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전하고 배포로 밀어 제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초당적인 교육, ‘집 당(堂)’ 자의 가정당을 만들어서 교육하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 총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곽 씨는 곽 씨 전부 다 이제... 곽 씨권 내의 대사들이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특권대사이고, 아들딸들은 하늘의 아들딸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여성연합, 남성연합, 학생연합, 청년연합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대사의 특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나면 대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하늘나라의 아들로써 자라는 거예요. 소학교면 소학교 하늘나라의 대사고,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 하늘나라의 대사이고, 대학교면 대학교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전체가 대사의 책임을 중심삼고 맨 나중에는 축복가정의 정착으로서 모든 전부가 거기에서 하나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대사가 완전히 총합적인 면에서 정착이 벌어져요. 사위기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태를 확대시킨 게 나라고, 그와 같은 나라를 확대시킨 것이 세계고, 그 세계를 확대한 것이 영계 아니예요? 공식은 마찬가지로 라는 거지요. 자 읽으라구. (훈독 계속)

「끝났습니다.」 그래, 기도해요. (곽정환 회장 기도)

뉴욕과 보스턴을 활동무대로 관광사업을 해야

통일교회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확실하지? 「예.」 통일교회가 안 나왔으면 이것 다 누가 수습하겠어요?

배에 나갈 사람은 나가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여기에서 배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구요. 앞으로 관광사업은 여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보스턴에서부터 록포트(Rockport)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활동무대예요. 관광사업으로 두 시간, 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바다로 가면.

지금 때에 스트라이프트 배스(striped bass; 줄무늬농어)가 잡히는 포인트를 알게 되면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구요. 뉴욕의 롱 아일랜드 사운드가 유명한 곳이에요. 없는 고기가 없다구요. 겨울이 되면 청어가 없나 전부 다 있는데, 포인트를 알면 그걸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

참된 나를 중심한 가정·국가·세계

그것 번역 다 했나?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정환 회장)」
맨 나중에 평화대사관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이상국가’를 집어넣으라구.
「이상국가에 기여한다.」 ‘이상국가 협력’이라고 써. 「예.」 나중에 이상
국가로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원고를 보시며) 세
계평화이상국가 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대사관을 세우는 것은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준비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유엔 구성을 한다는 말도 된다구요. 「평화대사관을 중심하고
역사적 숙원인 세계평화...」 이상국가! ‘이상국가 운동에’보다 ‘이상국
가’만 집어넣어도 좋겠어. 「예.」

왜 대사관을 만드느냐 하면, 평화이상국가를 위해서 유엔도 협조해
야 되는데, 유엔이 못 하니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대
사관을 왜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 대번에 세계평화이상국
가 운동에 적극 협력하라 이거예요. 운동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앞에 나왔지만 정치력이나 그 어떤 힘도 신과 천리 위
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아버님이 연이어 선포하실 내용입니
다.」

2001년 10월 17일(水),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그것을 넣어야 돼요, 대사관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으로 딱 들어맞기 때문에. 자!

천주평화통일가정당과 천주참부모연합과 이번 대회를 연결시켜야

「오늘은 ‘천주참부모연합 선포’입니다.」

『……제3선언은 ‘하나님이 제1창조주라면 아담 해와는 제2창조주고, 아담 해와가 낳은 아들딸들은 제3의 창조주가 돼야 된다. 제1창조주 제2창조주 제3창조주가 한 가정에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보게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원점에서 갈라져 가지고 사위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위기대, 아담 해와도 사위기대, 아담의 아들도 사위기대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제1하나님, 제2하나님, 제3하나님이 사위기대라고요. 자, 읽으라구.

『……제4선언은 숙명적 제안해원(提案解怨)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부자지간으로 숙명이다. 숙명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의 한을 풀어 드려야 된다’…』

영계의 조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참부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개종한다는 말이 벌어지잖아요?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못 가르쳐 줬다고요. 자!

『……문제는 가정을 중심삼고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조상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자식의 자리에 서서 참부모처럼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기준의 참혈통을 중심삼고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참부모시위연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한 거라고요, 가정당이라는 것이. 집이에요. 본래 사람들이 평화도 집에서, 자

유도 집에서, 행복도 집에서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끼려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자, 그럼!

『……개인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예요. 참부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적 기준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해방권, 축복권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횡적 기준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평화, 그 다음에 이상가정이예요.』

천주평화통일? 「이번 대회가요?」 응. 「이번 전체 대회는 ‘2001년 총회’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할 것! 「천주평화통일 한국대회입니다.」 천주평화통일국이요. 통일국 대회라는 거야. ‘국’ 자를 집어넣어야지. 「천주평화통일국 대회!」 그것 무슨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지요.

그래서 천주평화통일가정당과 천주참부모연합, 그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선생님은 이루겠으면 이루고 말겠으면 말고 내버려둬도 돼요. 이제 세상이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냥 가라고 안 뒤뒤요. 다 망할 자리에 들어가면 안 찾아갈 수 없다구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훈독 계속)

여자를 동원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끌고 들어가야 돼

(‘형제주의시대 선포’ 훈독)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의 아들딸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셋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이 모든 남자 여자,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이 합해 끓어야 돼요, 끓어야 돼! 소용돌이치는 그 가운데 아기씨

가 심어져 가지고 이어지는 거기에서 우리, 나라는 존재, 우리 아들딸이라는 존재가 태어난다!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된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부모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라는 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다구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가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상대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적 가정 말이에요. 계속 읽어요.

『……그걸 청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해 가지고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국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위기대 기반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와 아들딸의 사위기대예요. 어머니 중심삼고 세 아들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요. 세 아들을 중심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아들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어머니를 찾아 나온 길이에요. 구약시대를 거쳐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의 터전을 닦기 위한 유대국가가 선민권인데, 그들의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구요. 신부 교회예요, 기독교가.

이야, 복잡하다! 내용이 복잡하구만, 한꺼번에 묵기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빨리 끝내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참석했던 사람들은 조국광복을 해 가지고 입적해야 할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맞춰 가지고 전세계의 대학 졸업 이상의 사람들, 여자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구요.』

대학 졸업생이 얼마나 돼?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돼, 여자들 가운데? 「지난번에 모였을 때…」 일본까지 다 하지 않았어? 「예.」

이번에 대학 출신들을 미국에 투입하면 좋을 거라구. 「지금 일본이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시해야 돼. 「430명 중에 뽑아내겠습니다.」 430명을 관여할 게 있나?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라.

『.....세계의 똑똑한 여자들은 어머니님 대신자예요. 전세계에 이번에 강연한 내용을 집집마다 문전에 팻말을 전부 다 박아놓고 거기에 패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걸 점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천사장권, 천사장 나라인 미국이 장자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장 자리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자를 평화대사로 임명해서 세계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라구요. 금년 내로 끝나야 돼요. 미국은 언제 끝나나? 그걸 얘기해야 돼. 「예. 12월 15일에 다 끝납니다.」 전세계적으로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것 해서, 먼저 여자들을 동원해야 된다고요. 여자를 동원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 기도해요. (곽정환 회장 기도)

가정이 전체를 형성해

효율이는 하와이에서 무슨 연락 안 들었나? 「예. 사무실에서 받았습시다.」 (비행기 일정과 하와이 소식에 대한 김효율 회장의 보고)

「아버님, 이번 뉴욕 집회에서 만찬사로 하실 것을 ‘참나를 찾자’라는 말씀을 중심삼고 10분 이내로 뽑아 봤습니다. (김효율)」 읽어 보라구.

「말씀 제목은 ‘참나를 찾자’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뒤편에서 참된 ‘나’를 말할 수 있는 자식을 찾아 한에 얹힌 복귀섭리를 해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

면, 함부로 ‘나’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상가정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세계인 평화세계, 하나님께서 천년 만년 기다려 온 이상가정만 세운다면 그곳이 바로 지상천국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쌍한 하나님의 한을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을 중심삼고 나를 강조해야 돼. 그것을 하나 강하게 집어넣어야 돼. 「가정을…」 「가정을 중심삼고 나를 생명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되찾는 것은 가정 기반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곽정환)」

하나님이 3대를 못 가졌다는 거지요. 3대를 못 가졌으니 ‘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는 ‘나’ 할 때는, 하나님이 ‘나’ 할 때는 아담 해와만이 아니거든요. 아담 해와의 가정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 3대권을 거느리고 사위기대를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가정을 강조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 같은 줄 알고 흘려 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고, 바닷물을 보아도 떳떳하고, 만물 앞에서도 일점 감출 것이 없는 참된 ‘나’를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불러 주는 가정을 세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대회를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을 중심삼고 우리 종족, ‘우리’라는 것이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정을 중심삼은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세계, 가정을 빼 버리면 안 되는 말이지요. 그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종족에도 이런 가정적 단위를 중심삼은 우리, 그걸 확대한 우리예요. 이런 가정적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확대한 민족, 국가예요. 그 단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종족 할 때는 우리라는 그 기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괜찮겠다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전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세계도 가정이 연합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할 때는 이 사위기대의 기반을 중심삼고 하고 있다는 말, ‘나’ 할 때도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하고 있다는 말,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이래야 사위기대가 절대권이 되고, 삼대상목적도 그 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개념을 집어넣으면 되겠다구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세계 나라를 갖기 전에 내 가정을 가져야 돼

하나님도 ‘우리’라는 말을 아담 해와 하나 놓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볼 때, 아담 해와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정분합이라는 것이 연결된 걸 중심으로 해서, 둘을 중심삼고 하나된 자리의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비로소 사랑과 생명이 결합되는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인연 맺어질 수 있는 동시에 핏줄이 됴므로 말미암아 3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가정인 동시에 아담가정이요, 해와가정이요, 그 다음엔 아담 해와의 아들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못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개회식 때 아버님이 ‘참사랑과 평화의 근본은 가정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또 가정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델가정을 갖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으니까 ‘우리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된 세계에 가서도 주장해야 할 것은 자기 가정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정을 중심삼고 어떻게 하나되느냐, 그거구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 아니고, 어떻게 하나되어서 살았느냐가 문제라구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핵의 초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아버님은 개인관에서부터 천주관까지 신관까지 하나의 축으로부터 꿰뚫고 보시는데, 세상에서는 인생관·세계관·우주관이 별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가정관을 통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정에서 시작하지요. (웃으심)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나라에는 열 개, 백 개 되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출발인데 기원인데, 그런 개념이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가정이 귀하기 때문에 세계 나라를 갖기 전에 내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가지고 가정과 대치해서 하나될 수 있게끔 살아 나가면 그건 천국과 통하고, 영원한 세계의 이념과 통하는 거예요.

성인들도 그래요. 사위기대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성인들에게 양자를 누가 해주느냐 하면, 자기 종단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돼요. 성인들에게 자기 종단에서 양자를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3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3대가 안 되거든. 하나님과 아담 해와, 참 부모를 중심삼고 3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주(宗主)가 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양자를 세워 줘야 돼요. 양자를 자기들이 못 세워요. 하나님도 양자를 택한 셈이지요?

「예.」 그러니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원수하고 교차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계에 도달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해방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더 짧게 해도 괜찮아. 서론은 많이 해도 돼. 이번 대회에 참석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추가하고, 이 모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려니까 가정에 대한 것을 되돌아가서 풀어 나가게 되면 간단히 할 수 있다구요. (이후 대회에 대한 대화가 있었음) *

제4차 아담 정착시대와 교차결혼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영계의 각 종단 3분의1 이상 축복지시’ 훈독 후에 ‘참부모님 성혼 제2차 40년노정 및 제4차 아담권 정착시대’ 훈독)

이제는 부자협조시대

『……제4차 아담권 시대가 뭐냐 하면 모자협조시대가 아니라 부자협조시대예요.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모시고 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 모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효자가 누구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갔으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가 연결 안 돼 있어요. 탕감복귀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참부모하고 아들이 하나되어서 어머니가 없더라도 이 둘만 세우게 되면 아버지도 어머니를 창조할 수 있고 아들도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꾸로 어머니를 세워 탕감해 싸워 나왔지만,

2001년 10월 18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이제 부자관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사탄에게 빼앗는 싸움, 어머니로부터 가인 아벨 환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부자협조시대는 사탄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천상의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그 이하의 영계, 천사세계라든가 지옥세계도 해방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서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부자협조시대니 모자협조시대니 이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모르고 앓아 가지고 말만 하고 귀로 듣고 느껴 가지고는 안 된다구요. 귀로 듣고 오관이 보고 느끼고 그 모든 걸 사실로서 현실로 보고 실체적인 그 위에 서야 자기가 승리의 패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기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자!

『세상에도 효자가 누구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갔으면 혼자 사는 그 아버지를 대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효자라 하고, 또 참남편이라 하면 자기 여편네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여편네를 대신해서 탕감역사를 시켜 가지고 그 여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내를 얻는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자협조시대였는데 이제는 무슨 시대? 부자협조시대입니다. 부모시대가 아니에요. 부모시대는 어머니가 안 돼요. 어머니가 한 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몸이 돼 있으면 딸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하나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부 다 몸뚱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한다구요? 제4차 아담권 정착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천사장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사탄세계의 부자가 돼 있던 것이 하늘을 중심삼은 부자협조시대에는 사탄세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1대, 2대, 3대, 하나님을 중심삼은 3대권 어디에나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지요.

여자들이라는 건 언제든지 남편만 있으면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집가는 상대가 지금까지 사탄이었어요. 이걸 뭐냐 하면, 참아버지와 참아들딸이 있으니 하늘 편에 속할 수 있는 남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국가 환경을 넘어서야 돼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걸 부정해야 돼요.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어디 가까운 데서 무한한 데로 돌아가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가정적으로 돌아가고 국가적으로 돌아가고 세계적, 천주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중심은 하나예요.

그래, 부자지관계가 중심이라구요. 그렇잖아요? 부자지인연이 설정 안 돼 있다구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부자관계, 종적 관계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자동적으로 환경적 여건에서 소생시대, 장성시대를 거쳐 얼마든지 상대를 얻어 어머니도 세울 수 있고 아들의 여편네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든 것은 뭐냐 하면 혈통을 중심삼고 생명권을 번식하기 위한 거예요.

혈통이 연결 안 되면 생명권이 연결 안 된다구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관계에서 모든 천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의 자리에서 키워 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의 자리로서, 사춘기의 자리에서 결혼시대를 거쳐 부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씨예요. 해와만 없다면 얼마든지 재창조이상이 벌어져요. 천사장은 설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협조시대를 났고 올라서요. 효율이, 이것도 설파했나? 가와이 섬에서 말이야. 「예.」 그거 알아? 「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환태평양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모르잖아요? 환태평양시대고 무엇이고 말이에요. 말만 들었지 자기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제4차 아담 정착시대의 가정

부자협조시대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연결돼 있어요. 뼈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모자협조시대권은 아직까지 나라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 아벨을 중심삼아 가지고 싸우는 기반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하나 만들어 자기 남편까지도 중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들딸 앞에 상속해 주는 데 남편들이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장의 몸뚱이로써 어머니와 아들딸을 파괴시킨 것을 여기에서 그걸 갖다 반대로 떼어버려야 된다고요. 떼 버리니까 가정이 없어지지요? 그래, 부자협조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4차 아담시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8대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들이 됨과 동시에 그 주인 된 모든 전통을 여편네와 아들딸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4차 아담 정착시대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해방의 가정이에요. 자, 읽으라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한 대로 된다’ 한 거예요. 절대신 양입니다. 그 된다는 자체는 사랑의 상대예요. 그 사랑의 상대는 절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유일·불변·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참부자지관계,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는 참남편의 사랑, 그 다음에는 참아들·참형님 사랑, 3대 사랑이에요.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지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일체화된 절대가정에서부터 절대종족, 절대국

가, 절대천국, 절대지상천상천하 해방권을 이뤄 하나님이 자주장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이고 사랑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혈통의 주인이니, 그가 마음대로 하는 사랑의 세계, 생명권 내, 혈통권 내는 머리와 꿈지와 같이 달라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되면 자기도 해방된다는 거지요. 자!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그 다음에 왕권복귀입니다. 세계시대에 분할해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는 가인 아벨, 장자권 복귀예요. 그 장자권 복귀를 한 후에 부모권 복귀입니다, 참부모 복귀. 1960년대에 축복 결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참부모를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참효자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통일전진대회에 있어서 ‘모든 팔십 이하의 사람들은 내 동생이다’ 선언했어요. 동생 아니라는 사람 손 들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동생 되겠다 이거예요.』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 가지고 나와서 참부모를 선포해 가지고 참형제 선포, 참가정 선포를 해 나온 거예요. 참가정 선포에서부터 참나라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자기들이 축복 중심가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나라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뤄 가지고 하늘나라가 갈라진 것을 철폐시켜 났으니, 나라만 이루면 그냥 그대로 거기 접붙여 가지고, 120개 국가가 선생님에 의해 뒹아진 그 고리에다 채우면 그냥 그대로 세계와 천주는 연결되는 거라구요.

그래, 그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여기 미국에 와서 전도할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자기 일족들을 185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책임 분담시켜 가지고 선교사들로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일을 하고 같이 통일된 국가 내에서 사는 대사

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위에 평화대사가 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전권을 부식시키기 위한 것이 평화대사예요. 그 놀음을, 이번에 한국에 가서 8개 도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당이 뭐냐 하면 ‘무리 당(黨)’입니다. 이 ‘무리 당(黨)’ 자는 없어야 돼요. ‘집 당(堂)’ 자, 가정당을 중심삼고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것, 아들딸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자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나라가 가정이상권에서 하나된다면 천국에 몽땅 포괄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확대한 것이 나라지요? 나라를 확대한 것이 세계, 세계를 확대한 것이 천주, 천주를 확대한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 가지고는 천주에 비로소…. (녹음이 잠시 중단됨)

아침에 하나님이 주인의 태양 빛으로 비칠 수 있는 자활적인 정오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주장 해방 지상천국이 완성되느니라! 아멘이에요. 자!

최후의 평화 해결책은 교차결혼

『전부 다 여자들은 내 누이동생들이다, 이 간나들!』 누이동생에게 욕했다고 해서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몇천년 만에 오빠가 생겼는데 성공해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여자들 타락한 것을 땀 때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동생이 됐으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딸에게는 이 동생이 뭐가 돼요? 자기 삼촌네 집안이고 고모네 집, 이모네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 일족과 세계 무대에서 화하게 되면 천국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산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맥이 통할 수 있는 큰 몇천년 된 나무라도 살아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

지요. 자!

『여자가 오빠를 사랑 못 했고, 오빠를 남편으로 사랑 못 했고, 남편을 아버지로 사랑 못 했어요. 아들딸을 중심삼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끔 어머니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타락한 후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오빠의 사랑, 그 다음에는 아내의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이후에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왕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엑스(X)가 돼서 몸뚱이가 앞에 서고 마음이 이렇게 돼서 상충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평형선이 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풀어야 돼요. 이렇게 수평이 돼야 할 텐데 전부 막혔어요. 개인·가정·종족... 더 크게 막혔다는 거예요. 이걸 더 버려야 됩니다.

터 버리기 위해서는, 최후에 가 가지고는 원수 맺힌 것을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결탁할 수 있기 위한 것이 뭐냐 하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데 있어서 이걸 평형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평형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가정에서 평형선, 종족에서 평형선, 민족에서 평형선, 국가에서 평형선, 어디든지 평형선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국가 개념이라든가 민족 전통이 달라 가지고 결혼 못 한다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결혼 함으로 말미암아 평형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차결혼이에요.

이게 말만이 아니예요. 높은 녀석이 자기보다 높은 것을 찾아가겠다면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높으면 땅으로 가야지요. 하나님은 지옥까지 돌아가야 된다고요, 지옥까지. 그러니까 지옥을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낙원까지, 중간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

구요.

높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그 높은 데 올라간 목적은 아래에 있는 것을 품기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 품느냐?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려니 거꾸로 된 이 몸뚱이를 뜯어서 바로잡아야지요. 교차결혼하기 전에는 몸 마음의 세계적 천주 통일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빛이 하늘로부터 비취 주려고 해도 이것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비취 나갈 수 없어요. 끓어진다구요. 수평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차결혼 논리라는 것은 철칙이라고요. 평화를 말할 때는 교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교차 축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평화의 세계가 오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 마음이 싸우지요? 그것이 바로 안 잡아져요. 자기가 원수와 더불어 결혼하고 사랑하겠다고 할 수 있어야 이게 뜯어져 가지고, 땀한 것이 풀어져 가지고 평형선이 됩니다. 평형선은 부딪치지 않지요, 영원히? 이걸 언제나 부딪치게 돼 있어요. 최후의 평화의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고 있다구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귀섭리를 해온 것이 뭐냐 하면, 그 날 그 시간을 중심삼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그 위에서 자기 남편, 그 위에서 자기 아내, 그 위에서 자기 부모, 그 위에서 자기 3대, 4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판이 없잖아요? 있어요?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하는데, 그건 벌써 지금까지의 기성적 전통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미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요. 판타날에 가 가지고 맨 뭐라고 할까,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하는 곳에 가서 소화시켜야 돼요. 자기 집을 버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3년 이상, 4년 이상을 지낸 거라고요.

곽정환이도 한 번 갔더랬다구? 「몇 번은 갔습니다.」 임자네들은 모르고 ‘복잡도 하다!’ 하겠지만, 그 일을 듣기도 복잡한데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놈의 자식들, 대가리를 휘저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축복 중심가정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부모님 수하에서 다 보따리 싸서 떠나야 돼요. 몽둥이로 후려갈겨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부모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세계에 어디 부모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사자도 2년만 먹여 주면, 호랑이도 2년만 지나게 된다면 말이에요, 새끼를 물어치우는 거예요. 잡아먹는 사슴새끼와 같이, 토끼새끼와 같이 물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죽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 거기서도 이루어져요.

언제든지 부모님 품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씨가 못 돼요, 씨가. 알겠어요? 씨가 부모의 품에서 되겠나? 싹이 터 나와 가지고 모든 몇백, 몇천년 된 그 나무의 내용을 품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도 변치 않는 본연의 씨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씨는 이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원히 다른 데에다 심어도 본연의 나무가 돼요. 은행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딸을 하늘나라의 아들딸로 키워야

사길자, 이놈의 간나 자식들 뭘 하나? 자기 아들딸들 뭘 하고 있

어? 몽둥이로 후려갈겨 가지고 무자비하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지금 아들딸들을 염려하는데, 나라가 될 때까지, 나라 생길 때까지 염려하게 해주지만, 나라가 생기면 법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법치권 내에서는 법을 중심삼고….

나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의 아들로 생각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도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의 밥을 먹고 살게 되면 나라의 아들로 키워야지, 자기 가정의 아들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세상의 타락한 세계는 나라의 아들로 키우나, 자기 아들로 키우나? 타락한 세계에서는 자기 아들로 키우지요? 나라의 아들로 키워야 돼요, 나라의 아들. 지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의 아들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요.

자기 아들딸을 끼고 먹여 살리겠다고, 나라의 아들딸이 갈 길과 세계 아들딸의 갈 길을 염려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다가 회사에 취직해서 생활을 해결하는 아비 어미들, 그 따위 놀음 하는 통일교회 귀신들이 많아요. 똑똑히 알라고요. 신학교에 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방편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아들의 자리를 막고 죽을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일대, 자기 어미 아비 일대의 살길을 찾아가다가는 다 죽어요. 핏줄이 안 남는다고요.

어머니도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이제 다 시집 장가보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3세계의 아들 찾아가는 거예요, 3세계의 아들. 알겠어요? 3세계의 아들은 아기를 낳기 전 세계의 나라예요. 손자 이상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갈 때쯤이면 건망증이 생기고 노망이 생겨요. 아기보다도 못할 만큼 돼요. 그게 그 전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

랑,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 자는 것. 늙으면 그래요. 반가운 것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나 처자, 부부끼리 만나는 것이고 아들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을 만나는 것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영계에 갔고, 남편도 가고, 아들도 갔으니 지상에 있어서 소원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본연의 세상을 찾아가려니까 사방으로 찾아 헤매야 돼요. 아버지 하면 ‘아’는 동쪽에 있다가 ‘버’ 자는 서쪽에 가고 ‘지’는 남쪽에 가 가지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출발한 기원의 기지로 돌아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망하고 그런 것은 뭐냐?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영들이 있어 가지고 와서 보호해 주면 그렇게 혼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와서 이용하고, 별의별 영들이 와서 다 교차하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교차결혼! 해봐요. 「교차결혼!」 여러분 교차결혼 했어요? 국제결혼 안 한 간나 자식들은 국제결혼 한 사람들 앞에 동생으로서 형님으로 모셔야 돼요. 미국은 혼혈종이 돼 있지요? 민족감정이 없어요. 세계 감정으로 나가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세계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데 교파관념을 가지고 싸우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관념, 천주관념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걸 문제시하지 않고 그걸 품고 나가야 돼요. 그것만 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제 이 테러단 같은 것, 마약을 하고 에이즈 병 전염시키는 것은 앞으로 전부 다 분리시켜야 돼요. 완전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부, 하늘나라의 사위기대 가정권 내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를 분립해 버려야 돼요. 어머니와 아들딸이 합해 가지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와 아들딸들이

그래야 돼요. 아들딸을 살려야지요. 남편 하나 없더라도 아들딸하고 아내가 살면 그 집안이 남아져요. 그거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이 멸종해 버려요, 멸종.

세상 뭘 모르고 옛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세계를 내다보면 세계가 보이냐? 더 큰 세계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 굴러 들어오는 천운 앞에 밀려 나가지, 그걸 지탱할 수 없잖아요? 통일교회 교인들은 지금 무슨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되고, 뉴욕이 어떻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죽고 산다 야단하지만 말이에요.

영계를 보게 되면 통일교회 교인들 대해서 죽고 살고 할 것을 모르고 혼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종교, 영계의 실상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맞추다가 혼란이 벌어져 가지고, 선생님을 알 수 없고 식구를 알 수 없고 말이에요, 혼란이 벌어져요. 지금 그렇게 돼요.

미국의 백인 애들도 말이에요, 내가 패러컨하고 밀리언 패밀리 마치(Million Family March; 백만가정대행진)을 하라고 그럴 때 대가리를 이래 가지고 ‘선생님이 왜 저러노?’ 했다고요. 자기들 마음 맞추는 것이 선생님의 길이야? 미국의 대통령 마음을 맞추는 게 선생님의 길이 아니예요. 들이 까 버리고 망한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하면 내가 망하게 만들어요. 나라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가정의 아들딸로 태어난 것이 아니예요. 나라의 아들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딸을 자기 아들딸로가 아니라 전부 나라의 아들딸로 키워야 됩니다. 세계의 아들딸이요, 하늘나라의 아들딸이예요. 축복가정은 하늘나라의 아들딸로 키워야 할 텐데, 이거 자기 아들딸, 자기 미국의 아들딸? 뭐 한국의 아들딸? 아니예요. 하나님의 아들딸, 하늘나라의 아들딸로 키워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평행이 안 돼

똑똑히 알라구요. 그러지 않으면 익스체인지(exchange; 바꾸다) 돼 가지고 있는 이게 평행선이 안 돼요. 사탄이 위에 올라갔지요? 위에서 쫓아서 내려야 돼요. 이걸 올라가고 말이에요. 반드시 교체해야 돼요. 교차돼 있는 것이 어떻게 평행선이 되느냐 이거예요. 결혼을 잘못했으니 원수하고 이렇게 돼서 교차됐기 때문에 원수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평행선이 안 된다구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원수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마음 자리가 풀리지 않아요. 그 몸 마음의 원수가 가정의 원수로서, 가정에서 넘어서야 돼요. 나라의 원수와 교차, 하늘땅의 원수와 교차, 전부 다 교차돼 있는 이것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개인적 원수, 천주적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 영어의 몸으로 타락한 병에 걸려 가지고, 올무에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터주어야 됩니다. 그 터주는 것이 뭐냐 하면 교차결혼이에요.

몸 마음을 뒤집어 박아야 돼요. 마음을 중심삼고 평행선을 만들어야 되지요? 사랑의 상대를 지금까지 원수가 가져갔어요. 그렇지요? 원수가 가져가서 원수의 피를 받았으니 이걸 교체해야 돼요. 몸 마음의 교체, 부부의 교체, 가정의 교체, 민족의 교체, 국가의 교체, 하늘땅의 교체를 해야 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천년 만년, 어느 때에 자기 해방의 날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키워 나오는 수난의 역사, 인내하면서 고대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수난의 역사가 얼마나 길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이

릴 수 있는 해방의 때를 가르쳐 줬는데, 천하가 다 감동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삼고 넘어서는 것이 해방의 날이요, 하늘땅의 축하의 날인데, 그걸 생각하는 녀석이 누구 하나 있어요?

통일교회 무슨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축복가정? 자기 몸 마음이 싸우는 그대로, 이상적 사랑의 발판을 하늘과 더불어 연결시킬 생각이 없어 가지고 그냥 천국이 될 것 같아? 똘! 말도 말라구.

교차결혼! 백인하고 흑인이 교차결혼 해야 돼요. 기독교하고 모슬렘이 교차결혼 하면 세계는 평화가 돼요. 알겠어요? 원수하고 결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평화 논리의 정착점, 출발점, 해결점은 그 점밖에 없어요.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우리 어머니도 가만 보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임자들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데 가야 된다고요, 어려운 데. 교차결혼 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저 지옥 밑창까지 막힘이 없이 가라고 어머니도 선생님한테 권고해야 돼요. 그런 데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지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화살촉이 말이에요, 화살촉이 가는 데는 화살 뒤쪽의 날갯죽지는 바람 부는 것을 피해 가는 거예요. 그게 뻗뻗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날개를 쓰는 줄 알아요? 바람이 불어도 침해를 안 받아요. 조금만 받아요. 뻗뻗하기만 해보라구요. 바람이 부는데 대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새의 깃을 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생각 못 해 가지고 대가리를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참부 모라는 말도 하지 말라구요. 참부모? 축복 중심가정이야, 이 쌍것들이? 축복 중심가정이면 세계를 그렇게 틀어 놓아야 할 텐데, 자기 중심삼고 도깨비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뭐가 되겠어? 도

적놈의 새끼들이라구.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나눈 아버지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제주도 가서 틀림없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나라 이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셨습니다.」 미국 식구, 미국 형제, 미국 가정이에요. 알겠어요? 「예.」 백인들, 이거 알겠나? 「예스.」 얼마나 어려워?

천국생활 하다가 지옥생활 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아프리카하고 미국을 바꿔치면 말이에요…. 미국 사람 2억6천만하고 남미, 아프리카의 제일 못사는 집들하고 바꿔치더라도 감사하겠다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하루, 뭐 3년 이내에 천국이 다 된다고요.

이게 위에 있더라도, 사탄이 위에 가고 이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막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행선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개인으로 막혀 있고, 가정으로 막혀 있고, 종족·민족·국가·세계·하늘땅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평행선이 돼 가지고 타락 없는 세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뒤집어 박아야 될 것 아니예요? 뒤집어 박아서 평행선 만드는 것은, 교차점이 아닌 평행선을 만드는 것은 원수와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천리예요. 마지막, 터미널 키 포인트예요. 평화세계를 만드는 마지막 키 포인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머리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선생님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아들딸을 중심삼고 같은 입장에서 행동을 취해야지요.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 못 먹고 뽕박받고 집도 없고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결혼시켰어요. 그렇지 않으

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천국이 주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부딪쳐요. 주류가 이렇게 안 된다고요. 개인적 주류, 가정적 주류, 개인 익스체인지 평행선, 가정 익스체인지 평행선, 국가 익스체인지 평행선, 세계 익스체인지 평행선, 수평이 돼 가지고 개인·가정·종족... 쪽 어디 올라가더라도 걸릴 데가 없어요.

빠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지요? 그렇지요? 사랑과 생명이 결탁해서 핏줄을 통해 빠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요? 말 가지고 돼요? 여러분 백인 녀석들은 결혼할 때 원수를, 흑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뭐 하려고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을 하나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랬는데 큰 나라를 중심삼고 선생님을 얼마나 반대했어요? 지난번 주일날에도 내가 물어 본 것 아니에요? 미국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데, 레버런 문을 사랑했느냐, 반대했느냐 물어 보니, 반대했다는 대답도 안 하더라구요. 그건 미국 국민이라는, 미국 나라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낙제판이에요.

종교가 마루 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지요? 마루 가르침이 뭐예요? 맨 마루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맨 마루인데, 인간과 무슨 관계 맺자는 거예요? 마루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참사랑을 중심삼은 아버지, 참사랑을 나눈 아버지요, 참생명을 나눈 아버지, 참혈통을 나눈 아버지 아니에요? 그 이상 마루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되는 그것 이상 없어요. 종교가 그걸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개종 때문에 상헌 씨를 미워하고 그랬다가 회개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돼 있지, 예수는 형제예요.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부모의 자리는 다

른 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듣고 다 이래 가지고 야단했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 그 이상의 자리를 지상에서 다 거치고 가라는데, 그걸 싫다고 그러잖아요? 걸리면 어디 가서 피할 거예요?

하늘나라 일족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생겨나

교차결혼, 해봐요. 「교차결혼!」 교차결혼, 교차 인격이에요. 몸 마음이 하나돼야 돼요. 몸뚱이를 마음이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소화해야 돼요. 서로가 소화해야 됩니다. 위해 주지 않고는 소화가 안 돼요. 그렇지요? 소화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굳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강력한 액이 나와야 돼요. 투입해야 소화되는 거예요. 천리원칙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식을 남겨놓고 짚뽕 생각하고 있다구요.

미국 사람들 앞에 이 사상을 어떻게... 국가적 기준에서 헌법을 이런 기준을 제쳐놓고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 보라구요. 그러니 망해요. 제일 밑창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자기네 군사력, 원자력을 중심삼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재하려는데, 아니예요. 생화학 살인 약이 얼마나 많아요? 화학과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도,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 그걸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와 결혼한다는 그 개념이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일족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하늘나라의 일족은 원수와 사랑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을 듣게 된다면, 저런 복잡다단한 말이, 선생님 말 한마디 틀리지 않았어요. 다 원칙을 중심삼고 풀어 나왔어요. 공부해 보라구요, 선생님이 제멋대로 말했나. 천리원칙을 중심삼고 풀

어 나왔지요. 원리를 아는 녀석들은 그걸 느낄 거라구요. ‘와, 선생님이 참 머리가 좋은가?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내용을 순식간에 원고도 없이 나발 불고 최고의 스피드로 엮어 대노?’ 천년 만년의 하나님의 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걸렸다는 걸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모신다고,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이 일이 이뤄지지 않아요. 모시고 살고는 또다시 자기들이, 그 모시는 부모가 떠나게 되면 자기를 중심삼고 부모 대신 세계에 있어서 후대 앞에 무엇을 남겨줄 거예요? 부모의 사상, 골수를 남겨 주어야 됩니다.

주류사상이 뭐예요? 4대 성인들이 원수들이지요? 그렇지요?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하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호와와 집이에요. 예수의 집은 없어요. 예수의 집이 있나? 아내도 없는데, 일족이 없는데. 하나님 집도 없었어요. 선생님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집이니 무엇이니 집을 만들어줬는데, 집을 만들어 준 그 여편네들도 거기에 감사할 줄 몰라 가지고 뭐 불평하고 있다는 이 간나 자식들, 지옥 거꾸로 갖다 쫓아야 된다고요. 여편네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그 치다꺼리하고, 자기를 알아주기 위한 선생님이야? 축복 중심가정은 한푼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움 받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은 이미 1994년에 한국으로 떠난다고 선언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셨습니다.» 그랬어요. 1994년에서 7년이에요, 7년. 1994년부터 7년이면 얼마예요? 「2001년입니다.» 2001년까지 왕권 수립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한국에다 근본적인 문제를 붙어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주참부모연

합, 시위연합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 버리지 못하고 듣거들랑 역사는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듣겠으면 듣고 말겠으면 말라 이거예요. 내가 나라를 찾아가 가지고 통고해야 돼요, 싫어하든 뭐하든 내 고향 땅에 가서. 장관이고 뭐고, 여당 야당 전부 집합하는 거예요. 주로 요걸 강조해야 돼요, 나라 위정자들을 모이라고 해 가지고. 자, 읽으라구.

교차결혼! *교차결혼, 알겠어요? 「예스, 파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상천국과 영계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된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이 없으면 영원히 하늘 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을 수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다구요. 이것은 칸셉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사탄 편이 사랑이 연결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탄 편에서는 높은 레벨의 상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레벨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수평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차결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교차결혼을 통해서 평화로운 수평의 밸런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스, 파더!」

구교와 신교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간이라구요.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혈통에 연결되어 있지, 원수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본연의 세계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하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것은 한 나무의 줄기로부터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그 가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교차결혼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이예요. 이 백인들을 중심삼고 내가 미국에서 30년, 34년 동안 생애의 중요한 것을 투입하면서 피 흘리고 별의별 고생을 했는데, 떠나게 될 때 진짜 하늘나라에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이거예요.

선생님이 83세가 되고 84세가 돼 가는데, 이제 공동묘지 앞에 갈 수 있게 됐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을 언제 하겠어요? 미국에 온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아야 돼요.

선생님의 철칙

그래, 공산당들은 말이에요, 노동자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이상이에요. 박사들도 노동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나 하면 원수예요, 원수. 지옥 갈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예요. 알겠어요? 백인들로 말하게 된다면 흑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무대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늘이 막지 못하고 허락했어요. 마찬가지로예요. 우리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던 대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세계가 훌훌 말려 넘어가겠어요?

양창식! 「예.」 아들 있어, 딸 있어? 아기가 넷이야? 「일곱입니다.」 일곱이야? 아들이 몇이야? 「둘 있습니다.」 그거 다 원수하고, 흑인들과, 제일 못사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돼. 자기 어미 아버지가 한두 사람을 길러서라도 벌어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시켜야 돼. 내가 그러고 있어, 지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보노?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요. 누가 이런 길로 가게끔 해요? 전부 다 커버해 주고 말이에요, 어려운 데 가게 된다면 솜옷을 입혀 가지고 암만 끌고 가더라도 솜옷을 입어서 살이 닿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걸 어머니는 모르지요.

어머니의 책임이 5퍼센트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자야 매일같이 돌아다니고 싶지.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구. 이제는 내가 우리 가정의 경제, 모든 경리도 넘겨줘야 돼요,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고. 지금 어머니시대에 맡겼는데, 이제는 3대한테 넘겨줘야지요.

어머니에게 넘겨줘야 되겠나, 아들딸한테 누구 넘겨줘야 되겠나, 아들딸이 아벨이라면 가인적인 가정한테 넘겨줘야 되겠나? 우리 살림살이를 가까운 여자들보다 누구 계리사를 시켜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은행을 중심삼고 예금시켜서 살림하기 위해서는 계리사 시켜 가지고 한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생활에 쓸 수 있게 보고 해서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된다구요.

그렇잖아요? 왕이 됐으면 왕이 재정권을 가지고 사나요? 안 그래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상공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보고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살게 돼 있지, 마음대로 하나요? 그 나라에 이익될 수 있는 면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구요. 밥 먹고 살면 되지. 옷 입고 살면 되지 뭐 더 잘 입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누구 주지도 말라구. 뭘 안 사줄 거야. 그럴 때가 왔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딸을 위해서 살 때가 왔어요. 알겠나?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 이 녀석들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그릇된 길을 가지 않아. 우리 아들딸들이 불쌍하게 뜻을 위해서

절대순종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위하겠나? 나 이상 위해 주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구.

그러니 부모님이 말한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다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 없이 가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삼고 자기의 모든 전부를 그들 앞에 넘겨주고 가고 싶은데,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법, 원칙이에요.

하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들딸 누구를 기억하겠느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1등, 2등, 3등, 4등, 열둘이면 열둘까지 다 있어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혼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생겨나요.

너희들 동생끼리 같이 이렇게 살던 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본다구. 반드시 하늘의 법을 통해서 지켜 가지고 위하고 다 그래야 돼. 왕이 되게 되면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일족이 다 효자 중의 효자가 돼야 되고, 충신·성인·성자가 돼야지요? 그것을 누가 어디 외부에서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집안에서, 어떤네와 남편이 집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뭐냐 하면, 이조 5백년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네 싸움이 벌어지지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은 선생님의 철칙과 마찬가지로요.

잘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못사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을 위하겠다고 하면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못산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못산다고 슬퍼할 게 뭐예요? 환경이 전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슬퍼할 게 있어요? 빗지고 신세지는 환경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그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도, 위해 주는 데서는 영원히 그 천리는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은 꿈에도 없어요. 자!

『……일본의 축복받은 여자들은 일본에 있는 기술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교차결혼 해야 돼요. 일본 여자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은 넘겨줘야 돼요.』

기술이나 뭐나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도 영계의 30퍼센트, 33퍼센트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결국은 통일교회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권은 하나되는 거예요.』

영계의 33퍼센트를 축복하라고 해서 다 한 거지요. 그 다음에는 그걸 중심삼고, 그걸 끝내고는 전체를 뒤집어 박는 거예요. 33퍼센트를 소생권으로 해서 완성권까지 뒤집어 들어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퍼센트에서 66퍼센트, 여기를 축복해 줘야 살지, 원수를 사랑해 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는 거예요. 33퍼센트만 천국을 갈 때 데려가나요? 전체 축복을 해줘 가지고, 형제화시켜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훈독 마치고 양창식 회장 기도)

축복 중심가정의 뜻을 대개 다 알지요? 그 말이 간단하지만 그 자리에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일부터…. 내일이 19일이야? 오늘이 18일인가? 「예.」 벌써 그렇게 됐네. 효율이, 원고 다 만들어다가 갖다 줘야지. 「예. 지금 번역은 다 끝났습니다만 인쇄가…」 (이후 녹음이 중단됨) *

남녀 평화대사 임명과 그 사명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해양환원 선포’ ‘육지환원 선포’ 훈독)

여자 남자 평화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행할 일

『……자, 그러면 가는 것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외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여러분이 남북통일을 4년간에 성사 못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숙명적 과제를 놓고 결정적인 운명을 타개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에 가 가지고 평화대사로부터 ‘집 당(堂)’ 자의 천주평화통일당을 만들고 천주참부모시위연합을 만들고 천주참부모연합을 만든 거예요. 벌써 11년 전부터 하려고 한 거 아니예요? 통반격과 다 했던 것을 전부 무너뜨려 놨다구요. 박 정권 후계자들이 말이에요. 자!

『……어때요? 남북통일을 여러분이 맡을래요, 다른 나라를 가담시

2001년 10월 19일(金),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킬래요? 주도적인 역할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중심적 역할이 뭐예요? 남북통일을 해서 대통령도 여러분이 세우고, 국회의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하기 위해서 교육하라는 것 아니예요? 교육하면 그거 가능한 거예요. 틀림없이 가능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여자 평화대사, 남자 평화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초당적인 기준을 만들고 대통령을 모시고 앞으로 세계로... 세계도, 미국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책임자들을 절대 따르라구요. 나이니 선배니 가정이니 전부 공인 안 해요.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책임자를 절대 신봉하고 나갈 것을 명령한다구요.

그리고 일본은 필리핀을 도와주라구요. 둘이 형제가 돼야 되겠다구요. 그러면 우루과이는 보류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 결심했지요, 그때? 결심한 거 알아요? 곽정환! 「예.」 자, 읽으라구.

『.....오늘 6월 24일 이 시간을 기하여서 모든 전체가 환원된 것을 돌려 드리오니, 참부모 대신 천상의 창조주께서 받으시어서 영원히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써 평준화 천지를 갖추어 지상천상 천국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오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써 새로이 환원 완성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선생님이 했구나. 식사기도 하라구. (곽정환 회장 기도)

금년 내로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대사를 임명해요. 그래서 명년 초 하루부터 4년 기간에 그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들 안 받았지? 「예.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곽정환)」 안 받은 사람은 축복을 해줘 가지고 축복받고 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인 교육을 해서, 국가 책임자들에게 맡겨 가지고 전적으로 교육

시켜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통일사상이라든가 승공사상이라든가 원리, 3대 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대사관에 임명을 해야 할 때가 왔다구요.

이번에 그 대사를 예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아예 공식적으로 평화대사들이 이번에 환영받는 요원들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대사로 임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모님께서 폐회식 때 대표로 한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 만들면 새로운 당이 생겨나

이번에 여자들은 야당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을 밀어 주고, 남자 평화대사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을 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의 큰 뜻을 이들이 받아들이려면 아직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 글썽 안 하면 우리 자체가 하는 거야. 「그냥 원수같이 여당 야당이 맨날 싸움하는데…」 원수 원수로서 자기들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싸울 필요 없는 거지요.

안 하더라도… 한국에 내가 국회의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에 네 사람씩 붙어 가지고 야당 여당을 후원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밀어 준 사람이 대부분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당 야당의 결합을 중심삼고 부모와 같은 가정적 이념권 내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가들이 생각하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빼앗겨 버려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날아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저희 기반만 닦여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에 출

마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자기 재산을 팔고 나라를 팔아서도 평화대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뜻을 알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도 남습니다.」 야당 여당, 지금까지 것이 다 없어진다고요. 여자 평화대사들이 민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거라고요. 「예. 일단 아무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황선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전국 8개 도시에서 말씀을하시고 바로 연이어서 국회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섭리적인 요청이니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밀어 주는 거예요. 남자 평화대사는 여당을 밀고, 여자 평화대사는 야당을 밀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 평화대사가 기를 쓰고 야당 하는 사람도 있고 기를 쓰고 여당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다 당선된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을 만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당이 생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새로운 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

4대 환원식과 하나님 왕권 수립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제4차 아담 심정권 환원 선포’ 훈독)

선생님이 만든 사다리를 밟아가야 돼

『.....이걸 전세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흥진이도 그 놀음을 해야 됩니다. 원리연구회를 별도부대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4차 아담권 완성은 초등학교시대로부터 24세까지입니다. 열두 살부터 스물 네 살, 대학생까지 순결운동을 하는 것이 제4차 아담권의 청년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대와 후시대가 달라요. 청년활동을 중심삼고 이 청년들이 통반격과의 주인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이 7월 초하루인데, 이번 7월은 하나님이 7수의 달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해방의 새천년의 7월 달의 주인이 되고 8월, 9월 까지 3개월 동안에 기반을 닦지 않으면 9월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양창식은 현진이라고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2001년 10월 20일(土),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Conference)’ 한 것처럼 아이비 리그(Ivy League; 미국 동북부의 여러 명문 대학) 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고. 알겠어? 「예.」 그래 가지고 묶어야 돼. 여기 와 있는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을, 원수 나라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고. 이제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현진이도 그거 하라고. 어디서 뭘 하게 되면 아빠한테 허락 맞고 시간을 결정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앞에 속해 있지, 너한테 다 속해 있지 않다고. 뭘 계획하더라도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늘이 협조해 줘. 계들도 바로 가. 그렇지 않으면 결길로 간다고. 자, 읽으라고.

『오늘이 7월 초하루인데...』

지금 혼독회 하는 것, 1988년 올림픽 대회 이후 12년 기간에 선포한 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건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이 환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선포들이 왜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환원시대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래 놓고서야 결국 왕권 수립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속받겠다는 사람들이 준비고 무엇이고 생각도 안 해 가지고 공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 자리에 가서 상속받나?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 내 대신 부모님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내가 밟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자기들의 갈 길이에요. 자!

『오늘이 7월 초하루인데...』

이번 칠일절에도 10년 전에 한 내용을 가지고 환원이라는 내용을 중심삼고 첨가시킨 거예요. 그때는 국가적이었던 것인데, 세계적 기준에서 내용만 달라졌지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구요. 자!

『이번 7월은 하나님이 7수의 달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해방의 새천년의 7월 달의 주인이 되고 8월,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기반

을 닦지 않으면 9월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9월까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미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거 무슨 일이 생길지는 얘기 안 해요.』

9월 11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11에 9를 곱하면 구구예요. 구구하다구요. 뉴욕이 말이에요.

공적 표적물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품이 돼

『이번에도 뭐예요? 해양환원, 대륙환원, 천지환원...』

그 식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하셔야 됩니다.」 환원식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다나 육지나 모두 연결시킨 거예요. 남미나 어디나 이 육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남북미가 구교와 신교예요. 구교와 신교가 하나되어 가지고 아시아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아가 뭐냐 하면 플러스예요. 왜 아시아가 플러스냐 하면 성인들이 아시아에서 나타났어요. 서구사회의 미주 남북은 상대적이에요. 상대는 아시아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되어진 것을 반드시 한국에 갖다가 접붙여 주었다구요. 자!

『해양환원, 대륙환원, 천지환원, 4차 아담 심정권을 중심삼고 생식기 환원까지 왔습니다. 모든 한의 조건을 넘을 수 있고 후려갈길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철장이 뭘 줄 알아요? 철장이 뭐예요? 신문사가 아니예요.』

황선조보고 여근 남근을 다시 한 번 채근해 보라고 그래. 그것 안 했다가는 저쪽세계의 그 집안이 편안치 않아. 사고가 생긴다구. 그런 얘기만 하면 알아들어. 그게 있을 데 있어야지 있을 데 안 있으면 거기에서 화가 생긴다구.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 보라고 하는 거야. 연결해서 채근해 보라고 해. 「예.」 효율이, 그거 뭘지 알아? 「예. 봤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다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생식기를 하나님을 모시던 것보다 더 잘 모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종교계에서 들으면 펄쩍 뛰고 뒤집어지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상 사랑을 모셔야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고, 세상을 주고 천지를 주고 하나님까지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편네의 생식기를 창조물 전체를 합한 이상 숭배하고, 그 이상 사랑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큰일났고, 남자들 큰일났구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쉬운 줄 알아요? 그걸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공적이예요. 우주 최고의, 사랑을 중심삼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공적 표적물이 생식기예요. 그 공적 표적물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품이 되는 거예요. 자!

(‘환원식 전체 봉헌기도’ 훈독)

「끝났습니다.」 그럼 자기가 식 기도 해. (양창식 회장 기도)

주류를 근거로 해서 연관돼 가지고 발전한다

오늘 훈독회한 것하고 오늘 뉴욕에서 할 것이 다 맞아떨어진다고요. 전부 다 출판돼 있겠지, 오늘 아침에 읽는 것들? 「예.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판하다니? 미국은 미국에서 출판해야지. 번역하고 말 이야. 「영어로요?」 영어로 다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하신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 접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 돼, 책임자가? 「책으로 엮어진 것은...」 빨리 번역하라구. 「예.」 즉석에서 번역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생 동안에 한 것,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일생 동안에 수습해 놓아야 돼요. 하나님 왕권 수립까지 다 했기 때문에 조

건적 기준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이제는 그 조건을 중심삼고 하늘은 방향을, 영계와 육계의 통일권을 이뤄 가지고 주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존 강의 물줄기가 생길 때 한 물방울이 연결돼 가지고, 합하고 합해 가지고 강줄기가 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강의 유역이라는 것이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떠나서 흐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관돼 가지고 발전하지요.

선생님도 불쌍하지요. 저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니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구요. (이후 식사하시면서 ‘아이 아이 에프 더블유 피(IIFWP) 2001 총회’에 대한 대화) *

하나님의 뜻으로 본 평화로 가는 길

이와 같은 대회에서 여러분을 보니 친구와 같고 한 식구와 같은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가 기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읽겠습니다. 잘 들려요?

자기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데는 평화의 기원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하러 모였어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유조건이 뭐냐?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나라만 하더라도 194개국이 유엔에 가입돼 있습니다. 또 그 가외에 수많은 민족들이 갖고 있는 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많아요. 그 나라들 개체를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룬 세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에서 불가능한 것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2001년 10월 20일(土), 힐튼호텔(미국 뉴욕).

* 이 말씀은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2001 총회 개막식에서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도 불가능한 것이요, 자기를 중심삼은 사랑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중심하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어떤 평화나? 세계를 넘어서 가지고 육대륙에 필요한 것보다도, 영원히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그런 평화의 세계는 개인을 넘고, 가정·국가·세계, 지상 종파 전부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모여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빌자, 빌자!’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을 중심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중심삼고 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익을 바라는 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각자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초국가적인 세계가 찾아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세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자세계라 하게 되면, 자기 전문분야의 한 단어만 더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해요. 그런 학자세계의 자기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의 기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역사와 더불어 종교를 세우기 위해 왔어요?’ 한번 물어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고 하겠어요, 세계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하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의 기준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넘고 국가를 넘고 주의, 종교를 넘어서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 있어서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모든 종교의 주체인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몰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계를 알아요. 영계에는 여러분의 교주들이 다 가 있습니다. 조상들도 다 가 있어요.

평화의 빛은 7색이 하나된 흰빛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은 평화의 천국이겠어요, 경쟁의 천국이겠어요, 투쟁의 천국이겠어요? 평화의 천국입니다. 평화의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넘어서 평화를 바라고, 가정을 넘고 종족, 민족을 넘고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도 나를 중심삼고, 우리나라를 중심삼고, 미국이면 미국을 중심삼고, 공산당이면 공산당을 중심삼고, 기독교를 중심삼고, 모슬렘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유교를 중심삼고, 구교·신교를 중심삼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구요.

*영계는 인간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방향의 주류밖에 없어요. 두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세계를 따라가는 대상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그러면 평화의 빛깔은 무슨 빛깔이겠어요, 평화의 빛깔? 새빨강이겠어요, 새까맣겠어요, 노랑이겠어요, 희겠어요? 평화의 빛깔은 무슨 빛깔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오색인종이 다 모였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평화의 빛깔은 여러 빛깔이 아니에요. 하나의 빛깔인데, 그 빛깔이 무슨 빛깔이 되겠느냐

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 빛을 보면 7색으로 돼 있는 무지개 빛깔이 있습니다. 7색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된 빛을 발하는 흰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7색, 오색인종 가지각색의 색깔을 지닌 그 세계는 전부 다 평화의 색깔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흰빛을 따라가야 돼요. 흰빛은 평화의 상징이지요? 흰빛도 완전히 주고 서로 서로 주고 빨리 돌게 되면 다이아몬드 빛같이 밤이나 낮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같이 우리도 모든 오색인종을 넘고, 일곱 가지 색깔을 넘어 가지고 흰빛, 평화의 빛을 발하고... 흰빛도 이것이 완전히 주고받으면 자꾸 돌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의 색이 돼요. 영원한 빛이 있어야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될 줄 알기 때문에 평화의 빛깔, 흰빛을 따라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82세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82세 이상. 없어요? 다 동생들이구만. 동생들이고 조카들이구만. 그렇게 알고, 할아버지 같은 양반이, 82세의 노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욕을 하더라도 꿀떡 삼키고, 칭찬해도 듣고, 박자 맞춰 가지고 들어 주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박수)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복귀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

『존경하는 의장, 각계를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 천천히 할 테니 통역을 잘해요. 『각국의 평화대사, 초종교초국가연합 지도자와 엔 지오(NGO; 비정부기구) 지도자,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그래, 인사가 됐어요.

『역사적인 대전환의 때를 맞아, 지구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진지한 모임에 세계를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디 시(D.C.)에서 일어난 참극은 전세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근심과 함께, 현대 문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 평화세계를 희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치열했던 냉전이 종식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된 과학문명의 기반 위에서 인류가 염원했던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가 오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증오,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더 큰 재앙들을 만들고 있었음을 뒤늦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최악인 것은 자명하고, 이런 행동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할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미움과 갈등과 투쟁의 씨앗들은 어디에 심어져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것은 인류 시조의 첫 가정 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대를 이어 갈등과 투쟁이 연이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인류는 그 동안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정치력이나 외교적 노력으로, 또는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력을 통해 찾아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었습니다. 근본적이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인간 조상의 첫 가정, 즉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 참사랑을 중흥으로 완성한 가정 말입니다.』 그런 가정은 없지요?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로 계시며, 인류에게는 무형의 참부모이십니다. 사랑은 혼자서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결실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대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인간 관계만을 기초로 한 가정은 이상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육하라’ 하신 제1축복은 인간이 당신의 참사랑의 온전한 상대, 즉 참사람이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상대는 자기보다 낮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상대인 인간에 대하여,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무한히 주고 싶어하는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출발은 무한히 위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번성하라’는 제2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완성하여, 하나님과 일체 심정권 아래 참된 부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그들 자녀에게 전수하면서 실체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가 안 돼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첫 가정에서부터 종횡으로 참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절대·유일·불변·영원인 것처럼, 그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절대·유일·불변·영원의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일심일체를 이룬 실체가 되고, 온전한 자유와 행복과 이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우주만상의 환영을 받는 참사랑의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제3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행복한 생활 조건을 얻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생태계와 자연을 참주인의 입장에서 보존해야 할 관리의 책임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참사람·참부부·참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 조상이 낙원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짓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가져, 오늘의 인류 세계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유사이래 인류는 하나님을 모신 참사랑의 터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몸이 갈등하는 모순을 지닌 채 살아 왔습니다. 이 갈등은 시조의 첫 가정 안에서 형제간의 증오와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인간만이 중심이 된 가정, 인간 관계만을 기초한 가정은 본연의 이상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참사랑의 축으로 연결된 가정이 이상가정입니다. 참부모 참사랑 아래 종적인 축을 공유하는 형제간에 비로소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참사랑은 이상가정 안에서 체득되고 또 결실됩니다. 가정은 유일한 사랑의 학교입니다. 참사랑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힘의 기반으로는 결코 창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사랑의 인격을 회복하고 만물 앞에 나타나야 한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사회상을 바라보고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 무엇을 느끼니까? 희망찬 밝은 미래만을 느끼십니까? 날로 증가하는 젊은이들의 범죄율, 폭력과 마약 남용, 불륜과 퇴폐, 10대 미혼모 문제와 가치관의 혼돈 등 미래 사회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고뇌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학교 교육이나 제도와 환경의 개선도 물론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뿌리는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다. 참사랑의 첫 가정을 잃어버린 인류가 역사의 결실기를 맞으면서, 가정이 안정성을 잃고 붕괴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현상은 하나뿐인 사랑의 학교가 파손되는

것과 같아서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불안 요인이 됨은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병발(併發)시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주어 생의 좌표를 바꾸게 하고 탈선과 방종하는 생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도 합니다. 결혼기피 증세나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 기반이 급속히 파괴되는 현실은 내일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축복과 둘째 축복을 잃어버린 인류는 성스럽고 영원한 부부사랑을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개체완성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혼전순결과 참사랑의 인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이상의 근본인 참사랑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부부간의 신의와 정절(貞節)이 가벼이 여겨지고, 결혼의 신성성이 무시되는 풍조는, 인류사회가 엄청난 비극과 재앙을 내적으로 축적해 온 것입니다.』(박수) 감사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찰나적이에요, 육적이에요, 향락적인 것으로만 치닫는 소위 프리 섹스와 세속문화 속에서 참사랑은 설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에이즈(HIV-AIDS)와 성관계 전염질환(STD)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테러리즘보다도 더 가공할 위협이 안전지대 없이 우리 모두의 지척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감염되었다 하면, 행복도 이상도 생명도 다 포기해야 하는 이 엄청난 지구성의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제3축복 앞에서도 인간은 참사랑의 관리책임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연이 인간의 학대에

대하여 반항하고 인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말없이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기 전에, 인간은 참사랑의 인격을 회복하고 만물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이제 독선과 무지, 그리고 이기심과 증오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천도를 따라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박수) 감사해요.

남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을 닮는 실천

『본인은 일찍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인류가 공히 바라는 평화세계의 실현을 위해 생애를 바쳐 왔습니다. 본인은 오늘 평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활은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천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닮는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아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사랑함은 우주의 기본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인격을 완성한 참사랑·참부모·참스승·참주인이 됩니다. 이래야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됩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평화로 향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지어 평화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주의-두익사상에 의하여 한다는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주의-두익사상이란 가인·아벨 갈등을 시원(始原)으로 하여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갈등요인과 사상과 그 결실들을 전부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상이요 주의입니다.』 알아볼 만한 내용이에요.

『갈등과 증오의 고리를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증오에 대한 더 큰 증오로서의 반응은, 오히려 더 가공할 증오와 파괴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는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불화하는 양편의 갈등 요인은 오직 참사랑에 의하여서만 감화 교육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 사는 참사랑이에요. 개인주의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참사랑은 국경에 막힘이 없이 초국가적입니다. 또한 참사랑은 종교의 높은 담도 뛰어넘고, 인종차별도 없는 초종교적 초인종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으로 한 상대를 위하는 참사랑의 감화력 생명력에 의하여만, 좌우 양쪽, 전후 양쪽, 상하 양쪽, 내외 양쪽의 갖가지 지구성의 모든 갈등 대립요인은 극복되고 영원한 평화이상세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박수) 감사해요.

『둘째로 평화로운 세계와 국가를 이루는 기초단위는 참된 가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립 갈등의 뿌리가 시초의 가정에 있었고, 따라서 이상적인 참부모의 가정이 생겨나지 않는 한 평화세계는 그 기원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제축복결혼은 한 종단의 결혼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세우는 구세 구국의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혼전순결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축복을 받되 부부간의 절대 신의와 정절의 서약 아래 결혼을 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가정과 참부모를 이루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이런 이상 아래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한 가정은 에이즈를 위협으로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에이즈 예방이 감기 예방보다도 쉬운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비전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실천한다면 에이즈는 완벽하게 예방됩니다.』 (박수)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딸이 있거들랑 이러한 축복결혼에 참석하게 해서 에이즈 감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사랑의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붕괴를 막고, 나라와 세계에 평화의 초석을 놓습니다. 특히 정치적 역사적으로 불화하고 원수관계에 있

있던 국가간의 사람들이 그 높은 담을 넘어 사돈관계, 참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니 화해의 폭은 국가를 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고차원의 공식은 불화와 원수 관계인 가문의 자녀들끼리 교차축복결혼을 하여 천지가 원하는 참사랑의 참가정 완성의 축복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원하는 영원한 평화세계가 출발하는 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밀히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보자구요.

평화는 하나님이 개재해야 이루어진다

『셋째 초종교적인 화해와 협력은 평화세계로 가는 필수조건입니다. 본인은 지난 50여년간 초종교적인 화합과 대화를 위한 운동의 챔피언으로 일해 왔습니다. 언제나 자체 교단 발전을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해 왔습니다. 변함 없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회의를 이렇게 해 나온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종단간의 화해 협력이 없는 한 세계 평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협조 안 해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에 가담해야 평화가 되지, 인간끼리는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투쟁이 계속되지만, 평화는 하나님이 개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인 평화세계로의 안내자는 종교지도자와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만일 편협한 교파주의만 강조하고, 우주적인 참사랑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다면 인류는 갈등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지구성의 위기 앞에 종교지도자들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종교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참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무슨 교, 무슨 교, 마호메트 모슬렘을 따라
겠어요,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같이 살면 종교 필요 없어요.

『종교의 감화력에 의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고차적인
종교예요. 싸우는 종교 말고! 『종교의 감화력에 의하여 화평한 인격이
창출되고 자아 주관력이 배양되어, 역사적인 증오와 분노를 소화하는
데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오게 됩니다. 만일 종교들이 교리나 의식
의 차이를 뒤로하고 신의 높은 이상 아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봉
사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 준다면 세계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넷째 평화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유엔의 바른 역할을 다시 한 번 강
조하고자 합니다. 유엔이 대표적인 세계평화기구로서 그 동안 많은 기
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 때와는 현격히 달라진 세계의 사
정과 다원화된 지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본인의 생각을 유
엔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기 나라 대사들을 중심삼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유엔을 꺾
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유엔은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유엔 안에 상원과 같은 특별기구를 보강해서 종교적, 영적, 도덕
적 차원에서 세계문제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였습니다. 유엔
이 국가 이익에 기초를 둔 정치와 외교의 힘에 의하여 관장되는 차원
을 넘어서서 지구성적인 이념과 높은 신의 이상 아래 관장기구가 되어
야 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세계를 창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질서는 정치주권이 도덕적 영적 가치와 별
개로 작용해서는 공익과 평화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신의 이상에 기초하고 우주공법과 통하는 영적 도덕적 고차원의 지
도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치력이나 그 어떤 힘도 신과 천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박수) 감사합니다.

『또한 유엔은 비정부 민간단체 - 엔지오(NGO)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세계엔지오연합(WANGO)을 창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엔지오(NGO)들은 더욱더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본래의 창설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세계를 위해 바른 봉사를 계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앉아서 평화를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세계의 상황도 아닙니다.』 절박한 시대에 왔어요.

『평화대사들은...』 여러분을 평화대사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 혼자라도 만들려고 생각해요. 『평화대사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 기필코 평화세계를 창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하는 말입니다. (박수)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은 평화대사관을 중시하고...』 평화대사관은 자기 조국의 대사관이 아니에요. 만국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한 대사관이에요. 『역사적 숙원인 세계평화이상국가 운동에 적극 협력 지원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수해야 돼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기구들은 일심일체가 되어...』 갈래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저 천상세계를 알게 되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심일체가 되어 다 함께 남을 위하는 삶으로 참사랑 가정이상을 창건하여 실천함으로 천운의 협조를 받은 평화의 선구자들이 됩시다.』 천운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같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나라 찾기 위한 교육을 하라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2001년 10월 21일 이 달을 맞이하여 세 번째 맞는 안식일이 되웁니다. 10월은 우리 통일가에서 해방의 달로서 축하하며, 금년 역사적인 대혼란 시기를 지나면서 뉴욕과 워싱턴의 충격을 중심삼고 세계가 대혼란 가운데 떨어진 이 환경적 여건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출발의 표준을 향하여 기점으로서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대전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10월인 동시에 10월에서 해방의 21수를 넘어설 수 있는 최종의 날도 되오니, 이 모든 것이 합하고 협력하여 당신의 뜻하신 이상적 소원 앞에 완성 완결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기념의 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번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하나님의 심정의 크나큰 그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사오니, 이제부터 출발해 가는 노정에 영계의 주류와 더불어 지상이 대상적 주류권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해방적 평화의 대사관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대사들이 그 나라와 그 전체 국민 앞에 하나의 시범이 되시어서 새 세계의 막을 여는 데

2001년 10월 21일(日), 힐튼호텔(미국 뉴욕).

* 이 말씀은 주일 경배식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출발의 기원점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와 같이 영계와 육계가 합하여 축복받은 가정들이 일심동체가 되시어서 천지부모의 해방적 사랑의 주권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어떠한 세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좌우로 보나, 전후로 보나 부끄러움이 없게끔 하늘 앞에 택한 자의 모습으로서, 선별된 무리의 모습으로서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당신의 사랑의 수용태세를 갖추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어서, 만국의 축복을 온 천지에 가정 가정이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어서 분배 일체화시킬 수 있게끔 축복의 은사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간 통일교회를 믿고 왔던 모든 영인들은 천상세계에 가 보니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들의 소행이 머무를 수 있는 출발기로부터 방향으로부터 목적성사의 결실적 내용에 얼마나 충실하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사오니, 그 영계의 당신의 이상세계의 표준적 목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완전한 모습으로서, 하늘 앞에 자위적인 모든 행각의 노정을 갖추어 가지고 평화의 주체적인 가정의 환경을 이루어 하늘 앞에 전체를 대신해 봉헌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가정들을 갖추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일심동체가 되시어 명년 1월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상세계, 이 지상지옥 끝까지 관찰 통찰하시어서, 하나의 주류사상 앞에 일체화될 수 있는 모든 영인들의 협조와 지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의 협조를 통해서, 일체 완결 완성권으로 전진하여 평화의 세계를 향해 넘어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번 대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결의할 수 있는 한 기원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평화의 세계로, 평화의 세

계로, 평화의 세계로 자유 천지를 향하여 해방된 지상천국 건설을 위하여 총진군할 수 있는 기원적 획을 긋는 출발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번 모임에 온 모든 통일교회의 책임자들과 일심동체가 되시어 금후 세계의 국가 전체가, 인류 전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영계와 더불어 일심일체가 되시어서, 완전 완성의 귀결을 이루어 하늘 앞에 전체 총생축헌납 해방을 자랑할 수 있는, 만만세를 부르고 해방된 모습으로서 당신 앞에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최후의 경배를 하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통일가의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뜻하신 대로, 경륜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일취 확장 승리를 성사하시어서 영광의 보좌에서 온 천주를 주관 주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참부모의 원하는 모든 소원성취의 길을 향하여 영계와 육계의 전체를 동원해서 그 길에 최후의 승리의 귀결점을 완결지을 수 있게끔 명령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모든 전체의 내용을 감사하면서 축복의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충효의 도리를 보다 더욱 다짐할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세계와 유엔이 나아가야 할 길’ 훈독) (녹음이 잠시 중단됨)

가정당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끓고 돌아서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회 결의요 내용인 것을 확실히 광정환이 규정해 놓

아야 되겠다구. 알겠지? 「예.」 (녹음이 잠시 중단됨)

이번에도 그와 같은 모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정치체제의 정치는 안 하지만 정치권의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 가지고 교육해야 되겠기 때문에, 정치활동과 같은 그 내용에 걸리지 않게끔 미리 보고를 다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가정당, 집이에요. 가정, 집이에요 ‘집 당(堂)’ 자예요. 교회당 할 때는 무슨 당 자를 쓰나? ‘집 당’ 자를 쓰지요? 「예.」 옛날에 ‘당(黨)’ 하게 되면 ‘검을 흑(黑)’ 자를 썼다구요. 이게 ‘오히려 상(尙)’ 자, 올라간다는 ‘상’ 자예요. 거기에 흑(黑)이에요. 흑은 ‘마을 리(里)’ 밑에 네 바퀴(ㄴ)예요. 네 바퀴는 거짓 부모, 거짓 부부, 거짓 형제, 거짓 사랑과 마찬가지로요. 기본이 그것인데 사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때는 ‘형(兄)’ 자(党)가 되어 있다구요. 여기에 두 갈래(儿)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다구요. 그 ‘당(党)’ 자가 이제는 무슨 당 자냐? 형제 당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다 끝장이 나게 됐어요. 끝장이 난 다음에 부모가 오는 거예요. 이 ‘상(尙)’ 자 아래에 ‘흙 토(土)’ 자예요. ‘흙 토’ 위에 점(丶)을 박은 거예요. ‘임금 왕(王)’에 점(丶)을 박으면 옥(玉)이 되는 거라구요. 점을 박은 것은 이 자체에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전부 다 꿰차는 거라구요. 그걸 뿔 수 있는 고리예요.

그래서 가정당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나라 국민 전체에게 부모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형제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부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가르쳐 준 가정적 확대가 국가요, 국가적 확대가 세계요, 세계적 확대가 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투입해 가지고 국가를 키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를 투입해 가지고 세계 통일권을 키워 나가고, 천주에 이것

을 투입해서 하나님의 해방권, 하나님 해방권으로 전부 다 결속되면 하나님이 전체를 투입하는 거예요. 재차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재차 투입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와 가지고 걸려 있는 모든 수평세계의 칸막이가 되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또 종적 세계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국경선을 철폐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완전히 총생축헌납을 하는 거예요. 산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갈라진 게 아니라구요. 뭉땅!

이 세상 전체가 나라의 것이 나라 사람의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참부모의 것으로서 해서 재차 분배받아야 그 나라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자리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탕감이 안 돼요. 정비가 안 된다구요.

나라만 세워 놓으면 사탄세계의 나라는 붕괴해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벌써 맹세했지요? 한국을 여러분 모든 국가 메시아들이 틀림없이 이 4년 기간에 봉헌해 드리겠다고 결심했지요, 손들고? 「예.」 결의해 가지고 똑똑히 선포했다구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을 포기해 버리고 선생님은 어디 가든지 새로이 선생님의 일족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아들딸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인세계의 잃어버린 이상의 사랑만 하게 된다면 다시 거기서 짝이 터서 본연의 축복 중심가정이 아니라 축복 중심국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120문도를 중심삼고 예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120국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리에서 유엔을 중심삼고 행

차해야 할 기반을 선포해 가지고 선생님의 80세 이후 이 4년간에 유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자 평화대사를 국회의원의 4배, 여자 평화대사를 국회의원의 4배를 임명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을 중심삼고 여당은 아버지 남자의 자리요, 야당은 어머니 자리예요. 여자의 자리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몸 마음이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잘못함으로 갈라졌던 것이 부부로 갈라졌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로 갈라진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다시 돌아와서 여자들이 이제부터는... 사탄세계의 정치하는 이들이 전부 다 천사장의 혈족이에요. 이걸 완전히 교육해야 된다고요. 밀면 제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악착같이 해야 돼요.

곽정환, 공산세계의 여자들은 남자를 봐도 안 무서워한다며?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이상 우세해야 돼요. 여러분 통일교회 여자들이 북한의 군대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육지에서 탱크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동문한테 비행기 회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조종을 못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선생님이 벌여 놓은 모든 일은 누구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는지. 사탄도 몰라요. 알더라도 말하지 않는 한 자기들이 말을 할 수 없어요.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보다 나오니까 인류한테 ‘둘 중에 어느것을 갖겠나?’ 하면 좋은 것을 갖기 때문에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고, 종족이 그렇고, 민족과 국가가 그럴 수 있는 나라만 제시해 놓으면 사탄세계의 나라는 전부 다 붕괴해 가지고 누더기 판이 되는데, 하늘세계는 가을의 완숙한 열매와 같이 모든 것이 누구든지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고, 국가가 그

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그 열매를 따 가지고 자기 가정의 보화와 나라의 보화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예요, 씨! 그것은 자기의 좋은 땅에 심지 말라고 해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우리 집을 중심삼고 국가세계·천상천국 창건이 벌어져

이번에 온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자기들이 알 게 뭐야? 근본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제주도에서 말했던 ‘참된 나를 찾아라’ 하는 그 제목으로 회의를 끝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 나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졌더라도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말이 출발을 못 했는데 땅 위의 타락한 인간으로서 ‘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패들은 전부 다 망국지중이지요. 그걸 추방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중심삼고, 비로소 아담 해와가 하나돼 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돼 가지고 우리라는 말,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 우리라는 말,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를 중심삼고 우리라는 말이 정착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가져서 그 집안에서 우리 집을 중심삼아 가지고 국가 형태, 세계, 천상천국 창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가정을 사탄세계에서 때려치우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정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도 때려치울 수 없어요. 나라는 때려잡았지만 말이에요.

오시는 메시아의 가정 길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 이스라엘의 환경적 여건이 없기 때문에... 창조 순서가 환경을 만들고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권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를 대치해 가지고 아벨권 승리의 패권적 하늘의 보호권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와 하나되지 못했어요. 메시아와 하나
됐더라면 하늘의 절대 보호권 내에 있어 가지고 주체가 돼서 로마를
상대적으로 소화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원리원칙의 창조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모든 기준이
설정화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상대이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으니 죽
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못 찾았으니, 가정을 찾아온 예수가 가
정을 기반을 잃어버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역사해서 그 일을 대신해 가지고 실체성신과 하나
돼 가지고 이스라엘권 재현을 하는 거예요. 제2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제3이스라엘권 천국 지상 통일권을 중심삼고 제3이스라엘 기반에서부
터 축복의 성사로 말미암아 어린양 잔치를 해서 참부모를 세운 그 축
복적 전통을 세계와 천상세계에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
나무를 잘라 접붙여 가지고 참감람나무 밭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참사
랑과 참생명을 연결해서, 핏줄이 연결된 하나의 혈통권으로서 권속을
설정해 가지고 지상·천상·천국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사탄은 영 이별이에요. 따라올 수 없다구요.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핏줄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핏줄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놈의 자식들! 그 핏줄을 가지
고 사탄세계하고 짝자꿍하고, 이놈의 자식들! 그건 세포까지 날려 버
려 가지고 개미새끼, 곤충들의 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 있는 모든 시대를 향하여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월 8일에는 어떤 지역이든 사람으로 살다가 영계에 간 사람은, 도적놈

이 되어서 쫓겨왔든 죄를 지어서 쫓겨왔는지 모르지만 선과 악의 통일적 기준에 서 가지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들은 그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일 이 삼 사, 여기에서 나와라.’ 하면 누가 먼저인가 알기 때문에 계열을 따라가서 혈족이 되어 가지고… 성을 갈아도 괜찮아요.

그래 가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협조하기 때문에, 한국이면 한국이 5천년 역사가 되었으면 5천년 역사의 이 땅을 중심삼고 거기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을 중심삼고 태어났던 고향을 찾아가서 부활해서 통일적인 형태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김 씨가 주로 살면 김 씨 조상들과 합해서… 거기에 가담한 것이 박 씨니 무슨 씨니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전국적인 주류의 기준에 서 가지고 전국의 영향권을 중심삼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기 때문에 통일세계는 급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손을 안 대 가지고 영계에서 조상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세계의 조상들이, 반대 되는 혈통적 조상 같으면 잡아죽이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때가 와요. 탕감시대가 없다구요. 탕감시대와 같은 용서가 없어요. 헌법 모양으로 즉각적이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축복 중심가정이예요, 축복 중심가정!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해방권에 서서 이걸 다시 더럽히는 녀석들은 씨알머리가 천상에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제 가정적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전부 다 뺏아 치워요. ‘이놈의 자식아, 참부모의 몸을 더럽히고 참부모의 이름을 침범하는 이 악당의 무리!’다 이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해와는 미완성 참부모가 아니예요?

익지 않은 열매와 마찬가지로요. 밤으로 말하면 8월 가위를 넘어 가지고 누래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밤송이가 벌어져 굽알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중간에 시퍼런 것을 까 보게 된다면 껍데기와 하나돼 가지고 씨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타락했어요.

그러나 참부모는 열매가 익어 가지고 굽알 떨어진 그런 밤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것을 침범했으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몇십 배 가중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책임지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만이 아니예요. 세밀히….

왕권 수립에 지장 되는 것은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정비해

선생님을 보라구요. 방대한 내용을 원고도 없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틀린 데가 있나 봐요. 일구월심(一久月深) 그것이 소망이에요, 일구월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기도하라면 그런 내용으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50년 전에 기도한 것과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같지요? 「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중심삼고 살고, 그걸 중심삼고 행동하고, 그걸 중심삼고 지금까지 생애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정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목적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 왕권 수립이에요. 왕권 수립을 하기에 지장 되는 것은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정비하고 있는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때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왕권 수립 이후에 상현 씨가 영계 실상을 보고한 것이 있지요? 지옥에도 빛이 발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취 옴으로 자기 자체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자기 죄를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저기까지 거리를 어떻게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 가지고, 생명의 원천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생명의 뿌리를 중심삼고 영양소를 보급하고 배양시킬 수 있는 모든 원소가 보급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알겠어요?

빛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둠이 없는 세계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론적이라구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구요. 그러니 사탄이 어쩔 수 없어요. 암만 변명해야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안 물러갈 수 없다구요. 사탄이 굴복한 날이 언제가? 「3월 21일입니다.」 무슨 3월 21일이예요? 1999년 3월 21일이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예요. 그 사탄 앞에 ‘아아아, 문 총재에 의해 끝장이 문전에 올 텐데 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옥에서 쫓기는 날에는 무저갱으로 간다. 완전히 잘라 버려!’ 한 거예요. 천사세계까지도 사탄 앞에 3분의 2가 속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시를 한 거예요. ‘문 총재의 법에, 원리원칙에 네가 정비당한다. 네 운명이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좋을 거다.’ 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게 꿈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상현 씨도 믿지 못하고 영계에 갔어요. 가 보니까 틀림없기 때문에 ‘아이쿠머니나!’ 해서 그것을 지상에 통보한 것이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예요. 이걸 믿지 못하고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그 반대했던 모든 전부가 걸려 버려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돌아갈 때 회개해야 돼요. 이제 갈 길은 영계의 교본을 중심삼고 맞추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의 전체 성현들과 전체 종교권이 축복받아 가지고 일체화되어 있는데, 지상도 거기에 그림자와 같이 되어 가지고 광명한 세계 국가 기준에 나서야 그 국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야광석과 같은 빛이 천

년 만년 비쳐 난다구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완성의 자리에 부모님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알겠어요? 보좌에 올라갔지만 여러분의 나라들이 아직까지 해방 안 되었어요. 해방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선전 기관을 통해 가지고…. 주동문의 책임이 커. 눈감고 발표해 버리는 거야. 그걸 배짱을 가지고 잘 해야 돼. 광정환, 알겠나? 응? 「예.」 이놈의 자식들! 안 그러면 내가 원수시할 거예요.

어떤 행정부처의 누구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깨지면 잘라 버리고, 거치적거리면 잘라 버려야 될 때가 왔어요. 거치적거리는 것은 자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처리해 나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바빠요.

자기들이 동기를 만들어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그리고 야당 여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안 하게 된다면…. 보라구요. 평화대사들을 야당 여당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여당 된 사람 앞에 남자 네 사람, 야당 된 사람 앞에 여자 네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교육해야 돼요. ‘너희들이 가정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야 돼. 싸워서 안 돼. 가인 아벨이 하나돼야 된다.’ 하고 교육해야 된다고요.

남자 여자가 갈라져 나왔으니, 천사장 남자하고 아담 해와가 망쳐났으니 하늘나라의 아버지하고 여자가 이걸 대신해서 아버지 뜻에 일치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형제적 야당 여당은 일대 순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당이 순응 안 하면 망쳐 버려요. 대통령이고 뭐고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선거할 때 붙어 가지고 교육해서 안 들으면 차 버리는 거예요. 차 버려 가지고 그 반대의 야당이면 야당을 도우면 재까닥 당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만약에 여당 패들이 안 듣게 된다면 여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자가 돕게 될 때 이쪽으로 남자들까지 와서 재까닥 협조하고 재까닥 모가지 쳐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치하는 것이 아니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야당이 많아지겠나, 여당이 많아지겠나?곽정환! 「아버님의 기반이 그대로 많아집니다.」 그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들을 문 총재가 점령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론이 그래요.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 총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 총재를 대통령 만들면 좋겠는데 여든세 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그런 말까지 다 듣고 있어요. 말도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숨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다 모셔 가지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응? 「그렇습니다.」

통반격과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 요전에 돈을 하와이에서 나눠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꿈꿨던속을 가지고 어떤 녀석은 병원에 가고 어떤 녀석은 무슨 의사 되겠다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내가 듣는데, 이놈의 자식들! 12배 헌납권을 중심삼고 분할해 가지고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판뚜(판전)하고 있어, 이 쌍놈의 자식들! 그놈의 자식은 골을 까서 독수리 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악당이 돼야 된다구요. 아예 아기 새끼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북귀시대에 있어서 자기 부모, 3대까지도 산 채로 제물로 바치지 않

으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선생님을 믿지 말라구요. 거기에서 선생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간다구요. 잘못 어슬렁대다가 걸리게 된다면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구요. 하나님도 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걸렸지요? 선생님도 재창조이상의 안팎이 깨끗해야 될 텐데, 틀리게 된다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요.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무저갱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저갱(無底坑), 끝이 없는 굴 구멍과 마찬가지로요. 갯도와 마찬가지로요. 그래 가지고 영계의 낙원하고 천국이 연결되었으니 지옥의 원성이 들려서는 안 돼요. 무저갱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 영원히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형수도 종신 사형수가 있지요? 있나, 없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타락해서 부모님의 몸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최후의 결판이에요. 말없이 두고 보자구요. 국회의원이 안 하게 된다면, 그들이 안 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평화대사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러려고 해요. 알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빼 가지고 사람을 보충해서 그 수로 해 가지고 이 놀음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응? 「예.」

황선조하고 박정환이 한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그거 손대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에 접속 못 시켰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120국가예요. 해양국가를 중심삼아 가지고 도서국가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육대주가 반

대하더라도 문제없어요. 그런 조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원이에요, 환원! 알겠어요? 응? 「예.」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환원선포를 했지요? 바다 환원, 그 다음에는 육지 환원, 그 다음에는 천지 환원, 4차 아담 심정권 환원! 다 했지요? 「예.」 그게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읽으라구. (녹음이 잠시 중단됨)

자력이 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력이 생길 가망성이 있어

어떻게 해도 다 아니까 모른다는 말이 성립 안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오늘 끝나면 내일은 다 돌아가야지? 「예.」

여자들 둘이 왔나? 「예.」 정대화하고 둘이 같이 오라고 그랬던가? 「아니오.」 그럼? 「여성연합의 대표로 왔습니다.」 현실이는 통일교회 초대교회의 여성 대표로 왔구만. 「대표 자격도 못 되는데 왔습니다.」 자격이 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력이 생길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만, 자격이 됐다는 사람은 가망성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 메시아들, 육대주 책임자들이 다 왔지? 「다는 못 왔습니다.」 통고해 가지고 다음에 자녀의 날까지 현재 자기 전체 국가를 중심삼고 대사관을 만들 수 있는 설정 가격을 평준화된 기준에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 「예.」 김중수! 「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라구. 「예.」 육대주가 그것을 해서 틀림없이 보고해야 되겠다구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예.」 선생님이 빚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어디 땅을 팔더라도 해야 될 입장에 있다구요.

그래서 총생축헌납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저주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 왕권 수립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체를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그 고개를, 자기들이 안고 뭉개 버리고 뒤돌아서서 그놈의 간나 자식들은 영계에

서 벼락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통일교회의 여러분이 못살기를 잘 했어요. 못살기를 잘 했어요.

자, 몇 시야? 몇 시에 회의인가? 「지금 여덟 시인데 아홉 시부터 회의입니다.」 아홉 시부터? 「예.」 자, 밥 먹자구요. *

참된 나를 찾자

이번 회의에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이런 승리적인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여러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수고하신 끝에 오늘 저녁 이러한 폐회 만찬에서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장래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희망이 있기를 빌면서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 뜻깊은 회의가 벌써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신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고 일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인류는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외에 그 누가 진심으로 오늘 인류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 여러분께 본인은 이 저녁 형식적인 이별

2001년 10월 21일(日), 힐튼호텔(미국 뉴욕).

* 이 말씀은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2001 총회 폐막만찬 때 하신 강연으로, 통일세계 2001년 11월호에 게재된 것을 실은 것입니다.

의 인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을 형제처럼 믿고 깊은 심정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하늘이 이 시대에 본인을 통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일단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된 나를 찾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인연을 결탁해 가지고 참된 씨가 되어서 그 씨가 참된 가정이 되고, 가정의 씨는 종족의 씨가 되고, 종족의 씨는 민족의 씨가 되고, 민족의 씨는 국가의 씨, 세계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탄의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후예가 되어 거짓 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섭리를 전개해 나오면서 소생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각성시키고, 신약시대에는 직계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성약시대에는 부모를 통해서 인간을 각성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각성시켜 온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슨 근거로 ‘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된 것일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인류는 오늘날까지 타락된 후예로서 참된 나의 가치와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우리라는 말로 참된 가정을 세워 그 가정을 확대 발전시켜 당신의 창조이상인 평화세계를 이 땅 위에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참된 나의 자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나’라는 주장을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별수 없이

타락한 세계의 미국이면 미국의 백성으로서 교육받은 자기의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국가적 전통을 중심삼고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조이상적인 의식권 내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내 것,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으로서 완전한 나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기를 영점에 놓고 자기를 완전 부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라야 몸과 마음이 완전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공인할 수 있는 완전한 ‘나’를 찾아 세워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위에 완전한 국가, 세계를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당신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내에 세워놓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놓고 우리라고 포함시켜 부를 수 있는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 즉 당신의 참된 아들과 딸을 찾아 복귀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참된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혈통의 주체이니만큼 영원히 불가분의 일체적 기준에 서 있는 그런 참된 아들딸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몸 마음이 하나된 하나님의

생명과 혈통이 연결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결과로서 맺어진 그런 자식들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은 자기에서부터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상대와 함께 더불어 이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혼자 사랑을 이를 수 있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신 혼자서는 사랑이상을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이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몸 마음의 통일로 개인 완성을 이루고 그 터 위에 하나님과 부자지관계의 종적 관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적인 관계만 갖고는 우리라는 말이 성립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횡적인 관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참된 축복결혼을 통해 참된 부부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고, 참된 가정을 세워서 3대를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하늘은 가정단위로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사랑과 절대신앙을 중심삼은 절대투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정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백 퍼센트 주고도 또 주는 위하는 사랑의 시원(始原)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투입 절대투입으로, 정분합(正分合)의 논리로 보면 정(正)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종적인 우리의 축을 세

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부부가 분(分)의 입장에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일체가 되어 횡적인 축을 세우게 되면, 자녀들은 합(合)의 입장에서 자동적으로 종횡의 축에 맞추어 하나가 되면서 형제간에는 전후관계에 또 다른 축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종횡과 전후로 완전한 ‘우리’의 개념이 실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권 내에서의 사위기대의 완성이요 삼대상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권 내에서의 정분합의 완전실체 전개는 3대를 중심삼고 혈통에 한 줄로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의 ‘나’를 찾고, 종횡으로 전후로 완전한 우리를 감히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명예, 지식, 권력, 재력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끌려 다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유명한 자가 있다 해도 그가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하늘과 종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이 그를 품에 안고 우리라고 불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평화세계 실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영점에서 부정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참된 나’는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귀섭리, 구원섭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의 피하지 못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며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뒀안길의 참된 나를 말할 수 있는 자식을 찾아 한에 얹힌 복귀섭리를 해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함부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상가정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세계인 평화세계, 하나님께서 천년 만년 기다려 온 이상가정만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쌍한 하나님의 한을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고 바다를 봐도 땃땃하고 만물 앞에서도 한 점 감출 것이 없는 참된 나를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불러 주는 가정을 세웁시다.

다시 한 번 본 대회를 위해 바쁘신 일정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번에 여기에서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널리 펼치십시오. 하늘의 임명장을 받고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평화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님의 최고 무기

(《가정연합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이복 출감 50주년 기념 및 영계 해방식’ 훈독)

이제 타락권을 넘어섰으니 뜻이 빨리 이뤄져

『.....사탄 잔당들을 누가 추방하느냐 하면, 천사장 입장에 있는 축복가정이 여러분의 조상들이예요. 조상들이 지상의 축복가정을 보호함과 동시에, 축복가정이 된 것을 침범하였던 사탄세계는 축복가정권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영계는 물론이요, 지상도 사탄 잔당들을 몰아낼 수 있는 책임을 여러분 선조들 축복받은 가정들이 지상에 와 가지고 영계와 육계에 통일적인 형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해 가지고 나가는 사탄의 잔당들도 끝날에는, 영계와 육계가 해방된 그때에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거기에 법을 새로이 해 가지고 하늘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잔당마저도 하늘 앞에 돌아오므로 사탄세계는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2001년 10월 22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서 이 통일식을 해주어야 돼요.』

(앞부분 약 3분 동안의 분량이 녹음되어 있지 않음)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권을 넘어서 설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이제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를 가게 될 때 기도하고 정성들이면 그 영계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자기 갈 길을 보호하고, 가서 활동하면 그 지역을 중심삼고 완전히 영계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와 마찬가지로 만물서부터 자기 아들딸서부터 자기 부모 자리까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3시대권 다 합해 가지고 자기 가정에 일체 됴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탄한테 분할하던 모든 역사시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상대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금년 10월 8일에 그런 축복(총 청산 선언; 천주청평수련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것이 무슨 지나가는 말이 아니예요. 그것이 프로그램을 짜 들어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앞으로 미국이든 뭐든 행차하던 나라들이 자꾸 내려가요. 미국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진국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영들이 나라 복귀에 협조할 수 있는 길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하는데, 우리들은 말할 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세계의 혈통적 관계로 유대가, 끈이, 허리띠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권 내에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미국 식구 미국 형제 미국 축복가정, 독일 식구 독일 형제 독일 가정, 일본 식구 일본 형제 일본 가정이라고 해야 될 때가 왔다구요.

우리는 한 가정을 중심삼고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반을 포괄해 가지고, 해방적 지상천상천국,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일체 일원화된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래서 10월 8일에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조상들이 재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는 이 땅에서 왔다 갔던 조상들, 조상이 아니지만 살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현재 축복 중심가정 여러분을 조상으로 모시고 하나되어 가지고 이들을 국가로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활동할 때도 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우리 첫 조상이라든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계의 영인들이 온 것이, 나 한 대에 관할을 이뤄 가지고 내가 일족을 연결시켜서 민족 확장을 해 나가는 모든 인연을 연결짓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틀어지게 될 때는 그 조상들이 가만 안 뒹뒹니다. 조상들이 현지에서 탕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사건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손해가 나는 일이 벌어진다구요. 옛날같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두고 보라구요. 그냥 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멀어 집니다. 뜻에 대한 옛날에 열심히 하던, 훈독회 하든가 말씀에 대한 것도 점점 멀어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을 자기 자체가 알아요. 안개 낀 것 같고 구름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나거든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잘못되었던 사실을 시정해야 됩니다. 선조들이 옹위하는데, 하나되려고 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서 가지고 전부 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계 자체가, 조상들이 재림하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해 가지고 국가적 메시아를 협조하려고 하는데, 협조할 수 없게 되면, 거기에 상대적 기준에 못 서게 된다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인도해야 할 텐데 인도 못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어디로 갈 테가 없대구요. 이 영들이 나라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으면 나라를 복귀하기 위해서 일족 복귀를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족 복귀, 사돈 며느리 친족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라는 것은 빨리 복귀된다구요. 자!

문화권과 생활양식의 통일이 필요해

『사탄의 잔당들을 누가 추방하느냐 하면, 천사장 입장에 있는 축복가정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이예요. 조상들이 지상의 축복가정을 보호함과 동시에 축복가정이 된 것을 침범하였던 사탄세계는 축복가정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핏줄이 달라졌어요, 핏줄이. 핏줄이 달라졌다구요. 자!

『.....지금까지 영계는 4대 성인들을 중심삼고 그 가외의 모든 성현들이 있어요. 종교권을 중심한 4대 성인들을 중심삼고 3분의 1, 1백 명이 있다고 하면 33.33퍼센트 되는 그런 사람들을 6월 13일 남북한 정상이 회담하기 전에 축복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식이 끝나면 지상에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종주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게 되어 있대구요. 자, 그 다음!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에도 하나의 문화권, 전체 통일적인 천상

세계 조직이 편성됨과 동시에 영계의 기준을 중심삼은 지상의 통일을 협조하여 사탄세계 정비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 하던 환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문화창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니만큼 말씀을 중심삼고 생활양식을 중심삼고 생활이 같아요. 문화권이 같으면 생활이 같아요. 생활환경이 같다고요. 여기 서양은 햄버거 문화 아니예요? 생활양식이 같아요. 포크를 가지고 먹는 것이 딱 같다는 거지요. 문화권이 같고, 생활방식,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이 같고,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이 다 같다고요. 말이 같으면 쉬운 거예요. 구라과 같은 데는 나라가 많지만 불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태리어로 통할 수 있으면 다 하나되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것은 종교들이 해야 돼요. 국가는 못 해요.

기독교인 과거의 구교와 신교, 그 다음에 새로운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셋이 합하면 초국가적으로 모든 전부를 결합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문화권을 맞출 수 있는 모든 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 생활방식이 통일돼야 돼요. 한국에 가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서양에 와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돼야 합니다. 그렇게 체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 가지고 살던 것이 앉아 가지고도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앉아도 살고 의자에도 살고, 테이블 위에 놓고도 밥 먹고 조그마한 상에 바쳐 가지고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에도 하나의 문화권, 전체 통일적인 천상 세계 조직이 편성됨과 동시에 영계의 기준을 중심삼은 지상의 통일을 협조하여 사탄세계 정비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 하던 환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권이 같으면 그래요. 결혼하는 식도 다 같아요. 둘이 사는 목적

도 개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땅을 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라구요.

지금 여러분처럼 개인주의가 어디 있어요,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나오기 전에 부모주의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 개인주의가 나오기 전에 형제주의, 형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예요, 자기.

또 조상 가운데 수많은 조상들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났는데, 가정을 부정해 버리고 개인주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망할 족속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개인주의가 됐느냐? 완전히 사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현재 보이는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애덤 스미스의 큰 실수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같이 할 게 뭐예요? 그러니 돈 중심삼은 개인주의밖에 없지요. 돈이 왕이에요? 돈은 부속물이라구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입적하려면 일족을 수습해야

『.....어머니가 하나되어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어디에 오느냐? 조국광복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세계 중심국가를 잃어버렸던 것을 중심국가를 차지해야 할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세계 국가 메시아는 부인을 중심삼고 아들딸이 하나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세계 국가와 중심국가와 조국과 묶어 주기 위해서 남북이 한국에 이동하게 되므로 부인도 따라 들어와서 입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방에 헤어졌던 것이 국가가 생겨남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독립함으로 말미

암아 사방에서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새로운 전통적 역사를 상속해 가지고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라구요.

거기서는 자기 분열된 국가 감정, 분열된 문화 감정으로써 독일 놈, 미국 놈, 무슨 놈 하는데, 그건 다 사탄 편이에요. 놈이에요. 도적놈들이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돼요. 재차 입적을 중심삼고 이 사람들을... 이번에 어디로 다 임명되어 있지, 가정들이?

마이클 젠킨스는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이면 서울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자기 아들딸이든 자기 사돈의 팔촌, 180가정 가운데서 보내 줘 가지고, 거기에서 파송해 가지고 나라를 복귀하는 데 미국의 대표로 서로 협조해 일해야 된다구.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빨리 일족을 수습해 가지고 해야 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거기 가야 돼. 다들 뭐 하러 눈 껌꺼껌 하고 미국에 와 있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돈의 팔촌이든가 동생이라든가 잡아 싣고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했던 그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족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 친척부터 수습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구요.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가서 죽든지 하면 책임 추궁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귀해 가지고 국가 법에 의해 치리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로마의 분봉왕 입적, 호적을 다시 하려고 가다가 도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얼마나 남았나? 「금방 끝나겠습니다.」 응, 그래.

총생축헌납

『.....어머니가 외국에 가서 가인 아벨 국가권을 자기 아들과 연결

시키는 조건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세계에서 가인 아벨 기준을 중심 삼고 하나되어 온 어머니가 아벨 자리에 서 가지고 한민족을, 가인 입장을 소화해야 됩니다. 누가?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위에서 남편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어디에서 쫓아냈느냐 하면 아담가정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가정에서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로요. 가정과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적 기준을 연결시키는 세계무대에서…」

여기 미국 여자들은 가정에서 왕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라의 왕초가 되어야 돼요. 미국이 제2이스라엘인데 세계의 어머니 입장에 서서 수많은 민족을 품어 가지고 하나 만들면 세계가 하나되는 거예요. 미국이 제2이스라엘권이에요. 이 트윈 빌딩(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이 깨져 나간 것은 책임 못 해서 벌어졌다고 본다구요.

거기에 선생님이, 어제까지 회의가 끝났는데, 세상에는 다 무서워서 오지 못하는 판국에 세계의 이름 있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새 출발을 지시한 거라구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한국에 가는데, 한국 나라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야 돼요. 가인 아벨 형제시대가 아니라 부모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당은 아버지라면 야당은 어머니가 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당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이지 형제 당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형제 당이었다구요, 형제 당. 어머니 아버지 당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평화대사와 국회의원을 합해서 국회의원의 4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평화대사하고 국회의원을 합하게 된다면 네 사람씩 돼요. 그래서 한국에 272명이 있으면 평화대사와 합해서 4배면 얼마예요? 이 사 팔($2 \times 4 = 8$), 사 칠이 이십팔($4 \times 7 = 28$), 8백 얼마로구만. 그렇지요? 그렇게 남자 평화대사, 여자 평화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평화대사가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 여당이 출마하는데 여당이 출마하는 데는 남자 평화대사가 한 사람 앞에 세

사람씩 해서 사위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위기대 중심이 사탄이에요. 이걸 빼 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육해야 돼요. 그건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평화대사는 그 나라에 이름 있고 경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헛내기 국회의원 해먹던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쥐고 교육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통일국가로 가야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천지부모를 모시고 하늘나라의 천국과 일치될 수 있는 지상 상대적 기준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해서 안 듣는 사람은 때 버려요. 때 버리고 이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같은 적수가 있다구요. 여기에 여당에서 싫다고 안 듣게 된다면 야당, 어머니, 여자를 중심삼고 요런 조직이 되어 있는 거기를 협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한국에서 정당보다 더 무서운 기반을 갖고 있어요. 안 하면 자동적으로 싫다는 것보다도 여자 편의 국회의원이 한 상대권에 투표하게 되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여자도 싫다 하게 되면 거기의 사람들이 그걸 빼 버리고 남자 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둘이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선거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부모의 뜻을 중심하여 평화대사들이 협조한 그 기준이 국회의원들의 70퍼센트, 80퍼센트, 100퍼센트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하나의 당이 돼요. 싸움할 수 없어요.

이래 가지고 평화대사로부터 국회의원들은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총생축헌납 해야 돼요. 자기 가정의 물건으로부터 아들딸이나 무엇이나 자기 부부로부터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전체 나라까지 합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 야당 여당 국회의원이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총생축헌납으로 국가를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가는 거예요.

세계 평준화를 이뤄야 돼

이번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천주평화통일국 뭐예요? 국가 대회지? 「한국대회입니다.」 한국대회예요. 세계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한국대회예요. 전세계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주평화통일입니다. 천주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하나의 나라 앞에 한국에서 하는 대회라고요. 그 대회가 지지하는 것은 뭐냐? 천주평화통일가정연합, 그 다음에 초종교초국가연합, 왕고(WANGO)까지 합해서 이것이 후원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 단체 아니면 네 단체가 협조해야 된다고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을 확대한 것이 종족의 중심이 돼요. 종족 왕, 그 다음에 열두 종족을 합하면 민족이 돼요. 민족을 중심삼고 열두 민족을 합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만가지 사람이 다 있고, 역사시대의 별의별 것이 다 섞여 있다구요. 김 씨만 왕을 해먹을 수 없어요. 열두 민족이 합해 가지고 그 대표적 공신, 위해서 산 사람을 중심자로 해 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열두 나라가 합해 세계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하늘땅에 120개 국가, 180개 국가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참부모이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세계가 하나돼 엮어지면 천상 세계의 하나님이 내적 세계의 참부모가 되어 가지고 상하 부모가 영계 육계의 통일된 기준에서 하나되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생활 방법이 공식적인 과정이에요.

가정을 투입해서 종족 복귀, 종족을 투입해 가지고 민족 복귀, 민족을 투입해 가지고 국가 복귀, 국가를 투입해 가지고 세계 복귀, 세계를

투입해 가지고 천주 복귀, 천주를 투입해 가지고 하나님 복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복귀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넘겨주는 거예요. 전부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온 세계의 땅이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왕의 왕의 자리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못살고 미국이 잘살면 절반 절반 바뀌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부모가 있고 아들딸이 있고 손자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계에 널려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은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평준화해서. 중간을 중심삼고 잘살면 내려와 가지고 아래를 돕고, 상중하의 중심, 언제든지 둘째 번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잘먹고 잘살고 이런 차이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라든가 세력간의 등차가 있더라도 한 가정과 같이 사는데 싸울 수 있어요?

또 영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늘나라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위한 가정적 생활권에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계에 가면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영계가 형님이 라면 동생이지만 지상의 모든 것은, 지상천국은 지상에서 법이 되어야지 천상세계에서 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법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금 10월 8일 선언으로 누구나 다 재림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에 나쁜 사람이 뭘 하더라도 재림하는 가운데서 기준이 다른 사람은... 전기로 말하면 10와트인지 100와트인지 1000와트인지

를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면 암만 후손이라도 1000와트 대해서는 100와트는 뒤에 서고, 만 와트짜리가 있으면 1000와트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질서를 잡아서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하면, 발전소와 같이 되어 있어서 송전선을 배치해 가지고 일족을, 전기가 도시를 대해서 불을 켤 수 있고 사업하는 공장,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를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지시해 가지고 지도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땅 구덩이에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저 아프리카 야만인과 같이 살아 가지고 에이즈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여자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남자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몰라 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프리 섹스가 뭐예요? 호모, 레즈비언을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이상적 가정을 이룰 수 없지 않소? 하하하!’ 사탄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아담이 허락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해 버려야 돼요, 국회의원이고 무엇이고.

앞으로 부락 부락에서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공산당 무슨 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민재판? 천민 재판이 벌어져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유가 뭐야?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안식처가 있어요? 떠돌이로, 바다로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는 검불과 마찬가지로, 나뭇잎과 마찬가지로요. 안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돈이 뭐고 권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편네, 사

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자유가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알겠나, 이 미국 간나들? 선진국가들이 거기에 다 걸렸어요. 선진국가에 벼락이 떨어질 거라고요.

선생님이 처리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해요. 역사적인 모든 비밀을 아는 선생님이 현세를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때가 되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이 피를 보게 되면 문제가 커요. 내가 별의별 죽음 자리를 거쳐왔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이 세워지면 법대로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정의 법이 없었고, 하늘나라 종족의 법이 없었고, 하늘나라 국가의 법, 가정의 법, 종족민족의 법, 국가의 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를 전부 내버려놓고 자유분방하게 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손을 못 대고 나온 이유입니다. 사탄이 주인 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려고 해도, 그 질서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안 되었으니 이것은 이리 속한다고 그렇게 가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통일교회에서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선생님은 혼자 살지만 법을 지켜요. 어머니도 몰라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영적으로 무슨 법을 지키고 사는지 모르지요. 성별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짐을 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흠 하고 영을 받으라고 붙잖아요?

요전에 내가 가르쳐 줬지요? 성별하는 것이 복잡해요. 10개국을 다 났을 때 그걸 보파리 싸 가지고 다니겠어요? 자기가 거룩한 성염의 실체가 되어 가지고, 자체는 방사선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후 불어

줘야 된다고요. 세 번씩 불고 이래 가지고 자나깨나 어디 가더라도 자리를 성별하고 사는 거라고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뭐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앓더라도 하나님이 앓을 수 있게끔, 내가 걸어온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따라오지 내 앞에 서지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심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정신차리라고요.

인터넷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여기 하버드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반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이구, 자유다 자유다! 데모하자, 데모하자!’ 얼마나 좋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처서 먹고 얻어먹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나중에 그러고 다니다가… 베짚이하고 개미의 비유가 있지요? 노래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개미한테 가서 먹을 것을 달래니까 ‘너는 마음대로 놀다가 이랬으니, 내가 피땀 흘려 거둔 것을 먹으려면 같이 노래해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라.’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딱 그렇게 돼요.

그렇게 놀던 녀석은 퇴학 맞는 거예요, 퇴학. 낙제하는 거예요. ‘낙제가 웬 말이야? 퇴학이 웬 말이야? 내 자유인데.’ 똥! 그러다가는 감옥에 처넣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법이 처넣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신문에 나오게 되면 어디 가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한다 말이에요.

이메일 시대가 왔고, 인터넷 시대가 왔지요? 다 알아요. 컴퓨터는 미국에 있지만, 저 불란서 산골짜기에 살았으면 뭘 했는지 아무개 딱딱 해서 불란서에 물어 보게 되면 뭘 했는지가 나오고, 그 회사의 기록이 있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딱딱딱 해 가지고 여기서도 땅 끝까지도 관

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미국 사람들이야 자기 법을 중심삼고 처리하지, 불란서는 불란서 사람을 처리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전파가 울고 이메일이 울게 돼 있어요. ‘이 쌍놈의 자식들, 얼마나 복잡해! 전기가 이렇게 변해 가지고 작동 안 하는데, 일방적 자기 본의에 따라 작동하는데 날 시켜먹는 것이 억척같은 원수들이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남미의 안데스산맥 맨 높은 꼭대기 굴 구멍에 들어가 가지고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할 수 있나, 없나? 사길자! 할 수 있어, 없어? 전화번호 있지? 땅 끝 어디든지 불러낼 수 있나, 없나? 영계 조직같이 앞으로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잘살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내가 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미쳤다고, 저 젊은 사람이 미쳐 가지고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믿었나? 앓아 가지고 세계에 명령하면 거기서 군대가 동원되고 비행기가 날고 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제 어디하고 싸움하나요? 아프가니스탄 전선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성을 쏘 가지고 굴 구멍에 들어가 격파하는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눈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싸우면 싸울수록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보파리를 중심삼고 십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 보파리를 몇백 개 국가 중심삼고 해 가지고, 육대주면 여섯 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싸워도 괜찮다, 싸우겠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륙과 대륙간에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과 남북미 대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두 대륙이 없어져요.

세계 평화를 주도할 교차결혼

그래, 지금 선생님은 동서남북 네 패로 가르라고 그랬어요. 4대 종교권 아니에요? 종교권을 중심삼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든 교차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차결혼을 알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소련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일 사람들과고, 일본 사람들과고 결혼하면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싫다고 하게 되면, 미국이 못 하는데 일본이 주도했으면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독일이 주도했으면 독일이 세계를 주도해요. 그런데 독일 사람도 못 하고 일본 사람도 못 하고 미국 사람도 못 하고 소련 사람도 못 하는데, 한국 사람인 레버런 문이 하고 있어요. 종교권에서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 하고 있다구요.

지금 선생님이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자리잡게 되어 있어요? 벨벳디아 여기에서 가정을 중심삼고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누가 와서 반대를 못 해요. 그럴 시대는 지나갔어요. 나라의 어디를 가더라도, 우루과이 같은 데 내셔널 가든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2백 몇십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650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고쳤어요. 몇 배예요? 3배 이상 더 들여 가지고 아예 궁전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집(이스트 가든)도 미국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4년 5년이 가고 10년이 걸려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돌도 한국에서 가지고 왔지? 「예.」 이거 쌓은 것도 한국에서 돌 사이즈를 딱딱딱 맞추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깎아 가지고 될 게 뭐 있어요? 어디든지 주문하게 된다면, 세계 어디 가서든 주문하면 사이즈가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딱 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 도면만 갖고 쌓으면 돼요.

이게 한국 돌이라구요. 미국의 여러분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뭐 ‘아이구, 선생님이 계실 동안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한푼이라도 현금해 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 가지고 여기 이스트 가든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은 그대로, 저금통장은 그냥 갖고 있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저금통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땅과 세계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공판이에요. 미국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 못 합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는. 미국 공판이 아니에요. 하늘땅의 공판이니만큼 하늘 땅에 충성한 사람들이 와서 지키고 다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전부 다 문화세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일세계는 여행하며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미국이 뭐가 좋아요? 아이구! 미국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땅이 넓다고 좋은 거예요? 땅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는 어떤 것이 사느냐 하면, 토끼새끼나 살고 사슴이나 살고 여우나 사는 거예요.

높은 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곰이 살아요. 백곰이 살아요. 미국 사람 2억4천만이 있더라도 백곰의 힘을 당할 수 있어요? 호랑이를 당할 수 있어요? 총을 누가 만들어 줬어요? 총의 주인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평화세계 만들라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것보다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써야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통일교회

여기 원자탄을 만들게 한 것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못 하니까 화학무기

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큰일나요. 원자탄을 어디에 갖다 던지겠냐? 미국이 저장한 원자탄 창고를 굴 뚫어 가지고 도적질해 가요. 도적질 해다가 하면 간단한 거예요. 뉴욕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다이내마이트 뇌관을 중심삼고 불만 붙여 놓으면 돼요. 한 열 방만 미국 내에 터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도적질해 간다고 봐요, 도적질 못해 간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라구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들이 합해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망쳐 놓고 세계를 급속한 시간에 공포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놀음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누가 알았어요? 총 가지고 했나? 뭘 가지고 했나? 칼이에요. 칼보다도 송곳 가지고 했어요, 송곳. 송곳 알아요? 딱 돌리게 되면 뽕죽한 것이 썩 나와서 옆구리를 찌르면 앉아서 죽어요. 여기서부터 찔러 놓으면 심장을 뚫어 가지고 악 소리도 못 하고 죽습니다.

그런 살인 방법을 모르나? 주동문 암만 신문사 사장이라 해도 별수 없다구요. 점심 먹으러 가게 되면 그 옆에 앉았다가 나갈 때 ‘아이고, 허리띠가 풀어졌소. 허리띠요.’ 해 가지고 붙들고 왼쪽으로 해서 바른 쪽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지 별수 있어요? 어디 마음놓고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송곳 알아요, 송곳? 그거 한바퀴 딱 돌리면 바늘같이 가느다란 것이 말이에요, 굵어지는 거예요. 한 자도 필요 없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 있으면 돈 모으겠다.’ 이거예요, 누구도 가지고 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막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흑인 백인끼리 싸우는데 흑인을 다 죽여놓을 것 같아요? 백인 다 죽여 버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패들이 황인종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래요. 레버런 문이 아시아인이니까 중국하고 하나된다면 제일 무서운 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내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지를 않아요. 자기들 정보세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요. 왜? 언론기관을 만들었다구요. 유 피아이(UPI) 통신까지 백 퍼센트 활용해 보라구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내가 보고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씩만, 세 사람씩만 심어 놓으면 아침 점심 먹을 때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스트 가든에 지나가다가 통일교인이라고 하면 아침에 혼동회 끝난 다음에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왔어?’ 하면 아무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카드 같은 것 만드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건 뭐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키면 하겠나, 안 하겠나? ‘다 죽자!’ 하면 죽을 수 있는 각오들 다 되어 있어요? 「예.」 간단하지요. 화학무기를 한 집씩 가지고 큰 선풍기 앞에 뿌려 버려라 이거예요. (웃음) 그거 그렇게 뭐 있어요? 수도 배수장을 찾아가서 뿌려라 이거예요. 없으면 두터지같이 되어 가지고 벽을 뚫어서 뿌리는 거예요. 10미터 벽 뚫는 것은 순식간에 해요. 수도물에 약을 타면 살겠나, 죽겠나? 거 살았다고 큰소리하지 말라구요. 완전히 사망권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도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하겠다는 사람은 죽어요. 엇그제 패러컨이 여기 와서 대회 할 때 선생님을 칭찬하고는 아이고, ‘미국은 분하다, 분하다!’ 하고 들이쏘아 붙였어요. 패러컨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흑인들한테 죽어요. 모슬렘한테 죽는다구요.

주동문! 미워하지 말라구. 내가 닭아 세웠어. (웃으심) 종교 꼭대기 사람들을 내가 교육하는 것이 좋았겠나, 나빴겠나? 그거 불쌍해요. 흑인도 불쌍하고, 백인도 불쌍해요. 백인이 얼마예요? 백인이 8억5천만

이 못 돼요. 8억 된다구. 흑인들도 그래요. 6억5천만이에요. 제일 불쌍한 패들이 왜 싸워요? 둘이 합해도 아시아를 못 당할 텐데. (웃음) 안 그래요?

인도가 얼마예요? 인도가 중국 사람보다도 많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 하면, 중국과 소련과 인도만 하나 만드는데 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부 종교권이예요. 중국은 유교권, 소련은 러시아정교권, 인도는 힌두교권이예요. 인도는 파키스탄하고 싸우고 있지만, 형제끼리 싸우면서 잘났다고 그러지요. 그건 하늘나라를 보여 주면, 가르쳐 주면 순식간에 통일돼요. ‘이런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고 무서운 조직을 갖고 있구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누구 하나 잡아 가지고 소련 지하운동을 하는 누구한테 비밀자금을 갖다 주려면 안 갖다 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닐 게 뭐예요? 저 못사는 제3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연락하고 있는 비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놀음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남방에 있어서 현재 게릴라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 한번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 주면 나가자빠질 거라구요. 거기서 미국 여자도 있고, 독일 여자도 있고 다 있대구요. 뭐 공산당 조직이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참고 참고 이래 나오지만, 복수해 보라구요. 반대하는 사람 전부 해치우면 될 것 아니예요?

보다 위하는 사랑만이 최고의 무기

아랍권이 센가요, 통일교회가 센가요? 모슬렘이 센가요, 통일교회 신자가 센가요? 모슬렘한테 질 거예요? 기독교한테 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싸움해서? 눈으로써 이기고, 코로써 이기고, 입으로써 이기고, 귀로써 이기고, 손으로 이기면 다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이겨야 돼요. 냄새가 좋아야 돼요. ‘저 사람이 오게 되면 흠흠 냄새가 좋아.’ 하고, 또 얼굴을 보더라도 ‘어제는 까무잡잡하더니 오늘은 또 어떻게 백인이 되었어?’ 하는 거예요. 화장을 잘 하게 된다면 말이예요, 팔십 노인의 배우가 중학교 소녀가 되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말기 좋게, 그 다음엔 말하기 좋게, 만지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칼이 있어요? 거기에 칼이 필요해요? 칼을 가지고 눈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오관이 좋게 할 수 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알겠어요? 하나님도 사랑의 냄새를 맡게 되면 흐음 하고 코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 이러는 거예요.

이 놀음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무슨 것이야 생각 안 했을 줄 알아요? 총 가지고 점령을 못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몸뚱이! 험박 가지고 돼요? 정치의 힘 가지고 돼요? 험박해 가지고 된다면 밤에 잘 때 가서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겠나요? 오관을 점령해 가지고 춘하추동 일생사시, 소년시대 청년시대 그 다음엔 장년시대 노년시대, 일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놀음 할 수 있는 패들이 어떤 패들이냐? 무엇 갖고 할 것이냐? 총칼, 수단 방법 가지고 안 된다구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늙은이도 좋고, 장년도 좋고, 청년도 좋고, 소년도 좋고, 아기들까지 좋은 사랑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무엇 때문에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술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무기?

「전술 무기!」 전술 무기, 전략 무기! 그것이 눈 코 귀 입 손이에요.

선생님 말을 들어 보면 재미도 있고, 선생님을 보게 되면 보기도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마음이 그래요. 선생님 가까이에 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렇다구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을 살려 주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 주기 때문에, 위하는 사랑 때문에. 위하는 사랑만이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암만 여자가 잘났다고 해도, 미국에 있어서 여자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왕이 되지만, 여왕 며칠도 못 갑니다. 아들딸을 맡겨 놓고 싸워 가지고 뒷전을 보면서 이혼해야 돼요.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무기가 뭐예요? 그것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데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무기가, 그 전략적인 무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사랑이에요. 위하는 사랑, 보다 위하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전략전술에서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 없어요. 미인 여자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내가 겁탈하겠다.’ 생각 안 해요. ‘곱게 길러 가지고 더 미남자를 만나 주게 하면 맞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적이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 한 송이 피우기에 얼마나 고생해요? 꽃만 있으면 되나요? 잎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장미를 팔아도 꽃만 갖다 파나요, 그 잎까지, 줄기까지 갖다 파나요? 가시가 두둑두둑한 것까지 팔아요. 꽃만 필요치 않아요. 상대권까지 볼 줄 알아야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착 기준은 위하는 사랑

나 여러분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 없어요. 미국 사람을 고생시켰으

면 미국이 못 하는 세계를,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니까 앞으로 미국이... 이 나라가 크게 되었으면 말이에요, 그건 미국을 없애 버리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역사는 그렇게 바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일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전술의 무기가 뭐라고요? 뭐라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무슨 사랑? 「참사랑입니다.」 위하는 사랑! 평화의 왕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영원히 안착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목 같은 것도 얼마나 분석을 많이 해봤겠어요? 알겠어요?

위하는 사랑을 갖게 된다면 와 가지고 아버지 눈을 만져 보고 싶고, 코를 만져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왜? 내 눈이 좋아하니까. 이놈의 눈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버지 눈을 만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도 좋아하고, 얼굴도 좋아하니까 얼굴을 만져 보고, 코도 만져 보고, 입도 만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뭘 만지고 싶어요? 맨 처음에 여기 가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쳐 버리기 때문에 귀를 먼저 만져 봐요. ‘아이고, 요 귀가 참 잘생겼구만!’ 그래서 귀고리를 해요. 그 다음에 뭘 만져 볼 거예요? 미국 여자는 가슴까지 내놓고 ‘가슴이 잘생겼다! 만져라.’ 그 래 가지고 목걸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을 만져 보는 거예요. 반지를 끼었구만. 반지를 해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귀고리를 해주게 된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눈도 만져 주고, 코도 만져 주고, 입도 만져 주고, 목도 만져 주고, 가슴도 만져 주게 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메달이에요, 사랑의 메달. 사랑의 금줄이에요. 사랑의 반지예요. 알겠어요? 자기 농락이 아니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위하게 된다면 하나님까지도 끌려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 그렇잖아요? 높은 하나님을 영원히 위하고 영원히 사랑하니까 찾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을 길러 가지고 내가 팔십 노인이 되어 미국을 떠나더라도 ‘미국의 사람들보다 후대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없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을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은 잘생기지 못했다고요. 선생님 눈에 대해서 매력 있고, 코에 대해서도 매력 있고, 입에 대해서도 매력 있어서 한번 다 만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다 만지고 싶지요? 그런다고, 만진다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겁탈하지 않아요. 네가 만진 것보다 나는 더 사랑해서 만지고 싶어해요. 둘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바랐다 이거예요. 그 이상 결론이 어디 있어요? 네가 사랑을 받아 가지고 나를 소개해 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소개는 좋고 이용은 나쁜 거라고요. 알겠어요? 간단해요.

위하는 참사랑으로만 오관이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래, 위하는 참사랑으로만 오관이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안 돼요? 이놈의 자식들, 어디 가게 된다면 자기 감투를 쓰고 어깨에 힘 쥐 가지고 ‘내가 장(長)이다!’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 없다고요. 언제나 재미있게 생각하지요, 아기와 같이. 아기가 있으면 아기와 같이... 자기 아들딸을 많이 길러 봤다고요. 또 청년들, 소년들도 길렀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이 좋아하는 것을 다 잘 알아요. 청년들을 대해서도 다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노년도 다 잘 알아요.

그들이 나에게 보여 주는 것보다도 나는 더 위하고 더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내 품에 품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

기 이스트 가든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부엌에서도 제일 비싼 그릇도 다 깨뜨리고 다 이러더라도 들은 체 만 체 하는 거예요. ‘그거 깨뜨렸으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연을 보기에 힘들고 부끄럽겠지.’ 우리 통일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벽이 ‘누구 누구 잘 깨뜨렸는데 너는 몇 등 가누만.’ 하는 거예요. 바람벽이 다 알고 다 듣고 있어요. 이 마루간이 다 듣고 있어요. 다시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할 터인데, 내가 또 큰소리 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요. 진짜까지 비벼 버리는 거라고요. 알고도 모른 체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스트 가든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지만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예요. 내가 무섭게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무서운 일을 남기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지요. 자연히 굴복하고 자연히 평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다 위하고, 그 자체가 나를 위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려움 없이 상하가 구별되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게 되어 있다구요. 승자 패자는 자동적으로 결정돼요.

뭐 엇그제 종단장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한칼로... 한 30분 걸렸나? 말하다 보니 다... 그거 두었으면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뻔히 자기 조상들이 있는데 패러컨은 자기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구? 모슬렘 말이야. 모슬렘 교주가 누구라구? 자기 영계의 종주가 돼 있는데 패러컨은 그 종주 다 집어치우고 자기가 해먹을 생각을 하더라구요. 어때? 그런 걸 생각해 봤어? 이 녀석, 고약하게 자기 종주는 왕도 못 해먹었는데 자기는 왕도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안 돼요. 레버런 문을 망치려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정치의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별의별 안다는 사람이 와서 영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한마디 물어 보면 세

마디에 가서 걸려 넘어가요. ‘이 자식, 너 이런 놀음 해먹다 왜 이래?’ 하면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왜 웃어요? 「트루(True; 사실입니다)」! 뭐 또 트루야, 트루? (웃으심)

내가 미국에서 미국 나라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이놈의 도적놈의 새끼들, 내가 미국 행정부처에 가서 그 꼭대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 주면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상원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기다려서 들어오게 되면 인사를 내가 하지 않고 ‘누구나?’ 하고 인사 받을 수 있는 간판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는 것이 무서워요?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세 시간만 기다리면 변소 갈 텐데, 따라가 가지고 ‘이 자식, 너 왜 어깨에 힘을 줘? 어깨가 크구만. 이 어깨 큰 게 누구야? 미국이 망할 텐데...’ 이렇게 농담하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만나 주면 길 가는 것을 받을 걸려 넘어뜨려 가지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것 다 배웠다구요. 사탄세계의 수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알아요. 뭘 해먹고 사는지를 안다구요. 알겠어요?

미국 아줌마들, 미국 아줌마 얼굴 좀 들라구요. 백인 아줌마들 얼굴 좀 들라구요. 저기 아줌마는 지금 뭘 하느라 얼굴 들라는데 왜 안 드나? 잘생겼다! 그 얼굴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구요. 암만 눈을 이렇게 했더라도 눈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놈의 뉘시깔이 왜 저러나? 그 배후에는 무슨 침을 갖고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고 수수하더라도 얼굴을 보게 되면 웃음이 있고 깊은 아름다움이 잠겨 있는 걸 볼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고 코를 갖고... 코가 높다구요. 그놈의 코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미국 사람 코가 낮아져야 돼요. 부처끼리 둘이 키스하게 될 때 코가 높아 가지고 정면 키스 못 하지요? (웃음) 90각도, 45도도 아니고 15도쯤 돼야 키스하더라구요. 그놈의 코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그래요, 입도. 큰 사람이 이렇게 큰 입을 가지고 아이쿠... 또 말은 왜 또 빨리 하는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미국 여자들의 입술이 몇 겹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얼마나 빨리 말을 하는지 몰라요. 히어링 할 때 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빨리 하는 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빨리 하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 하게 되면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얘기 못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형님을 생각하고, 주변의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못 하는 말을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만하면 여러분이 여기 옆에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선생님이 진짜 재림주예요? 나 재림주 제일 싫어해요. 이제 천만 배 복을 주는 이런 자리에 가라고 해도 나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뺨골이 녹아도 그 길을 가기 힘든 길이에요. 나 같은 성격이니 여기까지 왔지 재림주 말도 말라 이거예요.

재림주 해먹겠으면 상속해 줄 터인데 조건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못했다가는 생매장시켜 버린다구요. 동네에서 가만 안 뒹뒹요. 나 미국에 와서 2억6천만 미국 국민이 반대했지만, 이제는 미국 국민 가운데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골짜 골짜 어디 가더라도 레버런 문이라고 하게 되면 뛰쳐나와 가지고 인사하고 사인해 달라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을 알았어요. 남미에 가서도 그렇더라구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눈이 조그마해서 이 눈으로써 헐박해서 그래요? 얼굴이 잘생겨서 유혹을 해서 그래요? 세 시간만 얘기하면 좋거든. 자기 사정을 잘 알아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런 결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결점도 가르쳐 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준다구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도 모르

고 형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니 그걸 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돈이 없다면 자기 지갑에 돈이 많이 없어도... 많이 필요 없어요. '10전짜리 요거밖에 없구만.' 하고 지갑을 털어 주게 된다면 말이에요, 일생 동안 못 잊어요. 그런 것 다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갑에 돈 넣고 다니다가 배고픈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는 그 돈을 써야지요. 나보다 더 배고픈 사정을 아는데... 물이 수평으로 흐르고 싶지 골짜기로 흘러가고 싶어요? 마찬가지로요.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수평으로 해줄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나를 따라오는 모든 물들이 골짜기가 없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물의 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수(王水)가 돼요, 왕수. 왕수라는 것이 뭘 줄 알아요? 이게 백금까지 태워 버려요. 안 태워 버리는 것이 없더군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전술 무기는 오관

오관 무기를 백발백중 백 퍼센트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손 가져서 뭘 해요? 불쌍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말이에요. 산 고개 올라갈 때 누가 구루마(손수레)를 끌고 가게 되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동차에서 내려와 가지고, 벤츠 같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내려 가지고 구루마를 끌고 가는 사람과 같이 땀을 흘려가며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당신과 같이 구루마를 끌고 다녀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벤츠를 싫다고 해도 우리 회사에서 샀으니 할 수 없이 탔지만, 당신을 지나가기 미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잘 가라고, 점심값이나 있느냐고 하고 쥐 보라구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벤츠를 타고 암만 달리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볼 때 ‘저 녀석, 저 못된 녀석!’ 하겠어요? 하나님도 벤츠를 탔으면 나 하는 일을 본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지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전술 무기가 뭐냐 하면 오관이에요, 오관. 눈 가지고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 천만인을 대해서 좋게 하고, 또 코 가지고 좋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하더라도 조금만 냄새나도 흠흠 이래 가지고 일어서서 나가고, 일어설 때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여기 먼지까지 털고 가요, 먼지까지. 그거 쌍년이에요. 살짝 가면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먼지까지 털고 가요. 얼마나 냄새 피우나 보자 이거예요. 여자들은 뭐 1주일 3주일만 안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게? 여자들이 많이 씻고 그래서 그렇지 남자보다 냄새가 더 나요. 남자 방에는 냄새가 난다는데, 남자들은 씻지 않으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냄새나나 보라고요. 여자보다 남자야 간단하지요. 여자는 그 기관에 생리적인 변화가 많으면 이상한 징조가 나오니까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하고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자기 싸 놓은 그 냄새가, 얼마나 쿠린내가 나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라고요.

매일 아침 화장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주일도 목욕 안 하고 화장하겠어요? 몸뚱이 씻고 화장하려고 하니 그렇지요. 자연히 조금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지 근본은 더 더러울 거예요. 왜 웃어요? 그렇지. 남자들은 1년 가더라도 목욕 안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웃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구요. 목욕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래가는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유명한 박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3대 할아버지부터 목욕을 될 수 있으면 남의 3분의 1, 5분의 1 한다는 거예요. 목욕하러 들어갔다 나올 때 겨울 같은 때는 감기 들기 쉬운 거

예요. 그것 알아요? 더운 데 들어가 있다가 찬 데로 나오니까 그 도수를 못 맞추면 감기 들어요. 왜 감기 들 수 있는 놀음을 해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있다가 이불 속에서 잠들 때 으스스 했다가 섬뜩하면 감기 드는 거지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더운 데 있다가, 더운 남미에 있다가 여기 오면 코가 대번에 쫄쫄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웃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와 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 망하게 하고 사기 쳐 가지고 돈 먹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사기 치는 사람까지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좋아 안 하나 하나 보자 이거예요. 사흘 나흘, 일주일만 만나게 되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레버런 문이 예술적인 뉘앙스도 있다구요. 문학적인 소질도 있다구요.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구요.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안다구요.

볼 줄 알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왜 들고 얘기해 줘요? 칭찬 세 가지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 머리를 보게 되면 머리도 좋고 몸을 보면 운동도 잘할 소질이 있는데, 세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하나만 좋으면 네 가지가 좋으면 날아갈 텐데...’ ‘그게 뭐냐?’ ‘아 이고, 알지만 얘기 안 해. 점심 사더라도 안 해준다.’ 이러면 점심만 사줘요? 집에 데려다가 재우면서라도 알려고 한다구요. 그런 거예요. 해보라구요, 그렇게. 왜 남이 싫다는 것을 딱 집어 가지고 얘기해요? 모른 채하면 되지요. 알겠어요?

눈 가지고, 코 가지고, 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도 짹 소리 나는데 말이에요, 아기 뱃 여인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짹 소리 듣게 되면 일어섰다 앉았으면 유산하는 것은 틀림없을 터인데, 자기 남자가 그걸 듣고 놀랐는데 그 여자를 찾아가 붙들어서 가지고 뽀뽀하고 하는 거지요. 이래서 남자들이 백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 가지고 화다닥 했다가 앉아 떨어졌는데, 제일 못생긴 남자가 찾아와서 그럴 때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남자에

요.

얼굴 보고 좋아하지 말고 하는 놀음을 봐 가지고 누가 전체를 위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남자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만민 여자들은 다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오관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녀석들은 다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선의의 이용물이 된 선생님

오늘 내가 갈 길이 바빠 가지고, 생일 축하하기 위해 빨리 가려고 하다가 혼독회 시간 외에 하나님의 전술 전략무기가 뭐냐고 얘기했는데 잘 알아 뉘요. 알겠어요? 「예.」

내가 어디 가 가지고 자랑하려고 안 해요. 세상에 자랑하려면 나같이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한푼 없어도 천만 달러를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만들 수 있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언론기관을 통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들이죄기게 되면 왈가닥 왈가닥 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구요. 내가 주동문한테 그런 명령을 안 하니 그렇지. 그게 좋은 주인이지? (웃으심)

정말이라구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도 못 하고 있어요. 세상 같으면 뭐 뉘달하고 별의별 짓 다 할 터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못 하지만 말이에요, 자기 한계에 있는 이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큰 성과를 남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결점만 가지고 사람 평가하나요? 좋은 것을 칭찬하고 결점은 내가 시정해 주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오지 말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국 여자분들?

너나없이 어디 가더라도 으스대는 통일교인들이 돼 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척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실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어깨에 힘 줘 가지고 뭐 돈이 생겨요? 가게 되면 다 ‘그 녀석 거만스럽다.’ 이러지요.

오관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해줘라 이거예요. 또 누가 말하게 되면 잘 들어 줘라 이거예요. 잘 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잘 봐 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좋고 한 가지는 고치라고 하면 다 순응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 없어요. 꿈에도 없더군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판국에 돈이 생겨서 그래요? 돈 얼마 썼나, 이번에? 「아직 계산은 못 했습니다만 150만 달러 예상합니다.」 그것도 165만 달러 계획한 것에서 15만 달러를 내가 처음으로 깎았어요. 야, 배포들도 좋아요. 이틀 동안에 2백만 달러 돈을 써 버리겠다고 그래요. 돈 백만 달러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희생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했다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과 더불어 자기들은 유명해지는 거라구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이용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의 이용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랏님은 그 백성의 이용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의 이용물이 돼야 돼요. 악이 아니라 선의의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주인은 망하지 않아요. 역사와 더불어 역사를 품고 살게 되어 있지 역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저께도 미국을 위해서 내가 30년 고생해 가지고 제일 원수의 나

라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가 그러냐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환경에 영향 주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주체 아니면 대상의 가치를 심고 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든 것이, 그 대상이나 실체권이 이뤄지면 환경 자체가 그 가치의 기준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들이 고생하고 다 이뤘지만, 고생한 여러분은 선생님이 유명해지면 선생님 대신 유명한 자리에 서서 선생님 대신 대우를 하면서, 의논을 직접 선생님에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찾아가서 의논하려고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총칼을 가지고 영원한 역사를 건설 못 해

내가 누구를 총칼을 가지고 다니며 협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진이가 피스톨(pistol; 권총)을 연구해 가지고 1년에 몇천 정을 팔지만 말이에요, 그거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내가 테이블 위에도 내놓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치리 못 해요. 그것 가지고 영원한 역사를 건설 못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일생의 자세를 중심삼고 그 사람이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말없이 가더라도, 뒤에 누가 따라가 가지고 저녁때 되면 저녁을 사주겠다고 지갑을 추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점심때면 안 먹고 가게 되면 따라오다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말이에요, 잘 때는 피난생활처럼 강가에 자겠다 해도 호텔 방을 안내하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 미국 간나들도 선생님 한번 초대하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 여자들! 너희 집에 선생님 한번 초대하고 싶어? 「예스.」

너희 신랑 쫓아 버리고 네 아들딸하고 셋이서 한번 만나자 하면 만나겠어?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무슨 나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신랑이 필요치 않은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랑이 같이 있었다가는 선물을 여편네에게 주게 된다면 득달같이 ‘왜 나를 주지 여편네를 주노?’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럴 때는 ‘야야, 신랑 집어치우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신랑을 집어치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크리스(목걸이)를 사다가 싹 걸어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반지 같은 것 다이아몬드 한 5캐럿짜리를 갖다 끼워 주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좋지요.」 좋을 게 뭐야? (웃음)

그런 것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수고했다고 이런 기념품을 줬으니, 당신이 이것을 보관했다가 당신의 딸이 시집갈 때 예물로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숨겨 가지고 ‘내 것이다!’ 이러지 말고, 어머니 주기 위해서, 시어머니 주기 위해서 샀다고, 당신이 관리했다가 어머니 주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이 전술적인 방법도, 외교 방법도 다 알아야 된다고요. 눈이 새빨개 가지고 ‘내 것이다!’ 하지 말고 말이에요. ‘내 것’의 ‘내’는 연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삼고 좋아하는 것은 날아가는 물건을 좋아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서양 여자들이 그래요. 미국 여자들 손 들어 봐요, 미국 여자들. 너희 집에 가게 되면 저녁밥이라도 해주겠어? (웃음) 점심밥 해줄래? 아, 물어 보잖아?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하고, 매달 하게 되면 ‘아이고, 매달 하는 것은 싫고 1년에 한 번이면 좋겠다.’ 그럴 거라고요. 미국 여자들이 그럴 거라고요. (녹

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입의 주인이 돼서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입의 주인이 나입니다. 코의 주인이 나입니다. 눈의 주인이 나예요. 귀의 주인이 나예요. 손의 주인이 나인데 어떤 나예요? 어제 참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래, 통일교회에 들어와 보면 말이에요, 통일교회 사람들은 다 싫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좋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만나 가지고 ‘이 녀석 옛날에 통일교 충신이더니 왜 그만뒀어?’ 하면 ‘지금까지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개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무개가 무슨 문제예요? 이웃 동네 사람들이 무슨 문제예요? 그래, 선생님을 다 좋아해요? 「예.」 여기 여자들만, 선생님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손 들라구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지요.」 (웃음)

진짜라 할 때는 양손을 들어 보라구요. 오늘 그러면 선생님 말 무슨 말이든 듣겠어요? 「예.」 오늘 시집을 다시 보내 주면 시집갈래? (웃음) 모르잖아요? 내리라구요. 소련 나라를 하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시집보낼 수 있는 정략결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보내 줬으면 그 아들딸을 중삼삼고 3대하고 10대쯤 돼 가지고 복을 빌어 주면 말이에요. 그것도 다 선을 남겨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원수를 테러를 했으면 테러 당한 후손들이 볼 때, 그걸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잘 먹여 살리겠다고 노력한 사실은 테러를 행한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여유만만한 인생 길이에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좋아해요? 내가 남자니까 선생님에게 한번 사랑 받기 위해서 좋아해요? (웃음) 무엇 때문에? 이 세포가 그래요, 세포가. 교회에 안 가면 다리가 가요. 통일교회는 그런 뭐가 있대구요. 안 가려고 해도 발이 가요. 와서 보니 선생님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무엇이 그럴꼬? 왜? 천운이 그래요. 그걸 내가 이용해 먹지 않아요, 보호하려고 그러지. 알겠습니까, 미국 여자 선생님들? 「예.」 똑똑히 알라구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들딸을 못사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돼요. 못사는 백인세계가 아니라 흑인세계 사람들과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 후손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 좋다는 여자들은 말이에요, 필요하게 된다면 싸움하지 말고 스커트든 밧이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구요. 그러면 열 사람밖에 안 될 거라. 가져가는 걸 보고 좋아하고, 없으면 내가 한 3배 이상 사다 놓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랑이 귀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만 쫓겨나는 거예요. 열 사람을 위한다면 다 쫓겨나더라도, 아홉 사람이 쫓겨나도 나는 남아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했어요.

선생님을 만났던 사람은 문 선생은 평민과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습관이. 알겠습니까, 미국 여자들? 여러분은 머리칼 브라운 컬러를 새까만, 중동 사람처럼 새까만 머리로 해요. 미국 국민이 전부 브라운 컬러를 중동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새까맣냐?’ 하면 ‘아이고, 중동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중동 사람이 와서 생일날 축하할 때면 브라운 컬러를 새까만 머리로 하고, 색깔 없는 사람은, 백인 사람 생일을 축하하면 브라운 컬러를 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동네방네 싸움 안 해요. 컬러를 마음대로 물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평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싸움만 하고 살지요. 알

싸, 모를싸?

만약 여러분 집에 선생님이 가서 밥 해 달라고 하면 밥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미국 여자들이 우리 어머니보다도 훌륭해지기를 바라요. 어머니가 매일 와서 밥 해 달라면 밥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적 사랑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남편을 어머니 이상 모시고, 남편을 어머니 이상 기쁘게 해주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선생님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록한 그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보라구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싫다는 간나들은 지옥 가야 돼요.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축복해 주었으면 해와가 남편을 싫어했겠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보호하라고 그러겠어요, 기합을 줘서 고치라고 그러겠어요? 꼬불꼬불 꼬부라지면 힘있는 남자가 쇠말뚝을 박아 바로잡아 줘야 되겠어요, 그걸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바로잡아 줘야 돼요. 듣기 싫어도 바로잡아 줘야 돼요.

너는 여기 왜 왔나? 신랑도 버리고 와 앉았나? 「오늘 갈 거예요.」 응? 「가려고 하다가 아버님 뵙고 싶어서 들러서 가려고요.」

알겠어요, 오관 무기?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욕 먹고 기분 좋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구요. 형님이 그러면 좋고 아버지가, 나라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느냐고 한번 그래 봤다.’ 그러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젠 또 뭐야? 「마이크가 안 들려서요.」 안 들리면 들은 사람에게 들어 보라구. 그거 대단치도 않은 말이야. 자! (양창식 회장 훈독 계속)

곽정환, 어저께 대회 책임자로서 총평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신광이 생일 기념하자구. 5분이라구. 얼마야? 「여덟 시 넘었습니다.」 여덟 시 넘었어? 여덟 시 5분이면 아홉 시도 안 되었는데 뭐. 길게 안 해도

괜찮아. 여덟 시 반까지만 해요. 이거 평가해야 된다고요, 평가. (곽정환 회장이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2001 총회’에 대해 보고) 훈독회 폐회 기도하라구. (곽정환 회장 기도)

여러분은 이제 천국 다 같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선생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가는 데 따라가야 할 텐데 얼마나 따라가겠나 이게 문제라구요.

자, 어머니! 「오십니다.」 결론이 그거라구요. 「아버지, 결국은 자네요, 안 재우려고 했는데. (어머님)」 (웃음) 내가 깨울게, 내가 깨울게. 가져오라구, 가져오라구. (신광님 탄생 103일 기념식)

<기 도> (앞부분은 녹음돼 있지 않음)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축하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전세계에 널리시어서 이 날을 마음으로 두고 미리 미리부터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 일률적인 축복의 은사를 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축복의 은사가 천지에 이와 같은 자녀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의 세계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는 개문의 역사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신광의 103일 축복의 기념을 대신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오면서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참어머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은 현진 가정에 일곱 번째로 보내 주신 신광 아기의 103일을 앞당겨서 축하하는 날이 되옵니다. 아버지, 이 아기를 기억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묶어서 함께 이 자리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아들로써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의 모든 절차를 아버지 앞에 감사히 보고 드리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나이다! 아멘!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56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